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4호 2024. 6

차례

특집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역사적 성격

여호규 ■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활용 방안 7

강현숙 ■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 59

김중은 ■ 고구려 초기 직석묘의 분포 양상과 축조방식에 관한 검토 93

정동민 ■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공간적 분포 147

논문

정천구 ■ 중국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181

심호성 ■ 오이라트의 역사에 대한 중국과 몽골의 인식 차이
- 또 다른 역사 갈등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여 219

김현철 ■ 19세기 후반 니가타의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 271

민희수 ■ 개항 이후 최혜국대우 조항의 조약 내 삽입과 반영 추이 311

이현우 ■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와 그 영향 353

윤휘탁 ■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과 뉴페러다임 383

서평

양정필 ■ 조공 관계하의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를 논하다

- 『인삼과 국경』(김선민, 사계절, 2023) 429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4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Current status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guryo Remains in China**

- Yeo Hokyū ▮ Research Status and Utilization of Koguryo Remains in China 7
- Kang Hyunsook ▮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guryo Tombs in China 59
- Kim Jongeun ▮ Review on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Construction Method of Early Koguryo Stone Mound Tomb 93
- Jung DongMin ▮ Spatial Distribution of Koguryo Fortresses i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Amnok River 147

Articles

- Jung Chunkoo ▮ A Study of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in China and Their Historical Aspects 181
- Shim Hosung ▮ Historiographical Discrepancies over Oirad History between Chinese and Mongolian Academia 219
- Kim Hyunchul ▮ The Opening of Niigata Port and the Foreign Settlements in the Late 19th Century 271
- Min Hoisoo ▮ The Insertion and Reflection of the Most-Favored-Nation(MFN) Treatment Clauses in the Treaties of Korea after 1876 311
- Lee Hyunwoo ▮ Archaeological Research of China by Western Scholar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It's Influence to Chinese Archaeology 353
- Yoon Hwytak ▮ China's Mt. Baekdu Tourism Policy and New Paradigm 383

Book Review

- Yang Jeongpil ▮ Discussing the 'borderland' between Qing Dynasty and Joseon under Tributes Relations 429

특집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활용 방안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

III.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완간과 활용 방안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종래 ‘만주’라 불리던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은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한국사를 체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학자, 1950년대 이후에는 중국학자들이 주도했다. 20세기 전반에 이들 유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한국학자는 거의 없었고, 해방 이후에는 남북분단과 냉전체제로 인해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한국학자들도 이 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접근할 길이 열렸지만, 중국의 규제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한국학자들로서는 종래 일본학자나 중국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각종 조사보고서나 연구 논저는 여러 간행물에 산재하거나 절판된 경우가 많아 연구자나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자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종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물론 종전에도 국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관련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종전 작업은 대부분 일부 지역이나 유적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2007년부터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집대성하는 DB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 투고: 2024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대행기획충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KSS-1120010).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본 연구팀도 각종 조사보고서와 연구 논저를 정리하여 DB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과제를 2007~2016년에 10년간 수행했다. 다만 본 연구팀이 정리한 기초자료를 DB로 구축한 결과, ‘역사적 성격’과 같은 종합적인 서술 내용을 DB로 전환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8월 25일에 개최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 정리 현황과 활용 방안” 워크숍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 종료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을 권유했고, 본 과제의 결과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단행본 출간 필요성이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에 2018년부터 DB 구축용 기초자료를 재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 2022년에 완간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이다.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고고조사 성과를 총망라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고구려사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나아가 각종 콘텐츠 제작과 고구려 박물관 건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해 국민의 역사 인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을 총괄하여 살펴본 다음,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출간 과정과 활용 방안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¹

1 소개할 주요 참고문헌이 너무 많아 본문에 저자와 간행 연도만 간략히 밝혔다. 각 유적에 관한 참고문헌은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엮음, 2020a~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Ⅶ~Ⅹ, 동북아역사재단; 2021a~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Ⅰ~Ⅱ, 동북아역사재단; 2022a~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Ⅲ~Ⅵ, 동북아역사재단의 ‘참고문헌’ 항목 참조 요망.

II.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²

1. 20세기 전반 일본학자의 조사 현황

1880년경 광개토왕릉비가 재발견되면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다만 초창기 조사는 일본학자들이 주도했다.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8~12월에 만주 주둔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요동반도 일대를 답사했는데, 이때 봉성(鳳城) 봉황산성(鳳凰山城) 일대를 조사했다. 도리이 류조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에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주도로 결성된 만주지역 유적 조사단에 참여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했다. 이때 도리이 류조는 무순(撫順)에서 혼하(渾河)~소자하(蘇子河) 유역을 경유해 고구려 도성인 환인(桓仁)·집안(集安) 일대로 들어가서 광개토왕릉비, 태왕릉과 함께 오녀산성, 국내성지, 산성자산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사진을 남겼다(鳥居龍藏, 1906; 1910a·b; 1914).³

이 무렵 일제(日帝)는 두만강 유역의 고구려 유적도 조사했다. 일제가 1906년에 지금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임시간도파출소(臨時間島派出所)를 설치한 다음, 이 일대의 고적과 유물을 조사한 것이다. 도리이 류조와 도리야마 기이치(鳥山喜一)가 혼춘(琿春), 화룡(和龍), 연길(延

-
- 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에 대한 종합정리는 강현숙, 2013, 『고구려고분 연구』, 진인진, 22~57쪽;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8~17쪽;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44쪽;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5~44쪽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앞의 책에서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 적석묘 연구의 기초를 놓은 정찬영의 논문이 발표된 1973년, 첫 번째 고구려 고고학 개설서인 魏存成의 저서가 출간된 1994년을 기점으로 고구려 고고학 연구사를 네 시기로 구분했다.
 - 3 鳥居龍藏은 1909년에도 關東都督府의 촉탁을 받아 遼東半島에서 松花江 유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조사했지만, 고구려 유적을 조사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鳥居龍藏, 1910a, 『南滿洲調査報告書』(1976, 『鳥居龍藏全集』 10, 朝日新聞社: 재수목)].

吉), 용정(龍井), 둔화(敦化) 등의 유적을 조사하며 도문 성자산산성, 혼춘 온트 혁부성, 혼춘 영성자고성, 용정 수남촌고분군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鳥居龍藏, 1908·1912), 1910년에 발행한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 기요(紀要)의 고적 항목에 도문 성자산산성이 소개되었다. 한편, 1907년 5월에는 프랑스의 에두아르 샤반느(M. Ed. Chavannes)가 집안에 5일간 머무르며 광개토왕릉비와 함께 장군총, 태왕릉 등의 고분을 조사했는데, 처음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산연화총: 우산하1896호)을 발견하고 서구학계에 보고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서길수, 2007).

일본학자의 본격적인 고고조사는 1909~1910년과 1913년에 이루어졌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조선총독부의 의뢰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구리야마 준이치(栗山俊一), 이마니시 류(今西龍)⁴ 등을 이끌고 통구분지(通溝盆地: 集安盆地)의 고분과 성곽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들은 1909~1910년에는 장군총, 임강총, 우산하992호분, 오희분 1-4호, 산연화총, 삼실총 등 고분을 주로 조사했다. 1913년에는 우산하고분군과 산성하고분군의 벽화고분을 조사하는 한편,⁵ 광개토왕릉비, 산성자산성(환도성), 국내성지(통구성), 동대자 유적을 조사하고 실측도를 작성했다(關野貞, 1913·1914·1941; 朝鮮總督府, 1915). 특히 국내성지의 경우 중화민국 정부가 1920~1930년대에 성곽을 수리하고 성문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1913년에 세키노 다다시 일행이 작성한 실측도는 성곽의 원형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키노 다다시는 1917년에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평안북도 위원과 초

4 今西龍은 1913년 조사에만 참여했고 주로 광개토왕릉비 조사를 담당했다.

5 이때 조사한 고분은 우산하고분군의 將軍塚, 太王陵, 臨江塚, 溫和堡西大塚(우산하2110호묘), 溫和堡中大塚(우산하992호묘), 五盔墳 龜持塚(서강110호묘: 우산하2349호), 五塊墳 二·三塚(오희분1-5호묘), 四塚(사회분1-4호묘), 五道神塚, 三室塚, 散蓮花塚, 산성하 고분군의 龜甲塚(산성하1304호), 美人塚(산성하1296호), 兄塚(산성하635호)과 弟塚(산성하636호), 折天井塚(산성하1298호), 四阿天井塚, 마선구 고분군의 千秋塚, 西大塚 등이다.

산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그 맞은편에 위치한 대고력묘자(大高力墓子) 고분군을 비롯해 소고력묘자(小高力墓子), 유수림자(楡樹林子), 지구(地溝), 태평구(太平溝), 외차구(外岔溝), 고마령(古馬嶺) 등의 고분군을 조사했다(關野貞, 1920). 도성 이외 지역에 분포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였는데, 특히 대고력묘자고분군의 경우 주요 고분의 실측도와 함께 고분의 유형을 이실총, 무개총, 고총, 석곽노출총, 대총, 삼실총 등 6종류로 나누어 전체 분포도를 작성했다(關野貞 외, 1929).

1920년대에는 요동평원 일대의 고구려 성곽이 다수 조사되었다. 1926년에 시마다 고노미(島田好)가 해성(海城) 영성자산성(英城子山城)을 답사하고 고구려 안시성으로 비정했고, 개주(蓋州) 고려성산성(高麗城山城)도 답사했다(島田好, 1927). 1927~1928년에는 야기 쇼자부로(八木獎三郎)가 요하 유역의 유적을 조사하며 해성 영성자산성, 개원(開原) 용담사산성(龍潭寺山城)을 답사하고 단행본을 발간했다(八木獎三郎, 1928). 1928년에는 일본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와 관동청박물관(關東廳博物館)이 대련(大連) 목양성(牧羊城)을 조사하고 1931년에 단행본(『牧羊城』)을 발간했다.

1930년대부터 일본의 만주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일본학자들의 조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1935년 5월에 이토 이하치(伊藤伊八)와 마야케 도시나리(三宅俊成)가 괴뢰 만주국(滿洲國) 문교부의 촉탁으로 광개토왕릉비 보존 현황 파악과 탁본 제작을 목적으로 집안지역을 조사하다가 무용총과 각저총 등 벽화고분 2기를 발견했다. 이에 만주국 문교부에 조사를 건의했는데,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가 고사쿠 하마다(濱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미즈노 세이이치(水野清一), 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⁶ 등을 이끌고 1935년 9월 28~30일과 1936년 9월 30일~10월 4일에 대대적으로 조사했다.⁷ 이들은 광개토왕릉비, 국내성지, 산성자산성을

6 藤田亮策과 小場恒吉은 1935년, 水野清一과 三上次男은 1936년 조사에만 참여했다.

조사하고 실측도와 사진 자료를 남겼다. 또 벽화고분에 대한 실측과 모사를 진행했는데, 800여 자에 이르는 모두루묘지의 판독문도 남겼다(藤田亮策, 1936a·b; 池内宏, 1938; 梅原末治, 1939·1944; 池内宏·梅原末治, 1940; 藤田亮策·梅原末治, 1966). 대륙침략이라는 불순한 목적으로 진행된 조사였지만,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37년에는 구로다 겐지(黒田源次)와 사이토 기쿠타로(齋藤菊太郎)가 통화(通化)-집안(集安) 철로부설 계획에 따른 구제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⁸ 1938년 4월에도 후지타 료사쿠가 노모리 겐(野守健), 사이토 다다시(齋藤忠)와 함께 철로부설 예정지의 고분에 ‘서강(西崗) 몇 호’라는 번호를 부여해 실측도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했다(藤田亮策, 1940·1948).⁹ 한편, 마야케 도시나리는 1935년에 이어 1942년에도 만주국의 촉탁으로 집안지역 유적을 조사했고, 1945년에는 관동군의 긴급 명령에 의한 집안 비행장 확장공사로 유적이 파괴되는 상황을 시찰하여 온화보서대총(우산하2110호묘), 서강110호묘(우산하2349호?: 有龕塚) 등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三宅俊成, 1935·1944·1975).

1930년대에는 지방의 성곽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33년에는 무순(撫順) 도서관장이던 와타나베 산조(渡邊三三)가 무순 고이산성(高爾山城: 北關山城)을 발견했고, 1935~1938년에는 무순 노동공원고성을 발견하고 유물을 채집했다(渡邊三三, 1933·1940; 渡邊三三·齋藤武一, 1939). 1937년에는 이나

7 1935년에는 국내성지, 산성자산성, 광개토왕릉비, 장군총, 태왕릉, 임강총, 천추총, 서대총, 오괴분, 삼실묘, 산연화총, 사신총, 귀갑총, 무용총, 각저총, 환문총, 모두루총 등, 1936년에는 국내성지, 산성자산성, 광개토왕릉비, 환문총, 모두루총, 태왕릉, 장군총, 천추총, 서대총, 임강총, 무용총, 각저총, 삼실묘, 서강122호분, 사신총, 서강62호분 등을 각각 조사했다.

8 이때 통구12호분(쌍실묘; 마조총), 오희분5호묘, 우산하3319호묘, 서강110호묘(우산하2349호?: 통구12호분 서쪽 고분), 우산하3340호를 조사했다.

9 이때 西崗南大石陵(우산하2110호), 서강110호묘(우산하2349호?: 有龕塚), 서강229호(무용총 북쪽 360m), 우산하3340호, 우산하3341호 등을 조사했고, 태왕릉에 대한 실측도 진행했다.

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신빈(新賓) 영릉진고성(永陵鎮古城)과 비아랍성(費阿拉城: 二道河子舊老城)을 발견했다(稻葉巖吉, 1939). 특히 1940년대에는 만주국의 지원 아래 무순 고이산성, 신빈 영릉진고성, 비아랍성을 발굴하거나 조사하고, 이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보고서를 간행했다(高橋匡四郎, 1941; 三上次男·田村晃一, 1993). 다만 이 시기 일본학자의 조사는 무순 고이산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성곽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리고 1943년에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1944년에는 미카미 쓰기오가 집안을 비롯하여 환인·통화 일대를 답사하고 조사했는데, 특히 미카미 쓰기오는 요동평원의 백암성(白巖城)과 심양(瀋陽) 탑산산성(塔山山城)도 답사하고 조사기록을 출판했다(三上次男, 1938·1946·1947·1990).

도리아마 기이치와 후지타 료사쿠는 1937년에 만주국의 지원을 받아 간도성(間島省: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의 도문 성자산산성, 용정 동흥고성(東興古城), 용정 토성둔고성(土城屯古城), 혼춘 영성자고성(營城子古城), 용정 수남촌 고분군(水南村古墳群: 적석묘와 봉토묘 분포)과 수남수칠구사지(水南水七溝寺趾) 등을 조사했는데(鳥山喜一·藤田亮策, 1941), 수남수칠구사지는 지방에서 처음 조사된 사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정 편검산성(偏臉山城)도 조사했는데, 태평구산성자(太平溝山城子)라 칭하며 금대(金代)의 성곽으로 추정했다. 만주국 민생부에서는 교하 신가고성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했고(山本首, 1938), 1942년에 사이토 진베이(齋藤甚兵衛)가 혼춘 영성자고성에서 건물지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편, 20세기 전반에는 일부 중국학자가 고구려 성곽을 조사하기도 했다. 가령 1920년대에는 웨이성화(魏聲穌)가 혼춘 일대의 고성을 조사하면서 현재 연변 장성의 일부인 혼춘 장성을 변호(邊濠)로 기록했다(魏聲穌, 1931). 또 리원신(李文信)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길림(吉林) 용담산성(龍潭山城)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다(李文信, 1937·1938).

이상과 같은 조사로 당시까지 잔존하던 고분이나 성곽 등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벽화고분을 비롯한 여러

고분과 환인 오녀산성, 집안 산성자산성, 국내성지 등의 실측도를 작성하고, 많은 사진 자료를 남겨 초창기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기획편집위원회 편, 2009;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 2014). 다만 이 시기 일본학자의 조사는 도성 유적에 집중되고, 관심도 광개토왕릉비나 벽화고분에 편중되었다.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고고조사가 본격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 20세기 후반 중국학계의 조사 현황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괴뢰 만주국도 소멸되고, 만주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이로 인해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중국학자들이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고고조사를 주도하게 되었다(方起東·林至德, 1984; 耿鐵華, 1993; 魏存成, 1994). 20세기 후반 중국학계의 조사 현황은 대략 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1990년대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1950년대의 조사 현황

1950년대의 고고조사는 크게 성곽과 고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계기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성곽의 조사 현황을 보면 학술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길림성 정부가 1952년에 길림시교구(吉林市郊區)의 문화유적 16곳을 조사하며 길림 동단산성과 용담산성을 조사했다. 1956년에는 리원신이 동북인민대학(東北人民大學: 지금의 吉林大學) 역사과 학생과 함께 동단산성과 용담산성 등지에서 유물을 채집했다. 1958년 가을에는 용담산성 저수지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토기와 철제 솥 등의 유물을 다량 출토하기도 했다(董學增, 1986).

1957년 5월에는 길림성 문관회(文管會)가 휘남현(輝南縣) 문교과(文教科)와 함께 휘남 휘발성을 조사하여 석기, 토기, 기와 등을 출토한 바 있다. 또 1960년에는 통화지구 문물조사대가 휘발성을 조사하여 석기, 골제 화살촉, 철제 칼과

칼집, 동전 등을 출토한 바 있다. 1958년에 연변대학이 도문 성자산산성과 연길 하룽고성을 조사하여 망격문(網格文) 암기와, 토기, 철제 술 등을 채집하고 고구려 유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고분 조사는 댐건설이나 시가지 조성에 따른 구제 발굴조사의 성격이 강했다. 가령 1956년 4~5월에 환인댐 건설에 따라 환인현 경내 9개 향, 31개 촌락을 조사해 총 750기의 고분을 발견했다. 이때 환인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에서 240여 기에 이르는 대규모 고분군을 확인했다. 이에 동북박물관(길림성박물관 전신) 문물공작대가 1958년 6월, 1958년 10~11월, 1959년 3월 26일~5월 3일 등 3차에 걸쳐 고력묘자촌과 연강촌(連江村) 일대의 고분 44기를 발굴 조사하여 적석묘와 봉토석실묘의 형식 분류와 관련한 중요 자료를 확보했다(陳大爲, 1960). 1956~1957년에는 무순 대화방(大伙房)댐 수몰지구의 와혼목고분군(窪渾木古墳群: 봉토석실묘 2기)과 전둔고분군(前屯古墳群: 봉토석실묘 17기)을 조사했다. 와혼목2호묘에서 시유도기(施釉陶器), 전둔13호묘에서 시유호가 출토되었고, 청동제 장식품도 출토되었다(王增新, 1964).¹⁰

또 1960년에는 본계소시(本溪小市)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본계진묘(本溪晉墓)’라고 불리는 봉토석실묘가 발견되었는데, 고구려 토기, 철제 재갈, 금동장식, 금팔찌와 금귀고리 등이 출토되었다(遼寧省博物館, 1984). 무덤 계통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집안 우산하41호분이나 만보정78호묘에서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면서 고구려계 무덤으로 보는 견해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1986년에도 본계소시 중심가에서 ‘본계진묘’와 구조가 유사한 봉토석실묘 2기를 조사했는데(齊俊·丁曉強, 1997; 齊俊·梁志龍, 2001; 武家昌, 2005), 고구려의 태자하 유역 진출이나 지방제도 정비와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밖에 1956년과 1959년에는 동화의 강구고분군(江口古墳群: 24기 조사), 강연고분군(江沿古墳群: 30여 기 확인), 동강고분군(東江古墳群: 24기 확인, 6기

10 전둔7호묘는 고구려 말기나 발해 고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강현숙, 2009, 「고구려 고지의 발해고분」, 『한국고고학보』 72).

조사: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1960)을 조사했다. 그리고 1958년 8월에는 유하의 색수배고분군(色樹背古墳群: 100여 기 확인, 1기 조사: 『柳河縣文物志』), 1960년에 임강 동전자고분군(東甸子古墳群: 백 수십 기 확인: 『渾江市文物志』) 등을 조사했다.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종 개발로 고분군이 훼손되기 이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¹¹

2) 1960~1970년대의 조사 현황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따라 댐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와 농지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고구려 고분의 발견 사례가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구려 유적에 관한 고고조사의 비중도 점차 성곽에서 고분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960~1970년대의 고고조사 현황을 통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60~1970년대에 성곽 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에 제1차 전국 문화재 조사 차원에서 길림지구의 문화재를 일제히 조사하여, 길림 용담산성을 비롯하여 삼도령성자산성(三道嶺子山城), 동단산성, 영길 토성자산지와 표올하산성(漂兀河山城), 교하 남법성지(拉法城址) 등을 고구려 성곽으로 확정했다. 이때 무송현 문물조사대가 대방정자성(大方頂子城)을 조사하여 고구려 고성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1962년에는 길림시 문화국이 북한이 참여한 중조연합고고조사대(中朝聯合考古調查隊)를 안내하여 용담산성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1963~1964년에는 길림성박물관과 연변박물관이 도문 성자산성과 하룡 고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11 통화 江沿고분군과 東江고분군의 잔존 고분은 1985년에 각기 11기와 6기(『通化縣文物志』), 유하 色樹背고분군은 1984~1985년 70여 기(『柳河縣文物志』), 임강 東甸子고분군의 잔존 고분은 1984년에 60여 기, 2004년에 35기로 각각 줄었다(『渾江市文物志』; 王洪峰, 1988, 「臨江電站庫區古遺存調查綜述」, 『博物館研究』 1988-3; 孫仁杰·遲龍·張殿甲, 2004, 「鴨綠江上流右岸考古調查」, 『東北史地』 2004-5).

1962년에는 집안 노령산맥(老嶺山脈) 일대의 산성과 관애(關隘)를 조사하여 고구려 도성의 방어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고고자료를 제공했다(方起東, 1962;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외, 1964). 일본학자들과 함께 요동지역 유적을 조사한 바 있는 리원신은 1962년에 기존의 조사성과와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요령사적자료(遼寧史迹資料)』를 편찬했는데(李文信, 1962), 이 책은 중국학자들의 조사·발굴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1975년 5월~1977년 5월에 이루어진 국내성지 조사는 본격적인 고고발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안현 문물보관소(文物保管所)가 국내성지의 전체 현황을 조사하고, 남벽 5곳(T1-T5), 동벽 1곳(T6), 북벽 2곳(T7, T8), 서벽 남단 2개(T9, T10) 등 총 10곳의 성벽단면을 발굴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성의 축조시기와 축성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고자료를 확보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4a). 시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성지 내부에서 건물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1963년에는 국내성지 동남부에서 목욕탕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물터를 발견했고, 1971년에는 운동장 서쪽에서 굴착 작업 중 건물터를 발견했으며, 1975년에는 집안현 청사 건물을 건축하던 중 건물지를 발견했다.

상기와 같이 1962년 노령산맥 일대의 성곽 및 1975~1977년의 국내성지 조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성곽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1960~1970년대 댐건설, 농지 개간, 시가지 조성 등과 더불어 고분에 대한 조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가령 1963~1964년에 북한·중국 합작으로 운봉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몰 예정지인 집안 양민(良民), 추피(秋皮), 석호(石湖), 화피(樺皮) 등 21개 고분군, 2,753기의 고분을 조사했다. 또 양민, 이도구(二道溝), 묘옹구(貓鷹溝), 적대(適臺), 석호왕팔발자(石湖王八脖子), 이마구(二馬駒) 등 6개 고분군의 고분 76기를 발굴하고 유물 228점을 출토했다.¹² 고구려 적석묘에 대한 본격적인 조

12 이때 북한은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법동리, 송암리 등의 고분군을 조사했다(정찬영, 1963,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법동리, 송암리, 고구려 고분발굴 보고」, 『고고

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양민고분군에서 170여 기를 조사했는데, 양민 168호, 73호묘, 74호묘 등의 도면이 공개되면서 적석묘 형식 분류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고(李殿福 1980; 方起東 1985),¹³ 이를 통해 계단(階段)과 구분되는 ‘계장(階牆)’의 출현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集安縣文物志』).

1977년에는 노호초(老虎哨)댐 건설을 위해 상활룡고분군(上活龍古墳群: 적석묘 3기, 계단적석묘 5기, 봉토동실묘 6기 등 총 14기)과 하활룡고분군(下活龍古墳群: 적석묘 34기)을 조사했다. 상활룡고분군에서는 연화문와당, ‘강(岡)’자명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무기단적석묘인 하활룡8호묘에서 환두도, 도끼, 낫, 띠고리, 화살통 등 철제품이 대거 출토되어 적석묘가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4c). 1981년에는 노호초고분군을 조사하여(17기 중 12기 조사), 봉토묘로만 구성된 고분군의 존재를 확인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4d).

한편, 1971~1974년에 도굴에 따른 구제 발굴로 환인 망강루고분군(望江樓古墳群)을 조사했는데(梁志龍·王俊輝, 1994), 고구려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¹⁴ 1970~1972년에는 장천(長川) 1호분과 2호분을 조사했다. 특히 장천1호분은 집안분지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백회기악도 등 다양한 생활풍속계 벽화가 확인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陳相偉·方起東, 1982). 장천 2호분도 ‘왕(王)’자와 권운문으로 이루어진 장식무늬계 벽화가 확인되었는데, 연화문와당과 함께 비단조각, 옷칠한 목령패편(木靈牌片) 등 유기물질이 다수 출토되었다(吉林省文物工作隊, 1983).

학자료집』 3, 과학원출판사; 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5).

13 方起東(1985)은 양민 76호, 23호, 72호, 31호, 97호, 30호, 74호, 92호분을 분석해 積石墓-方丘式積石墓-有基壇積石墓-方壇積石墓-基壇積石墓 등의 적석묘의 형식 변천을 제시했다.

14 2004년에 望江樓고분군 6기를 조사했다(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그 밖에 1970년대 고분 조사에 특기할 점은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한 중요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70년에 석퇴 석관묘인 관전(寬甸) 포자연(泡子沿) 청동단검묘, 1975년 석묘로 추정되는 관전 조가보자(趙家堡子) 청동단검묘, 1978년에 석관묘인 관전 사평가(四平街) 청동모묘 등이 조사되었는데, 고구려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許玉林·王連春, 1984). 1978년에는 도로 공사 중에 발견된 집안 오도령구분(五道嶺溝門) 고분을 조사했는데, 동검과 동모 등 청동기가 다량 부장되어 있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조사자가 방단계단적석묘로 보고함에 따라 적석묘의 기원이나 계단적석묘의 조영시기와 관련해 많은 논란을 초래했는데, 현재는 계단적석묘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¹⁵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조사성과는 고구려 두 번째 도성인 집안분지의 통구고분군에 관한 체계적인 연차 조사이다. 1956년에 집안현 문체과가 통구고분군을 전면 조사하여 채소 구덩이나 창고로 사용되던 고분을 조사하고, 벽화고분의 출입문을 수리하고 봉토를 덧씌우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1958년에 집안현박물관이 세워지고, 1960년에 길림성이 1차 문물조사를 시행하면서 집안현 경내의 유적도 전면 조사했다. 이를 통해 1961년에 광개토왕릉비를 포함해 통구고분군이 중국 제1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고, 이해 9월에 집안현문물보관소가 설립되었다. 이에 길림성박물관이 1962년에 집안공작대(集安工作隊)를 설립하여 집안현문물보관소와 함께 통구고분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李殿福, 1962).¹⁶

15 1964년 7월에 북한과 중국이 환인 고령묘자촌에서 고분 240여 기를 공동 조사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76년에는 무순 後安고분군에서 봉토묘 3기를 조사해 토기를 다수 출토했다(姜杰, 1998, 「撫順縣五龍公社後安墓清理簡報」, 『博物館研究』 1998-2).

16 1962년 老嶺山脈 일대의 성곽 조사도 집안지역에 대한 유적 전면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때 집안 서남쪽의 압록강 지류 연안의 大路村고분군, 老虎哨고분군, 大高麗墓溝고분군 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曹正榕·朱涵康, 1962, 「吉林省輯安縣楡林河流域高句麗考古調查」, 『考古』 1962-11), 母背嶺고분군,

1962년에 통구고분군 전체를 조사하여 1만 1,280기의 고분을 실측 조사했다고 한다(李殿福, 1980). 특히 1966년에는 4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하해방고분군, 우산하고분군, 산성하고분군, 만보정고분군, 칠성산고분군, 마선구고분군 등 6개 고분군으로 구분하여 1만 1,300기에 대한 실측, 편호, 형식 분류, 등기를 완료했다(『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9쪽). 통구고분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¹⁷

이와 함께 각 고분군과 개별 고분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농지 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통구고분군이 대거 파괴되자 이에 대한 구제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68년에서 1976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¹⁸ 이 가운데 1976년에 산성하고분군의 동대파(東大坡) 지역을 조사했는데, 적석총 2기(동대파 262호분, 동대파 356호분)와 봉토분 39기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동대파 271호분은 동대파고분군의 최대 고분이며, 365호분은 봉토석실분으로 벽화가 확인되었다. 또 계단연접적석묘인 356호분은 통구고분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적석묘로 계장과 계단을 구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張雪岩, 1991).¹⁹

金家고분군, 廟西고분군 등 노령산맥 북사면의 고분군과 압록강 분류 연안의 長川고분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吉林省文物志編纂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 17 1966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1997년에 통구고분군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존묘 6,854기, 멸실묘 3,928기 등 총 1만 782기를 확인했다(『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13쪽).
- 18 농지 개간과 관련한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8년 봄: 우산하고분군 176기, 산성하고분군 36기, 1968년 가을: 우산하고분군 171기, 칠성산고분군 44기, 만보정고분군 70기, 산성하고분군 40기, 마선구고분군 12기, 1969년: 총 29기, 1970년: 총 274기, 1972년: 1기, 1974년: 2기, 1975년: 34기, 1976년: 우산하고분군 59기, 마선구고분군 101기, 칠성산고분군 38기, 산성하전당 21기, 산성하동대파 133기(『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11~12쪽).
- 19 1979년에는 산성하고분군의 전창편(전산자고분군)에서 46기가 조사되었는데, 195호분은 계장적석묘로 3세기로 편년되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이 시기에는 벽화고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 기의 벽화고분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길림성박물관이 1957년과 1962년에 오희분 4·5호분을 비롯해 무용총, 각저총, 통구사신총, 삼실총, 마조총, 환문총, 모두루묘 등을 재조사하면서 벽화를 촬영하고 모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마선구1호묘(1961년 발견, 1963년 조사; 方起東, 1964), 하해방31호묘(1963년 발견, 1966년 조사; 方起東·劉萱堂, 2002), 산성하332호묘(왕자묘: 1965년 발견, 1965~1966년 조사; 李殿福, 1983), 만보정1368호분(1966년 발견·조사: 李殿福, 1983), 우산하1041호분(1973~1974년 조사: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동대파365호분(1976년 발견·조사: 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만보정 1022호분과 만보정709호분(1977년 발견·조사: 孫仁杰·遲勇, 2007) 등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만보정1368호분은 가장 이른 시기의 벽화고분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우산하1041호분은 적석묘에 벽화를 그렸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²⁰

개별 적석묘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74년에 조사된 만보정 1078호분은 파괴로 인해 고분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5세기 전반의 기승용 마구가 다량 출토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1975년에 조사된 칠성산1096호분은 4세기 중반 전후로 편년되는 청동 초두(鏃頭)와 정(鼎), 기승용 마구류가 다량 출토되었는데(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4~5세기 고구려 적석묘뿐 아니라 신라의 적석목곽분 편년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1975년에 조사된 만보정 242호묘는 4기가 이어진 연접묘로 마구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3세기 후반을 전후해 수혈식 묘곽이 횡혈식 묘실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吉林集安縣文管所, 1982). 그 밖에 1969년과 1976년에 조사된 산성하1411호와 우산하1080호묘는 봉토

20 우산하1041호분은 2008년에 재조사해 금기, 금동기, 철기, 토기 등 4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고분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0,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

석실묘로 명문은 없지만 석비가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끌었다(方起東·林至德, 1983).

3) 1980~1990년대의 조사 현황

1980년대 이후 고구려 유적에 대한 중국학계의 조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부터 제2차 전국 문화재 조사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고고조사를 실시해 고구려 고분과 성곽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통화지역의 경우 20여 개 고분군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한다(『通化縣文物志』, 『通化市文物志』).²¹ 길림성은 이를 바탕으로 각 시·현 단위 문물지를 간행해 고구려 유적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²²

통구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이 시기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산성하983호(연화묘; 1981년 조사: 李殿福, 1983)와 만보정645호(1991년 조사)가 벽화고분임을 발견했다. 1993년에는 대규모 보수작업을 진행해 우산하2174호를 비롯해 산성하고분군의 491호, 725호, 798호, 1020호, 1305호, 1405호, 1407호, 1408호 등이 벽화고분임을 발견했다(孫仁杰·遲勇, 2007). 1997년에는 우산하3319호묘를 발굴하여 무덤의 구조(전실적석묘)와 함께 본래 벽화고분이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피장자가 중국계 망명인임을 시사하는 명문 권운문와당도 출토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5; 張福有, 2005). 또 1985년에 산성하고분군의 절친정충을 재조사하여 생활풍속계 벽화고분임을 확인했다(孫仁杰, 1988). 적석묘에서도 벽화를 채용한 사례를 다수 확

21 1982~1983년에 집안에서 70여 곳의 고분군을 조사했는데, 121기로 이루어진 橫路九隊고분군에서는 열상 배치 양상이 확인되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4b, 「集安縣新發現的兩處高句麗墓群」, 『博物館研究』 1984-1). 휘남 邵家店後山高분군과 撫民고분군(『輝南縣文物志』), 정우 勝利고분군(『靖宇縣文物志』), 무송 碱場後山高분군, 碱場 西坎고분군, 新安고분(『撫松縣文物志』)도 이때 조사되었다.

22 遼寧省도 같은 조사를 시행했지만, 몇 개 시·현만 문물지를 간행해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보한 것이다.

이 시기의 통구고분군 조사 가운데 1984~1985년에 시행된 집석공로(集錫公路)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총 113기를 조사했는데(석판묘 1기, 적석묘 38기, 봉토묘 73기, 토석혼축묘 1기), 적석묘의 구조와 조영시기, 특히 연접 양상과 횡혈식 묘실의 출현 과정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를 다수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그 밖에 1994년에 이루어진 우산하2112호묘 조사에서 연화문와당을 비롯한 금제, 은제, 금동제 장식품이 다수 출토되었고(集安市博物館, 2004), 1997년에는 마선구의 안자구고분군을 조사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2002).

이 시기에도 댐 건설에 따른 고분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7년에 본계 관음각(觀音閣)댐 수몰지역을 조사하여 동외자고분군(東巖子古墳群: 적석묘 1기, 봉토석실묘 8기), 부가루고분군(富家樓古墳群: 석실적석묘와 봉토석실묘 등 10여 기)을 발견했다(梁志龍·李新全, 2009). 1990년에는 호태(虎台)댐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에 발견한 산룡고분군(山龍古墳群)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고분 8기(고인돌 2기, 적석묘 2기, 석실적석묘 1기 등)를 조사했다(武家昌, 1997). 1991년에는 혼강 하류의 고령지(高嶺地)댐 수몰지구를 조사하여 노고립자고분군(老古砬子古墳群: 적석묘 100여 기), 대고령지후강연고분군(大高嶺地後江沿古墳群: 적석묘 100여 기), 소고령지북고분군(小高嶺地北古墳群: 적석묘 100여 기) 등을 발견했다(王來柱, 1994). 2001년에는 고령지댐 기초공사 중에 고령지고분군(적석묘 4기, 봉토석실묘 27기)을 발견하기도 했다(陳山·靳軍·馬毅, 2002). 1994년에는 갈수로 환인댐에 수몰되었던 고령묘자고분군의 가장자리가 드러나자, 연접묘 4기를 발굴하여 고분의 조영시기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萬欣·梁志龍, 1998).

그 밖에 고분에 대한 중요한 조사로는 1983년 본계 망우초고분군(忙牛哨古墳群: 석실묘 3기, 금동귀고리 출토: 齊俊·丁曉強, 1997), 1984~1991년 환인 미창구(米倉溝) 벽화고분과 주변의 소형묘(辛占山, 1993; 武家昌, 1994; 武家昌·

梁志龍·王俊輝, 2003), 1989년 봉성(鳳城) 맹가고분군(孟家古墳群)과 조가보 고분군(胡家堡古墳群: 許玉林·任鴻魁, 1991), 1990~1991년 안도 동청고분군(동·서 2개 구역에 26기 분포, 13기 조사; 연변박물관, 1992)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환인 미창구벽화고분은 5세기로 편년되는데, 고구려 첫 번째 도성지역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동청고분군은 조영 주체가 고구려인지 발해인지를 놓고 논란 중인데, 발해라면 고구려에서 발해로의 계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이 시기에는 성곽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말부터 각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고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구려 성을 새롭게 발견했다. 1977년에 연변지역의 연길 하룡고성(河龍古城), 용정 태양고성(太陽古城)·동흥고성(東興古城), 안도 보마성(寶馬城), 화룡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장항고성(獐項古城) 등을 조사했고, 1978년에는 화룡과 용정 경내에서 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1979년에는 길림성 문물고고련반(文物考古練班)이 왕청·혼춘·용정·화룡 경내의 유적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1983~1985년에는 길림성의 각 시·현이 문물지를 편찬하여 각 지역의 성곽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만 약 40여 기의 성곽을 확인했으며, 길림시 지역에서도 총 63개 성곽을 조사하여 길림 용담산성과 동단산성을 비롯하여 삼도령자산성, 남법소립자산성, 횡도자남산산성, 육가자동산산성, 성자구패성, 지방구패성 등을 고구려 성곽으로 파악했다. 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도 1983~1985년에 주(州) 전체의 유적을 조사하여 고구려 성곽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

국내성지에 대한 조사도 지속하여 1980년에 성벽을 실측했고, 1990년 5월에는 북벽 중문 동측의 치(馬面)를 발굴했다. 또 시가지 개발과 더불어 건물지 발견도 이어졌다. 1985년 5월 15일에 국내성지 동북쪽 모서리의 청량음료 공장 부근에서 가옥을 신축하다가 건물지를 발견했고, 1985년 8~9월에는 인민회의당 동측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1987년 6월에는 노도덕회(老道德會)터 민가를 신축하다가 유물이 출토되고, 1988년 4월에는 단결대로(團結大路) 남측 채소

시장 건물 공사 중에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1988년 4월에는 제2시장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지를 발견했다. 이러한 건물지의 발견과 유물 출토는 국내성지의 내부구조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여호규, 2012).

개별 성곽에 대한 지표조사나 연차 발굴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 5월에 통화지구 문관회판공실(文管會辦公室)이 유하 나통산성을 시굴 조사했다(吉林省文物工作隊, 1985). 1982년에는 길림 용담산성을 비롯한 삼도령자산성과 동단산성 등을 재조사했으며(董學增, 1986), 1985년에는 봉성 봉황산산성을 전면 조사했다(崔玉寬, 1994). 그 밖에 무순 고이산성, 신빈 오룡산성과 흑구산성, 철령 최진보산성, 서풍 성자산산성 등 중대형 산성을 중심으로 개별 성곽에 대한 지표조사나 연차 발굴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다. 1989년에 연변박물관은 훈춘 온특혁부성의 동벽 단면을 발굴하여 기와를 수습하기도 했다.

개별 성곽에 대한 조사는 199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요하중상류 일대의 철령 최진보산성과 서풍 성자산산성을 여러 차례 정밀 지표조사를 했는데, 서풍 성자산산성의 경우 서문지, 수구문, 장대지를 발굴조사했다. 훈하 구역의 무순 고이산성과 철배산성, 청원 쌍립산성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소자하 구역에서도 신빈 영릉진고성, 백기보고성, 오룡산성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한대(漢代) 군현성인 신빈 영릉진고성을 전면 발굴하여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의 층위와 각종 유구를 대거 확인했다.

특히 심양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은 1980년에 발견된 이래 20여 년에 걸쳐 조사했다. 1987년 8월에 심양시 문물조사대가 성벽 터를 확인했고, 고구려 토기편을 다수 채집했다. 이에 1988~1989년에 심양시 문물고고공작대가 성곽의 범위와 성벽의 방향 등 기본적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1990~1991년에 시굴 조사를 진행했다. 시굴조사 과정에서 성벽의 형식과 구조 등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성곽의 전체 형태, 치성의 구조 등 고구려 산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단서를 확보했다.

심양시 문물고고공작대는 상기한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산성 내부를 4개 구역으로 구획한 다음, 1997~2006년에 10여 년간 세 차례 고고조사를 진행하여

성벽과 성곽시설의 구조를 새롭게 파악하는 한편, 원형 저수지(集水池)를 비롯하여 많은 건물유적을 조사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2012; 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2001). 이와 함께 2002~2004년에는 산성 주변의 5개 고분군, 봉토석실묘 68기를 조사했는데, 토기와 청동제 팔찌·귀고리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고구려 중후기로 편년했는데, 다차 다인장의 장법이나 M4호 출토 등자가 돈화 육정산고분 출토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발해 고분으로 보기도 한다(강현숙, 2009).

그 밖에 봉성 봉황산산성을 비롯하여(崔玉寬, 1994) 수암지역의 낭낭성산성(娘娘城山城: 대형 계단적석묘), 성구산성(城溝山城: 원형적석묘 13기), 마권자산성(馬圈子山城: 원형적석묘 10기), 송수구산성(松樹溝山城) 등의 성곽 내부에서도 적석묘가 조사되었다(楊永芳·楊光, 1994; 崔雙來, 1997).²³

중국학계는 이상과 같은 고고조사를 통해 고구려 성곽과 관련한 고고자료를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중국학계는 고구려 성곽의 전체 현황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孫進己·馮永謙, 1989; 王禹浪·王宏北, 1994), 고구려 성곽의 전개 양상과 각종 성곽시설(陳大爲, 1985; 李殿福, 1991; 梁志龍, 1992; 辛占山, 1994; 王綿厚, 1994; 馮永謙, 1994; 陳大爲, 1995; 李殿福, 1998), 도성의 위치와 도성체계(魏存成, 1985; 李殿福·孫玉良, 1990), 교통로(王綿厚·李健才, 1990; 張正岩·王平魯, 1994), 군사방어체계(遲勇, 1993) 등 성곽과 관련한 개별 주제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종합한 단행본 출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李殿福 著, 西川宏 譯, 1991; 魏存成, 1994; 李殿福, 1994; 王綿厚, 2002; 魏存成, 2002).

23 수암 고성고분군에서는 석실적석묘 수십 기, 關家嶺고분군에서는 다수의 적석묘, 수암 興紀고분군에서는 다수의 석실적석묘가 조사되었다(崔雙來, 1997, 「丹東地區高句麗山城及其墓葬考察紀要」, 『中國考古集成』東北卷 兩晉至隋唐(二), 北京出版社).

3. 21세기 초엽 중국학계의 조사 현황

1) 고구려 성곽 조사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며 고구려 유적에 대한 중국학계의 조사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중국학계가 고구려 도성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왕릉급 고분과 함께 환인 오녀산성, 집안 산성자산성, 국내성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 성곽이나 고분도 본격적으로 장기간의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곽이나 고분 등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방대한 고고자료를 축적하고, 유적의 조영 양상이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환인 오녀산성은 1996~2003년에 총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5시기의 문화층을 확인하는 한편, 고구려 시기의 대형건물지 3기와 주거지 12기를 확인했다. 특히 1호 대형건물지에서는 전한(前漢)과 왕망(王莽) 시기의 화폐가 출토되어 오녀산성의 조영시기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2000~2003년에는 국내성지를 조사·발굴하고, 성벽 주변의 민가를 철거하여 원상을 복원했다. 먼저 2000년 5~11월에는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 문물보관소가 북벽의 단면에 대한 시굴과 더불어 내부의 건물지(문화층 포함) 8곳을 발굴했다. 2001년 4~10월에는 내부의 건물지 9곳을 발굴하고, 2003년 4~8월에는 국내성 북벽과 서벽의 일부 구간을 발굴했으며, 내부의 건물지 2곳에 대한 발굴도 진행했다. 이러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국내성지의 축조 과정을 해명할 자료를 다수 확보했으며, 성 내부에서 총 27곳의 건물지를 확인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여호규, 2012).

집안 산성자산성에 대해서도 성벽의 축조 양상과 보존상태를 구간별로 상세히 조사하고, 성가퀴와 기둥구멍 등 성곽시설도 조사했다. 특히 중앙 남문을 발굴하여 복구하는 한편, 서쪽 남문과 서문을 새롭게 발견했다. 아울러 성곽 내부의 장대, 저수지, 궁전지 등을 발굴하여 축조 양상과 규모, 건물의 구성 등을 새

롭게 파악했고, 기와와 와당 등 수많은 건축자재를 출토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이러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 성곽의 건축적 요소를 규명할 고고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특히 국내성지에 대한 조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2007년에 남벽을 발굴했고, 남벽 중부의 성벽 외측에서 치(馬面)를 3곳 확인하여 조사했다. 2009년에도 남벽과 동벽에서 치 6곳, 남벽 동부의 문지 1곳, 동남모서리의 각루 1곳을 조사하고, 동벽 남단의 성벽을 절개 조사했다. 2010년에는 동벽 북쪽 구간에서 치 2곳을 조사하고, 성벽 2개 지점을 절개 조사했다. 이를 통해 국내성지의 축조기법과 초축시기를 규명할 중요한 고고자료를 확보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a).

이와 함께 압록강 중상류의 성곽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먼저 종래 한 현도군의 군현성으로 비정되던 환인 하고성자고성과 통화 적백송고성을 발굴했다. 그 결과 하고성자성은 고구려가 처음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고(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양시은, 2016), 적백송고성은 전한대에 조영되었다가 후한 초에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王義學, 2008; 여호규, 2014). 아울러 환인 고검지산성(梁志龍·王俊輝, 20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집안 패왕조산성(王春燕·鄭霞, 2008), 통화 자안산성(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등에 대한 고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압록강 상류 연안의 소형 평지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孫仁杰·遲龍·張殿甲, 2004).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각 성곽의 축조 시기나 제반 현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고고자료를 다수 확보했다(정원철, 2017).

또 지방의 대형산성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양시 문물고고공작대는 1990~1991년의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심양 석대자산성을 4개 구역으로 구획한 다음, 1997~2006년에 3차에 걸쳐 고고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성곽의 전체 현황과 성벽의 축조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성문지 4개, 치 9개, 성벽 저부의 압거 2곳, 성문 저부의 압거와 배수시설 3곳 등을 조사했다. 또한 성곽 내부에서 망대 1곳, 대형 석축 건물지 1조(組), 주거지 45곳, 저장구덩이와 재구덩이 190곳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고구려 시기의 유적 이외

에 청동기 시기의 문화 유적, 명대(明代)의 토성과 주거지 등도 조사했다. 심양 석대자산성은 중국 경내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 가운데 가장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고고조사가 진행된 유적이라 할 수 있는데, 2012년에는 종합보고서도 간행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제2현도군의 치소로 비정되는 신빈 영릉진고성도 연차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보고서를 간행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7). 그 밖에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가 봉성 봉황산성(李龍彬, 2007a·b; 李龍彬·司偉偉, 2008)과 등탑 백암성(蘇鵬力·于懷石·任秀芬, 2014)에 대한 연차 발굴을 진행했다(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lnwwkg.com'의 田野考古 항목). 최근에는 개주 고려성산성(청석령산성)에 대한 연차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辽宁省文物考古研究院·盖州市文物局, 2022). 또 개인 연구자가 요동반도 일대의 주요 성곽을 거의 모두 답사하고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王禹浪·王文軾, 2008). 이러한 고고조사를 통해 각 성곽의 제반 현황과 관련한 고고 자료를 다수 확보했는데, 각 성곽의 사용이나 초축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고고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양시은, 2016; 정원철, 2017).

2) 고구려 고분 조사

중국은 고구려 도성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왕릉급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했다. 통구고분군의 초대형적석묘 가운데 마선구 2378호, 산성하전창36호, 마선구626호, 칠성산871호, 임강묘, 우산하 2110호, 칠성산211호, 서대묘, 우산하992호, 마선구2100호,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 기와가 출토된 13기를 왕릉으로 설정한 다음, 2000~2003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c). 이 무렵 우산하540호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우산하901호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0), 우산하2111호, 산성하전창1호 등도 조사했지만, 왕릉인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2003~2005년에는 집안시박물관이 우산하0036호(황니강대묘), 2005년에는 집안시문물국이 산성하대천23호, 산성하184호, 산성하185호, 산성하전창145호 등을 조사했다(孫仁杰·遲勇, 2007). 또 2004~2005년에는 장푸요우(張福有)의 주도 아래 순런지에(孫仁杰)와 지용(遲勇)이 통구고분군의 주요 고분 60여 기를 조사하기도 했다(孫仁杰·遲勇, 2007). 이러한 조사를 통해 통구고분군의 주요 고분에 대한 고고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왕릉급 고분 13기를 발굴하여 다양한 유물과 함께 명문자료를 다량 확보하여 고분 편년과 피장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집안고구려왕릉(集安高句麗王陵)』이 출간된 이후, 국내학계에서도 왕릉급 초대형적석묘의 편년이나 피장자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여호규 2006; 임기환 2009; 정호섭 2011).

이 시기에는 통구고분군 외의 고분군에 대한 고고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7~1999년에 환호 취락과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조사했다. 6개 문화층 가운데 청동기 후기(초기 철기시대), 고구려 초기, 고구려 중후기 문화층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적석묘, 계단적석묘 등이 확인되어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協公室, 2019; 박선미 외, 2021).

1985~1986년에 1차 조사했던 장백 간구자고분군(干溝子古墳群)도 2001년에 4구역으로 구분하여 전체 분포 현황과 함께 A구 4기, B구 3기 등 총 고분 7기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주묘단, 부묘단, 속묘단으로 이루어진 연접묘의 축조 양상을 확인했다. 특히 진대와 전한 초기의 반량전(半兩錢)이 출토되어 고구려 적석묘의 기원 및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朴潤武, 199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무순 고이산성 동편에 위치한 시가고분군(施家古墳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2000년 도굴에 따른 구제 발굴이 2000~2001년에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동쪽과 서쪽 2개 지구에서 봉토석실묘 41기를 발굴했다. 이 중 1호분은

벽화묘로 기와와 와당이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고, 18호묘에서는 개원통보가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고구려 시기의 고분으로 판단했지만(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7), 다차 다인장의 장속을 근거로 고분의 조영 기간이 발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강현숙, 2009).

2005년 11월에는 혼강 본류 연안에 위치한 통화 상룡두(上龍頭)와 하룡두(下龍頭) 일대의 유적을 조사했다. 하룡두 토주자(土珠子) 제사유적을 중심으로 거주지 5곳(下龍頭 龍崗, 漁營 長崗, 龍泉村 龍崗, 長崗村 龍崗, 頭道鎮 東村), 고분군 2곳(南頭屯, 下龍頭), 제사지 1곳(土珠子) 등을 조사하고 고분 50여 기를 확인했는데[通化市文管會辦公室(王志敏), 2006], 고구려 건국지인 졸본(卒本)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王貴玉·王珺·王志敏, 2006). 2006~2007년에는 환인지역의 용두산고분군(龍頭山古墳群), 왕의구(王義溝) 고분군과 취락 유적, 풍가보자고분군(馮家堡子古墳群) 등을 조사했는데, 풍가보자고분군에서는 적석묘와 함께 석개묘와 대석개적석묘가 조사되어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華玉冰, 2008; 李新全, 2008; 李新全, 2009; 梁志龍·李新全, 2009).

이 시기에도 댐 건설이나 수리 과정에서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3년 6~9월에 무슨 관산(關山)댐을 건설하며 대서구문고분군(大西溝門古墳群: 봉토석실묘 14기)을 조사했다(陳山·熊增龍, 2004). 2004년에는 임강댐 건설과 관련해 압록강 상류에 대한 고고조사를 진행했는데, 1980년대에 조사했던 고분군을 재확인하는 한편 장백 호로투고분군(葫蘆套古墳群)을 발견했다(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2011년에는 요서북 급수 공사 과정에서 집안 신홍촌고분군(新紅村古墳群: 적석묘 32기)을 조사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b).

2004년에는 운봉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댐의 수위가 40m 내려가자 장기간 수몰되었던 고분군이 대거 노출되었다. 이에 양민, 이도구, 묘응구, 적대, 석호왕팔발자, 이마구 등 6개 고분군, 76기를 조사하여 유물 228점을 출토했다(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安文榮, 2008). 2005년에도 노출된 양민(良民)고

분군 130여 기 중 88기를 조사했고, 2006년에는 양민 서쪽 산비탈에서 1,073기를 조사했다(吉林省長白文化研究會·集安市博物館, 2004; 孫仁杰·遲勇, 2007). 또 2004~2005년에는 운봉댐 하류 방면에 위치한 호자구고분군(蒿子溝古墳群)을 조사하여 동천왕릉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張福有·孫仁杰·遲勇, 2006), 2008년에는 호자구1호묘를 조사하여 석대시설을 확인하고 기와편을 다량 출토했다(王志剛, 20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10).

그 밖에 2004~2005년에는 장푸요우 등이 마선향 일대의 석묘자(石廟子: 38기), 초가구(肖家溝), 상활룡산서(上活龍山西), 대청구남천(大靑溝南川) 등의 고분군을 조사했다(孫仁杰·遲勇, 2007). 1960년 이래 여러 차례 조사된 무송 대방정자적석고분군도 2008년과 2011년에 조사하여 적석무지 9기를 확인했다(馮恩學·馬天夫, 2012). 또 2007년 제3차 전국 문물 일제조사 시기에 신빈 경내의 소자하, 태자하, 부이강 연안에서 적석묘 고분군을 여러 곳 조사하기도 했다(肖景全·鄭辰, 2009; 肖景全·鄭辰·金輝, 2014).²⁴ 2009년에 간행된 『중국문물지도집(中國文物地圖集)』(요령분책: 遼寧分冊)에는 수암, 본계, 신빈, 개원 등지에 분포한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²⁵

24 태자하 유역에서는 小荒溝고분군의 적석묘 20여 기, 牛家村고분군의 적석묘 20여 기, 石廟子溝고분군의 적석묘 5기(1호묘와 2호묘는 방단석실석개적석묘)를 조사하거나 확인했다. 소자하 유역에서는 都督고분군의 70여 기(석실적석묘와 석개묘 확인), 石人溝고분군의 석실연접적석묘 10여 기, 章京고분군의 방단연접적석묘 34기, 河灣子고분군의 적석묘 30여 기, 姚家山고분군의 적석묘 11기, 南大地고분군의 방단적석묘 1기를 조사했다.

25 수암 지역은 西地屯고분군(석실묘), 본계지역은 舊孩嶺고분군(적석묘 12기), 尙家村고분군(적석묘 4기), 近邊西北고분군(석실묘), 羅圈溝고분군(석실묘 6기), 團山고분군(석실묘 다수), 達官寨고분군(석실묘), 同江峪고분군(봉토묘 10여 기), 四棵樹고분군(적석묘와 석실묘 다수), 趙甸子고분군(석실묘 다수), 套峪村고분(석실묘), 荒溝고분군(석실적석묘 10여기). 신빈지역은 二道河子고분군(적석묘 10여기), 개원지역은 建材北고분군, 南溝고분군(적석무지 20여 기), 柴河堡고분군(봉토묘로 추정, 雙龍泉고분군 등이 확인된다).

Ⅲ.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완간과 활용 방안

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출판 과정

이상과 같이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고고조사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 학자, 1950년대 이후에는 중국학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한 세기 이상 고고조사가 이루어졌지만, 20세기 전반에 이를 연구한 한국학자는 거의 없었고,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한국학자도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접근할 길이 열렸지만, 중국의 규제로 직접 조사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학자들은 일본학자나 중국학자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각종 조사보고서나 연구논저가 산재하거나 절판되어 연구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이는 종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물론 종전에도 국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관련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종전 작업은 대부분 일부 지역이나 유적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2007년부터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집대성하는 DB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팀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 DB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20세기 전반 이래 100년 가까이 이루어진 고고조사 성과를 총망라하여 DB 구축용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매년 현장답사를 통해 고구려의 유적 현황을 조사하여 기존의 고고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본 연구팀은 기초자료 정리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구려사의 전개과정을 고려해 만주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정리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7~2008년에는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通溝盆地 제외), 2009~2011년에는 고구려 두 번째 도성으로 유적이

〈표 1〉 2007~2016년 연도별 고구려 유적·유물 정리 현황

연도	지역	고분		성곽 ²⁶		기타 유적	유물 ²⁷	소계	총계	면수 (A4)
		고분 군	개별 고분	성곽	개별 유구					
2007	집안	75	1	8		3	14	101	146	624
	훈강	15	1	4		7	1	28		
	장백	9		5		3		17		
2008	환인	16	4	10			13	43	105	783
	통화	27	3	9		8	11	58		
	신빈			4				4		
2009	통구1		59	1	27	4		91	91	1,250
2010	통구2		65	1	1			67	67	980
2011	통구3		111		3		44	158	158	1,149
2012	요동반도- 태자하	26	15	120				161	161	833
2013	요하 유역	17		45		4		66	66	1,099
2014	송화강 두만강	10		75		8		93	93	964
2015	보유편	10	4	6						1,230
2016	보유편	41	6	13		3	1			1,008
소계		246	269	301	31	40	84	971	971	9,920
총계		515		332						

가장 밀집 분포한 통구분지, 2012~2014년에는 외곽 지역인 요동반도-요하-송화강-두만강-묵단강 유역 등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각 시·현 단위

26 성곽 안팎의 건물지(개별 유구)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정리한 것은 2009년부터임.

27 유적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유물 단위로 정리한 것만 지칭함.

로 정리했다. 그리고 2015~2016년에는 2007년 이후에 간행된 조사보고서를 보완해서 정리하는 보유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팀은 고분군 246곳, 개별 고분 269기, 성곽 301곳, 성곽의 개별 유구 31기, 기타 유적 40곳, 개별 유물 84개 등 총 971건을 A4 9,920매로 정리했다.

그런데 본 연구팀이 제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DB를 구축한 결과, ‘역사적 성격’ 등과 같은 종합적인 서술 부분을 모두 DB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전문연구자들이 각 지역별 유적의 분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도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 8월 25일에 개최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 정리 현황과 활용방안” 워크숍에서 본 연구팀이 정리한 기초자료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후 중간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심사에서도 단행본 출간 필요성이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2018~2019년에 2년간 DB 구축용 기초자료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위한 재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DB 구축용 기초자료의 개조식 문장 중 일부를 완전한 문장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원자료와의 대교나 확인 작업을 재차 진행하여 최대한 전거를 밝히는 한편, 장기간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용어나 개념이 변화한 부분을 통일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또 각 유적의 ‘역사적 성격’ 항목은 관련 조사 현황과 연구 성과를 최대한 종합하여 재서술했다.

본 연구팀은 고구려사의 전개과정을 고려해 단행본을 체계적으로 간행하기 위해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제1편, 두 번째 도성으로 유적이 가장 밀집한 통구분지 일대를 제2편, 그 밖에 외곽지역을 제3편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듯이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8년에 제3편을 4권으로 재정리하고, 2019년에 제1편을 2권, 제2편을 4권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상의 정리 작업을 바탕으로 2020~2022년에 총 10권에 이르는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출간 작업을 진행했다. 다만 <표 3>에서 보듯이 각 편

〈표 2〉 2018~2019년도 단행본 발간용 정리 작업 현황

연도	자료유형	세부 내역
2018	DB 구축용 기초자료	2012년도 정리분: 833쪽(요동반도-태자하) 2013년도 정리분: 1,099쪽(요하유역) 2014년도 정리분: 964쪽(송화강-두만강-목단강 유역) 2015년도 보유분: 1,100여 쪽(신빈 지역 고분, 심양 석대자산성) 2016년도 보유분: 250여 쪽(요하-송화강 유역 성곽과 기타 유적)
	단행본 재정리	제3편 제1권: 요동반도-태자하 유역편(786쪽) 제3편 제2권: 혼하와 유하 중상류편(762쪽) 제3편 제3권: 심양 석대자산성(1,151쪽) 제3편 제4권: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1,123쪽)
2019	DB 구축용 기초자료	2007년도 정리분: 624쪽(집안, 혼강, 장백) 2008년도 정리분: 783쪽(환인, 통화, 신빈) 2009년도 정리분: 1,250쪽(통구분지) 2010년도 정리분: 980쪽(통구분지) 2011년도 정리분: 1,149쪽(통구분지) 2015년도 보유분: 60여 쪽(신빈) 2016년도 보유분: 720여 쪽(환인, 집안, 통화, 통구분지)
	단행본 재정리	제1편 1권: 압록강 중상류 1(환인-집안) (1378쪽) 제1편 2권: 압록강 중상류 2(신빈-통화-혼강-장백) (756쪽) 제2편 1권: 집안분지 1(우산하, 하해방 고분군) (844쪽) 제2편 2권: 집안분지 2(만보정, 칠성산, 마천구, 산성하고분군) (896쪽) 제2편 3권: 집안분지 3(벽화고분) (415쪽) 제2편 4권: 집안분지 4(성곽과 기타 유적) (1,005쪽)

의 분량을 고려하여 제1편 3권, 제2편 3권, 제3편 4권으로 재조정했다.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은 DB 구축용 기초자료 정리에 10년, 단행본 발간용 원고 재정리에 2년, 단행본 출판에 따른 편집과 교정 작업에 3년 등 총 15년에 걸쳐 완간된 장기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완간된 본 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팀원의 전공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다. 연구책임자인 여호규는 과제를 총괄하며 성곽을 담당하고, 강현숙은 고분, 백종오는 유물을 각각 담당하면서 각 권의 개관과 유적의 역사적 성격을 집필했다. 김중은, 이경미, 정동민, 한준영은 각종 보고서와 논저의

〈표 3〉 2020-2022년 간행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권별 현황

권	제목	시/현	고분군 (고분) ²⁸	성곽 (건물지) ²⁹	기타 유적	개별 유물	면수
I	압록강 중상류 1: 환인	1	26	10	0	13	523
II	압록강 중상류 2: 집안-신빈	1 (1) ³⁰	86	12	3	14	421
III	압록강 중상류 3: 통화-백산·임강-장백	4	52	19	18	12	419
IV	통구분지 1: 우산하·하해방· 만보정·철성산고분군	(1)	4 (83)	0	0	0	635
V	통구분지 2: 마선구· 산성하고분군, 벽화고분	(1)	2 (112)	0	0	0	683
VI	통구분지 3: 성곽, 기타 유적, 유물	(1)	0	2 (31)	6	50	627
VII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19 (1)	42	121	1	0	546
VIII	혼하-요하 중상류	10	18	46	4	0	466
IX	심양 석대자산성	(1)	1	1 (3)	0	0	562
X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	18 (1)	10	78	8	0	687
합계		52	241 (195)	289 (34)	40	80	5,569

서술 내용을 1차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나유정과 노윤성은 출간 사업에 참여하여 원고교정과 지도제작을 담당했다.

본 연구팀은 기존의 조사성과를 총망라해 집대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8 괄호 안의 수는 개별 고분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한 것임.

29 괄호 안의 수는 성곽 내부 건물지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한 것임.

30 괄호 안의 수는 다른 권의 시·현과 중복되는 것으로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이를 위해 각종 보고서와 연구논저, 지도와 지지(地誌), 답사자료를 널리 수집했다. 그런 다음 유적별로 조사 현황, 위치와 자연환경, 전체 현황, 유구별 현황, 출토 유물, 역사적 성격, 참고문헌 등의 항목을 설정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매년 현장 답사를 진행하여 고고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유적 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A4 약 1만 쪽에 이르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10권, 5,600여 쪽에 이르는 총서를 간행했다.

각 권의 서두에는 개관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전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그리고 시·현 행정구역이나 유적군 단위로 부(部)를 설정해 크게 고분군, 성곽, 기타 유적, 유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다만 단일 성곽이나 고분군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경우, 이를 단일 항목으로 묶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힘들다. 이에 성곽의 경우 성벽이나 성곽시설에 대한 설명은 한 항목으로 정리하되, 상세하게 조사된 건물지는 유구별로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정리했다. 고분도 구체적인 고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고분군 단위로 묶어 일괄적으로 정리하되, 고고조사를 시행한 고분은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정리했다.

각 유적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유적별로 정리 항목을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면서도 고분군과 개별 고분, 성곽과 개별 유구, 기타 유적, 유물 등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리 항목의 구성을 조금씩 달리했다. 가령 유적(유물)의 조사 현황, 위치와 자연환경, 유적의 전체 현황, 출토유물, 역사적 성격, 참고문헌 등은 공통적으로 설정했다.

조사 현황은 시기순으로 정리하면서 조사시기, 조사기관, 참가자, 조사 내용, 발표 등으로 정리하여 각 시기별 조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적의 위치와 자연환경에는 행정구역명, 지리위치, 도로 현황, 자연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유적의 전체 현황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유적 보존 현황도 함께 기술했다. 역사적 성격에는 유적의 조성시기나 주변 유적의 현황, 문헌사료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성격을 기술했다.

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각종 콘텐츠 개발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나 논저에 제시된 각종 지도와 도면을 거의 모두 망라하여 제시했다. 특히 시·현 단위로 유적 분포도를 작성하여 분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문물지도집』을 활용하여 구글 지형도에 유적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연구팀 답사나 개인 답사를 통해 유적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일제시기 1/10만 지형도에 위치를 표기하여 현장을 가지 않고도 유적 주변의 지리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활용 방안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은 지난 20세기 전반 이래 100여 년간 이루어진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고고조사 성과를 총망라하여 정리한 만큼, 고구려사 나아가 한국고대사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각종 고고자료를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므로 고구려 고고자료 나아가 고구려사나 한국고대사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연구자들은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바탕으로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를 다각도로 새롭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사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고구려사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 동북지역 각지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의 보존 현황과 중국 측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무엇보다 이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인 ‘분쟁으로 얼룩진 동북아의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연구분석’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의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상호의 역사를 존중하는 더 넓은 역사인식의 장으로 견인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위한 시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총서는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전문연구자의 고구려사 연구기반을 크게 확충하고,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중국의 역사왜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이 단행본을 통해 고구려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종 콘텐츠 개발에도 원천소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나 일반 국민이 본 총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연구기관에 널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총서를 기반으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각종 콘텐츠 개발을 권장하기 위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후감 공모전이나 콘텐츠 기획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대거 조사되었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계기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고구려 전문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 고구려 보루가 대거 발견된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이나 일반 국민에게 고구려사를 생동감 넘치게 교육할 수 있는 전문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는 각종 디지털 자료와 IT 기술을 접목한 가상 전시나 체험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³¹ 이러한 가상 전시나 체험 시설은 관람자에게 유적 현장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느낌과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서적 만족도나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총서도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각종 도면과 지도를 망라하여

31 2024년 1월 24일에 오픈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광개토왕릉비는 디지털 자료와 IT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전시물이라 할 수 있다(김태영·김진경, 2024, 「고구려, 그 위대함을 재건한 사람들」, 『박물관신문』 2024-3; 여효규, 2024, 「디지털 광개토왕릉비의 의미와 바람」, 『박물관신문』 2024-3).

정리했기 때문에 고구려 유적·유물의 종합 자료센터 구축뿐 아니라, 고구려 고분 전시관, 고분벽화 전시관, 도성과 산성 전시관, 개별 유물 전시관 등 다양한 가상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412호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고구려역사문화권’이 8대 고대역사문화권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해당 법률에서는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와 함께 교육·연구를 추진할 기관으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³² 실제 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이 가야역사문화센터와 마한역사문화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 유적이 밀집 분포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구려역사문화센터나 고구려 전문 박물관(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본 총서는 고구려역사문화센터나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획 및 전시관 구성을 위한 기획, 각종 가상 전시와 체험 시설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총서의 완간이 국내에 전무한 고구려 전문 박물관이나 전시관 건립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맺음말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은 지난 15년간 동고동락했던 연구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지금도 함께 답사를 다니며 길도 없는 험준한 성벽을 오르고 고분을 찾아 풀숲을 헤매던 기억이 생생하다. 때로는 탈북자를

32 국립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학회, 2022,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역사문화권 가치와 개념 및 시·공간 범위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원.

돕는 사람들로 오인을 받아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가슴 졸이는 순간도 있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1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료정리와 출간작업에 매진한 연구팀원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본 총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과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출간될 수 있었다. 김현숙 연구위원은 본 과제를 기획하여 장기 사업의 토대를 놓았고, 이성재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본 과제를 담당하여 실무를 뒷받침했다. 2007년 이래 김용덕, 정재정, 김학준, 김호섭, 김도형, 이영호 이사장께서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 총서는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집대성하는 작업의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최근 중국의 고구려 유적 조사 현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 종래 중국의 고구려 유적 조사는 도성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며 지방의 성곽이나 고분도 대거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중 상당수 조사는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도 속속 간행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본 총서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대성하는 연구과제를 계속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현숙, 2013, 『고구려고분연구』, 진인진.
-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국립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학회, 2022,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역사문화권 가치와 개념 및 시·공간 범위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원.
-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 2014, 『(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의 도성』, 국립중앙박물관.
- 기획편집위원회 편,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1: 도성과 성곽)』, 동북아역사재단.
- 박선미 외, 2021, 『길림성 통화 만발발자 유적: 고조선과 고구려의 만남』, 동북아역사재단.
- 서길수, 2007, 『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 연구: 모리스 꾸랑, 에두아르 사반드』, 여유당.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집안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 여호규, 1999, 『高句麗 城(Ⅱ: 遼河流域篇)』, 國防軍史研究所.
- _____,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엮음, 2020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 요동반도-태자하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요하 중상류』,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0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X: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1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 압록강중상류1: 환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1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Ⅱ: 압록강증상류2: 집안-신빈』,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Ⅲ: 압록강 증상류3 통화-백산·임강-장백』,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Ⅳ: 통구분지1 우산하·하해방·만보정·칠성산고분군』,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c,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Ⅴ: 통구분지2 마선구·산성하고분군-벽화고분』,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d,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
과 유물 Ⅵ: 통구분지3 성곽-기타유적-유물』, 동북아역사재단.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 國家文物局 主編, 1992, 『中國文物地圖集(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 _____,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上·下)』, 西安地圖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 _____, 2004a, 『國內城』, 文物出版社.
- _____, 2004b,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_____, 2004c,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協公室,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
掘報告』, 科學出版社.
- 柳河縣文物志編寫組, 1987, 『柳河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撫松縣文物志編寫組, 1987, 『撫松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山本首, 1938, 『蛟河敦化的古迹調查報告書』, 滿洲帝國 民生部.
- 孫仁杰·遲勇,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 孫進己·馮永謙, 1989a, 『東北歷史地理(第一卷)』, 黑龍江人民出版社.
- _____, 1989b, 『東北歷史地理(第二卷)』, 黑龍江人民出版社.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王綿厚·李建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 王禹浪·王宏北, 1994,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 哈爾濱出版社.
- 王禹浪·王文秩, 2008, 『遼東半島地區的高句麗山城』, 哈爾濱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 _____, 2017, 『永陵南城址發掘報告(上·下)』,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臺子山城(上·下)』, 文物出版社.
-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 _____,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 李文信, 1962, 『遼寧史迹資料』(馮季昌·孫進己·馮永謙 編), 1987, 『東北歷史地理論著匯編』第1冊 재수록).
- 李殿福, 1994, 『東北考古研究(二)』, 中州古籍出版社.
- 張福有, 2007, 『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 張萍 主編,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 靖宇縣文物志編寫組, 1987, 『靖宇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集安縣文物志編寫組, 1984,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通化市文物志編寫組, 1986, 『通化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通化縣文物志編寫組, 1986, 『通化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渾江市文物志編寫組, 1984, 『渾江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輝南縣文物志編寫組, 1992, 『輝南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關野貞 외,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上冊 圖版』, 朝鮮總督府.
- 渡邊三三, 1940, 『增訂 撫順史話』, 撫順新報社.
-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 梅原末治·藤田亮策, 1966,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養德社.
- 三上次男, 1990,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 三上次男·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 中央公論美術出版.
- 三宅俊成, 1975, 『東北アジア考古學の研究』, 國書刊行會.
- 李殿福 著, 西川宏 譯, 1991,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 學生社.

日本東亞考古學會・關東廳博物館, 1931, 『牧羊城』, 東亞考古學會.
 鳥居龍藏, 1910a, 『南滿洲調查報告書』(1976, 『鳥居龍藏全集』 10, 朝日新聞社 재
 수록).
 ———, 1912, 『第一回史料調査報告-咸鏡南北道 東間島』(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鳥山喜一・藤田亮策, 1941, 『間島省古迹調査報告』(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 第三
 編), 滿洲帝國 民生部.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1·2)』, 朝鮮總督府.
 池內宏,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
 池內宏・梅原未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八木契三郎, 1928, 『續滿洲舊蹟志』, 南滿洲鐵道株式會社.

논문

강형숙, 2009, 「고구려 고지의 발해고분」, 『한국고고학보』 72.
 김태영·김진경, 2024, 「고구려, 그 위대함을 재건한 사람들」, 『박물관신문』 2024-3.
 여호규, 2006, 「집안지역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문제」, 『한국고대사연
 구』 41.
 ———, 2012,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한국고대사연
 구』 66.
 ———, 2024, 「디지털 광개토왕릉비의 의미와 바람」, 『박물관신문』 2024-3.
 연변박물관, 1992,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임기환, 2009,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
 재단.
 정찬영, 1963, 「자성군 조아리, 서해리, 법동리, 송암리, 고구려 고분발굴 보고」, 『고고학
 자료집』 3, 과학원출판사.
 ———, 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姜杰, 1998, 「撫順縣五龍公社後安墓清理簡報」, 『博物館研究』 1998-2.
 耿鐵華, 1993, 「中國高句麗文化研究十年」,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縣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2003-8.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集安禹山540號墓清理報告」, 『北方文物』 2009-1.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墳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_____, 2002, 「集安麻線安子溝高句麗墓葬調查與清理」, 『北方文物』 2002-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5, 「洞溝古墓群禹山墓區JYM3319號墓發掘報告」, 『東北史地』 2005-6.
- _____, 2010,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
- _____, 2012a, 「集安國內城東南城垣考古清理收穫」, 『邊疆考古研究』 11.
- _____, 2012b, 「集安市太王鎮新紅村高句麗積石墓群發掘發掘」, 『北方文物』 2012-3.
- 吉林省文物工作隊, 1983, 「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1.
- _____, 1985, 「高句麗羅通山城調查簡報」, 『文物』 1985-2.
- 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1976年集安洞溝高句麗墓清理」, 『考古』 1984-1.
-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 1960, 「吉林通化市江口村和東江村考古發掘簡報」, 『考古』 1960-7.
-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吉林省集安的兩坐高句麗墓」, 『考古』 1977-2.
-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輯安縣文物管理所, 1964, 「吉林輯安高句麗南道和北道上的關隘和城堡」, 『考古』 1964-2.
- 吉林省長白文化研究會·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 『東北史地』 2004-4.
- 董學增, 1986, 「吉林市龍潭山高句麗山城及其附近衛城調查報告」, 『北方文物』 1986-4.
- 万欣·梁志龍, 1998, 「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積石墓」, 『考古』 1998-3.
- 武家昌, 1994, 「桓仁米倉溝將軍墓壁畫初探」, 『遼海文物學刊』 1994-2.
- _____, 1997, 「撫順山龍石棚與積石墓」, 『遼海文物學刊』 1997-1.
- _____, 2005, 「本溪小市墓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2005-2.

- 武家昌·梁志龍·王俊輝, 2003, 「桓仁米倉溝高句麗壁畫墓」, 『遼寧考古文物』, 遼寧民族出版社.
- 朴潤武, 1990, 「長白縣干溝子墓地調查」, 『博物館研究』 1990-3.
- 方起東, 1962, 「吉林輯安高句麗霸王朝山城」, 『考古』 1962-11.
- _____, 1964, 「吉林輯安麻線溝1號壁畫墓」, 『考古』 1964-10.
- _____, 1985, 「高句麗石墓的演進」, 『博物館研究』 1985-2.
- 方起東·劉萱堂, 2002, 「集安下解放第31號高句麗壁畫墓」, 『北方文物』 2002-3.
- 方起東·林至德, 1983, 「集安洞溝兩座樹立石碑的高句麗古墓」, 『考古與文物』 1983-2.
- _____, 1984,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 『文物』 1984-1.
- 苏鵬力·于懷石·任秀芬, 2014, 「燈塔市燕州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 孫仁杰, 1988, 「折天井墓調查拾零」, 『博物館研究』 1988-3.
- 孫仁杰·遲龍·張殿甲, 2004, 「鴨綠江上流右岸考古調查」, 『東北史地』 2004-5.
- 辛占山, 1993, 「桓仁米倉溝高句麗“將軍墓”」, 『東北亞文明的源流的考古學研究』.
- _____, 1994, 「遼寧境內高句麗城址的考察」, 『遼海文物學刊』 1994-2.
- 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2001,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簡報」, 『考古』 2001-3.
- 安文榮, 2008, 「云峰水庫淹沒區高句麗墓群」, 『田野考古集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五周年紀念』, 文物出版社.
- 楊永芳·楊光, 1994, 「岫巖境內五座高句麗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1994-2.
- 梁志龍, 1992, 「桓仁地區高句麗城址概述」, 『博物館研究』 1992-1.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 _____, 2011, 「遼寧省桓仁縣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 2011-1.
- 梁志龍·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王貴玉·王珺·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跡群所在地當即調卒本夫餘初居地」, 『東北史地』 2006-6.
- 王來柱, 1994, 「寬甸縣金坑高嶺水庫淹沒區青銅時代和漢代遺址考古調查」, 『博物

- 館研究』1994-3.
- 王綿厚, 1994, 「鴨綠江右岸高句麗山城綜合研究」, 『遼海文物學刊』1994-2.
- 王義學, 2008, 「赤柏松古城考古發現及其相關問題研究」吉林大 碩士學位論文.
- 王增新, 1964, 「辽宁撫順市前屯·注渾木高句麗墓發掘簡報」, 『考古』1964-10.
- 王志剛, 2010, 「集安市五座高句麗墓葬」, 『中國考古學年鑑』2009.
- 王春燕·鄭霞, 2008, 「霸王朝山城的調查與研究」, 『東北史地』2008-3.
- 王洪峰, 1988, 「臨江電站庫區古遺存調查綜述」, 『博物館研究』1988-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嶺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 『東北史地』2012-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7,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2007-10.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簡報」, 『考古』1998-10.
- 遼寧省博物館, 1984, 「遼寧本溪晉墓」, 『考古』1984-8.
- 魏聲飴, 1931, 「琿春古城考」, 『東北叢刊』15.
-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1985-2.
- , 1987, 「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 『考古學報』1987-3.
- , 2007, 「集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研究」, 『社會科學戰線』2007-4.
- 李文信, 1937, 「吉林龍潭山遺蹟報告」(一)(二), 『滿洲史學』1권 2호~3호, 東亞印刷.
- , 1938, 「吉林龍潭山遺蹟報告」(三), 『滿洲史學』2권 2호, 東亞印刷.
-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 2008,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2009-1.
- 李龍彬, 2007a, 「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 , 2007b, 「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穫」, 『中國文物報』2007-3.
- 李龍彬·司偉偉, 2008, 「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 李殿福, 1962, 「1962春季吉林集安考古調查簡報」, 『考古』1962-11.

- _____,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 _____, 1983, 「集安洞溝三座壁畫墓」, 『考古』 1983-4.
- _____, 1998, 「高句麗山城研究」, 『北方文物』 1998-4.
- 李殿福·孫玉良, 1990, 「高句麗的都城」, 『博物館研究』 1990-1.
- 張福有, 2005, 「集安禹山3319號墓卷云紋瓦當銘文認識與考證」, 『中國歷史文物』 2005-3.
- 張福有·孫仁杰·遲勇, 2006, 「集安蒿子溝墓地調查與東川王陵考」, 『東北史地』 2006-3.
- 張雪岩, 1988, 「集安兩座高句麗封土墓」, 『博物館研究』 1988-1.
- _____, 1991, 「吉林集安東大坡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91-7.
- 張正岩·王平魯, 1994, 「新城道及新城道上的諸城考」, 『遼海文物學刊』 1994-2.
- 齊俊·梁志龍, 2001, 「遼寧本溪縣小市中心街高句麗墓」, 『北方文物』 2001-2.
- 齊俊·丁曉強, 1997, 「本溪小市地區高句麗遺迹遺物考」,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卷2)』, 哈爾濱出版社.
- 曹正榕·朱涵康, 1962, 「吉林省輯安縣榆林河流域高句麗考古調查」, 『考古』 1962-1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蓋州市文物局, 2022, 「遼寧蓋州青石嶺山城四號門址」, 『考古』 2022-2.
- 遲勇, 1993, 「高句麗都城的戰略防禦系統」,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陳大為, 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960-1.
- _____, 1981a, 「桓仁高句麗積石墓的外形和內部結構」, 『遼寧文物』 1981-2.
- _____, 1981b, 「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類型·年代及其演變」,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 _____, 1985,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年會論文集』.
- _____, 1995, 「遼寧高句麗山城再探」, 『北方文物』 1995-3.
- 陳山·靳軍·馬毅, 2002, 「寬甸縣高嶺地積石墓群」,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 陳山·熊增龍, 2004, 「撫順縣大西溝門青銅時代遺址和古墓葬」,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 陳相偉·方起東, 1982, 「集安長川一號壁畫墓」, 『東北考古與歷史』 1982-1.
-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通溝古墳群禹山墓區2112號墓」, 『北方文物』 2004-2.
-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 1979-1.

- _____,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81-5.
- _____, 1982, 「集安萬寶汀墓區242號古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 1982-6.
- _____,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 _____, 1984a,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 1984-1.
- _____, 1984b, 「集安縣新發現的兩處高句麗墓群」, 『博物館研究』 1984-1.
- _____, 1984c, 「集安縣上·下活龍村高句麗古墓清理簡報」, 『文物』 1984-1.
- _____, 1984d, 「集安縣老虎哨古墓」, 『文物』 1984-1.
- 肖景全·鄭辰, 2007, 「撫順地區高句麗考古的回顧」, 『東北史地』 2007-2 .
- _____, 2009, 「三十年來撫順地區的高句麗考古發現與相關問題研究」,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肖景全·鄭辰·金輝, 2014, 「新賓滿族自治縣近年來發現的高句麗積石墓」, 『東北史地』 2014-5.
- 崔雙來, 1997, 「丹東地區高句麗山城及其墓葬考察紀要」, 『中國考古集成(東北卷: 兩晉至隋唐二)』, 北京出版社.
- 崔玉寬, 1994,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1994-2.
- 通化市文管會辦公室(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迹群調查」, 『東北史地』 2006-6.
-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 2010-3.
- 馮永謙, 1994, 「高句麗城址輯要」, 『北方史地研究』, 中州古籍出版社.
- 馮恩學·馬天夫, 2012, 「撫松大方(荒)頂子積石堆調查報告」, 『邊疆考古研究』 11.
- 許玉林·王連春, 1984, 「丹東地區出土的青銅短劍」, 『考古』 1984-8.
- 許玉林·任鴻魁, 1991, 「遼寧鳳城胡家堡·孟家積石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 1991-2.
- 華玉冰, 2008,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高橋匡四郎, 1941, 「蘇子河流域に於ける高句麗と後女眞の遺跡」, 『建國大學研究院研究期報』 2(建國大學 研究院, 新京).

- 關野貞, 1913, 「關野貞博士一行の朝鮮古墳調査」, 『考古學雜誌』 4-3.
- , 191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 『考古學雜誌』 5-3・4.
- , 1920, 「平安北道及滿洲高句麗古蹟調査略報告」,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渡邊三三, 1933, 「高句麗の新城發見」, 『滿蒙』 14-9.
- 渡邊三三・齋藤武一, 1939, 「滿洲國撫順の古瓦」, 『考古學雜誌』 29-11.
- 稻葉岩吉, 1939, 「興京二道河子舊老城」, 『滿洲史學』 3-2호(建國大學).
- 島田好, 1927, 「高句麗の安市城の位置に就いて」, 『歷史地里』 49-1.
- 藤田亮策, 1936a, 「高句麗古蹟調査概要」, 『青丘學叢』 26.
- , 1936b, 「滿洲國安東省輯安縣に於ける高句麗遺蹟の調査」, 『青丘學叢』 23.
- , 1940, 「通溝附近の古墳と高句麗の墓制」, 『池内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座右寶刊行會.
- 梅原末治, 1939, 「高句麗の墓制に就いて」, 『史林』 24-1.
- , 1944, 「高句麗の墓制に就いて」, 『東亞考古學論考』, 星野書店.
- 三上次男, 1938, 「輯安行 - 高句麗時代の遺跡調査」, 『歷史地理』 71-1.
- , 1946, 「桓仁調査行記 - 高句麗の遺跡を尋ねて」, 『民族學研究』 3-1.
- , 1947, 「塔山の山城」, 『學海』 4-5(大東亞學協會).
- 三宅俊成, 1935, 「安東省輯安縣城附近高句麗の遺跡」, 『滿蒙』 16-9.
- , 1944, 「輯安縣城附近高句麗の遺跡」, 『輯安』, 滿洲事情案内所.
- 李殿福, 1991, 「高句麗山城の構造とその變遷」, 『九州考古學』 66.
- 鳥居龍藏, 1906, 「滿洲調査復命書」, 『史學雜誌』 17.
- , 1910b, 「鴨綠江畔洞溝に於ける高句麗の遺跡」, 『東洋時報』 137・140.
- , 1908, 「咸鏡南北道及東間島旅行談」, 『東洋時報』 116.
- , 1914, 「丸都城及國內城の位置について」, 『史學雜誌』 25-7.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조사 현황과 활용 방안

여호규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학자, 1950년대 이후에는 중국학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학계는 1980년대에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고구려 유적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고분과 성곽 등 개별 유적에 대한 고고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중국학계는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고구려 도성 유적을 대대적으로 발굴했다. 아울러 지방의 주요 성곽에 대한 고고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학계의 고구려 유적 조사가 본격화에 진입한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로 한국학자도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접근할 길이 열렸지만, 중국의 규제로 직접 조사는 불가능했다. 한국학자들로서는 일본학자나 중국학계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각종 조사보고서나 연구논저가 산재하거나 절판되어 연구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이 2007년부터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집대성하는 DB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팀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조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2020~2022년에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을 완간했다.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성과를 총망라한 만큼, 고구려사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연구자는 이 총서를 활용해 고구려사를 다각도로 연구하는 한편, 중국의 역사왜곡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국민들도 이 총서를 통해 고구려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총서는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원천소스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만주지역, 고구려 유적, 고고조사,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ABSTRACT

Research Status and Utilization of Koguryo Remains in China

Yeo Hokyū

The investigation of Koguryo remains in Manchuria was led by Japanese scholar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Chinese scholars after the 1950s. In particular, Chinese scholars conducted extensive surveys in the 1980s to determine the overall status of Koguryo remains and promoted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of individual sites such as tombs and castles. Since the 2000s, Chinese scholars have conducted extensive excavations of the remains of Koguryo's capital city in preparation for its listing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y are also systematically conducting archaeological surveys of major local castles. The Chinese academic community's investigation of Koguryo remains has entered the mainstream.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opened the way for Korean scholars to access Koguryo remains in Manchuria, but Chinese regulations prevented them from conducting

direct research. Korean scholars had to rely on the findings of Japanese and Chinese scholars to conduct research. However, Korean scholars faced many difficulties in their research because various research reports and monographs were scattered or out of print. Therefore, the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has been promoting a project to build a database to compile Koguryo remains and artifacts in China since 2007. This research team also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Koguryo remains in Manchuria, and then published 10 volumes of *Koguryo remains and Artifacts in China* in 2020-2022.

This book series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xpansion of the research base of Koguryo history as it summarizes the results of a century of research on Koguryo remains in Manchuria. Specialized researchers will be able to utilize this volume to study Koguryo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and respond to China's historical distortions. The general public will also be able to access Koguryo history more easily through this volume. It is also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source for developing various contents.

Keywords: Manchuria, Koguryo Remains,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Koguryo remains and Artifacts in China*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

강현숙 |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고구려 고분의 특징

III. 고구려 고분의 전개와 역사적 의미

IV. 맺음말 –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연구의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고구려는 압록강 중하류역과 그 지류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한때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중, 북부에 걸친 넓은 범위의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넓은 고구려 영역 각지에는 700여 년간 고구려 주민이 남긴 다수의 유적, 유물이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고분은 증·개축 등의 변형이나 국가를 달리하며 재점유되었던 성곽과는 달리 당대 주민들이 남긴 것이다. 특히 고분의 매장부와 분구는 일련의 매장행위 과정이 반영된 구조물로서, 고고학에서 고분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의 여러 정보가 고분에 투영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까지 고구려의 중심이었으며, 각지의 크고 작은 여러 형식의 고구려 고분은 작은 정치체에서 강력한 왕권 국가로서 고구려의 성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집안의 통구 분지는 국내성과 산성자산성을 중심으로 적석총부터 석실봉토분, 벽화분에 이르는 다양한 형식의 고분이 어우러져 있고, 초대형 적석총이나 봉토분, 벽화분이 고구려의 매장습속과 고구려 역사의 전개를 보여준다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도 평가¹받고 있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이 넓은 범위에 분포하지만, 조사된 고분은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단편적이며, 발굴조사를 통해 대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고분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 투고: 2024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글은 2023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검토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고구려고분의 전개와 역사적 의미’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https://heritage.unesco.or.kr>

위한 조사로 집안의 초대형 적석총이 보고되었지만² 당시 조사가 보존,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였기 때문에 고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조사에 따른 한계 외에도 고분 자체의 불가피한 내재적 문제도 있다. 고분 속성상 구조는 시간 변화에 민감하지 못할 뿐더러 적석총이나 봉토분 모두 지상의 분구 가운데 매장부가 있어서 후대의 자연적·인위적 변형에 쉽게 노출되어 구조와 부장품에 대한 해석과 검증이 쉽지 않다.

고고자료로서 고구려 고분 사정이 이리함에도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고분의 구조와 부장 양상을 알 수 있는 대다수 고구려 고분이 중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 확인되는 무덤 형식이 조사되어 고구려 역사를 구성하는 데 가장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분의 전개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구려 고분의 특징

고구려 고분은 주검 안치와 관련된 제반 시설인 매장부와 매장부를 보호하는 시설이자 무덤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식물인 분구로 이루어졌다. 분구는 고구려 고분의 특징이 잘 표현된 것이어서 고구려 고분을 크게 적석총과 봉토분 두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설명이다. 여기서도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나누어 고구려 고분의 형식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³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3 고분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V권을 참고하였고, 글에서 개별 고분의 내용과 도면의 출전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 적석총

적석총은⁴ 지상에 돌을 깔고 주검을 안치한 후 그 위에 다시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무덤이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조(高句麗條)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고구려조에는 ‘고구려에서는 돌을 쌓아 무덤을 봉하고(積石爲封), 무덤 둘레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列種松柏)’고 전한다. 실제 압록강 중하류역과 그 지류역에 주로 분포하는 적석총은 중국 동북의 여타 지역과 구별되어 문헌 기록과 고고자료의 정합성을 보인다. 따라서 적석총은 고구려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 묘제라고 할 수 있다. 적석총은 치석과 축조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단 적석총, 기단적석총, 계단적석총으로 분화되었고, 적석총의 분구 형태에 따른 분화는 고구려의 성장, 발전을 시사한다(그림 1).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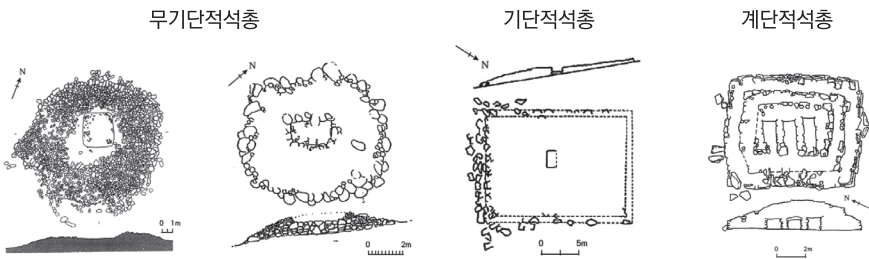


그림 1 적석총 형식(좌로부터 환인 망강루4호분, 집안 하활용8호분, 집안 칠성산879호분, 환인 고령묘지2호분)

- 4 적석총을 북한에서는 돌무지무덤 또는 돌각담무덤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積石墓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무덤을 ‘陵’과 ‘墓’로 구분하며, ‘墳’은 잘 사용하지 않고, 한국 고고학에서는 통상 지상에 분구가 없는 선사시대의 경우 ‘墓’로, 삼국시대 이후 분구가 있는 무덤의 경우 ‘墳’ 또는 ‘塚’으로 구별한다. 지상에 분구가 드러난 고구려의 돌무지나 돌각담 무덤을 한자로 하자면 적석묘보다는 적석총이나 적석분이 더 적절하며, 적석분이나 적석총은 지상의 높고 큰 분구의 역사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적석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5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58~91쪽.

1) 무기단적석총

무기단적석총은 냇돌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돌무지 형태의 무덤으로 압록강 중하류와 그 지류를 중심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통구 분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구려 멸망 이후까지도 조성되었지만, 무기단적석총의 중심 시기는 3세기까지이며, 이 기간에 가장 크고 높은 무기단적석총은 울타리 쌓는 방식으로 쌓은 계장식 적석총이다.

계장식 적석총은 지면에 돌을 깔고 그 둘레를 돌아가며 울타리처럼 돌을 세우고, 다시 그 밖으로 돌을 깔아 묘역의 평면을 넓히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높게 쌓았다. 수평과 수직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계장식 적석총은 무기단적석총과 구별되며, 치석이나 축조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총을 의도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환인 망강루4호분과 통구 분지의 마선구2378호분, 마선구626호분, 칠성산871호분 그리고 집안 호자구1호분 등이 무기단적석총 중에 고총에 해당되며, 특히 통구 분지의 마선구2378호분, 마선구626호분, 칠성산871호분을 중국에서는 국내지역 이른 시기의 왕릉으로 추정하였다.⁶

주검이 안치된 매장부는 북한에서는 석곽이라고 하지만, 돌로 네 벽을 쌓고 덮개돌을 얹은 상자형 장구(葬具)로서 석곽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네 벽을 돌로 쌓았으나 덮개는 없다고 보아서 석광이라고 부르지만,⁷ 보고된 유구에서 네 벽을 맞추어 쌓은 모습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대개 매장부는 분구 중 함몰구덩이 상태로 확인되며, 여기서 철제 관못이나 꺾쇠, 관고리 등이 출토되기도 하여 주검이 안치된 목관이나 목곽이 부식되면서 분구돌이 함몰되어 나타난 함몰구덩이를 석광이나 석곽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주검 안치와 관련하여서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列傳)에는 ‘유곽무관(有槨無棺)’으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에는 ‘유관무곽(有棺無槨)’으로 전하여 목관이나 목곽이 사용되었음은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지만, 단편적 고고자료만으로는 목

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앞의 책.

7 魏存成, 1995, 『高句麗 考古』, 吉林大學出版社.

관 또는 목곽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무기단적석총의 분구 더미에서 불에 녹은 돌(熔石)이나, 함몰구덩이 내부에서 불탄 흔적이나 불에 탄 뿔조각이 확인되기도 한다. 함몰구덩이 내부에서 불에 탄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검을 안치한 후 화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별도의 장소에서 화장하여 뼈를 추려 매장하는 2차장으로서 화장과는 구별되며, 이를 중국에서는 번소(燔燒), 또는 화소(火燒)라고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계장식 초대형 적석총 분구에서도 관찰된다. 분구돌 중에는 기와편, 그리고 불에 녹은 돌과 기와와 응결된 불에 녹은 돌 등이 섞여 있다. 분구에서 출토된 기와편으로 중국에서는 분구 위의 목조건물을 왕릉 비정의 근거로 삼지만, 불에 녹아 변형된 기와 편이나 응결된 돌은 설사 분구 위에 건물이 있었다고 하여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일회적 시설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왕릉의 상징으로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2) 기단적석총

기단적석총은 방형이나 장방형 평면의 기단에 주검을 안치하고 돌을 덮은 무덤이다. 기단은 방형이나 장방형 평면 둘레에 돌을 돌리고, 그 내부에 작은 돌을 채워서 만든다. 기단을 먼저 만듦으로써 무덤은 방형이나 장방형 평면으로 정형성을 띠어서 중국에서는 방단 적석총이라고도 한다. 기단적석총은 묘역의 크기가 먼저 정해진다는 점에서 중앙에서 밖으로 가면서 묘역을 넓혀가는 무기단적석총과는 축조 의도가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출현기의 적석총 중에 기단적석총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구 분지에서 초대형 기단적석총은 보고된 바 없다. 무기단적석총보다는 늦게 조성되었을 것이나 기단적석총의 출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기단적석총의 매장부도 목관, 목곽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며, 목곽보다 큰 목실도 있었을 것이다. 목실은 중국에서는 광실로 부른다. 광실은 길이 2.5~3.5m, 너비 1.5~2.5m의 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 함몰구덩이 바닥에 잔넛돌을 깔 석광보다는 큰 규모로 설명하고 있다.⁸ 그렇지만 잔존된 함몰 구덩이

규모로 석광과 광실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철제 관못과 관고리, 장막걸이쇠가 출토되어 목곽보다는 큰 규모의 목실로 추정되는 산성화12호분은 광실기단적 석묘,⁹ 석광적석묘¹⁰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조사와 보고 시점에 따라 구조 설명에 차이가 있어서 석광과 광실의 객관적 기준 마련은 쉽지 않다.

기단적석총에서는 무기단적석총에서 관찰되는 분구에서 불에 탄 돌이나 큰 규모의 계장식 적석총에서 관찰되는 기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초대형 왕릉급 적석총에서 기단적석총은 보고되지 않았다. 매장습속의 변화 때문인지, 계장식과 기단적석총의 위계 차이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3) 계단적석총

계단적석총은 기단 위에 기단을 중층으로 쌓아 올리면서 분구를 높고 크게 한 무덤으로 중국에서는 방계제 또는 방단계제적석총이라고 한다. 기단적석총 축조 의도와 같지만, 높은 분구를 지향한 선묘역후수직확대(先墓域後垂直擴大) 무덤으로 계단 축조에서 치석과 축조 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자연 돌의 깨진 면을 이용하거나 부분 가공한 돌로 축조한 계단적석총은 계단 단수 파악이 쉽지 않아서 드러난 현상으로는 계장식 적석총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높게 쌓으려는 의도로 기단의 네 모서리를 맞추어 기단을 중층적으로 쌓아 올려 계단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계장식 적석총과 구별된다. 임강총이나 우산하2110호분은 잘 가공되지 않은 돌로 축조한 계단식적석총으로 계단은 10단 이상으로 추정되며, 천추총이나 태왕릉은 가공된 돌로 축조하였고, 전면 가공된 돌로 축조된 가장 완성된 무덤은 7층 계단의 장군총이다.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의 경우 하층 계단 주위를 돌아가며 버팀석을 세워서 분구를 유지, 보호하였다.

8 孫仁杰, 1993, 「高句麗串墓의 考察與研究」, 『高句麗研究文集』, 83쪽.

9 孫仁杰, 1994, 「集安洞溝古墓群三座古墓清理」, 『博物館研究』 1994-3.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매장부는 대개 추가 합장이 가능한 횡혈식 구조이지만(그림 2), 계단석광적 석층으로 보고된 집안 고마령18호분은 실제 분구 상부가 훼손되어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계단과 석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횡혈식 구조는 광실과 석실이 있다. 광실은 복수의 목관이나 목곽이 안치되는 목실, 그리고 횡구부를 가진 목실, 목재 천장의 석실(목개석실) 등이 있다. 집안 신흥촌28호분은 횡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닥에 잔자갈을 깔았고, 그 위에 대량의 깨진 돌이 있어서 깨진 돌은 목실을 덮었던 것으로 보아 목실로 추정한다. 우산하2891호분은 묘도를 돌로 쌓은 횡구부가 있는 목실이고, 우산하3105호분의 2호와 3호분은 목개석실이다. 석실은 태왕릉과 장군총의 경우 가공된 돌로 벽과 천장까지 돌로 잘 쌓고 거대석으로 천장을 막았으며, 우산하1041호분은 커다란 판상석으로 벽을 쌓고 거대석 한 장으로 천장을 덮었다. 우산하3319호분은 벽돌이 주 축재이지만 일부 돌을 사용한 전석혼축실이다.

초대형 계단석적층의 매장부는 광실에서 석실로 등장 시점의 선후관계를 보인다(표 1). 광실로 비정된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 칠성산211호분, 서대총과 우산하992호분, 마선구2100호분은 분구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분구의 함몰 구덩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못, 꺾쇠, 장막걸이쇠가 출토되어 목관과 목곽 또는 목관과 목실의 2중구조로 추정된다. 석실인 태왕릉에서는 석실 내에 가형 석곽이 있고, 석곽 내에 관대가 2개 있어서 목관, 석곽, 석실의 3중구조이며,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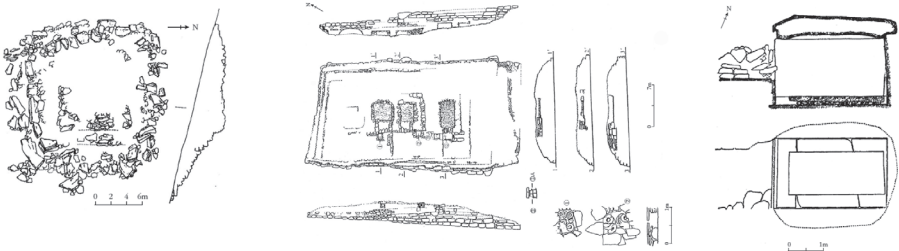


그림 2 계단석적층 횡혈식 매장부(좌로부터 집안 고마령14호분, 집안 우산하3105호분, 집안 우산하1041호분)

구 상면에서 태왕릉의 석곽 부재와 재질과 형태가 같은 석재가 확인된 천추총도 3중구조 매장부로 추정된다. 장군총은 석실 내에 관대 2개가 놓여 있는 관과 석실의 2중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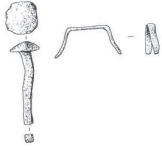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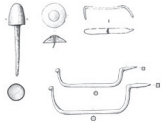
4세기 이후 초대형 계단적석총의 분구에서는 암, 수키와와 와당, 용마루기와, 착고기와 등이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중국에서는 적석총의 평탄한 분구 상면에 목조건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지만,¹¹ 분구의 2/3 정도 높이에 석실이 위치한 장군총의 예에 비추보면, 광실 위치로 본 분구 평탄면은 매장부가 완전히 결실되었거나 매장부의 기저면일 가능성이 있다. 광실 매장부는 목재의 부식으로 분구가 원상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초석 등 기초 시설 없이는 기와 건물 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분구의 목조건물을 상정하기 어렵고, 현재 추정하는 초대형 적석총의 모습은 당시와는 달랐을 것이다.

분구의 목조건물은 태왕릉이나 장군총 석실처럼 한 매의 거대한 천장 막음돌이 기초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상정 가능하다. 실제 장군총 7층 계단석의 가장자리에 등간격으로 작은 구멍이 있고, 무덤 아래서 수습된 철제 난간쇠, 그리고 기와와 와당 등의 지붕 부재들이 출토되어서 분구 위의 목조건물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적석총은 고구려 고유 묘제로 고구려의 성장과 함께 분형과 매장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건국 이후부터 영토를 넓혀갔지만, 확장된 고구려 영역에서 적석총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압록강 중하류역과 그 지류역의 제한된 범위에 분포하는 적석총은 전통적 보수성이 강한 묘제라고 할 수 있지만, 배타적인 묘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석총 군집의 수와 개개 무덤의 규모로부터 원 고구려 주민 집단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으나, 편중된 조사로는 집단 간의 통합을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통구 분지의 초대형적석총과 적석총의 위계 분화로부터 집단 간의 통합과 위계화가 진전된 고대 왕권국가로 고구려의 발전을 유추할 수 있다.

1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앞의 책, 364~365쪽.

〈표 1〉 초대형적석총 출토 장구 관련 부속구와 매장부 구조(강현숙 2023)

무덤		못	꺾쇠	장막 걸이쇠	기타	장구 부재	장구
계장식 석광 적석총	마선구2378호분						목관, 괄 2중구조
	마선구626호분	○(철)	○(철)				
	칠성산871호분						
계단식 광실 적석총	임강총	○(철)	○(철)				목관, 괄/2중관, 목실 2중/ 3중 구조
	우산하2110호분	○(철)		○(철)			
	칠성산211호분	○(청동, 금박원두정)	○(청동)	○(철)	금동사엽문 (길이 4cm)		
	서대총	○(철, 방두정)	○(철)				
	우산하992호분	○(청동)	○(청동)	○(청동)	금동사엽문 (길이 6cm)		
계단식 석실 적석총	마선구2100호분	○(금동모잔편, 금동소형원두정)			금동화형장식 (지름 3.8cm)		목관, 괄, 실 3중구조
	천주총	○(철, 장, 단2중)	○(철)		철관고리		
	태왕릉	○(금동, 장식못)	○(금동)	○(금동)			
계단식 석실 적석총	장군총		○(철)				목관 석실 2중조

2. 봉토분

봉토분은 돌 대신 흙으로 분구를 쌓은 무덤이다. 고구려 전 영역에서 확인되며, 특히 후기 도성인 평양 도성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에서는 적석총보다 봉토분이 다수를 점하여 봉토분은 고구려 후기묘제로 평가된다.

흙을 쌓아서 무덤을 봉하여 토분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돌로 만든 기단이 확인되기도 하여서 봉토분은 순수봉토분과 기단봉토분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봉토분은 지상이나 지면에 매장부를 마련하면서 흙으로 매장부를 봉한 것으로,

분구는 방대형 혹은 방추형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구상 원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봉토분은 분형의 차이는 없고, 분구 크기에서 차이를 보여 분구 형태에서 무덤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 적석총과는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기단봉토분은 적석총의 기단과 같은 방식으로 방형 평면의 기단을 만들고 흙을 덮은 무덤으로, 적석총과 봉토분의 분구 축조 기술이 결합된 적석총에서 봉토분의 계기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봉토 흙이 흘러내려서 기단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조사에서 통구 분지의 통구 사신총, 오회분4호와 오회분5호분 등 6세기 사신도 벽화분에서 기단석이 확인되었다. 5세기 말까지 대형 적석총이 축조되었던 통구 분지에서 6세기 들어 기단봉토분이 대형분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적석총 축조 방식이 상위 신분의 무덤에서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평양 천도 이후 서북한의 경신리1호분, (전) 동명왕릉과 토포리대총, 호남리사신총 등이 기단봉토분이어서 원고구려 주민의 출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매장부는 횡혈식 구조로, 주검이 안치되는 현실과 현실 앞에 마련된 추가 합장을 위한 통로인 연도가 기본구조이지만, 현실 외에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그림 3). 별도의 공간은 현실과 연도 사이에 위치하거나 긴 연도의 좌우에 부가되기도 하여 각 공간의 평면형태와 공간 배열에 따라서 석실의 전체 평면은 다양하다. 특히 연도 좌우에 서로 대칭되도록 곁칸이 마련되어 횡장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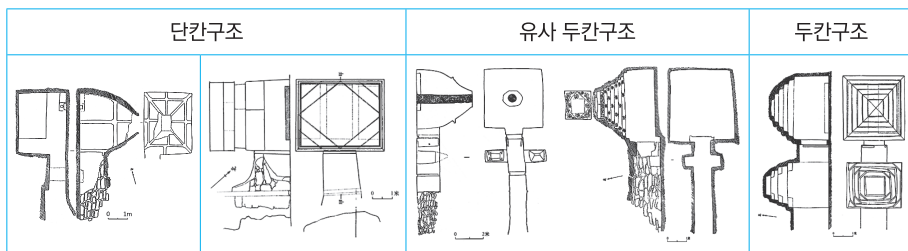


그림 3 석실 구조(좌로부터 만보정1368호분, 오회분5호분, 마선구1호분, 산성하983호분, 장천1호분)

전실처럼 보이는 유사 두칸구조는 주로 중국 소재 봉토분이나 벽화분뿐 아니라 계단적석총에서도 확인되어 중국 동북 지역의 지역색이 잘 드러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칸 구조의 석실에서는 모두루총이나 장천1호분 등 몇몇 고분을 제외하고는 현실에 비해 전실의 높이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서북한 지역의 여러 칸 구조의 봉토분과 구별되는 중국 동북지역 석실의 특징이다.

매장부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천정부에 있다. 일정 높이로 벽을 쌓은 후 궁륭식이나 고임식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천장을 높이 쌓고, 한 장의 막음돌로 천장을 마무리하였다(그림 4).

궁륭식 천정은 반구상 천정부를 의미하지만, 실제 방형 평면 현실의 경우 벽의 네모서리의 능선이 천정부에 살아 있어서 이를 궁륭상과 구별하여 사아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아식으로 쌓아 올리다가 중간에 급하게 꺾어서 천장 막음돌을 얹은 경우를 궁륭식이나 사아식과 구별하여 절천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아식이나 절천정 모두 축조의 기본방식은 궁륭식과 같다.

고임식은 벽 위에 돌을 고이면서 천정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현실 내부에서 천장을 올라다 볼 때 고이는 방식은 평행고임, 삼각고임, 팔각고임 등이 있다. 평행고임은 네 벽에 평행하게 돌을 고여서 계단처럼 보이는 것이며, 삼각고임은 네 모서리의 받침돌이 삼각형인 경우이고, 팔각고임은 네 벽 모서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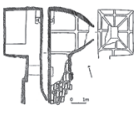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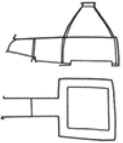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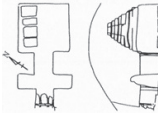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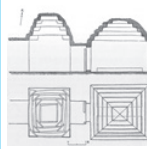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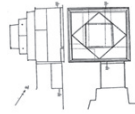
궁륭식			고임식		
			팔각고임	평행고임	평행삼각고임
					

그림 4 석천장가구(좌로부터 집안 만보정1368호분, 환문총, 절천정총, 무용총, 장천1호분, 오희분4호분)

모를 줄여가면서 팔각형이 되도록 고인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천정부를 높게 하여 석실 내부 공간이 확대된 무덤은 주로 대형분이나 벽화분에서 관찰된다. 벽화가 없는 중·소형분에서는 벽 위에 삼각고임을 한 후 커다란 돌을 덮은 삼각고임+평천장이거나, 위로 가면서 벽을 조금씩 안으로 줄여 쌓아 천장돌을 덮은 평천장도 많다.

3. 벽화분

벽화분은 무덤 내부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으로, 석실 봉토분에서 주로 확인되지만 기단봉토분, 계단적석총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통구 분지 외에도 동쪽으로 장천, 서쪽으로 환인에 분포하며, 현재 33기가 확인되었다.¹² 그 간 벽화분은 서북한에 주로 분포한다고 알려졌지만, 단위 지역에서는 벽화분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통구 분지로(그림 5), 통구 분지가 중국 한 멸망 이후 동아시아 벽화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묘실 벽화는 석실 내부 전면을 화면으로 삼아 천장에는 해와 달, 별, 각종 상서로운 내용을 그렸고, 벽면에는 생활의 여러 장면, 장식도안, 사신 등을 그렸다. 그림은 벽면에 백회를 발라 화면을 만들어 그리거나 잘 다듬은 돌면 위에 직접 그렸는데, 생활풍속이나 장식도안은 회를 바른 벽면에 그리고 사신은 돌면 위에 직접 그렸다. 벽면 처리와 벽화 내용은 무덤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생활 장면이나 장식도안은 단칸, 여러 칸 등 다양한 구조의 석실에서 확인되지만, 사신은 단칸구조의 석실에서만 확인된다.

그런데 중국 소재 벽화분의 지역색도 있다. 석실 구조는 연도 좌우에 결간이 있는 유사 두칸구조 비중이 서북한에 비해 높다. 무용총, 각저총과 마선구1호분, 산성하332호분, 산성하983호분, 장천2호분, 환인 미창구1호분 등이 그 예

12 전호태, 2021, 「고분벽화」,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구려통사 8. 고구려 고고-유적편』, 280, 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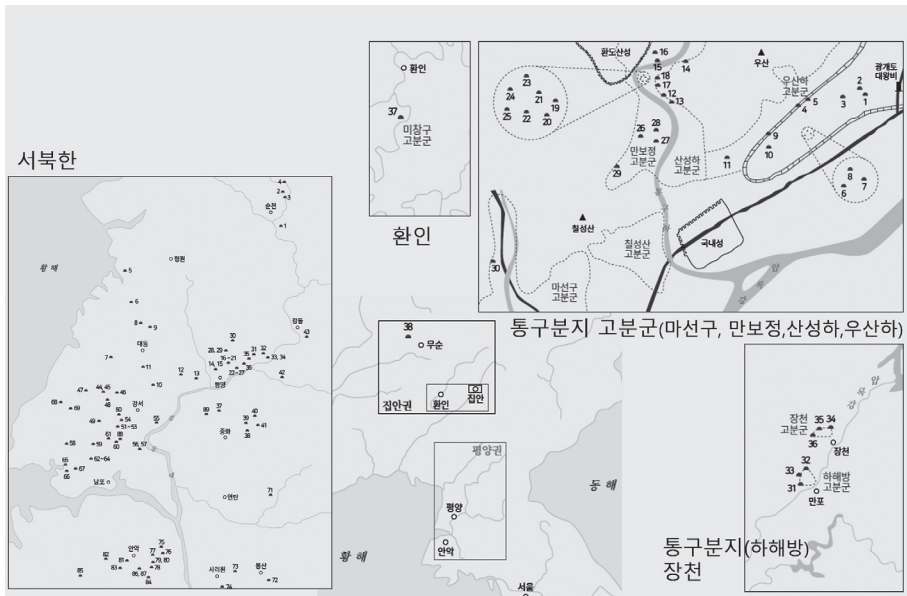


그림 5 벽화분 분포(전호태, 2021, 지도 1, 2, 3, 4 편집)

로, 이 가운데 산성하332호분, 산성하983호분, 장천2호분, 환인 미창구1호분 등의 묘실 벽화에서 연꽃 장식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꽃무늬 장식 외에도 환문충, 귀갑충 등은 장식도안으로 무덤 내부를 장식한 벽화분이다.

한편, 무덤 축조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고려해볼 때 벽화분은 당시 상위 무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의 적석총이 중심이었던 국내도성에서는 4세기 이후에 출현한 신묘제라고 할 수 있다. 4, 5세기의 국내도성에서 왕릉급 무덤은 초대형 계단적석총이며, 벽화가 그려진 대형의 석실계단적석총과 봉토석실벽화분이 상위의 무덤으로 병존한다. 따라서 국내 지역 벽화분의 다양한 형식으로부터 고구려 지배층 구성의 다양성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통구 분지에서 벽돌로 축조된 벽화분은 확인된 바 없었는데, 벽돌을 주 축재로 한 유사 두칸구조의 계단적석총인 우산하3319호분에서 생활풍속을 내용으로 한 벽화편이 출

토되었다. 초대형분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우산하3319호분은 중앙 귀족 구성의 다양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통구 분지 고분구역 가운데 하해방 고분구역에서는 적석총이 확인되지 않고, 대형분은 5세기 즈음에 모두루총, 하해방31호분, 환문총 등이 자리한다. 따라서 하해방고분구역은 통구 고분군의 여타 고분구역보다 늦게 조성되었고, 국내 도성의 공간 확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5세기 중엽경이 되면 동쪽으로 더 나간 장천지역에서 벽화분이 조성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5세기 중엽이 되면 환인 미창구에서도 대형의 봉토석실벽화분이 조성되어 국내 지역뿐 아니라 지방의 지배층 구성도 다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Ⅲ. 고구려 고분의 전개와 역사적 의미

700여 년간 고구려 주민이 남긴 적석총, 봉토분과 벽화분이 모두 확인된 지역은 중국 길림성 집안시 일원으로 통상적으로 통구 분지로 불려왔다. 통구 분지의 1만여 기 넘는 고분은 작은 마을에서 보다 큰 집단으로, 그리고 다시 큰 나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초대형 적석총은 태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 평양 천도 이후에도 중국 소재의 대형 적석총이나 벽화분은 그 위상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 별도로 국내 지역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전개를 설명하고 전개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1. 고분의 연대

고분이 고구려 역사 전개를 실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은 여러 형식이 병존하는 한편, 시간의 민감한 변화를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이에 무덤 구조와 묘실벽화의 시간에 따른 정향성(定向性),

그리고 주변 지역과 교차편년이 가능한 부장품을 대상으로 고분 전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그림 6).

먼저, 고분의 연대 판단에 1차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고분 자료를 문헌의 역사 정황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첫 고고자료가 부여와 관련된 것이다. 환인 망강루4호 적석총에서 출토된 금사를 꼬아 만든 이식은 북방족의 특징이다.¹³ 이러한 유물이 출토된 부여의 무덤은 노하심 중층56호무덤으로¹⁴ 중국 전한대 동경으로 미루어 늦어도 1세기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고구려 출자와 결부시켜 망강루 적석총의 연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한편,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인면차할 그리고 만보정242-1호분의 표비와 금동제 덮개방울 등도 부여와 관련지어 연대를 비정한다. 청동인면차할과 유사한 것은 길림 모아산 귀족묘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만보정242-1호분의 재갈과 덮개방울은 노하심 중층11호와 67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모용외의 침공으로부터 부여 도성이 함락되고 흩어진 285년 이전으로 연대 추정되므로,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 만보정242호분 등이 이 즈음으로 연대 비정된다.

역사적 정황보다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연대 판단 자료는 명문을 통한 무덤의 연대 추정이며, 그 예로 권운문 와당이 있다. 국내성에서 출토된 권운문 와당의 태녕(太寧) 연호는 323~325년까지 사용되었던 중국 동진 명제(明帝)의 연호이다. 따라서 국내성 권운문 와당과 유사한 형태의 고분 출토 권운문 와당도 이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지가 확인된 서대총 권운문 와당의 기축(己丑)은 329년으로, 우산하992호분의 무술(戊戌)은 338년, 그리고 우산하3319호분의 정사(丁巳)와 을묘(乙卯)는 357년과 355년으로 비정된다.¹⁵

13 이 외에도 금제 호판형 이식이 있는데, 집안 석호 왕팔발자 무덤과 부여 노하심 중층 무덤 그리고 한강 유역 김포 운양동의 주구묘에서 출토된 바 있어 부여와 고구려, 한강 유역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이한상, 2013, 「이식으로 본 고대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백제문화』 49.

1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특히 우산하3319호분에서 출토된 정사명 권운문 와당 명문(太歲在丁巳五月廿日, 爲中郎及夫人造蓋墓瓦, 又作民四千, 饑饉?用盈時興詣, 得享萬世)은 무덤을 덮기 위해 기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무덤의 연대 판단에 안정적이며, 여기서 공반된 청자도 350년 즈음으로 연대 비정되어 고고자료 간의 정합성을 보인다.

이 외에 진식(晉式) 대장식금구(帶裝飾金具)나 청동용기, 청자 등은 중국과의 교차연대가 가능하다. 산성하152호분, 우산하3560호분, 우산하3142호분에서 출토된 진식 대장식금구는 형태와 크기가 서진(西晉, 265~316)에서 유행 하였던 것과 유사하다.¹⁶ 출토 맥락은 확실하지 않지만, 집안시 출토로 전해지는 진고구려술선천장(晉高句麗率善仟長), 진고구려술선백장(晉高句麗率善佰長), 진고구려술선읍장(晉高句麗率善邑長) 등 서진의 동인(銅印)과¹⁷ 진식 대장식금구는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가졌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분은 4세기 전엽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우산하3319호분에서 출토된 청자나 칠성산1096호분의 청동 초두도 중국 동진대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칠성산1096호분과 우산하68호분의 청동정도 비슷한 시기로 추정 가능하여 4세기 중엽경으로 비정된다. 한편, 칠성산1096호분에서는 중원왕조의 기물 외에도 금속제 기습마구 일습이 부장되었다. 재갈은 중국 조양 원대자벽화분 출토 재갈과 유사하며, 원대자벽화분은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어 청동초두의 연대와의 부합된다.¹⁸

위와 같은 기준으로 무덤의 구조와 묘실 벽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고분 전개의 기준을 마련해보면(그림 6).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은 적석총, 봉토분과 기단봉토분은 출현 시점에서 선후관계가 있지만 일정 기간 서로 다른 형식의 무덤이 병존한다. 먼저, 적석총은 무기단적석총에서 기단, 계단적석총으로 변화하

-
- 15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16 강현숙, 2010, 「帶金具 副葬 高句麗 古墳의 考古學的 含意」, 『한국고대사연구』 59.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사료DB(<https://db.history.go.kr/ancient>).
 18 강현숙, 2012, 「高句麗 古墳과 新羅 積石木槨墳 交叉編年에서의 몇가지 論議」, 『한국상고사학보』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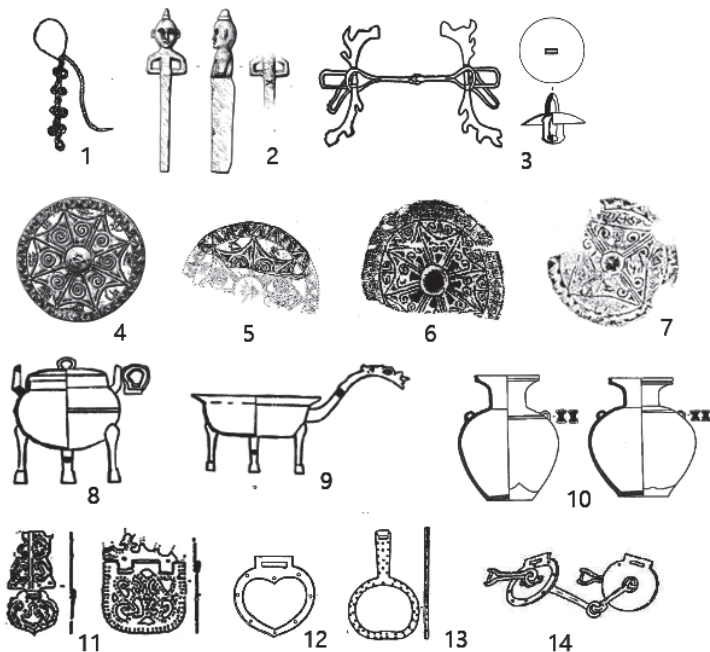


그림 6 고구려 고분 편년 자료

1. 환인 망강루4호분 금제 이식 2. 임강총 청동인면차할 3. 만보정242-1호분 재갈과 뎡개방울 4~7. 권운문 와당: 서대총(기축), 우산하992호분(무술), 우산하3319호분(정사, 을묘) 8~9, 12~14. 칠성산1096호분(청동정과 초두, 행엽, 등자, 재갈) 10. 우산하3319호분 청자 11. 우산하3560호분 진식대장식구

며, 매장방식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변화하여, 수혈식의 목관, 목곽에서 광실인 목실, 목개석실 그리고 석실로 변화하여, 분구 형태와 매장방식 및 구조를 통해 적석총의 전개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묘실 벽화는 벽면의 그림이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사신으로 변화하며, 그 과도기에 장식도가 더해지기도 하지만, 6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신도가 묘실벽화의 중심이 되고, 생활의 여러 장면과 장식도안이 사라진다. 따라서 명문 기록과 부장품, 매장방식, 묘실벽화를 근거로 시간에 따른 고구려 고분의 전개를 설명할 수 있다.

2. 중국 소재 고분의 전개

앞에서 살펴본 연대 판단의 기준에 의해 고분 구조와 묘실벽화 전개의 정향성(定向性)과 부장품을 종합 정리하면,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전개는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단계는 봉토분이나 기단봉토분 없이 적석총이 중심이 되는 적석총 순수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고구려의 모든 무덤 형식이 병존하는 시기로, 적석총과 봉토분, 기단봉토분, 벽화분 등이 병존하며, 부장품의 종류와 양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시기여서 새로운 요소의 출현과 부장품을 기준으로 4개의 분기로 세분된다. 셋째 단계는 봉토분과 기단봉토분이 중심이 되는 시기로, 적석총은 일부 지역에서 소형분으로 존재한다(표 2).

먼저, 첫 단계는 대략 3세기 후반까지로 적석총이 중심이 되는 적석총 순수기이다. 무기단적석총은 압록강 중하류의 본, 지류역 각 지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분포한다. 압록강 중하류와 지류역에서는 『삼국사기』 기록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고 전하는 기원전 37년 이전에 이미 적석총 축조 집단이 강변과 산곡(山

〈표 2〉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전개

무덤 \ 연도		0	100	200	300	400	500년
적석총	무기단	-----					
	기단	-----					
	계단	-----					
봉토석실분		-----					
기단봉토석실분		-----					
벽화		생활풍속도 장식도 사신도					
고분 전개		적석총 순수기		다묘제 병존기		봉토분 중심기	

谷)에 흠어져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총이나 압록강 중상류의 장백 간구자 적석총이 그 예로, 오도령구문 적석총에서 출토된 청동기나, 장백 간구자 적석총 인근의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검 등으로 해당 지역 선주민과 연결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단적석총의 축조 시점을 판단할 고고학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1세기 경을 즈음하여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단적석총은 3세기 늦은 시점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첫 단계의 중심은 여전히 무기단적석총이다. 특히 첫 단계의 대형분은 계장식으로 축조한 것으로, 환인 망강루4호분, 통구 분지의 마선구 2378호분과 마선구626호분 그리고 칠성산871호분이 있다. 적석총 구조적 한계로 부장 양상은 확실하지 않지만, 환인 망강루4호 적석총의 금실을 꼬아 만든 귀걸이와 유리제 이진, 청동방울, 마선구626호분의 철제 차할, 이 외에도 철제 차축과 재갈 등 차마구와 토기 등이 있다. 칠성산871호분에서 기종을 알 수 없지만 철제 갑옷편과 영락 및 장식편이 출토되어¹⁹ 3세기에 갑옷과 금공 장신구가 부장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단계는 4, 5세기로 통구 분지에는 적석총과 봉토분, 벽화분 등 다양한 형식의 무덤이 있다. 분구는 같지만 매장방식과 구조는 달라서 수혈식과 횡혈식 장법의 구조가 있고, 횡혈식 장법 구조에서도 목실, 목개석실 등이 있다. 여기에 새로이 묘실벽화가 더해져서 매장방식에 따른 매장부 구조, 묘실벽화, 부장품 등의 상관관계를 통해 볼 때 둘째 단계는 4개의 분기 설정이 가능하며, 각 분기의 시간 폭은 균일하지 않다.

1분기는 횡혈식 장법이 출현하기 시작한 3세기 말을 전후하여 4세기 초까지의 짧은 기간이다. 계단적석총이 축조됨으로써 무기단, 기단, 계단으로 분구의 중층 분화가 일어났다. 적석총 주민은 횡혈식 장법을 채용하였지만, 정착 천장

19 보고서에서는 동편으로 보고되었지만, 동편으로 잔존되는 유물의 경우 보존처리 과정에서 금동편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락 장식과 영락이 달린 띠편은 금동제로 추정된다.

까지 잘 갖춘 석실은 축조되지 못하여 매장부는 목실이나 목개석실이다. 3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는 임강총, 우산하2110호분 두 무덤은 통구하 이동지역에서 처음 출현한 초대형 적석총이며, 만보정242호분은 수혈식 장법에서 횡혈식 장법으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연접무덤이다. 4세기 들어 조성된 칠성산211호분은 다종다양한 금공품이 부장되어 첫 단계 무덤과 질적 차이를 보인다.

2분기는 권운문 와당이 고분에 사용된 4세기 초부터 중엽경까지의 기간이다. 횡혈식 구조가 완비된 석실봉토분과 묘실벽화가 새로 등장함에 따라 전 시기에 비해 무덤의 구조와 형식은 더욱 다양해졌다. 이 기간의 초대형분은 권운문 와당이 출토된 계단적석총으로, 서대총, 우산하992호분, 마선구2100호분, 우산하3319호분 등이며, 그 가운데 왕릉임에 이견이 없는 무덤은 서대총이다. 우산하3319호분은 당시의 모든 무덤 속성을 공유한 벽화편이 검출된 전석훈축실의 계단적석총으로, 피장자는 초대형 적석총과 출자가 달랐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산성하152호분과 우산하3560호분의 진식 대장식금구는 중국 서진과의 교류를, 칠성산1096호분은 동진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청동초두와 북방 모용선비와 관련을 보여주는 기승용 마구가 부장되는 등 중국 중원왕동, 북방왕조와 대외 교류의 일면을 시사한다. 만보정1368호분은 통구 분지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봉토석실벽화분으로 석실 구조는 낙랑, 대방고지의 전실분과 유사하다. 이처럼 통구 분지 대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분 구조와 부장품의 다양성은 고구려 중앙귀족이 다양한 출자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3분기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초까지로, 천장까지 돌로 잘 쌓은 석실이 완비된 시기로,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대형분은 계단석실적석총과 봉토석실벽화분이며, 묘제 간 구조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벽화분의 비중은 커졌다. 계단석실적석총 가운데 연화문와당이 출토된 천추총과 태왕릉이 왕릉으로 비정되며, 천추총에서는 권운문 와당과 연화문 와당이 함께 출토되어 권운문 와당에서 연화문 와당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유사 두칸구조 석실과 생활 장면을 그린 벽화분은 계단석실적석총과 봉토분에서 공통된다. 우산하540호분에서는 수레 부속구의 하나인 금동제 일산대끝장식이 부장되었고, 우산하2112호분에서는

태왕릉에서 보이는 것과 동형의 연화문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두 무덤 모두 이 기간에 조성된 대형 계단적석총이다. 우산하 고분구역의 무용총, 각저총과 통구12호분, 마선구 고분구역의 마선구1호분은 이 분기를 대표하는 봉토석실벽화분으로, 유사 두칸구조이며, 벽화는 생활 장면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벽면에 묘주초상화가 단독으로 그려지지 않은 점은 서북한 지역 벽화분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전 시기에 비해 왕릉급 초대형 계단적석적석총을 정점으로 무덤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한편, 봉토석실벽화분의 수가 늘어나고 통구 분지 내 분포 범위 확대 등은 왕도의 성장, 발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분기는 5세기 중엽부터 말까지이다. 평양으로 천도한 국내 지역에서는 장군총을 제외한 왕릉급의 초대형 적석총은 확인되지 않으며, 초대형 적석총의 수도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단적석적석총과 봉토석실벽화분이 대형분의 중심이 되며, 적석총과 봉토분에서 묘실벽화의 비중은 증가한다. 우산하 1041호분은 벽화가 그려진 5세기 말경의 계단적석총이며, 하해방31호분과 환문총은 통구 분지에서 새로 조성된 5세기 전반의 벽화분이다. 한편, 장천, 환인 등지에서도 벽화분이 조영되어 벽화분의 분포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장식도 안을 그린 벽화분의 수도 증가하였다. 서북한에서는 진파리 일대에 전 동명왕릉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가 능역으로 새로 조성되었으며, 국내 도성과 평양 도성 사이에 평성, 순천, 운산, 위원 등지에서 대형 계단적석총이나 봉토석실분, 기단봉토석실분이 조성되어 벽화분과 함께 국내 도성과 평양 도성을 연결하는 내륙 교통로의 주요 거점지였음을 시사한다.

셋째 단계는 기단봉토석실분과 봉토석실벽화분이 중심이 되는 6세기 이후이다. 왕릉으로 비정할 만한 초대형 적석총은 통구 분지나 서북한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왕릉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통구 분지의 대형분은 우산하 고분구역으로 공간적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비해 서북한에서는 평양 진파리 일대에 이어서 대성산성 동편으로 내리, 토포리, 호남리로 이어지는 대규모 고분군이 조성되었고, 서쪽으로 강서 삼묘리에도 사신도 벽화분이 조성되는 등 대형분의 분포가 확대되었다. 통구 분지의 사신도가 그려진 통구 오희분4호분

과 오희분5호분, 통구 사신총 등의 기단봉토분이 최상위 무덤이어서 적석총 축조방식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단봉토분이나 봉토분이 최상위 무덤이 되면서 적석총처럼 분구 형태에서 드러내는 가시적 상징성이 사라져 고분 전개의 셋째 단계는 봉토분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고분의 제일성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지역 왕릉급 초대형 적석총이 왕의 무덤이자 기념물이며, 국가 상징으로서 사회적 기능은 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고층으로 설명되는 사회를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3. 중국 소재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

고구려 고분의 전개 과정이 대개 대형분이거나 대형분의 부장품이 기준이 되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전개의 첫째와 둘째 단계는 고구려의 정치, 사회적 발전과 궤적을 같이하지만, 묘제에서의 제일성(齊一性)이 완성된 셋째 단계는 고분의 정치, 사회적 의미보다는 벽화분으로부터 문화적 성숙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는 첫 단계는 고구려 국가 형성과 성장, 둘째 단계는 영역 국가의 지배자로서 태왕 그리고 지배 체제의 정비와 지방 지배, 셋째 단계는 고분의 상징적 기능 약화와 문화적 성숙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첫 단계: 국가의 형성과 성장

『삼국사기』, 광개토왕릉비, 모두루총에서는 부여 혹은 북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에 의해 고구려가 세워졌다고 전하지만, 정작 부여의 중심지에서 적석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기원전 2세기 즈음 조성되기 시작한 압록강 중하류와 그 지류역의 적석총은 적석총을 매개로 한 주민 간의 동류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며, 이 동류의식이 고구려 국가 형성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몽이 세운 고구려의 기층민은 압록강 중하류와 지류역의 적석총을 축조한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적석총은 압록강 중하류역과 지류역 각지의 주민과 집단 간 통합을 진전시

켰고,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나 『삼국사기』에 전하는 비류나부, 연나부, 환나부, 관나부, 계루부 등이 그러한 통합된 집단 간의 중층적 위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졸본 시기의 초대형 적석총은 혼강 유역 환인 망강루4호 적석총이나 분산된 적석총 주민 집단 간의 중층적 위계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집단 간 중층적 위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음은 통구 분지에 초대형 적석총이 축조되는 2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초대형 적석총 마선구2378호분, 마선구2381호분, 마선구626호분 등으로 통구하 이서 지역인 마선구 일대에서 확인되므로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와 어느 정도 관련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세기 말을 즈음하여 우산하 고분구역의 임강총과 이와 비슷한 시기의 우산하2110호분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지역의 중심이 통구하 이동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국내 지역은 국내성과 산성자산성(환도산성)으로 이루어진 도성 체계를 갖춘 실질적 고대 왕권 국가로서 질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단계: 태왕, 영역국가로서 체제 정비

고분 전개에서 가장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시기는 4, 5세기로, 고분은 강력한 왕권의 성장과 함께 지배층 구성이 다양해지고, 확대된 영역에 대한 지배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배층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대형분의 여러 형식이다. 적석총은 전통적 보수성이 강한 묘제인데, 4세기부터 통구 분지에는 횡혈식 장법의 석실, 봉토분구, 묘실 벽화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왕도인 통구 분지에 전통의 적석총 주민 외에도 다양한 출자를 가진 주민의 유입을 시사한다. 새로 출현한 현상의 하나는 낙랑, 대방 축출 이후 봉토석실분이나 봉토석실벽화분 등의 출현이다. 우산하3319호분의 경우는 벽돌과 묘실벽화, 횡혈식 구조가 결합된 계단적석총으로 황해도 봉산군의 장무이무덤이 이와 유사한 구조의 봉토분이다. 한편, 만보정1368호분은 현재 통구 분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봉토석실

벽화분인데,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안악 로암리 고분, 평양 영화9년명 동리 무덤, 이 두 무덤은 중심 축재가 벽돌이다. 무덤의 전통적 보수성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무덤들은 낙랑, 대방군 출신이거나 중국 중원왕조와 관계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 귀족 구성의 다양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귀족묘역으로 해석하는 산성자 산성 동벽 아래의 고분군에는 출자를 달리하는 여러 형식의 무덤이 전통의 적석총과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이로써 고구려 중앙 귀족에 출자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음과 출자를 달리하는 귀족도 왕을 정점으로 한 고구려 주민으로서 동류의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중원의 양진(兩晉)과 북방 모용선비 전연(前燕)과의 관련을 보여주는 기물이 집중된 것도 이 단계로 국내 지역이 대외 교섭의 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 가령 산성하152호분의 서진대의 특징을 지닌 대장식구, 우산하3319호분의 동진 청자, 그리고 우산하68호분이나 칠성산1096호분의 청동정이나 초두, 세 등의 중국 중원의기 등이 중국 중원왕조와의 관련을 보여준다. 한편, 칠성산1096호분의 금동제 기승 마구 일습은 전연의 조양 원대자벽화분이나 안양 효민둔 목곽묘의 금동제 기승마구와 유사하여 고구려에서 금속제 기승마구의 부장은 전연과의 일진일퇴의 전쟁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안정적인 왕도로서 국내 도성의 확장은 벽화분 분포 범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5세기에 들어서면서 적석총이 자리하지 않았던 하해방 일대에 모두루총, 하해방31호분, 그리고 환문총이 조성되면서 통구 분지의 동편으로 새로운 고분 구역이 조성되었다. 새로 조성된 하해방 구역의 모두루총이나 하해방31호분은 두칸구조로 덕흥리벽화분과 유사하지만, 이는 통구 분지의 우산하, 산성하, 마선구의 중심이 되는 유사 두칸구조 벽화분과 다르다. 따라서 하해방 고분구의 벽화분으로 미루어 새로 편입된 중앙 귀족의 모습과 함께 왕도의 동편으로 확장을 엿볼 수 있다.

5세기 중엽 평양 천도 이후 중국 동북지역과 평양을 잇는 각지에 조성된 유사 두칸구조의 계단석실적석총과 봉토석실벽화분은 지방 지배체제가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압록강 이남의 적석총이 자리하였던 만포, 초산 등지에서는 유

사 두칸구조의 계단석실적석총이 대부분으로 자리하고, 평안북도 운산 용호리의 대형 계단적석총과 봉토석실분 그리고 순천, 평원 등지의 기단봉토분과 봉토석실벽화분은 평양으로 이어지는 내륙 교통로를 시사한다. 아울러 통구 분지를 벗어난 동쪽으로 장천에서는 대형의 계단석실적석총과 봉토석실벽화분, 서쪽으로 환인 미창구에서는 봉토석실벽화분이 고구려의 동북 방향이나 서북 방향의 중요 거점지를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도성과 평양도성뿐 아니라 확대된 고구려 영역의 동북, 서북 양 지역에서도 중앙의 힘이 미치는 거점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고구려의 확대된 영역에 대한 직접 지배 체제가 완성되었음을 시사한다.

3) 셋째 단계: 문화의 성숙과 고총시대의 종언

6세기 이후가 되면 대형의 계단석실적석총은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소형분의 형태로 압록강 중하류역에서 지속되어 일부는 동실묘(洞室墓)라고 하여 지상에 소형 석실을 흙과 돌로 덮거나 작은 돌무지 형태로 적석총의 전통이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고구려 무덤의 중심은 석실봉토분이며, 초대형 적석총이 왕릉이었던 5세기대와는 달리 6세기 이후가 되면, 왕릉을 비롯한 무덤의 중심은 석실봉토분이 된다. 따라서 셋째 단계는 무덤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자신의 출자를 드러냈던 전 단계와는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형식의 고분을 통해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영역 지배를 설명한 것과 달리, 6세기 이후는 적석총에서 드러났던 출자에 따른 무덤의 가시적 차별은 사라지고, 고분에서 왕릉을 정점으로 한 제일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 원주민과 새로 편입된 주민 간의 구별이 사라지고 고구려 주민으로서 새로운 동류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고고학적으로는 고총고분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총시대의 종언은 지배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화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세기 이후의 사신도 봉토석실벽화분은 석실 축조에 필요한 치석과 축조 기술은 물론, 유려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 화면 구성 등

에서 고구려 장의 예술의 최정점에 달했음을 실증한다. 최고 수준의 사신도가 그려진 봉토분이나 기단봉토분은 고구려 최상위 신분의 무덤으로서 수준 높은 문화대국으로서 고구려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국내 도성이 자리하였던 통구 분지 우산하 고분구역에 열상으로 분포하는 6세기 이후 왕릉급의 무덤으로 평가된 사신도 벽화분은 기단봉토분으로, 평양으로 이주하지 않은 고구려 중앙 귀족은 분구에 기단을 두름으로써 자신의 출자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평양 천도 이후에도 국내 지역은 별도로 왕도에 준하는 위상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연구의 과제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발하여 한때는 한반도 중부지역을 차지하였던 고구려의 역동적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은 당대 고구려 주민이 남긴 고분이며, 특히 왕도를 중심으로 한 고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길림성 집안의 통구 분지에서는 적석총에서 출발하여 횡혈식 장법, 봉토분구, 묘실벽화 등의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 다양한 형식의 무덤이 조성되었고 차츰 봉토석실분으로 제일성을 갖추어가는 고분의 전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가 국가를 형성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영역국가로 성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대의 실물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은 국내 도성을 중심으로 한 왕릉이나 도성의 구성과 경관 등에 대한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했으며, 문헌 사료로 설명되지 못하였던 고구려사 구성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 연구의 주된 대상이 중국 소재 고분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지만, 중국 소재 고분으로는 고구려사를 재구성할 수 없다. 특히 적석총 연구는 주로 중국 소재 적석총을 대상으로 하지만,²⁰ 북한의 압록강 이남의 적석총뿐 아니라 북한의 적석총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 벽화분도 마찬가지인데, 서북한의

벽화분이 먼저 알려져서 서북한 벽화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통구 분지 벽화분을 설명하지만, 통구 분지 벽화분은 구조와 묘실 벽화에서 서북한과 다른 점도 있으므로 양 지역 벽화분을 아우른 분석과 검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중국과 북한의 시각이 대척점에 있고, 시각의 차이는 고분 조사와 평가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발굴조사보고 내용을 그대로 취신(取信)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의 고구려 고분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시각 차이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조사와 연구이며, 그렇게 된다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고구려 고분의 의미와 성격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0 중국에서 1960년대 이래 몇 차례 통구 분지의 고분을 조사하면서 현상 파악에 따라 고분의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도중에 망실된 것도 있고 조사하면서 다른 형식으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조사 시기에 따른 편호와 형식 설명에 차이가 있다. 가령, 우산하41호분과 우산하1041호분, 칠성산96호분과 칠성산1096호분, 만보정78호분과 만보정1078호분은 같은 무덤의 다른 편호이다. 또한 매장주체부나 분구 형태 설명에서도 조사나 보고 시점, 연구자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특정 어느 한 견해를 따르면 고분의 실체에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국 측 자료를 이용할 경우 연구자의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통구 분지 측회조사보고서의 고분 위치와 편호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참고문헌

단행본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강현숙, 양시은, 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I,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I·IV·V,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고구려통사8 고구려고고-유적편』, 동북아역사재단.

- 魏存成, 1995, 『高句麗 考古』, 吉林大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_____,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논문

-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_____, 2010, 「帶金具 副葬 高句麗 古墳의 考古學的 含意」, 『한국고대사연구』 59.
_____, 2012, 「高句麗 古墳과 新羅 積石木槨墳 交叉編年에서의 몇가지 論議」, 『한국상고사학보』 78.
_____, 2023, 「고구려 고분 조사·연구와 천마총」, 『천마총발굴50주년기념학술대회발표집』.
이한상, 2013, 「이식으로 본 고대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의 교류」, 『백제문화』 49.

吉林市博物館, 1988, 「吉林帽儿山漢代木槨墓」, 『遼海文物學刊』 1988-2.
孫仁杰, 1993, 「高句麗申墓의 考察與研究」, 『高句麗研究文集』.
_____, 1994, 「集安洞溝古墓群三座古墓清理」, 『博物館研究』 1994-3.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사료DB, <https://db.history.go.kr/ancient>
<https://heritage.unesco.or.kr>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

강현숙

중국에 있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고분은 적석총, 기단봉토분, 봉토분과 벽화분 등이다. 구조와 매장방식, 장의 예술 등 다양한 모습의 고구려 고분은 주민이 남긴 당대의 산물로, 고구려 사회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 있는 고구려 고분의 특징을 정리하고, 시간에 따른 고분의 전개를 설명함으로써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적석총은 기원전 2세기를 즈음하여 압록강 중하류와 그 지류역에서 축조되면서 3세기까지 고구려의 형성과 성장을 보여주는 원고구려 주민의 고유 묘제로 평가된다. 석실, 봉토분구, 묘실벽화는 3세기 말을 경과하면서 출현한 새로운 요소로, 새로운 요소와 전통의 적석총이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4, 5세기 국내 도성에는 다양한 형식의 고분이 있다. 그리고 계단석실적석총과 봉토석실벽화분이 상위의 대형분이 되면서, 대형분은 국내 도성 주변과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6세기 들어 사신이 그려진 봉토석실벽화분이 대형분이 되면서 통구 분지의 대형분과 평양도성의 고분의 차이는 사라졌고, 봉토석실벽화분을 정점으로 묘제에서의 제일성이 완성되었다.

이처럼 적석총은 고구려의 국가 형성과 성장을 보여주는 원고구려민의 묘제

로서 4, 5세기의 봉토석실벽화분이나 계단석실벽화분 등과 함께 병존하면서 지배층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대형분의 공간적 확산은 국내 도성의 확장뿐 아니라 지방 지배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4, 5세기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의 정치적 성장과 대응하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전개의 역사적 의미가 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적석총, 기단봉토분, 봉토분, 벽화분

ABSTRA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guryo Tombs in China

Kang Hyunsook

The types of Koguryo tombs in China include Stone mound tomb, Earthen mound tomb, and mural painting tomb. The various types of tombs are the products of the time left by Koguryo residents. This article is going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Koguryo tombs in China and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of the tombs.

The Stone mound Tomb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alu River around which began from the 2nd century BCE to the 3rd century is a unique tomb of Koguryo by the indigenous Koguryo people that shows the formation and growth of Koguryo.

Stone chamber, earthen mound tomb, and mural painting tomb are new elements that emerged from the end of the 3rd century to the 4th century. Combining the traditional Stone mound tomb and new elements, various types of tombs create, and various types of tombs

become large tombs in the upper ranks of the Guknae Capital during 4th~5th century. In particular, in the 5th century, stone stepped mound tomb with stone chamber and the stone chamber mural painting tomb were formed into the upper class tomb, and at the same time spread to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Guknae Capital and provinces of Koguryo.

By the 6th century, the earthen mound tomb painted four directions demon became the tomb of the highest rank, and as a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uknae capital and the Pyongyang capital area disappear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Koguryo tombs in China were changed in response to Koguryo's political growth. Stone mound tomb shows the formation and growth Koguryo Kingdom. And in the 4th and 5th centuries, various types of tombs, such as Earthen mound tomb, and stone stepped mound tomb with mural painting tomb show various backgrounds of Koguryo's central nobility. And the spatial spread of high-ranking tombs shows the development of Guknae capital, so it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e completion of the Koguryo local governance system through the large tomb of a high rank distributed in the main area of Koguryo.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 of Goguryeo tombs in China is here.

Keywords: Koguryo tombs in China, Stone mound tomb, Earthen mound tomb, Mural painting tomb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분포 양상과 축조방식에 관한 검토

김종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 I. 머리말
- II. 적석묘의 편년 연구 동향
- III. 적석묘의 권역별 분포 양상
- IV. 적석묘의 출현과 축조방식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역의 환인 및 집안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구려의 성립과정을 문헌자료에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혼강을 비롯한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적석묘를 통해 고구려 국가형성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있어왔다.¹ 고구려는 주변집단과 구별되는 적석묘라는 독특한 묘제를 갖고 있었으며,² 이 적석묘가 압록강 유역에 실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압록강 유역의 적석묘는 기원전 3세기 말, 늦어도 기원전 2세기부터 무기단 적석묘가 조영되기 시작해서 기단석광묘를 거쳐 계단석광묘로 변화하며, 계단석실묘가 출현하는 3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묘제가 횡혈식적석묘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 고분형식들 가운데 고구려 국가형성기에 조성된 적석묘는 무기단석광묘, 기단석광묘 정도이므로, 두 고분형식을 주대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가 분포하는 압록강 유역은 기원전 3세기 중엽 전국 연계통 철기문화가 전파되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정치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연계통 주조철기가 보급되면서 적석묘를 축조하던 주민집단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고구려의 모체를 이루는 ‘원고구려사회’를 형성하였다. 이 지역 초기철기유적에서 고구려 적석묘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초기철기를 수용한 정치집단이 조영하던 묘제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집단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적석묘가 고구려의 묘제로 단일화되며 고분 조영

* 투고: 2024년 4월 16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1 지병목, 1987, 「고구려 성립 과정고」, 『백산학보』 34; 여효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三國志』 권30, 魏書 30 東夷傳 高句麗條, “盡於送死 積石爲封.”

방식도 점차 통합되어갔다.

고구려 적석묘는 파괴가 심하지 않던 일제강점기와 1950~1980년대 조사 내용을 보면 적어도 수십 기, 또는 100여 기에서 수백여 기에 이르는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런 고분군이 압록강 중상류 및 혼강 유역의 본류 및 지류의 강안 평지나 산중턱에 밀집해 있다. 고분군의 밀집도와 시간적 변화상은 주민집단의 규모와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특히 국가형성 시기에는 정치집단의 출현과 성장 과정을 밝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고구려 적석묘, 특히 국가형성기에 조영된 초기 적석묘를 통해 고구려 정치집단의 형성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고구려 정치집단은 나(那)가 출현하여 나국, 나국연맹 등으로 통합되어 5나부체제의 고구려를 형성하였으며, 태조왕대 배타적 외교권을 확보하면서 5나부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기원전 3세기 말에서 1세기에 이르는 수혈식적석묘, 즉 무기단석광묘와 기단석광묘를 대상으로 배타적인 우월한 지위를 갖는 고분과 고분군을 중심으로 분포 양상과 조영방식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징을 찾아보려고 한다.

II. 적석묘의 편년 연구 동향

1. 적석묘의 형식 분류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적석묘는 기원전 3세기 말 또는 기원전 2세기부터 조영되기 시작한 고구려의 독특한 묘제로서 고구려 국가형성을 과정을 밝히는 테마로 일찍부터 주목되었다. 고구려 적석묘는 동북아 국가의 관심 속에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각 나라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적석묘 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조성연대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었다. 따라서 적석묘 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분형식과 편년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 적석묘는 내부 및 외부의 형태에 따라 형식을 분류할 수 있다.³ 외부 구조는 기단(基壇)의 형성 여부나 그 형태에 따라 무기단(無基壇), 기단, 계단(階壇)으로 구별된다. 무기단은 지표나 지상에 자갈을 깔 다음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덮은 형태로서 기단 또는 계단과 대비하여 무기단 또는 무단(無壇)으로 표현되며, 아무 수식 없이 적석묘로만 표현되기도 한다. 기단은 사면 둘레에 커다란 가공한 돌(切石)이나 장대석(長大石)을 두르고 안에 돌을 채워 기단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네모 모양이라 하여 방단(方壇)으로 부르기도 한다. 산비탈이나 경사지에 입지한 고분은 적석분구의 유실을 막기 위해 기단과 계단이 출현하였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 경사지의 아랫면과 양측면에 기단이 형성된 것을 유기단(有基壇) 또는 유단(有壇), 이후 사면에 기단이 형성된 것을 방단이라 하여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⁴ 계단은 기단을 안으로 층층이 들어 쌓아 계단을 형성한 것으로 계대(階臺)라고 표현하거나 계단의 평면이 네모 모양이라 하여 방단계제(方壇階梯)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한학계는 기단과 계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단이라 표현하였다.⁵ 계단 적실묘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는 장군총이 7단이며, 임강총의 경우 23단에 이른다는 점에서 기단과 구분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근래에는 기단과 계단을 구분하는데 다만 기단에는 일반적 개념의 기단 외에 2~3단을 형성한 계단도 포함하고 있다.⁶ 한편 절석을 사용해 축조한 기단만 인정하고 할석 등으로 축조

3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의 구조」, 『고구려 고분 연구』, 58~91쪽; 강현숙, 2020, 「고분」, 『고구려 고고학』, 150~154쪽 참조. 전자 글의 60쪽과 후자 글의 152쪽에는 적석묘 축조방식을 도식화해놓아 적석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4 方起東, 1996, 「高句麗墓葬研究中的幾個問題」, 『遼海文物學刊』 1996-2, 34쪽.

5 정찬영, 1961, 「고구려 적석총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5; 주영현, 1962, 「고구려 적석 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6 손수호, 2001, 「돌각담무덤의 분포와 일반적구조형식」, 『고구려고분연구』.

한 기단은 무기단으로 파악하며, 무기단적석묘의 경우도 축조재료에 따라 강자갈돌각담무덤과 산자갈돌각담무덤으로 나누고 후자가 늦게 출현한다고 파악한다.⁷ 그러나 기단의 유무를 절석 사용 여부로 판단하거나 무기단적석묘를 강돌과 산돌의 축조재료에 의해 나누는 것에 대해 북한학계 내에서도 비판되었다.⁸

외형이 계단과 유사한 계장(階牆)도 확인된다. 계장이란 고분이 경사지나 언덕에 자리한 경우에 쌓아 올린 돌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이지만,⁹ 나아가 고분을 고대화(高大化)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¹⁰ 계장은 외형이 계단과 거의 유사하지만 축조방식은 차이가 있다. 계단은 아랫단에서 윗단으로 층층이 쌓는 데 비해 계장은 안쪽에 기단을 하나 높게 마련하고 그 바깥의 지표 위에 순차적으로 돌담(石牆)을 한 층씩 낮게 두르는 방식이다. 따라서 계단적석묘는 4면의 계단이 수평을 이루며 모서리가 서로 직교하는 데 비해 계장적석묘는 계장의 높이 및 간격, 각 면의 계장 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모서리가 서로 직교하지 않는다. 계장은 1980년대에 인지하였으나¹¹ 2000년대 들어와서 집안 초대형고분 실측 조사보고서인 『집안 고구려왕릉』¹²과 『집안고구려묘장』¹³에 비로소 기단적석묘에서 계단적석묘로

7 정찬영, 1961, 앞의 글.

8 손수호, 2001, 앞의 글, 15~17쪽.

9 方起東, 1985, 「高句麗石墓의演進」, 『博物館研究』 1985-2, 35쪽. 환인 망angk분, 장백 간구자적석묘 등의 아주 이른 시기 무기단적석묘에서도 적석분구가 무너져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된다.

10 여호규, 2011a, 「고구려 적석묘의 내·외부 구조와 형식분류」,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100쪽. 통구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계장석광묘가 대다수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산하 44호묘, 칠성산 389호묘·398호묘, 마선구 401호묘·626호묘·702호묘·2378호묘·2381호묘, 산성하 전창 36호묘 등이 확인된다.

11 集安縣文物保管所,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301쪽; 方起東, 1985, 앞의 글, 35쪽; 魏存成, 1987, 「高句麗積石墓의類型和演變」, 『考古學報』 1987-3, 328쪽.

1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계장구조의

이행하는 과도기 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적석묘의 내부 구조는 수혈식 구조의 석광(石壙) 또는 석곽(石槨), 횡혈식 구조의 석실(石室)로 크게 구분되며, 연구자에 따라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형태의 광실(壙室)이 추가되기도 한다.

중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혈식 구조를 ‘석광’이라 부른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석광을 최초의 매장부로 보았으며,¹⁴ 천정석이 없고 매장부에 목곽을 안치한 구조로 설명하였다.¹⁵ 보다 구체화하면 돌로 사면을 쌓아 올렸으나 천정석을 비롯해 묘문과 묘도가 없는 형태로서,¹⁶ 석광에서 목곽의 결구용 부속품인 철제 꺾쇠가 출토되므로 목곽 밖에 석광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⁷ 최근 목곽 밖에 단순히 돌을 덮는 형태는 석광, 층층이 인위적으로 쌓은 형태는 석곽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는데 기존 발굴조사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아 보고된 도면만으로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므로¹⁸ 현재로서는 매장부의 현상을 보여주는 ‘석광’이란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횡혈식 석실은 석실은 물론 연도와 천장을 갖춘 구조로서 명칭과 존재에 대한 논란은 없다. 석실의 출현에 대해서도 적석묘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다는 북한학계의 견해가 있지만 일본, 중국, 한국 등 대다수 학계에서는 한(漢)의 봉토 석실묘 문화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⁹ 횡혈식 석실 이외에

초대형 적석묘는 마선구 2378호묘, 산성하 전창 36호묘, 마선구 626호묘, 칠성산 871호묘 등이 확인된다.

13 孫仁杰·遲勇,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14 張雪岩,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 1979-1.

15 方起東, 1996, 앞의 글, 75쪽. 이를 여호규는 석벽이 목곽의 외벽임을 강조하기 위해 ‘석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여호규, 2011a, 앞의 글, 102쪽).

16 魏存成, 1987, 앞의 글, 322쪽.

17 魏存成, 1994, 「再談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 『博物館研究』 1994-1, 31쪽.

18 강현숙, 2013, 앞의 글, 65쪽.

연도는 마련되었으나 천장이 없는 묘실도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석광에서 석실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식으로 이해한다. 북한에서는 ‘곽실’이라 지칭하고²⁰ 중국에서는 ‘광실’이라고 한다.²¹

한편, 횡혈식 봉토석실묘가 수용되면서 일반 석실에 비해 협소하고 축조술이 거칠은 ‘동실묘(洞室墓)’가 등장한다. 『집안고구려묘장』에서는 동실을 ‘곽실(槨室)’로 개칭하였는데 곽실은 규모가 석실에 비해 작고 축조기술은 거친 편이며, 묘도(墓道)는 있으나 연도(羨道)는 확인되지 않으며,²² 천장은 한 층의 삼각고임 후에 대석을 덮은 구조라고 소개하였다. 기본 구조는 석실과 유사하나 규모나 축조술이 저비용의 단순화된 구조로 추정되므로 석실 출현 이후에 나타난 구조로 본다.

지금까지 고구려 적석묘의 내·외부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계장과 광실은 외형상 계단이나 석실과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고구려 적석묘의 형식을 분류할 때 계장과 광실은 하나의 형식으로 삼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므로, 각기 계단과 석광에 포괄하였다. 이글에서는 고구려 적석묘의 형식을 무기단, 기단, 계단의 외부 구조와

19 여호규가 봉토석실묘의 출현에 대한 여러 견해를 외부영향설과 자체발생설로 나누어 연구사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여호규, 2011a, 앞의 글, 104~105쪽).

20 주영현, 1962, 앞의 글, 64쪽.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앞의 책: 孫仁杰·遲勇, 2007, 앞의 책. 집안 우산하 고분군 지역의 집석공로 건설을 위한 조사에서 석광과 광실을 모두 ‘광실’로 표현하였듯이(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2000년대 이전 보고서에서는 광실과 석광이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 개별조사 보고서에서도 간혹 혼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2 孫仁杰·遲勇, 2007, 위의 책. 이 책에서는 광실묘의 특징으로 ‘墓道(무덤길)는 있으나 甬道(연도)는 없는’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 보고서에서는 이 두 용어가 뚜렷이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묘도’라는 표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묘도나 용도 모두 묘실의 출입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횡혈식 구조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구별하지 않았으나 차후 검토 작업은 필요할 것이다.

석광, 석실, 동실의 내부 구조의 결합을 통해 대략 무기단석광묘(무기단적석묘), 기단석광묘(기단적석묘), 계단석광묘(계단적석묘), 계단석실묘, 봉석동실묘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³

2. 적석묘의 편년

고구려 적석묘의 편년은 앞서 살펴본 고분형식의 변천, 역사적 정황 등과 함께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해 비정해볼 수 있다. 우선, 무기단석광묘는 노남리 철기 유적에 의해 상한이 기원전 2세기²⁴로 추정되었다. 근래에는 장백 간구자 적석묘와 위원 용연동 적석묘의 화폐 출토품에 의해 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초까지 소급되었다.²⁵ 무기단석광묘의 하한은 상활룡 2호묘에서 출토된 토기 형태가 창전 2호묘의 출토품에서도 보이고, 상활룡 7호묘의 출토 토기에 새겨진 ‘罃’자가 광개토왕릉비문의 글자와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5세기로 추정한다.²⁶ 그런데 자성 일대 무기단돌곽무덤에서 좁은갈형 활촉과 함께 회색토기가 출토되는데 이것이 발해 토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 멸망 때까지 조성되었다고 본다.²⁷ 4세기 중반경에 등장한 봉석동실묘 및 봉토동실묘가 무기단적석묘를 대신하여 하위계층의 무덤으로 사용되면서 점차 소멸해갔을 것으로 본다.

기단석광묘는 전국(戰國)~후한대(後漢代) 화폐의 출토를 근거로 상한을 후

23 개별 고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계장과 광실이 확인되는 고분은 계장적석묘, 계단광실묘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4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36~41쪽.

25 여호규, 2011b,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206~208쪽.

26 魏存成, 1987, 앞의 글, 324쪽; 魏存成, 1994, 앞의 글, 32쪽.

27 손수호, 2001, 앞의 글, 31쪽.

한 초기로 파악한²⁸ 이래로 기원 전후가 통설을 이루고 있다. 하한연대는 만보정 78호묘의 황색시유전연호를 근거로 4세기대²⁹ 또는 우산하 68호묘의 청동 용기들이 서진묘(西晉墓) 출토품과 동형이라는 점에서 4세기 중반경³⁰으로 추정한다.

계단석광묘는 만보정 242-1호묘와 상활룡 5호묘 및 만보정 78호묘에 의해 상한은 기원전 3세기 후반, 하한은 5세기 전반경으로 비정된다. 4기가 연접된 만보정 242호묘³¹는 파괴된 4호묘를 제외하면 매장부가 1호묘는 석광, 2호묘는 석실, 3호묘는 쌍실묘로서³² 석광에서 석실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계단적석묘이다. 보고자는 만보정 242-1호묘에서 출토된 유수노하심 중층 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S자형 철제 재갈과 토기를 고려해 3세기 말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중국 중원에서 등자는 4세기에 출현하는데 이 고분에서는 등자가 발견되지 않았고,³³ 유수 노하심 중층 유적의 연대를 3세기 후반으로 파악해 계단적석묘의 상한연대를 동일하게 본다.³⁴ 계단석광묘의 하한은 집안 상활룡 5호묘의 와당이 장군촌 연화문 와당과 동형이라는 점에서 5세기대³⁵ 또는 만보정 78호묘 출토품인 마구는 태왕릉 출토품보다 늦고, 황색시유도는 마선구 1호묘나 장천 2호묘의 것과 유사해 5세기 전반으로 비정한다.³⁶

28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171~172쪽.

29 李殿福, 1980, 위의 글, 172쪽.

30 강현숙, 2000, 「고구려 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5쪽.

31 吉林集安縣文管所, 1982, 「集安萬寶汀墓區242號古墳清理簡報」, 『考古與文物』 82-6.

32 2호묘는 묘도와 묘벽이 확인되는데 특히 묘벽의 잔존 높이가 145m에 이른다는 점에서 석실로 파악하였다(魏存成, 1987, 앞의 글, 332쪽).

33 강현숙, 2000, 앞의 글, 107쪽.

34 강현숙, 2020, 앞의 글, 171쪽.

35 魏存成, 1987, 앞의 글, 332쪽.

36 魏存成, 1987, 위의 글, 334~335쪽; 강현숙, 2013, 앞의 글, 151~153쪽; 강현숙, 2020, 앞의 글, 174~176쪽.

계단석실묘는 만보정 242-2호묘와 우산하 41호묘에 의해 각기 상한과 하한 연대를 비정한다. 만보정 242-2호묘는 고분 축조 순서가 계단석광묘인 1호묘에 비해 늦으므로, 3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하한은 우산하 41호묘의 구조가 장군총 배총과 유사하고 출토된 시유도와 마구를 고려해 5세기로 추정하기도³⁷ 하지만 구조상 장군총 배총보다 늦게 보거나³⁸ 출토된 사이전연호, 등자, 입식부 운주 등을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보아³⁹ 5세기 후반대로 비정한다.

봉석동실묘는 고분 형태상 석실묘의 출현 이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 봉토묘로 파악되는 만보정 1368호묘가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나⁴⁰ 이 고분 출현 이후로 봉토묘가 거의 확인되지 않다가 4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 등장한다는 점에서 4세기 중반 이후를 출현시기로 파악한다.⁴¹ 하한은 고구려 말기까지 계속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적석묘 편년을 통해 무기단, 기단, 계단의 수혈식적석묘는 고구려 전기의 고분형식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고분형식의 상한 연대를 보면 무기단 석광묘는 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초, 기단석광묘는 1세기 전후로 추정되어 고구려 국가형성기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고분형식이다. 따라서 압록강 중상류에 분포하는 적석묘 가운데 무기단석광묘와 기단석광묘를 중심으로 고구려 적석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겠다.

37 魏存成, 1987, 앞의 글, 332쪽.

3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10,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

39 趙俊杰·馬健, 2014, 「集安禹山41號高句麗壁畫墓的年代」, 『考古與文物』 2014-1.

40 李殿福, 1980, 앞의 글, 176쪽.

41 여호규, 2011a, 앞의 글, 107쪽.

Ⅲ. 적석묘의 권역별 분포 양상

고구려 적석묘는 대체로 북쪽으로는 서북의 천산산맥과 동북의 용강산맥 및 장백산맥, 남쪽으로는 서남의 적유령산맥과 낭림산맥을 경계로 삼아 압록강 중상류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적석묘는 압록강 본류 및 지류의 강안 평지나 인근 산기슭 등에 주로 자리하고 있는데 수계와 산세에 의해 몇 개 권역으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압록강 중류의 북안 지역은 최고 해발 1,000~1,300m, 상대고도 500~800m인 노령산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가로질러 환인-통화의 혼강 유역권과 집안-임강의 압록강 유역권으로 양분된다. 환인과 통화는 부이강과 신개하로 이어지는 수계와 험한 산세에 의해 동서로 나뉘는데 이 경계는 현재 요령성과 길림성을 나누는 행정구획선과 일치한다. 노령 이남의 압록강 중류 유역은 압록강을 경계로 북안과 남안 지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임강-장백에 이르는 압록강 상류 권역이 상정된다. 따라서 고구려 적석묘 분포지역을 혼강 유역의 환인 지역과 통화·집안 지역, 압록강 중류역의 집안 지역과 북한의 자강도 지역, 압록강 상류역의 임강·장백 지역 등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분포 양상을 살펴보겠다(그림 1).

1. 혼강 유역

1) 환인(1 권역)

환인 지역은 육도하, 대아하, 고력묘자 일대, 부이강 유역으로 세분되는데 육도하와 대아하는 혼강 우안에 자리하며, 고력묘자 일대는 오녀산성 동남쪽의 혼강 좌안에 해당한다.

(1) 육도하 유역

육도하는 환인분지에서 소자하나 태자하 상류로 나가는 교통로써 중하류의 하곡이 비교적 넓고 평탄하여 환인 최대 적석묘 분포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적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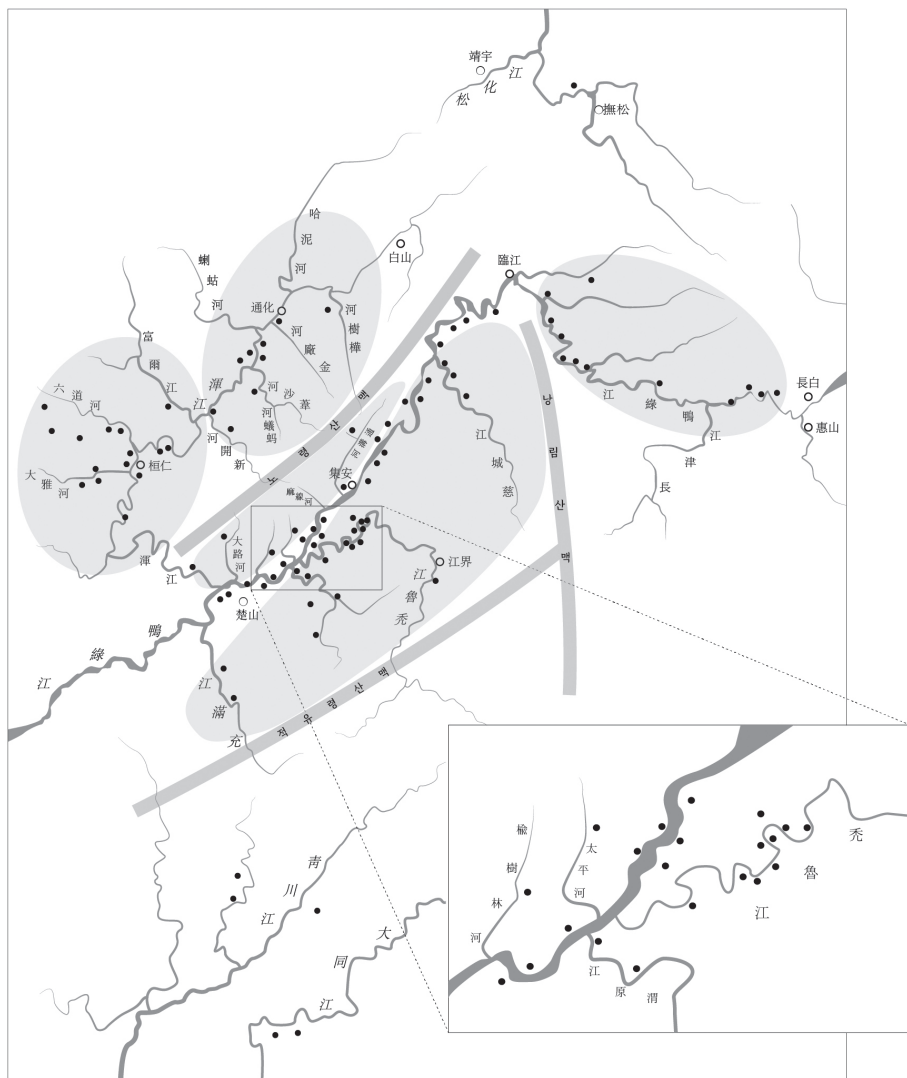


그림 1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적석묘 분포도(여호규, 2014 수정)

밀집도가 높은 상고성자, 풍가보자가 주목되며, 특히 육도하 하구에서 대아하로 나가는 혼강변에 자리한 망강루가 있다.

망강루 고분군⁴²은 산마루에서 비탈을 따라 독립된 6기의 무기단석광묘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 가족묘역으로 추정한다. 고분은 평면이 타원형으로 대형묘인 1호, 4호묘, 6호묘는 길이가 11~13m에 달하며, 지상에 묘실 바닥을 조성했다. 이 묘지에서 출토된 금귀고리(金耳飾), 철제 차축두(鐵車惠), 유리 구슬(玻璃珠飾), 유리 이진(玻璃耳瑱), 청동방울(銅鈴) 등은 서풍 서차구 고분군 및 유수노하심 2기문화 고분의 것보다 빠르고, 서풍 서차구 고분과 유사하다고 보아 전한 중후기~후한 초기,⁴³ 기원전 1세기 전반을 전후한 시기,⁴⁴ 기원전 2세기 후반~기원전 1세기 초반⁴⁵ 등으로 파악한다.⁴⁶

풍가보자 고분군⁴⁷은 풍가보자촌의 북쪽을 흐르는 서하와 동쪽을 감싸고 흐르는 남하 등 두 하천의 양안 평지에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 14기를 발굴했는데 보고자는 고분형식을 무단적석석광묘(10기), 무단적석석실묘(14호묘), 방단적석석광묘(2호묘), 방단적석석실묘(1호묘, 9호묘)로 소개하였다. 무단적석석실묘와 방단적석석실묘는 횡혈식 구조로서 고구려 중기에 조성된 무덤이다.

42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43 李新全, 2005, 위의 글, 129~130쪽.

44 여호규, 2011b, 위의 글, 210쪽.

45 강현숙, 2000, 위의 글, 102~103쪽; 吳江原,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 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25쪽.

46 근래 노하심 중층 56호묘 무덤의 유물 중의 하나인 漢代 七乳七獸紋鏡을 후한 초에 유행한 것으로 파악해 망강루의 조성연대를 기원 1세기경까지 늦추어보기도 한다[강현숙, 2012, 「환연 왕징려우 적석총으로 본 주몽설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사계절, 464~471쪽].

4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4, 「馮家堡子墓地」, 『遼海記憶-遼寧考古六十年重要發現(1954-2014)』, 遼寧人民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16, 「遼寧桓仁馮家堡子積石墓群的發掘」, 『考古』 2016-9.

방단적석석광묘는 고분의 축조 형태가 기단석광묘에 해당하므로 기원 1세기경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보고자가 출토 토기를 근거로 서한 초중기, 즉 기원전 3세기 말~2세기로 비정한 무단적석석광묘는 4호묘를 제외하면 모두 대형 판석이나 대형 판석에서 깨진 돌 등이 확인되어 덮개돌이 있는 무단적석석개석광묘로 부른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의 무기단적석묘와는 다른 형태이다. 발굴 고분 가운데서 무기단적석묘는 확인되지 않지만, 기단적석묘 이후로 고구려 적석묘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무기단적석묘도 조영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상고성자 고분군⁴⁸은 발 가운데 분포하고 있으나 본래 서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동쪽 작은 강가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고분은 1960년대 200여 기였으나 1988년 조사 때에는 27기로 감소하였고 일부 무기단적석묘를 제외하고 모두 기단적석묘⁴⁹라고 한다. 기단적석묘는 길이가 10m 정도, 높이가 1~2m에 달하며 사면은 대형돌로 정연하게 쌓았다. 고분형식상 해당 묘지연대는 일찍부터 3~4세기로 추정되었다.⁵⁰ 2006년 조사된 4호묘에서 출토된 니질회도는 점열문에 음각선문이나, 중호문에 점열문과 음각선문이 시문되어 4세기 전후로 추정한다.⁵¹ 상고성자에서는 고구려 중기까지 계단적석묘로 진전되지 않고 기단적석묘가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⁵² 한편, 1988년 조사 때 기단적석묘와 형

48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53쪽; 梁振晶, 2008, 「桓仁縣上古城子魏晉時期墓群」, 『中國考古學年鑒2007』, 189~190쪽.

49 1988년 조사에서 무기단적석묘 1기가 소개되었으나 형태가 기단적석묘와 유사하고 규모가 10m에 이른다는 점에서 기단적석묘일 가능성이 높다.

5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53쪽.

51 梁志龍·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116쪽.

52 蘇長靑이 연도(甬道)가 설치된 묘실의 존재를 소개한 내용을 함께 고려해보면[蘇長靑, 1985, 「高句麗早期平原城-下古城子」, 『遼寧省丹東本溪地區考古學術討論會文集』,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本溪市文化局·丹東市文物管理委員會,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卷 3), 哈爾濱出版社, 재수록, 9쪽], 기단의 과도기형 또는 횡혈식 기단석실묘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태가 유사하고 길이가 10m에 달하는 무기단적석묘 1기가 소개되었는데 기단적석묘가 채석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구려 건국 전후에 대형 무기단적석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⁵³

이 밖에 육도하 유역에는 오도하자 및 채아보 고분에서 동한 중후기의 특징을 지닌 오수전과 청동팔찌(銅釧) 등이 발견되어 고구려 초기의 적석묘로 추정하고 있다.⁵⁴ 사도하자, 양가가, 천리에서도 무기단 및 기단적석묘가 확인된다.

(2) 대아하 유역

육도하 남쪽으로 대아하 양안의 평지에는 1950년대 초기 최소 100여 기에서 많게는 수백 여기에 이르던 아하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만천, 연합, 대청구 고분군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고분군은 모두 기단적석묘 중심의 수혈식고분군으로 계단적석묘와 방단석실묘와 함께 소수의 무기단적석묘도 확인된다. 기단은 대부분 대석 또는 거석으로 축조하였고 정밀한 가공 흔적이 보이며, 기단 높이가 1~2m에 달한다. 아하 고분군은 상고성자 고분군과 같이 기단적석묘 위주의 고분군으로 기단이 대석 또는 거석으로 조성되고 높이가 높다는 점에서 고구려 중기 고분군으로 본다.

(3) 고령묘자촌 일대

혼강댐 건설로 수몰된 고령묘자촌 일대는 감입곡류에 의해 형성된 충적평지로, 일찍부터 환인의 대표적 초기 적석묘 고분군으로 주목되었다. 1956년, 1958년에 혼강댐 건설로 인해 수몰예정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보고서⁵⁵에서 M15, M19, M201의 적석대묘를 원구식적석묘로서 적석묘의 가장 이른 시기의 형식으로 파악하고, 고분군의 조성연대는 고구려 중기로 보았다. 이후

53 王志刚,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47쪽.

54 梁志龍·王俊輝, 1994, 앞의 글.

55 陳大爲, 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960-1.

보고서를 기술했던 진대위(陳大爲)가 적석대묘의 출토품 가운데 토기는 태토 및 제작기술이 서한 말기에서 동한 초기의 특징을 지니고, 환수철도는 한식(漢式)으로 상한이 동한(東漢)보다 빠르고, 하한이 한위(漢魏)보다 늦지 않다고 파악한⁵⁶ 이래 고구려 초기 적석묘 고분군으로 인식되었다.⁵⁷

그런데 환인 고령묘자의 적석대묘 가운데 15호묘는 2기의 계단적석묘를 잇댄 무덤⁵⁸으로 집안 만보정 242호묘와 유사한 구조이며 15호묘에서 출토된 재갈은 3세기 후반에 비정되는 만보정 242호묘의 출토품의 것과 유사한 S자형 표비를 갖추고 있다. 19호묘는 계장묘 2기가 연접한 고분으로 무덤의 배열순서나 소형 곽실(耳箱)을 갖춘 구조를 볼 때 15호묘에 비해 늦고, 출토된 재갈의 형태도 15호묘의 출토품에 비해 T자형 고리가 추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3세기 말기 또는 4세기초로 비정한다.⁵⁹ 또한 19호묘의 토기는 우산하 3161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나 약간 이른 형태로 보아 기원 4세기로 추정하기도 한다.⁶⁰ 따라서 환인 고령묘자 15호묘, 19호묘, 201호 등의 적석대묘는 고분형식은 계단적석묘나 계장적석묘로, 출토유물인 재갈과 토기의 연대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로 추정되므로 고구려 초기 적석묘로 보기는 어렵다.

1994년에는 수몰된 고령묘자 고분군의 남쪽 가장자리 구역에서 계장적석묘 2기를 발굴하였는데 일명, 혼강수고동 고분군이다.⁶¹ 완만한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단독묘 1기(단4)가, 그 북서쪽 40m 아래에서 길이가 34m에 달하

56 陳大爲, 1981, 『遼寧省考古』, 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陳大爲, 1985, 「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類型年代及其演變」, 『遼寧省博物館學術論文集』 1(1940-1984), 재수록.

57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纂委會, 1990)에서도 陳大爲의 견해에 따라 상고성자 고분군을 초기 적석묘 고분군으로 정리되었다.

58 강현숙, 2013, 앞의 글, 63쪽.

59 李新全, 2008,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24쪽.

60 孫顯, 2016, 『高句麗陶器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00~101쪽.

61 万欣·梁志龍, 1998, 「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積石墓」, 『考古』 19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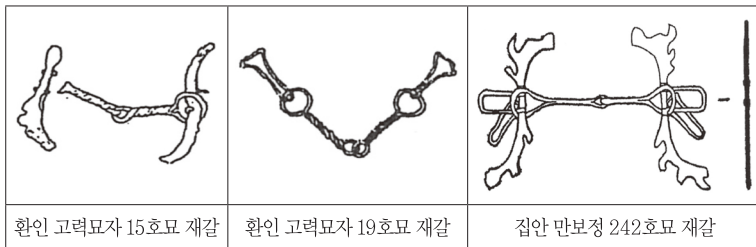


그림 2 환인 고령묘자 15호묘 및 19호묘와 집안 만보정 242호묘의 재갈

는 3기(단1~단3)가 잇대어 있는 연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단독묘를 보면 길이가 10m에 이르는 대형 고분으로 경사지 윗면인 남면을 제외한 동·서면과 북면에 계장이 조성되었다. 단1에서는 1매의 장대석을, 단3과 단4에서는 여러 매의 돌을 무덤 둘레에 기대어놓았는데 일종의 호석이다. 보고자는 출토된 토기의 제작기법이나 형태상 기원후 1~3세기로 보았는데 일부 토기편은 한식 철제 팽이가 출토된 환인 용가구와 소항둔 유적의 것과 유사하여 기원후 1세기 또는 그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하였다.

(4) 부이강 유역

환인에서 신빈으로 가는 부이강변에서 왕의구 유적을 발견하고 2006~2007년 조사 때 왕의구 1, 2호묘와 산두자 1호묘도 동시에 발굴조사를 하였다.⁶² 산두자 1호묘는 적석석개묘이며, 왕의구 1호는 무기단적석묘, 왕의구 2호묘는 방단적석광실묘 등의 고구려 적석묘로 소개되었는데 석광의 바닥과 벽은 축조술이 거친 편이다. 2018~2019년 발굴에서 중대형의 방단적석석광묘 1기가 추가 발굴되었다.⁶³ 앞서 왕의구 1호, 2호에서는 토기만 출토되었는데 왕의구 유

62 樊聖英, 2009a, 「桓仁縣王義溝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2008.

63 石長鈺, 2021, 「王義溝遺址的發現與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12쪽.

적의 출토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왕의구 유적은 출토된 토기와 철기류에 의해 전국 말기에서 동한 초기로 비정하므로,⁶⁴ 고분의 조성연대는 고구려 전국 초기로 추정하였다.⁶⁵ 왕의구 유적의 토기가 망강루 토기에 비해 늦은 시기에 속한다고⁶⁶ 하지만 무기단적석묘의 조영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기원 전후로 추정된다.

2) 통화 및 집안(II 권역)

부이강 동쪽의 혼강 유역 권역에 해당하는 통화·집안 지역은 석실묘와 봉토묘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수혈식적석묘는 통화의 만발발자와 강연 일대, 집안의 신개하와 위사하 유역에서 일부 확인된다.

(1) 만발발자 유적

통화 만발발자 유적은 생활유적이 집중된 서쪽 구역과 달리 동쪽 구역에는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⁶⁷ 고구려 고분은 산 정상부(Ⅶ구역)에서 무기단적석묘(37호묘), 서부(Ⅵ)에서 계단적석묘(29호묘)가 각기 1기씩 확인되었다.⁶⁸ 무기단적석묘는 서한 시기의 제4기 문화층에서, 계단적석묘는 위진 시기의 제5기 문화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제4기 문화층은 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 제5기 문화층은 기원 4~5세기로 비정된다.⁶⁹

64 李新全, 2008, 앞의 글, 122쪽.

65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글, 1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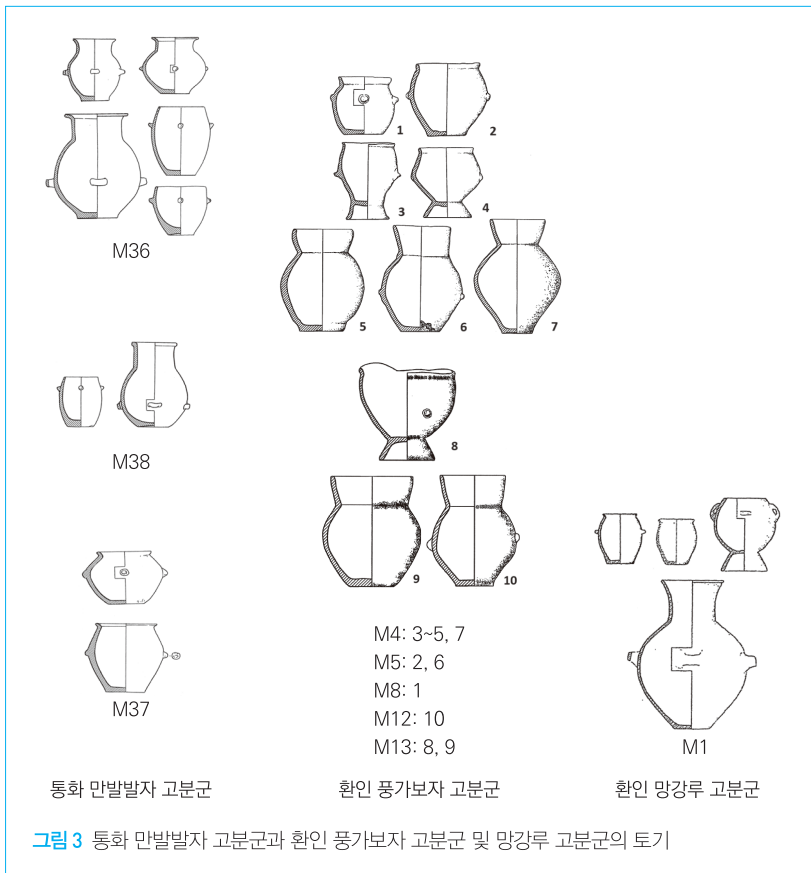
66 金旭東, 2011, 「西流松花江·鴨綠江流域兩漢時期考古學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43, 57~58쪽 재인용.

6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1997, 「通化市王八脖子遺址及附近幾處地點的調查與發掘」, 『博物館研究』 1997-2.

6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編著,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69 오강원, 2004, 「萬發拔子를 통하여 본 통화지역 先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

무기단적석묘는 길이가 5~6m 정도, 잔존 높이가 0.5m인 중소형 무덤이다. 무기단적석묘는 지표 위에 돌로 장방형 묘광을 쌓고 바닥에 10cm 두께로 쇄석을 깔고, 시신과 부장품을 매장하고 화장한 후에 흙으로 덮고 다시 쇄석으로 무덤 정상부까지 쌓은 후 묘광 밖에 큰 돌로 묘역의 가장자리를 구축하고 묘광과 묘역 가장자리 사이를 쇄석으로 메워 방대형 분구를 만들었다. 이 무덤은



句麗文化의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1, 163~164쪽.

무덤 안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화장묘로 묘광 안에서 토제 이전(耳瑱)과 방추차, 녹색석 구슬, 청동기 1점이 출토되었고, 묘광 밖 적석에서는 <그림 3>에서 보듯 4개 또는 2개의 봉상형 손잡이가 중앙에 부착된 심발형 토기(鑿耳罐) 2점 등도 확인된다. 이 심발형 토기는 4기 문화층에 함께 있는 대석개적석묘(38호묘)나 석곽석관묘(36호묘)의 토기보다는 조금 늦다고 한다.⁷⁰ 늦어도 기원전 2세기경 조성된 환인 풍가보자 5호묘(대석개적석묘)와 8호묘(대석개묘)에서 출토된 심발형 토기의 기형과 유사하고,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망강루 고분군의 출토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고분의 조성연대는 기원전 2세기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 강연 일대

강연일대에는 강연유적군⁷¹으로 불리는 유적들 사이에 남두둔, 하룽두, 강연촌 고분군이 보인다. 강연촌은 2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되며, 이 가운데 적석묘가 다수를 차지한다. 남두둔은 70여 기가 밀집해 있으며, 무기단적석묘와 함께 계단광실묘와 계단석실묘 등의 횡혈식적석묘가 확인된다. 하룽두에서는 50여 기가 확인되며, 무기단 및 기단의 수혈식적석묘와 함께 계단광실묘와 계단석실묘 등의 횡혈식적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수혈식적석묘의 경우 하룽두에서는 적석묘, 남두둔에서는 적석묘와 기단적석묘만이 확인되고 계단적석묘(계단석광묘)는 보이지 않는다. 남두둔의 고분 상황을 보면 무기단적석묘 11기, 기단적석묘 3기, 계단광실묘 23기, 계단석실묘 7기 등으로 다른 고분형식에 비해 기단적석묘의 비중도 낮은 편이며, 횡혈식적석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통해 강연 일대에서 이른 형식의 무기단적석묘가 출현하였으나 기단적석묘가 일부 조성되다 중단되고 과도기 형태의 계단광실묘 단계부터 다시 고분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는 앞서 만발발자 유적에서 기

70 강현숙, 2021, 「만발발자 유적 분묘로 본 고구려 적석총의 출현에 대한 논의」, 『동북아역사논총』 71호, 169쪽.

71 通化市文管會辦公室(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迹群調查」, 『東北史地』 2006-6.

원 1~3세기의 공백이 보이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3) 신개하 및 위사하 유역

집안 지역에는 신개하, 고려묘하, 위사하 등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 혼강에 합류하고 있고 그 하천의 양안에는 고분이 다수 분포하지만 수혈식적석묘군은 신개하 유역의 횡로9대 고분군과 모배령 고분군, 위사하 유역의 반가가 고분군만이 확인된다. 그런데 반가가 고분군을 비롯해 이 지역의 기단적석묘를 보면 대석으로 정연하게 구성되어 육도하 유역의 상고성자와 대아하 유역의 아하 고분군과 같이 고구려 중기에 비정되므로⁷² 초기 적석묘군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압록강 중류 지역

1) 집안(Ⅲ 권역)

집안 일대에서는 압록강 중류역의 북안에서 노령산맥에 이르는 권역으로 압록강변이나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들의 강안 평지와 산기슭에 적석묘가 분포한다.

(1) 통구 고분군

고구려 두 번째 왕도인 국내성이 자리한 통구분지에는 왕릉과 귀족묘가 집중된 통구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마선구 2378호묘나 산성하 전창 36호묘, 마선구 626호묘, 칠성산 871호묘 등의 한변 길이 30~40m, 높이 4~9m에 이르는 대형 계장적석묘가 확인되는데 마선구 2378호묘나 산성하 전창 36호묘는 1세기로, 마선구 626호묘는 1~2세기로, 칠성산 871호묘는 2세기 이전으로 비정하고 있다.⁷³ 그러나 대형 계장적석묘 가운데 시기가 가장 늦은

72 吉林省文物志編纂委會, 1983, 『集安縣文物志』; 孫仁杰·遲勇, 2007, 앞의 책.

7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앞의 책.

칠성산 871호묘는 금동제 영락, 장식판과 철제 갑옷편으로 미루어 3세기 후엽으로 비정되며, 이로부터 역산해볼 때 2세기경에 조성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⁷⁴ 환인에서 보이는 무기단과 기단의 수혈식적석묘로, 유물이 풍부하고 조성 시기가 1세기대를 넘지 않는 대형 고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2) 통구분지 서쪽 일대

통구분지 밖의 수혈식적석묘군에서 주목되는 곳은 태평하 유역의 오도령구문 적석묘와 상·하활롱 지역의 하활롱 고분군이다.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묘는 태평하를 따라 태평구 고분군으로 나가기 전에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 오도령(五道嶺) 포권자구문(狗圈子溝門)의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적석묘는 규모가 길이 14m, 잔존 높이 약 80cm에 이르며, 고분 상면의 중앙에 청동단검(靑銅短劍), 동부(銅斧), 동경(銅鏡), 검표(劍鏢), 동모(銅矛) 등의 청동기와 함께 도끼날형(鐮形)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 적석묘는 이미 파괴된 유적을 조사하면서 고분형식이 방단계제적석묘,⁷⁵ 계장적석묘,⁷⁶ 창석류(敞石流)를 이용한 무기단 적석묘⁷⁷ 등 여러 견해가 나왔다. 당시 “무덤은 산비탈을 따라 조성되었는데 남면에서 3단이 보이고 북면은 산의 지표와 평행하다”는 조사기록에 의하면 3단의 계장묘일 가능성이 높지만, 분구적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창석류를 이용해 계장을 축조한 무기단적석묘라는 견해도 타당해 보인다.⁷⁸ 후술하겠지만 장백 간구자 적석묘에

74 강현숙, 2013, 앞의 글, 212쪽.

75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集安發現靑銅短劍墓」, 『考古』 1981-5.

76 耿鐵華·林至德, 1984, 「集安出土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 1984-1.

77 張雪巖, 1993, 「集安靑銅短劍墓及相關問題」, 『高句麗研究論集』 上, 延邊大出版部; 張雪巖, 1995, 『博物館研究』 1995-1, 재수록, 93~95쪽.

78 장철암은 이런 축조방식으로 인해 후일 계장도 출현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근래에는 고구려 적석묘와 성격이 다른 청동기를 부장한 석퇴유적(여호규, 2011b, 앞의 글, 187~192쪽)이나 제사유적(吳江原, 2012, 앞의 글, 13~14쪽) 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서도 묘단의 봉석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분구를 고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계장적석묘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도령구문 적석묘는 창석류를 이용해 계장을 조성한 대형 무기단적석묘로 생각된다.

오도령구문 적석묘의 연대에 대해서는 청동단검을 비롯한 청동유물에 주목하여 기원전 4~3세기,⁷⁹ 기원전 3세기 초·중반경,⁸⁰ 전국 말기인 기원전 3세기 말 경,⁸¹ 전국 말~서한 초인 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초,⁸² 기원전 2세기⁸³ 등으로 보아, 대체로 늦어도 기원전 2세기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오도령구문 적석묘에 청동유물과 공반된 철촉 2점은 고구려에서 다량 출토되는 도끼날형으로⁸⁴ 기원후 2세기 말~3세기 초 이상을 소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혼입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⁸⁵ 하지만 보고자는 철촉이 청동기유물과 함께 나란히 놓인 상태로 수습되었다는 사실에서 부장품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⁶ 오도

79 강현숙, 1999, 「고구려 적석총의 등장에 대하여」, 『경기사학』 3, 42쪽. 최근에는 현재의 유물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이나 환인 망강루적석묘와 함께 고구려 적석묘의 기원과 관련되는 유적으로 보아 기원전 3~2세기로 정도로 본다(강현숙, 2013, 앞의 글, 169쪽).

80 여호규, 2011b, 앞의 글, 187~192쪽.

81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앞의 글, 470쪽; 張雪巖, 1993, 앞의 글, 96~97쪽; 張雪巖, 1995, 『博物館研究』 1995-1, 재수록. 張雪巖은 오도령구문 적석묘에서 청동단검과 함께 출토된 동모가 동화 적백송고성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엽맥문이며, 적백송고성이 漢代 현도군 상은대현에 비정된다는 점에서 고분의 하한연대를 한사군 설치 이후인 기원전 1세기 초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82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83 林溪, 1980, 「中國東北系短劍初論」, 『考古學報』 1980-2.

84 이남규는 철촉 형태가 도끼나 자귀(鏟)의 날보다는 길고 날이 약간 넓은 끝 형태에 가깝다고 보아 鑿頭形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남규,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 鐵器文化의 展開樣相」, 『고구려의 국가 형성』, 41쪽, 주90 참조).

85 박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116쪽.

86 徐光輝, 1993, 「高句麗積石墓研究」, 『靑果集』 1(吉林大學考古專業20周年記念文集), 353~354쪽.

령구문 출토품은 인부가 곡선 형태로, 노남리 남파동 104호묘인 무기단적석묘에서 동형의 철촉이 출토되었다.⁸⁷ 인근 노남리 철기유적에서 노남리 무기단적석묘의 토기와 동형인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유적의 상한을 기원전 2세기로 파악한다.⁸⁸ 따라서 오도령구문 적석묘 역시 청동단검과 철촉의 연대를 고려할 때 기원전 2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압록강변의 충적 대지 위에 자리한 하활룡고분군⁸⁹은 무기단적석묘만 34기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하활룡 8호묘는 동서 길이 7.5m, 남북 길이 9.5m, 높이 0.5~1.2m의 중대형 적석묘이며, 출토된 토기와 낫·자귀·환수도 등의 철제 도구가 한대(漢代) 풍격을 지니고 있고, 철제 전낭(箭囊)은 동한 초기 또는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유수 노하심 중층 56호묘의 출토품과 유사하여 고구려 건국 이전,⁹⁰ 대략 기원전 1세기⁹¹ 등으로 비정한다. 따라서 하활룡고분군은 상한연대는 기원전 1세기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3) 통구분지 동쪽 일대

최근 집안에서는 하활룡 8호묘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무단무광적석묘(無壇無壙積石墓)가 신흥촌 고분군에서 조사되었다.⁹² 신흥촌 고분

87 정찬영, 1983, 『압록강, 독로강 류역 고구려 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70~71쪽.

88 보고자 외에 강현숙, 오강원 등도 청동기유물과 철촉이 나란히 가지런하게 안치되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출토유물로 파악하고 있다(강현숙, 1999, 앞의 글, 40~41쪽; 吳江原, 2012, 앞의 글, 13쪽).

89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縣上·下活龍村高句麗古墓清理簡報」, 『文物』1984-1.

90 魏存成, 1987, 앞의 글, 324쪽.

91 강현숙, 1999, 앞의 글, 48쪽.

9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a, 「集安市太王鎮新紅村高句麗積石墓群發掘發掘」, 『北方文物』2012-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b, 「集安市太王鎮新紅村一座高句麗階壇積石壙室墓(M28)的發掘」, 『北方文物』2012-3.

군은 통구하의 지류인 대항구하의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집안에서 위사하를 통해 통화나 환인으로 나가는 교통로상에 분포한 고분군이다. 이곳에서 다수의 무기단적석묘를 포함해 32기를 발견하였다. 발굴한 8기의 무기단적석묘는 모두 평면이 타원형 또는 원형이고 장축이 5m를 넘지 않는 소형 적석묘로, 산비탈을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적석 높이가 18~40cm 정도이고 무단무광적석묘로 부장품도 없다.

집안에서 임강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한 양민고분군은 운봉댐 건설로 현재 수몰되었으나, 1964년 수몰 전의 추피, 석호, 화피 등을 포함한 조사에서 205기가 확인되었다.⁹³ 2004년에는 수몰선 위 산중턱에서 13기를 발견하였고,⁹⁴ 2005년에는 갈수기에 노출된 130여 기를 확인하여⁹⁵ 통구분지 밖의 대형 고분군으로 주목된다. 특히 2004년 조사된 고분은 1964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고분으로 다수가 5m를 넘지 않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적석석광묘이며,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 정황은 알 수 없으나⁹⁶ 신흥촌 조사보고에 따르면 신흥촌 고분군의 무단무광적석묘와 같은 유형으로 추정된다.⁹⁷

2) 자강도(IV권역)

압록강 중류역의 남안에는 압록강 본류와 충만강, 위원강, 독로강, 자성강 등의 지류를 따라 적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연대 비정이 가능한 이른 시기 고분은 위원강 중상류의 위원 용연동 적석묘와 독로강 유역의 시중 노남리 남파동과 시중 심귀리, 칠개정자 대안의 초산 연무리, 대로하 대안의 초산 운평리 등이 알려져 있다.

93 李殿福, 1980, 앞의 글.

94 吉林省長白文化研究會·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 『東北史地』 2004-4; 孫仁杰·遲勇, 2007, 앞의 책.

95 孫仁杰·遲勇, 2007, 위의 책.

96 孫仁杰·遲勇, 2007, 위의 책, 10~11쪽.

9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12a, 앞의 글, 35쪽.

(1) 위원강 유역

위원강 지류인 한백천에 자리한 위원 용연동 적석묘는 처음 명도전 유적으로 알려졌었다. 조사자에 의하면 자연토층 위에 강돌로 축조한 직경 3.6m의 원형 돌무지 위에 명도전과 철기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⁹⁸ 이 돌무지는 분묘구조로서 적석(cairn)식 고분이라고 추정하였으며⁹⁹ 이후 고구려 초기 적석묘로 파악하였다.¹⁰⁰ 이 적석묘의 조성연대는 명도전에 의해 전국 말기인 기원전 3세기 말경으로 추정한다.¹⁰¹ 당시 명도전이 나온 부근에는 무기단적석묘 몇 기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용연동 적석묘의 강 건너 맞은편의 한백천 상류와 하류에 각 20기씩 총 40기의 무기단적석묘가 분포하는 용연동 고분군도 있다.¹⁰²

(2) 독로강 유역

독로강은 압록강 지류 중에 혼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강으로 압록강 남안에서 고구려 적석묘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0여 기의 고분군 가운데 시중의 노남리 남파동과 심귀리 고분군이 대형 고분군이다.

시중 노남리 남파동 고분군은 독로강변의 언덕진 강둑에 170여 기가 줄지어 분포하고, 그중 무기단적석묘가 48기이며, 기단적석묘가 다수이다.¹⁰³ 무기단

98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編年』, 253~260쪽; 藤田亮策, 1938,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 『史學論叢』 7;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204~208쪽.

99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養德社, 12쪽; 田村晃一, 1994,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 『東アジア世界史の展開』, 汲古書院, 26쪽.

100 박진욱, 1987, 「초기좁은눗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1, 138쪽; 여호규, 2011b, 앞의 글, 204~205쪽. 반면에 고분 유적이 아니라 퇴장유적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제에 관한 연구」, 40쪽) 적석은 은닉한 화폐를 후일 다시 찾기 위한 표식으로 보았다(吳江原, 2012, 앞의 글, 18~19쪽).

101 여호규, 2011b, 위의 글, 204~205쪽.

102 정찬영, 1973, 위의 글, 21쪽.

103 정찬영, 1973, 위의 글, 7~9쪽.

적석묘는 평면이 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104호묘는 강둑에 자리하는데 길이 6m, 너비 7m, 높이 1m이며, 석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납작한 도끼날형 활촉과 손칼, 갈색간그릇 조각이 출토되었다. 질그릇은 기원전 2세기로 비정되는 남파동 집자리 유적의 철기문화층 출토품과 동형인 노남리형이므로 고분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본다.

시중 심귀리 고분군 역시 독로강변의 언덕진 강둑에 150기가 줄지어 분포하며 무기단적석묘가 70여 기로 무기단적석묘의 비중이 높다.¹⁰⁴ 대형 적석묘인 심귀리 78호묘는 강돌로만 축조되어 무기단적석묘로 소개되었으나¹⁰⁵ 계단을 이룬 계단적석묘이다. 무기단적석묘는 75호묘와 92호묘 등으로 길이 6~7m의 중소형 무덤인데 보존 상태가 양호한 75호묘를 보면 높이가 164cm 정도이다.¹⁰⁶ 75호묘에서는 청동 팔찌와 귀고리 각 한 쌍이, 92호묘에서는 철제 칼 한 점이 출토되었다.¹⁰⁷ 노남리 유적 인근에는 노남리형 토기를 공유하는 남파동, 심귀리 등의 대형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지만, 초기 적석묘에서 고분 규모나 유물 수준이 유력자의 무덤으로 볼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연무리와 운평리 일대

연무리 고분군¹⁰⁸은 혼강 하구 맞은편, 압록강 남안의 넓은 벌판에 위치한다. 연무리 2호묘는 사우돌출형의 대형 무기단적석묘이다. 보고자는 무덤형식이나 방부제를 바른 청동유물 등을 근거로 기원전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⁰⁹

104 정찬영, 1961, 앞의 글, 37쪽.

105 정찬영, 1961, 위의 글, 26~28쪽.

106 주영현, 1962, 앞의 글, 65~66쪽.

107 정찬영, 1983, 앞의 책, 27~29쪽.

108 이정남, 1989, 「자강도 초산군 연무리 2호무덤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4; 東潮, 1995, 「高句麗積石塚と横穴式石室墓の出現と展開」,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71~72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29) 고구려의 돌각담무덤』, 139~142쪽.

외차구하 맞은편에 자리한 운평리 고분군은 200여 기가 분포하는 대형 고분군으로 네 지구로 나뉘며 대다수가 적석묘이다.¹¹⁰ 운평리 4지구 6호묘는 전방후원형의 무기단적석묘로 지대가 낮은 남쪽에 버팀돌 3매를 설치하였다. 분구에서 토기와 함께 출토된 동탁(銅鐸)이 전한대로 비정되는 황해도 운성리 출토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기원전 1세기 중반으로 비정된다.¹¹¹ 한편, 4지구 8호묘는 매장부가 주곽과 부곽으로 이루어진 대형 무기단적석묘이며, 출토된 철부(鐵斧)·철모(鐵矛)·환두대도(環頭大刀) 등의 철기를 통해 고분연대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전후로 비정되기도 한다.¹¹²

3. 압록강 상류 지역

1) 임강 및 장백(V권역)

압록강 상류에서 고구려 적석묘는 현재 북안의 임강과 장백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임강에서는 일부의 계단식실묘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기단적석묘이나 거의 파괴되었다.¹¹³ 장백에서는 기단적석묘와 함께 원형적석묘가 조성되는 것이 특징인데¹¹⁴ 특히 간구자 고분군¹¹⁵이 주목된다. 간구자 고분군은 북에서 남으

109 리정남, 1989, 위의 글, 48쪽.

110 關野貞, 1941, 『平安北道及滿洲國高句麗古蹟調査略報告』,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343~344쪽; 정찬영, 1973, 앞의 글, 21쪽; 리정남, 1990, 「운평리 고구려무덤떼 제4지구 돌각담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0-1; 東潮, 1995, 앞의 글, 68~71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위의 책, 142~152쪽.

111 徐光輝, 1993, 앞의 글, 349~351쪽.

112 東潮, 1995, 앞의 책, 89쪽.

113 吉林省文物志編纂委會, 1984, 『渾江市文物志』; 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鴨綠江上游右岸考古調查」, 『東北史地』 2004-5.

114 吉林省文物志編纂委會, 1986,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위의 글.

11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縣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2003-8, 63쪽.

로 흘러 압록강으로 합류하는 간구하의 양안에 분포한다. 무덤은 지표 위에 돌로 묘역과 묘기(墓基)를 조성하고 그 위에 원형 묘단을 중심으로 반원형과 부채형의 묘단을 잇대어 연결묘를 축조하였다. 보고서에서 간구자 적석묘의 상한연대는 B구역 5호묘의 일화전과 A구역 2호묘의 반량전 및 일화전을 근거로 전국(戰國) 말기, 하한연대는 A구역 1호묘에서 한대(漢代) 유행하던 철괘(鐵鑊)이 출토되고, A구역 3호묘 및 4호묘에서 철도(鐵刀)가 채집되지만 오수전 및 동한(東漢) 화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서한(西漢) 시기로 추정하였다.

한편, 화폐의 유입시간과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일화전만 출토되는 B구역 5호묘는 연진(燕秦) 교체기 직후인 기원전 3세기 말경, 일화전과 함께 진한(秦漢) 초기의 반량전이 출토된 A구역 2호묘는 기원전 2세기 전반경 등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간구자 고분군은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⁶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고구려 적석묘의 분포상황은 <표 1>에서 보이듯 혼강 유역의 환인 권역, 압록강 중류역의 집안 권역, 자강도 권역 등이 적석묘 고분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형고분군도 많아 밀집도가 높다. 반면에 혼강 유역의 통화·집안 권역과 압록강 상류의 임강·장백 권역은 상대적으로 대형고분군이거나 고분군의 숫자가 적어 적석묘의 밀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통화·집안 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고분군들 가운데 순수 황혈식봉토묘 고분군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무기단과 기단적석묘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 초기 적석묘 분포양상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초에 압록강 상류의 임강·장백 권역과 압록강 중류의 자강도 권역에서 초기 적석묘가 확인되며, 기원전 2세기 경에는 압록강 중류의 집안 권역과 혼강 유역의 통화·집안 권역, 기원전 1세기 경에는 혼강 유역의 환인 권역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고구려 초기 중심지로 비정되는 환인에서 적석묘의 출현이 늦게 확인되는데 다른 권역에 비해 집안과 더

116 여호규, 2011b, 앞의 글, 206~208쪽.

〈표 1〉 압록강 중상류 유역 고구려 적석묘의 분포 현황

지역		고분 및 고분군 명칭
대권역	소권역	
혼강	환인 (Ⅰ)	부이강 및 거류하
		산성구문, 후대자, 후산, 왕의구, 대황구
		혼강댐(고려묘자)
		고려묘자(고려묘자), 혼강수고동
		육도하
		상고성자, 양가가, 오도하자, 사도하, 대전자서, 풍가보자, 채아보, 천리
		망강루
	대아하	만만천, 연합, 대청구
		동선영(대아하 대안)
	회룡댐	대파(회룡댐)
	고령댐	노고립자, 고령지, 대고령지후, 소고령지북
	통화 및 집안 (Ⅱ)	소라권하
		향양촌
		금창하
		민발발자(왕발발자)
		강연
		강연촌(협피하), 하룡두, 남두둔
		고려묘하
압록강 중류	집안 (Ⅲ)	강연, 번영
		승리하
		주도목
		위사하
		반가가, 종가, 양목교자
		신개하
		모배령, 금가, 보마, 쌍흥, 신진, 삼도양차, 횡로9대(요장), 소청구, 대양구, 판차구문
		고마령
		고려묘구(고마령12대), 고마령 강구(고마령6대)
		칠개정자하
		칠개정자구
		대로하(외차구하)
		대양차(대양차촌서), 노방구(대양차4대), 대동구(대양차6대), 소양차(대양차7대), 대로촌(대로촌4대), 파보촌, 고지, 정의
		양수하
		만구문, 석청구
		유수립하
		영수, 대고려묘구(대고려묘자), 소고려묘구, 향양, 복흥, 치안, 사도구문
		지구촌
		지구3대(관문립), 지구8대(하동구문), 동구문, 지구문
		태평하
		대양목간자, 강구(피덕기둔), 대유수(태평촌1대), 오도령구문, 태평, 연영삼장(사구령), 흥농교, 흥농

압 록 강 중 류	집안 (Ⅲ)	상·하활룡	하활룡, 상활룡산서, 상활룡
		통구분지	마선, 칠성산, 만보정, 산성하, 우산하, 미타리, 별오리, 지신골, 문악리
		통구하 중상류	신홍촌, 양차, 대청구 남천
		장천과 이동지역	장천, 호자구
		운봉댐 수물구역	양민(양민전자), 추피, 석호, 적대, 선인동, 대장천, 호로투,
	자강도 (Ⅳ)	충만강과 이동지역	판평리(충만강)
			연무리, 운평리, 신천동, 송모리
		위원강	사장리, 덕암리, 만호동, 양강동, 용연동
		독로강	고보리, 연하리, 연상리, 풍청리 하천장, 풍청리, 노남리 남파동, 노남리 내평, 노남리 간평, 노남리 미타골, 심귀리, 등공리, 송하리
		상·하활룡 대안	남상리, 고산리, 분토, 연풍리, 토성리
		운봉댐 대안	서해리, 법동리 하구비, 법동리 신평동, 송암리, 장성리, 호하리
압 록 강 상 류	임강·장백 (Ⅴ)	임강	고가영, 장천, 입대, 동전자, 서마록포자, 용강, 칠도구
		장백	호로투, 십이도구, 안락, 간구자, 십사도구전참(십오도구하북), 양종장, 금화, 동강

불어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실제 적석묘의 조영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환인에서 적석묘가 출현하던 시기에 선행 묘제와 공존하던 양상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IV. 적석묘의 출현과 축조방식

1. 적석묘와 선행 묘제의 공존 양상

고구려 초기 적석묘 분포 지역 가운데 혼강 유역의 환인 권역과 통화·집안 권역에서는 적석묘와 함께 석관묘,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등의 묘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석개묘와 석관묘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성되지만 대석개적석묘는 대석개묘에 적석이 부가된 묘제로서¹¹⁷ 중국학계는 대석개묘가 고구려 적석묘로 전환되던 과도기묘제로 파악한다.¹¹⁸ 그러나 한국학계에서는 두 묘제가 병존했다고 파악하고 있다.¹¹⁹

환인 권역에서는 육도하와 부이강 유역에서 선행 묘제가 발견된다. 육도하 유역의 대전자촌 만구자돈에서는 비탈지에서 장방형 석관묘를 발견하였다.¹²⁰ 여기서 청동단검, 삼엽식 청동화살촉, 청동귀고리, 명도전, 철제칼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이 청동단검을 여순 윤가촌 12호 석관묘의 출토품과 동형으로 보아 대전자 석관묘의 조성연대를 전국시대 말기~진한 교체기에 비정하였다.

대전자 석관묘 북쪽 산기슭에서 석관묘 축조집단의 생활유적으로 추정되는

117 한국에서는 개석식 고인돌로 불린다. 중국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대석개적석묘로 불리고 있으나 石蓋石壙積石墓(李新全, 2008, 앞의 글), 圍砌型石棚墓(華玉冰, 2008,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18 李新全,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2009-1.

119 여호규, 2011b, 앞의 글, 213쪽. 여호규는 고구려 적석묘의 자체발생설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新賓 旺清門 대석개적석묘의 銅柄鐵劍이 西豐 西岔溝 출토품과 유사하고 망강루 유물은 서차구 출토품과 유사하므로 대석개적석묘와 적석묘는 병존한 것으로 본다.

120 曾昭藏·齊俊, 1981, 「桓仁大甸子發現青銅短劍墓」, 『遼寧文物』 1981-2; 梁志龍·王俊輝, 1994, 앞의 글. 환인에서 대석개묘 등이 발굴되면서 이 고분도 매장부가 석관인 석개묘로 보아 ‘석개석광묘’라고 부르며(華玉冰, 2008, 앞의 글, 174쪽 및 177쪽 표 참조), 적석도 더해졌다고 보아 ‘적석석개석관묘’라고 부르기도 한다(李新全, 2009, 앞의 글, 4쪽).

대전자 추수동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승문(繩文)이 새겨진 협사(夾沙) 토기편과 회색 토기편, 반월형 철도(鐵刀), 철괭(鐵鑿), 철촉 등의 철기류, 전국(戰國) 명도전 및 진(秦) 반량전 등의 화폐가 출토되어 유적의 상한 연대는 전국 중후기, 늦어도 진한 교체기로 본다.¹²¹ 그런데 추수동 유적에서는 오수전 등의 한대 화폐가 출토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연진 교체기인 기원전 3세기 말경까지 소급한다. 대전자 석관묘도 청동화살촉과 명도전이 추수동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하므로 기원전 3세기 말경으로 본다.¹²²

추수동 서쪽의 육도하 지류에 자리한 풍가보자 고분군은 고구려 적석묘와 함께 대석개묘 등의 선행 묘제가 확인되는 대표적 고분군이다. 보고자가 기원전 3세기 말~2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한 무단적석석광묘, 일종의 무단적석석개석광묘가 주목된다.¹²³ 앞서 권역별 분포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장부가 지상에 위치하는 형태(12·13호묘), 지하에 위치하는 형태(3·5·7·8호묘)로 나뉜다. 전자는 무기단적석묘와 유사한 고분 형태이지만 덮개돌로 추정되는 판석 조각들이 확인되어 덮개돌이 없이 강돌이나 산돌로 분구를 쌓아 올린 전형적 무기단적석묘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무덤 형태이다. 후자인 3호묘와 5호묘는 대석개적석묘로 파악되지만 7호묘와 8호묘는 다른 대석개적석묘에 비해 적석의 면적이 좁고 밀집도가 현저히 낮은 편으로 2006년 조사 당시에는 석개묘로 소개되었듯이¹²⁴ 대개석묘로 파악된다. 한편, 무단적석석광묘의 하나인 4호묘는 매장부는 지하에 위치하며 덮개돌이 확인되지 않는 데 거대한 대형 덮개돌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본래 덮개돌이 없는 무덤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호묘는 대석개적석묘인 3호묘와 동일한 무덤구역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의 풍가보자 고분군

121 武家昌·王俊輝, 2003, 「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 『北方文物』 2003-2, 22~28쪽.

122 여호규, 2011b, 앞의 글, 200쪽.

12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16, 앞의 글

124 李新全, 2008, 앞의 글, 136쪽

토기는 무단적석석광묘로 소개된 고분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그 가운데 호를 보면, 4호묘의 5번과 5호묘의 6번은 기형이 비슷하며, 지상에 매장부를 두고 덮개돌을 덮은 12호묘와 13호묘에서 출토된 호와도 기형의 차이가 거의 없다. 장법을 보면, 4호묘, 5호묘, 10호묘, 12호묘, 13호묘 등에서는 무덤 안에서 직접 화장한 흔적들이 확인되며, 매장부가 2층으로 구성되어 각 1구씩 총 2구가 화장된 5호묘¹²⁵를 제외하면 화장한 인골은 하나의 매장부에 1구씩 확인되어 화장법에서도 무단적석석개석광묘의 형태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풍가보자 고분군 가운데 적석석개석광묘로 분류된 고분들이 형태상 구별되지만 출토토기와 화장법의 유사성을 볼 때 동시기에 조영되었다고 본다.

즉, 기원전 3세기 말~2세기에 풍가보자에서는 적석묘의 선행 묘제인 대석개묘가 지상에 매장부를 두고 덮개돌이 없이 돌을 쌓아 분구를 조성하는 적석묘의 축조방식을 수용하여 대석개적석묘를 비롯한 여러 변형된 형태의 고분 등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풍가보자에서 육도하 유역으로 나가면 화래진 광복춘 용두산 돌출부 위에 대석개묘 1기가 자리하고 있다.¹²⁶ 구릉부 정상에 산암(山巖)을 뚫어 매장부를 축조하였으며, 무덤 안에서는 불에 탄 인골과 불을 맞은 암석, 잣가루 등 직접 화장한 흔적들이 확인된다. 고분입지는 물론 매장부 축조방식, 화장법 등이 망강루 적석묘와 유사한 고구려 초기 유적으로 소개되었다.¹²⁷ 따라서 용두산 석개묘는 망강루 적석묘 조성연대와 비슷한 기원전 1세기대로 추정된다.

이처럼 육도하 유역에서는 늦어도 기원전 2세기 초에는 대전자 추수동에서 석관묘, 풍가보자에서 대석개묘와 대석개적석묘를 비롯해 적석묘 축조방식이 반영된 고분 등이 조영되었고, 기원전 1세기경에는 망강루 적석묘와 용두산 대

125 매장부가 층층으로 구성되고 다인화장(多人火葬)이 행해진 무덤은 통화 만발발자 석곽석관묘 36호묘, 신빈 왕청문 용두산석개묘 등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126 李新全, 2008, 앞의 글;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글, 115쪽.

127 梁志龍·李新全, 2009, 위의 글, 115쪽.

석개묘 등이 함께 조영되는 것이 확인된다.

부이강 유역에서는 왕의구 유적 부근에서 무기단적석묘와 방단적석묘 외에도 산두자 1호묘¹²⁸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대한 개석이 올려진 석개적석묘로 소개되어 대석개적석묘로 파악된다. 왕의구 유적에서는 대상파수가 부착된 심발형 토기(豎耳罐) 1점이 출토되어 유적 연대를 서한 중기에서 동한 초기로 비정하는데¹²⁹ 여기서 발견된 고분 3기의 토기가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하므로 모두 기원 전후에 함께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통화·집안 권역의 통화 만발발자에서는 무기단적석묘 37호가 조성된 4기 문화층에서 석관묘, 석곽석관묘, 대석개적석묘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¹³⁰ 보고자는 이들 고분의 조성연대를 출토된 토기에 의해 기원전 3세기 말~2세기로 추정한다. 무기단적석묘 역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풍가보자 무단적석석광묘의 토기와 유사성을 고려할 때 기원전 2세기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행묘제와 병존한 것으로 보인다.

자강도 권역에서도 심귀리고분군에서 대석개적석묘로 추정되는 심귀리 93호묘가 소개되었다.¹³¹ 덮개돌로 추정되는 거대한 돌이 몇 개로 쪼개져 있으며, 그 돌 아래에서 강돌 등으로 조성한 매장부가 확인된다. 이 고분은 조성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혼강 유역의 환인과 통화처럼 심귀리 고분군에서도 적석묘와 대석개적석묘가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고구려 초기 적석묘 분포지역 가운데 혼강 유역의 환인과 통화에서 석관묘, 대석개묘 등의 선행묘제가 적석묘가 출현한 이후에도 적석묘의 영향을 받은 대석개적석묘 등과 더불어 여전히 조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환인과 통화 두 지역에서는 동시기에 묘제는 다르지만 출토유물이나 무덤의 일부 축조방

128 梁志龍·李新全, 2009, 앞의 글, 116쪽.

129 李新全, 2008, 앞의 글.

13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編著, 2019, 앞의 책.

131 정찬영, 1961, 앞의 글, 35쪽.

식, 화장법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축조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축조집단의 성격은 환인 대전자촌의 추수동 유적과 대전자 석관묘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추수동 유적의 출토 토기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토착계통의 협사홍갈도와 중원계통의 니질회도가 함께 출토되는데 협사홍갈도는 본래 거의 다 무문이지만 이곳 출토품은 중원문화에서 확인되는 승문에 현문이 가해진 무늬가 다수 보인다. 이는 토착문화가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¹³² 천산산맥 이서지역의 전국 연 계통의 주조철기가 기원전 3세기경부터 천산산맥 이동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¹³³ 추수동에서 출토된 철기 가운데 철괭(鐵鏟)과 반월형 철도(鐵刀) 등이 무순 연화보 출토품과¹³⁴ 유사한 형태인 이유이다. 즉, 추수동 유적은 연진 교체기인 기원전 3세기 말경에 토착문화가 중원문화, 즉 전국 연 계통 문화를 수용하던 모습을 반영한 생활유적이다.

한편, 대전자 석관묘는 추수동 유적과 서로 인접해 있고 유물 양상도 유사하여 동일 주민집단의 유적으로 파악된다. 대전자의 두 유적은 연진 교체기인 기원전 3세기 말경 토착집단이 연 계통의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양상을 보여준다. 즉, 환인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소급되는 초기 적석묘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전자 추수동 유적과 대전자 석관묘를 통해 선행 묘제를 사용하던 토착집단의 존재가 상정된다.

환인 왕의구 유적에서도 철괭, 철부, 철촉 등의 철기와 함께 토기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를 보면 토착적 성격의 협사토기와 무문이 다수이나, 중원적 요소의 니질토기와 승문이 일부 보인다. 이는 육도하 유역의 대전자와 유사한 양상으로 토착집단이 중원문화를 수용한 또하나의 사례이다.¹³⁵ 따라서 왕의구 유적 인근에 위치하여 동시기 유적으로 파악되는 왕의구 적석묘와 산두자 대석

132 武家昌·王俊輝, 2003, 앞의 글, 28쪽.

133 이남규, 2005, 앞의 글, 23~41쪽.

134 王增新, 1964, 「遼寧撫順市蓮花堡遺蹟發掘簡報」, 『考古』 6, 287~289쪽.

135 樊聖英, 2009, 앞의 글, 187쪽.

〈표 2〉 권역별 주요 초기 적석묘(기원전 3세기 말~기원후 1세기)

지역	고분 이름	고분 형식	평면	규모	계장	호석	화장	주요 유물	조성연대
한인 (Ⅰ)	망강루	무기단적석묘	근타원형	대형		●	●	호, 심발형 토기, 두형토기, 철제 재갈과 재갈멈추개, 철제낚시바늘, 철촉, 철사, 목갈이	기원전 1세기
		무기단적석묘	불규칙 타원형	대형		●		호, 심발형 토기, 두형토기, 금귀고리, 철촉, 철제 낚시바늘, 동철약, 동령, 동환, 유리 이전(耳環)	기원전 1세기
		무기단적석묘	불규칙 타원형	대형	●		●	호, 심발형 토기, 철검, 철촉, 철제 낚시바늘, 목갈이	기원전 1세기
	훈강수고동	계장적석묘	장방형	대형	●	●	●	호, 철제 낚시바늘, 철환	기원후 1세기
	왕의구 1호묘	무기단적석묘	불규칙 다변형	대형		●		심발형 토기(竪耳罐)	기원 전후
통화 (Ⅱ)	만발발자 37호묘	무기단적석묘	근방형	중소형			●	심발형 토기, 토제 이전, 옥구슬, 청동기	기원전 2세기대
집안 (Ⅲ)	오도령구문	무기단적석묘	방형	대형	●			동검, 동부, 동경, 동모, 철촉	기원전 2세기
	하월릉 8호묘	무기단적석묘	근원형	중대형				환수철도, 철분, 철검, 사이호, 양이호	기원전 1세기
자강도 (Ⅳ)	연무리 2호묘	무기단적석묘	근장방형	초대형				청동 조각, 청록색 유리, 토제 어망추	기원전 시기
	운평리 4-6호묘	무기단적석묘	전방후원형	초대형				동탁, 철도, 철경, 대구, 기외편, 토기편	기원전 1세기 중반
		무기단적석묘	장방형	대형				환두대도, 장도(長刀), 철모, 철부, 비수	기원전 1세기~기원 전후
	용연동	무기단적석묘	원형	소형				청동대구, 명도전, 반월형 철도, 철서, 철모, 철촉	기원전 3세기 말~2세기
장백 (Ⅴ)	간구자	원형적석묘	원형	대형	●	●	●	철도, 철괘, 반량전, 일화전	기원전 3세기 말~2세기

개적석묘 역시 토착세력들이 연 계통의 철기문화를 수용하며 기존 묘제와 함께 적석묘라는 새로운 묘제를 축조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 말~2세기에 전국 연 계통의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토착세력들이 위원 용연동과 장백 간구자에서는 원형적석묘를 축조했으나,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환인에서는 기존 묘제가 지속적으로 조영되고 기원전 1세기에 비로소 기존 묘제와 함께 적석묘를 조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도군이 설치되는 기원전 107년에 ‘고구려’라는 존재가 확인되는데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한대 강철제 철기가 보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2세기 중엽에는 고구려인이 형성되었다고 본다.¹³⁶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지닌 독자적 정치집단이 출현하던 이 시기에 정치적 중심지였던 환인은 용연동이나 간구자와 같이 일찍부터 적석묘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환인 지역 토착집단의 지배세력은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석관묘나 대석개묘 등 기존 묘제의 전통을 계속 고수한 것으로 짐작되며, 대형 무기단적석묘가 등장하는 기원전 1세기에도 여전히 기존 묘제의 전통을 이어 적석묘와 함께 병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초기 적석묘의 축조방식의 특징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서 연대 비정이 가능한 적석묘 가운데 국가형성기, 대략 기원전 3세기 말, 2세기 초부터 1세기까지 조영된 초기 적석묘는 대략 <표 2>와 같다. 이 적석묘들은 규모가 크고 유물도 풍부한 편으로 유력정치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들로 배타적 우월적 지위를 지닌 고분이라 할 수 있다. 환인과 자강도 지역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권역별로 1~2기씩 확인된다.

136 여효규, 2014, 「나집단의 성장과 나부체제의 성립」,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146~151쪽.

우선 고분형식을 보면, 가장 이른 시기인 기원전 3세기 말에 조성된 압록강 상류 장백 권역의 간구자와 자강도 권역의 위원강 유역 용연동의 원형적석묘는 기본적으로 무기단적석묘에 해당하므로, 5개 권역에서 무기단적석묘가 확인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간구자 원형적석묘는 묘역을 마련한 후 기저부를 조성하고 원형 묘단을 중심으로 반원형과 부채형으로 무덤을 확장시킨 독특한 형태의 연접묘이다. 연접묘의 중심이 되는 주요단은 큰 것은 길이 10m, 높이 1m로 대형 단독묘와 비등할 정도이다. 간구자 적석묘의 독특한 형태와 축조방식은 다른 지역의 무기단적석묘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장백에서는 간구자 외에도 십이도구, 십사도구전참, 동강 등에서 원형적석묘가 조영되었다.¹³⁷ 팔도구진 호로투촌에서는 인상여(蔞相如) 동과(銅戈)가 출토되었는데 조(趙) 혜문왕 20년(기원전 279)에 제작된 것이다.¹³⁸ 이 동과는 산비탈의 돌무지들 가운데서 인골, 토기편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적석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로투 적석묘는 간구자 등에서 조영된 것과 같은 원형적석묘로 추정된다.

위원장 유역의 용연동 원형적석묘는 상부가 파괴된 채 발견되어 축조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바닥 지름 360cm 정도의 원형적석을 확인하여 소형 원형적석묘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간구자 원형적석묘는 요동반도 적석묘에서 기원한다고 보기도 하는데¹³⁹ 1~2m를 넘는 높은 묘단 수 기가 연접되어 있어 적석이 쉽게 무너져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덤의 가장자리를 계장식으로 쌓거나 묘역 밖에 호석을 세

137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이 책에서 원시사회 무덤으로 소개되었는데 간구자 원형적석묘와 성격이 유사한 무덤으로 추정된다. 다만 십이도구 고분군은 2004년 조사(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앞의 글, 22쪽 표 1)에서 기단적석묘로 소개되었는데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138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管理所, 1998, 『吉林長白朝鮮族自治縣發現蔞相如銅戈』, 『北方文物』, 91쪽.

139 李新全, 2009, 앞의 글.

위 두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계장과 호석이 함께 축조된 적석묘는 환인 지역에서 기원전 1세기에 망강루적석묘, 기원후 1세기에 혼강수고동 계장적석묘에서 확인된다. 망강루 적석묘에서는 1호묘와 4호묘의 경사가 심한 일부에 호석을 돌렸고 6호묘에는 계장을 쌓았다. 혼강수고동 고분군에서는 남동쪽이 높고 북서쪽이 낮은 입지로 인해 계장적석묘로 축조된 단독묘 1기(단4)와 연접묘 1기(단1~단3)가 있다. 호석은 단1에서는 장군총과 같이 거대한 장대석 1매를 기대어놓거나 단3과 단4에서는 계장 밖에 비교적 큰 돌들을 일렬로 세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계장적석묘는 간구자 원형적석묘와 망강루적석묘의 계장 축조방식을 이어받아 기원후 1세기에 조영된 사례로 주목된다. 혼강수고동의 계장적석묘는 오도령구문적석묘와 마찬가지로 창석류를 이용해 조성되었는데 집안 오도령구문의 계장은 창석류 제자리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무기단적석묘로 파악했으나, 혼강수고동 계장적석묘는 인근 창석류에서 돌을 가져다 계장을 조성한 초기 계장적석묘로 이해된다. 고구려 적석묘 조영의 특징이라 할 계장과 호석은 기원전 3세기 말 장백 간구자 원형적석묘에서부터 등장하여 기원전 1세기에는 환인 망강루적석묘를 거쳐 기원후 1세기 혼강수고동 고분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국가형성기에 장백 지역과 환인 지역에서는 계장, 호석이 동시에 축조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집안 지역은 오도령구문적석묘에서 계장만 확인되며, 자강도 지역은 <표 2>에서 계장과 호석이 확인되지 않지만 운평리 4-8호묘와 마찬가지로 주곽과 부곽이 조영된 무기단적석묘인 4-9호묘에서 호석이 보인다.¹⁴⁰ 통화는 계장과 호석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데 적석묘의 비중이 낮고 대형 무기단적석묘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 지역적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장백 지역과 용연동의 원형적석묘를 제외한 무기단적석묘의 평면을 보면 대략 이른 시기에는 (타)원형이고, 늦은 시기에는 장방형이 조영되었다. 환인에서

14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앞의 책, 149~150쪽.

가장 이른 시기에 조영된 망강루 적석묘는 타원형의 적석묘로 산마루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며 6기가 조영되었다. 집안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 조성된 오도령구문이 방형이고, 기원전 1세기에 축조한 하활룡 8호묘가 근원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이다. 이것은 오도령구문이 비탈지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경사 아래에 계장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방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자강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 말경 용연동 원형적석묘를 제외하면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르러 평면을 장방형으로 조성하였다. 그런데 운평리 4-6호묘는 타원형의 무덤 앞에 방형의 제사시설이 붙어 있는 전방후원형을 이루고 있다. 연무리 2호묘는 장방형이나 한 면이 약간 호형을 띠며 네 모서리에 돌출형 돌무지를 쌓은 사우돌출형이라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처럼 자강도 지역에서는 연무리 2호묘와 운평리 4-6호묘가 비슷한 시기의 환인 망강루적석묘나 집안 하활룡 8호묘와 비교해도 확실한 지역적 특색을 보인다.

다음으로 초기 주요 고분의 장법을 살펴보면 무덤 안에서 직접 화장하는 1차장 화장묘가 환인을 비롯해 통화, 장백에서 잘 드러나는데 특히 환인에서는 망강루 1호묘에서 명확한 화장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집안에서는 오도령구문 적석묘와 하활룡 8호묘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하활룡 8호묘와 동일한 구조의 하활룡 20호묘에서 불에 탄 인골과 숯가루가 확인되어 1차장 화장풍습이 확인된다.¹⁴¹ 장백에서는 간구자에서 화장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외부에서 화장해 불탄 인골을 묻은 2차장이 다수이고, 1차장도 일부 확인된다.

고분의 축조방식과 화장 등을 정리해보면, 적석묘가 등장하는 기원전 3세기 말경부터 장백 간구자에서는 계장, 호석 등이 조성되고 화장이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경 환인 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에서 기원후 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간구자 적석묘에서 2차장이 다수를 차지하던 화장문화가 1차장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대로 압록강 중상류의 적석묘가 조영되던 지역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적석묘 조영의 전통이 고구려 초기의

141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앞의 글, 66쪽.

중심지인 환인과 집안보다 장백에서 이른 시기에 확인되는 것이 주목된다. 환인은 장백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세기 말 전국 연 계통의 철기문화를 수용하였는데 기원전 1세기 적석묘의 선행 묘제인 석관묘와 대석개적석묘, 적석묘 축조방식이 반영된 대석개적석묘 등이 적석묘와 병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토착 집단의 지배세력들이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기존 묘제를 고수하면서 적석묘 조영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장백은 물론 기원전 2세기경 집안과 통화에서는 적석묘가 조영되며, 이 시기 통화에서 환인과 마찬가지로 선행 묘제와 적석묘의 병존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환인 지역도 연계통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시기에 이미 적석묘의 조영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환인과 통화는 적석묘의 선행 묘제인 석관묘,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가 적석묘와 병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토착집단의 지배세력들이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기존 묘제를 고수하면서 적석묘 수용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V. 맺음말

고구려 적석묘는 『삼국지』 고구려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든다(積石爲封)’고 기록되었듯이 고구려 초기 묘제로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고구려 초기 영역 범위와도 부합한다. 그로 인해 고구려의 국가형성기 정치집단의 출현과 통합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자료이다.

고구려 적석묘의 편년에 따라 고구려 국가형성기를 살펴 볼 수 있는 무기단 석광묘와 기단석광묘 등의 초기 적석묘를 중심으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분포 양상을 산맥과 수계에 따라 혼강 유역의 환인, 통화·집안과 압록강 중류역의 집안, 자강도와 압록강 상류역의 임강·장백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혼강 유역의 환인은 기원전 3세기 말 전국 연계통 철기문화를 수용하는 토착 집단이 대전자 추수동유적과 대전자석관묘 및 풍가보자 고분군에서 확인되지만 기원전 1세기경에 비로소 망강루적석묘가 등장한다. 통화·집안은 통화 만발발

자 무기단적석묘가 기원전 2세기에 출현지만 강연 일대의 남두둔과 하룽두 고분군과 함께 적석묘 조영이 일시 중단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압록강 유역의 집안은 통구분지에서 기원 1세기대로 비정되는 초대형 계장 적석묘들이 보고되었으나 대체로 2~3세기로 수정되고 있으며, 통구분지 서쪽의 태평구하 부근에서 기원전 2세기로 비정되는 오도령구문 적석묘와 기원전 1세기로 비정되는 하활룡 8호묘 등의 대형 무기단적석묘가 확인된다. 통구분지 동쪽에는 소형 원형적석묘가 신흥촌, 양민 등에서 확인되지만 크게 주목되는 고분은 없다. 자강도에서는 위원강 유역에서 기원전 3세기 말로 비정되는 용연동 원형적석묘가, 혼강 하구 맞은편의 압록강 남안에서 기원전으로 비정되는 연무리 2호묘, 대략 기원전 1세기 중반 이후로 비정되는 운평리 4-6호와 4-8호묘 등의 대형 적석묘가 확인된다. 임강·장백에서 일찍부터 원형적석묘의 축조 전통이 확인되는데 특히 기원전 3세기 말로 비정되는 간구자 원형적석묘가 눈에 띈다.

이상 살펴보면, 기원전 3세기 말에 자강도 권역과 임강·장백 권역에서 원형 적석묘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2세기경 집안 권역의 오도령구문 적석묘와 통화 권역의 만발발자 무기단적석묘 등이, 기원전 1세기에는 환인 권역의 망강루 적석묘와 집안 권역의 하활룡 8호묘 등이, 기원전 1세기 중반 이후에는 자강도 권역에서 연무리 2호묘, 운평리 4-6호 및 4-8호묘 등이 확인된다. 즉, 적석묘는 기원전 3세기 말에 등장하여 기원전 1세기에 이르면 5개 권역에서 모두 확인되기 시작하며, 자강도와 장백에서 가장 먼저 적석묘가 출현하는 데 비해 고구려 초기 중심지로 비정되는 환인에서는 가장 늦은 기원전 1세기에 처음 확인된다.

적석묘가 조영되기 전에 환인 권역과 통화 권역에서는 석관묘, 대석개묘 등이 확인된다. 환인 권역과 통화 권역에서는 환인의 풍가보자 고분군, 왕의구 고분군, 통화 만발발자 고분군에서 확인되듯 적석묘와 함께 선행 묘제인 석관묘, 대석개묘는 물론 적석묘 축조방식이 추가된 대석개적석묘 등이 병존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초기 적석묘를 조영한 집단이 기존의 석관묘나 대석개묘도 일정

기간 병용하였던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말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전국 연계통 철기문화가 토착집단에 의해 수용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기원전 3세기 말 늦어도 기원전 2세기에는 적석묘가 출현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그 당시 환인 권역은 대전자 추수동유적에서 보듯 석관묘나 대석개묘 등의 기존 묘제와 함께 대석개적석묘가 조영되고 있었다. 이것은 환인 권역의 토착집단 지배세력이 기존 묘제를 고수하면서 적석묘가 유력자의 묘제로 채택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며, 그 집단 내에는 적석묘가 조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원전 3세기 말의 장백 간구자 원형적석묘에서 확인되는 계장과 호석 등의 조성방식이나 화장법 등이 가장 늦은 시기에 조영된 환인 권역의 망강루 적석묘와 혼강수고동 계장적석묘에서 그대로 계승되는 양상도 환인에서 일찍부터 장백과 같은 적석묘 조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적석묘의 분포 양상을 권역을 나누어 적석묘의 등장과 기존 묘제와의 공존 양태, 조성방식 등에 대해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환인은 고구려 초기 문화유적이 가장 풍부하게 잘 드러나고 있고 최초 건국 중심지라는 점에서 정치집단의 출현과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또다른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집안 권역을 비롯해 자강도 권역은 초기 적석묘가 집중 분포한 지역으로 환인과 더불어 강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차후 문헌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고구려 5나부의 형성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 박진옥, 1988,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29) 고구려의 돌각담무덤』.
- 손수호, 2001,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정찬영, 1983, 『압록강, 독로강 류역 고구려 유적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 吉林省文物志編纂委會, 1983, 『集安縣文物志』.
- _____, 1984, 『渾江市文物志』.
- _____, 1986,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辦公室 編著, 2019,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
- 孫仁杰·遲勇,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 孫穎, 2016, 『高句麗陶器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陳大爲, 1981, 『遼寧省考古』, 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朝鮮古文化綜鑑』, 養德社.
-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編年』.

논문

- 강현숙, 1999, 「고구려 적석총의 등장에 대하여」, 『경기사학』 3.
- _____, 2000, 「고구려 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 「환관 왕징려우 적석총으로 본 주몽설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 해석(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사계절.
- _____, 2020, 「고분」,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리정남, 1989, 「자강도 초산군 련무리 2호무덤 발굴중간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4.
- _____, 1990, 「운평리 고구려무덤떼 제4지구 돌각담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90-1.
- 박진옥, 1987, 「초기좁은덧단검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1.
- 余昊奎, 1992, 「고구려 初期 那部統治體制의 成立과 運營」, 『韓國史論』 27.
- _____, 199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a, 「고구려 적석묘의 내·외부 구조와 형식분류」,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 _____, 2011b,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 _____, 2014, 「나집단의 성장과 나부체제의 성립」,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 오강원, 2004, 「萬發拔子를 통하여 본 통화지역 先原史文化의 展開와 初期 高句麗 文化의 形成過程」, 『북방사논총』 1.
- _____,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 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 이남규, 2005, 「高句麗 國家 形成期 鐵器文化의 展開樣相」, 『고구려의 국가 형성』.
- 지병목, 1987, 「고구려 성립 과정고」, 『백산학보』 34.
- _____, 2005, 「高句麗 成立期の 考古學的 背景」, 『고구려의 국가 형성』.
- 정찬영, 1961, 「고구려 적석총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5.
- _____, 1973,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집』 5.
- 주영헌, 1962, 「고구려 적석 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 耿鐵華·林至德, 1984, 「集安出土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 1984-1.
-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1982-4.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吉林長白縣干溝子墓地發掘簡報」, 『考古』 2003-8.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博物館, 2010, 「2008年集安市洞溝古墓群考古發掘報告」, 『邊疆考古研究』 9.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通化市文物管理協公室, 1997, 「通化市王八脖子遺址及附近幾處地點的調查與發掘」, 『博物館研究』 1997-2.
- 吉林省長白文化研究會·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 『東北史地』 2004-4.
- 吉林集安縣文管所, 1982, 「集安萬寶汀墓區242號古墳清理簡報」, 『考古與文物』 82-6.
- 金旭東, 2011, 「西流松花江·鴨綠江流域兩漢時期考古學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金旭東·安文榮·楊立新, 2000, 「探尋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吉林通化萬發拔子遺址發掘獲重要收穫」, 『中國文物報』 2000年 3月 19日.
- 萬欣·梁志龍, 1998 「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積石墓」, 『考古』 1998-3.
- 武家昌·王俊輝, 2003, 「遼寧桓仁縣抽水洞遺址發掘」, 『北方文物』 2003-2.
- 方起東, 1985, 「高句麗石墓的演進」, 『博物館研究』, 1985-2.
- _____, 1996, 「高句麗墓葬研究中的幾個問題」, 『遼海文物學刊』 1996-2.
- 樊聖英, 2009a, 「桓仁縣王義溝鐵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2008.
- _____, 2009b, 「桓仁縣馮家堡子高句麗墓群」, 『中國考古學年鑒』 2008.
- 徐光輝, 1993, 「高句麗積石墓研究」, 『青果集』 1(吉林大學考古專業20周年紀念文集).
- 石長鈺, 2021, 「王義溝遺址的發現與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 蘇長青, 1985, 「高句麗早期平原城-下古城子」, 『遼寧省丹東本溪地區考古學術討論會文集』,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本溪市文化局·丹東市文物管理委員會: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高句麗卷 3), 哈爾濱出版社, 재수록.
- 孫仁杰·遲勇·張殿甲, 2004, 「鴨綠江上游右岸考古調查」, 『東北史地』 2004-5.
-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2.
- 梁志龍·李新全, 2009, 「本溪地區高句麗考古三十年」,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 梁振晶, 2008, 「桓仁縣上古城子魏晉時期墓群」, 『中國考古學年鑒2007』.
- 吳江原, 2012, 「高句麗 初期 積石墓의 出現과 形成 過程」, 『高句麗渤海研究』 43.
- 王貴玉·王珺·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迹群所在地當即卒本夫余初居地」, 『東北史地』 2006-6.
- 王增新, 1964, 「遼寧撫順市蓮花堡遺蹟發掘簡報」, 『考古』 6.

-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14, 「馮家堡子墓地」, 『遼海記憶-遼寧考古六十年重要發現(1954-2014)』, 遼寧人民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16, 「遼寧桓仁馮家堡子積石墓群的發掘」, 『考古』 2016-9.
- 魏存成, 1987, 「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 『考古學報』 1987-3.
- 魏存成, 1994, 「再談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 『博物館研究』 1994-1.
-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 _____, 2008, 「高句麗早期遺存及其起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9, 「遼東地區積石墓的演變」, 『東北史地』 2009-1.
-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 林滢, 1980, 「中國東北系短劍初論」, 『考古學報』 1980-2.
- 張雪巖,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 1979-1.
- _____, 1993 「集安青銅短劍墓及相關問題」, 『高句麗研究論集』上, 延邊大出版部.
- _____, 1995 「集安青銅短劍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5-1.
- 趙俊杰·馬健, 2014, 「集安禹山41號高句麗壁畫墓的年代」, 『考古與文物』 2014-1.
- 曾昭藏·齊俊, 1981, 「桓仁大甸子發現青銅短劍墓」, 『遼寧文物』 1981-2.
- 陳大為, 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960-1.
- _____, 1985, 「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類型年代及其演變」, 『遼寧省博物館學術論文集』 1(1940-1984).
- 集安縣文物保管所, 1981 「集安發現青銅短劍墓」, 『考古』 1981-5.
- _____, 1983, 「集安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83-4.
- 通化市文管會辦公室(王志敏), 2006, 「通化江沿遺迹群調查」, 『東北史地』 2006-6.
- 許玉林·任鴻魁, 1991, 「遼寧鳳城胡家堡·孟家積石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 1991-2.
- 華玉冰, 2008,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關野貞, 1941, 「平安北道及滿洲國高句麗古蹟調查略報告」,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東潮, 1995, 「高句麗積石塚と横穴式石室墓の出現と展開」,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藤田亮策, 1938, 「朝鮮發見の明刀錢と其遺蹟」, 『史學論叢』 7.
- 田村晃一, 1994, 「樂浪郡設置前夜の考古學」, 『東アジア世界史の展開』, 汲古書院.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분포 양상과 축조방식에 대한 검토

김종은

고구려 적석묘는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든다(積石爲封)’는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고구려 초기의 묘제이다. 적석묘는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수십 기에서 수백 기가 군집을 이루어 집중 분포하고 있어, 고구려 국가형성기에 적석묘를 축조했던 정치집단의 출현과 통합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자료로서 일찍이 주목되었다.

적석묘 가운데 국가형성기에 조성된 무기단석광묘와 기단석광묘를 중심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포 양상을 검토하였다. 기원전 3세기 말 또는 기원전 2세기에 임강·장백 권역과 자강도 권역 지역을 시작으로, 기원전 2세기에는 집안과 통화를 거쳐 기원전 1세기에는 환인까지 무기단적석묘가 등장하고 있다. 무기단적석묘가 등장하고 있다. 환인 권역과 집안 권역은 고구려 왕도였으나 적석묘의 등장 시기는 기원전 1세기와 기원전 2세기 정도로 빠르지 않다. 그러나 첫 왕도인 환인에서는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에 추수동 유적에서 강력한 토착집단이 확인되며, 인근의 대전자석개석관묘가 이들과 관련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적석묘의 등장 시기에는 기존의 석관묘, 대석개묘와 함께 대석

개묘에 적석묘 축조방식에 부가된 대석개적석묘 등이 함께 조영되며, 조영방식이 유사하고 유물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통화 권역에서도 만발발자 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고구려 초기 적석묘를 조성한 집단이 기존의 묘제도 일정 기간 병용한 것은 두 묘제를 축조한 집단은 기존의 토착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형성기의 주요 초기 적석묘를 보면, 유물 수준이 높고 배타적 입지에 자리한 단독묘는 환인, 집안, 자강도 등의 3개 권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고구려의 국가형성을 주도하던 정치집단들의 지역기반으로 추정된다. 이들 정치집단과 고구려 나부체제를 이끌던 비류나부, 계루부, 연나부 세력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차후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구려, 적석묘, 정치집단, 축조방식, 국가형성기

Review on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Construction Method of Early Koguryo Stone Mound Tomb

Kim Jongeun

Koguryo stone mound tomb is a type of tomb in the early Koguryo period, as confirmed by the record of the Koguryo Dictionary(高句麗傳) of the Sanguo-zhi(三國志), 'Build a tomb by stacking stones.'. Dozens to hundreds of stone mound tombs are concentrated in clusters around the upstream and midstream areas of the Abrok-gang river, was noted earlier as an archaeological material which allows us to examine the emergence and integration process of political groups that built the stone mound tombs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the Koguryo.

Among the stone mound tombs, the distribution patterns was reviewed by dividing it into five areas, focusing on the stone mound tomb without a base and the stone mound tomb which has one base created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the nation. At the end of the third century B.C. or the second century B.C. non-platformed stone mound tomb appeared starting in the areas of LinJiang-ChangBai(V area), and Jagangdo(IV area), and they appeared in all three areas by

the first century B.C.. Hunaren(I area) and Jian(III area) were the royal capital of Koguryo, but the appearance of the stone mound tombs was not as early as the first century BC and the second century BC. However, in Huanren, the first royal capital of Koguryo, a strong indigenous group is identified in the ruins of Choushuitong from the end of the third century BC to the beginning of the second century BC, and the nearby stone coffin covered with a large stone on it of Dadianzi is estimated to be the tomb related to them, so the existing large stone and 'large stone and stone graveyard' are also built together during the appearance of the stone mound tomb, and the construction method is similar and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aspect of relics. This pattern is identified in Tonghua(II area) and tombs at Wanfabozi site.

The group that created stone mound tombs in early period of Koguryo also used the existing type of tomb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group that built the two types of tomb can be seen as existing indigenous peopl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main early stone mound tombs of the formation period of Koguryo, the relics are high in level and single tombs are located in exclusive location appear in three areas: HunaRen, JiAn, Jagangdo which are presumed to be the regional base of the political groups that led formation of Koguryo.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olitical groups and the forces of Biryunabu, Gyerubu, and Yeonnabu who led the Nabu System of Kogury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Keywords: Koguryo, stone mound tomb, political group, construction method, the formation period of the Koguryo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공간적 분포

정동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I. 머리말

II. 성곽 분포로 본 교통로

III. 일대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기원 전후한 시기에 발흥한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5세기에 이르러서는 만주(滿洲) 중남부지역과 한반도 중북부지역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영유하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확립하면서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성곽을 대거 축조하며 지방 통치조직을 정비하고 군사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고구려의 성곽은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방어하던 국가 체제의 근간이었던 것이다.¹

고구려의 성곽은 중국 경내의 요령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 북한, 남한 중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고구려의 성곽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지역은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로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 요동반도(遼東半島)와 태자하(太子河) 일대, 혼하(渾河)와 요하(遼河) 중상류 일대, 송화강(松花江)-목단강(牧丹江)-두만강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서북쪽으로 요동(遼東), 동쪽으로는 동해안으로 통하는 동서 교통로상의 중심지였고 서남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대동강·재령강 유역의 평야지대,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의 대평원지대나 요하 상류방면의 초원지대로 통할 수 있었는데,² 바로 여기에서 고구려가 발흥하면서 첫 번

* 투고: 2024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2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1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중은·이경미·정동민, 2021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I): 압록강 중상류1(환인)』, 동북아역사재단, 28쪽.

2 여호규, 1998, 『고구려성(I): 압록강 중상류편』, 국방군사연구소, 7쪽.

째 도성인 졸본[卒本, 요령성 환인(桓仁)]과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國內城, 길림성 집안(集安)]이 위치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국호에 보이는 ‘구려(句麗)’는 ‘구려(句驪)’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이나 ‘고을’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를 보면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고 하는데,³ 이들은 고구려가 건국 초부터 성곽을 축조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시작으로 성곽을 축조해나갔다고 볼 수 있고, 일대 성곽을 통해 고구려의 초기 성곽 축조 양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통해 주요 교통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군사 방어뿐만 아니라 지방 통치를 위한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는 과정에서 일대 지배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곽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한편,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보고된 성곽 가운데 정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은 도성 유적인 환인의 오녀산성, 집안의 국내성⁴과 산성자산성⁵ 외에 환인의 하고성자성과 고검자산성, 집안의 패왕조산성, 길림성 통화(通化)의 자안산성 등으로, 이들은 조사를 통해 고구려가 축조한 성곽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⁶ 이 외의 성곽은 간단한 지표조사를 통해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고구려와 관련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

3 <廣開土王陵碑>,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丸都山城, 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6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개별 내용과 참고문헌 등은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2021a, 앞의 책; 2021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Ⅱ): 압록강 중상류2(집안-신빈)』, 동북아역사재단;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Ⅲ): 압록강 중상류3(통화-백산-임강-장백)』,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 않았음에도 정황만으로 고구려의 성곽으로 비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즉, 보고된 성곽 모두 고구려가 축조하였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곽이 입지나 축성 방식에서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국내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포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수가 고구려의 성곽이었다고 여겨진다.⁷ 이 글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구려 성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고구려 성곽이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보고대로 고구려 성곽으로 보면서 논지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비록 많은 오류와 억측이 있겠지만, 보다 폭넓은 추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II. 성곽 분포로 본 교통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대체로 압록강(본류) 유역과 압록강의 지류인 혼강(渾江)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유입된다. 혼강은 용강산맥(龍崗山脈)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길림성의 백산(白山)과 통화 그리고 요령성의 환인으로 흐르다가 관전(寬甸)과 환인의 경계에서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 중류로 유입된다. 그리고 부이강(富爾江), 육도하(六道河), 신개하(新開河), 청하(淸河, 위사하(葦沙河)) 등 여러 지류가 혼강으로 유입되는데, 혼강의 지류에도 고구려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⁸

도성 유적인 오녀산성, 국내성, 산성자산성을 제외하고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보고된 성곽은 39기로, 그 가운데 13기는 압록강 유역, 26기는 혼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압록강 유역의 13기 가운데 5기는 길림성 장백(長白), 4기는 길림성 임강(臨江), 4기는 집안에 위치

7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2021a, 위의 책, 28쪽.

8 정월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56쪽.

〈표 1〉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 일람표

번호	성곽명	수계	유형	축성재료	둘레(m)
1	환인 고검지산성	혼강(육도하)	산성(포곡식)	석축	1,466
2	환인 마안산성	혼강(육도하)	산성(산정식)	석축	900
3	환인 하고성자성	혼강	평지성	토축	939
4	환인 성장립자산성	혼강(혼강+누하)	산성(산정식)	석축	2,375 ⁹
5	환인 북구관애	혼강(누하)	관애	석축	259
6	환인 와방구산성	혼강	산성(포곡식)	석축	1,000
7	환인 나합성	혼강	평지성	석축	200
8	집안 패왕조산성	혼강(신개하)	산성(포곡식)	석축	1,260
9	집안 망파령관애	혼강(신개하)	관애	석축	750
10	신빈 고각산산성	부이강	산성(포곡식)	토축	
11	신빈 전수호산성	부이강	산성(산정식)	석축	1,355
12	신빈 사도구산성	부이강	산성(산정식)		
13	신빈 흑구산성	부이강	산성(산정식)	석축	1,493
14	통화 건설산성	혼강(두도하)	산성(산정식)	석축	
15	환인 수허산성	혼강(부이강)	산성(산정식)	토축	500
16	환인 동고성자유적	혼강(부이강)	평지성	토축	340
17	통화 남태고성	부이강(삼과유수하)	평지성	토석혼축	172
18	통화 태평구문고성	부이강(삼과유수하)	평지성	토석혼축	199
19	통화 의목수고성	부이강(삼과유수하)	평지성	석축 또는 토석혼축	
20	통화 영광포산성	혼강(라고하)	산성(산정식)	석축	260
21	집안 대천초소	혼강(청하)	산성(초소)	석축	153
22	집안 관마장관애	혼강(청하)	관애	석축	2,380
23	통화 평강산고성	혼강	평지성	토축	

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22, 「遼寧桓仁縣三座高句麗山城及北溝關隘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2022-4, 31쪽.

24	통화 자안산성	혼강(합밀하)	산성(포곡식)	석축+토석혼축	2,753
25	통화 이도구문관애	혼강(대라권구하)	관애	토석혼축	250
26	통화 석호관애	혼강(대라권구하)	관애	토석혼축	291
27	집안 칠개정자관애	압록강	관애	석축	130
28	집안 만구노변장관애	압록강(양수하)	관애	석축	200
29	장백 마록구고전호	압록강	평지성(참호)		
30	장백 장백고성	압록강	평지성	석축	1,200
31	장백 십사도구고성	압록강	평지성+관애	토석혼축+석축	
32	장백 십이도만관애	압록강	관애	토석혼축	40
33	장백 팔도구진산성	압록강(팔도구하)	산성(산정식)	석축	500
34	임강 동마록포자고성	압록강	평지성	토석혼축	150
35	임강 협피구고성	압록강	평지성	토석혼축	280
36	임강 화피전자고성	압록강	평지성	석축 또는 토석혼축	180
37	임강 임성고성	압록강(삼도구하)	평지성	석축	
38	집안 양민고성	압록강	평지성	석축+토축	1,400
39	집안 장천고성	압록강	평지성	석축+토축	370
도성유적	환인 오녀산성	혼강	산성(산정식)	석축	4,754
도성유적	집안 국내성	압록강	평지성	석축	2,686
도성유적	집안 산성자산성	압록강	산성(포곡식)	석축	6,951

하고 있고, 혼강 지역의 26기 가운데 4기는 집안, 9기는 통화, 4기는 요령성 신빈(新賓), 9기는 환인에 위치하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성곽이 소재한 입지에 따라 분류해본다면¹⁰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크게 평지성과 산성 그리고 교통로상의 좁은 골짜기를 차단했던 관애(關隘, 차단성)로 나눌 수 있다. 평지성으로는 압록강 지역의 장백 마록구고전

10 성곽 분류에 대해서는 정원철, 2017, 앞의 책, 94~15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호,¹¹ 장백 장백고성, 임강 동마록포자고성, 임강 협피구고성, 임강 화피전자고성, 임강 임성고성, 집안 양민고성, 집안 장천고성 등 8기와 혼강 유역의 통화 남태고성, 통화 태평구문고성, 통화 의목수고성, 통화 평강산고성, 환인 동고성 자유적, 환인 나합성, 환인 하고성자성 등 7기를 합쳐 모두 15기가 확인되고 있다. 평지성은 대체로 고구려의 도성인 오녀산성 주변과 진입로(동고성자유적, 나합성, 하고성자성), 부이강의 지류인 삼과유수하(三棵榆樹河) 유역(남태고성, 태평구문고성, 의목수고성), 압록강 유역(마록구고전호, 장백고성, 동마록포자고성, 협피구고성, 화피전자고성, 임성고성, 양민고성, 장천고성)에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산성으로는 압록강 유역의 장백 팔도구진산성 1기와 혼강 유역의 통화 자안산성, 통화 영과포산성, 통화 건설산성, 신빈 고각산산성, 신빈 전수호산성, 신빈 사도구산성, 신빈 흑구산성, 환인 수허산성, 환인 고검지산성, 환인 마안산성, 환인 성장립자산성, 환인 와방구산성, 집안 대천초소,¹² 집안 패왕조산성 등 14기를 합쳐 모두 15기가 확인되고 있다. 산성은 다시 산정식과 포곡식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압록강 유역의 팔도구진산성과 혼강 유역의 영과포산성, 건설산성, 전수호산성, 사도구산성, 흑구산성, 수허산성, 마안산성,¹³ 성장립자산성, 대천초소 등 10기는 산정식, 혼강 유역의 자안산성,¹⁴ 고각산산성, 고검지산성, 와방구산성, 패왕조산성 등 5기는 포곡식에 속한다.

관애로는 압록강 유역의 장백 십이도만관에, 집안 칠개정자관에, 집안 만구

11 장백 마록구고전호에 대해 참호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성곽 입지만 고려하여 평지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2 집안 대천초소에 대해 초소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성곽 입지만 고려하여 산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3 엄밀하게 보면 환인 마안산성은 마안봉식에 속하지만, 이 글에서는 산정식에 포함시키하고자 한다.

14 통화 자안산성에 대해 산줄기에서 돌출한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고 완만한 경사지를 감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식과 포곡식이 절충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여호규, 1998, 앞의 책, 19쪽).

노변장관에 등 3기와 혼강 유역의 통화 이도구문관에, 통화 석호관에, 집안 관마장관에(관마산성), 집안 망파령관에, 환인 북구관에 등 5기를 합쳐 모두 8기가 확인되는데, 이도구문관애를 제외하면 집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근처의 압록강 본류나 노령산맥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외 기타로는 평지성과 관애가 결합된 유형으로서 압록강 유역의 장백 십사도구고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산성과 평지성이 주를 이루고, 다른 지역에 비해 관애가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는 크게 7개의 교통로를 상정할 수 있다(그림 1, 2 참조).

첫 번째는 육도하를 따라 환인분지(桓仁盆地)에 이른 다음 혼강 하류나 누하(漏河)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상에는 고검지산성-마안산성-하고성자성-성장립자산성(-북구관애)-와방구산성 등 6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1]).

고검지산성은 태자하 상류에서 환인분지로 들어오는 교통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자하 방면에서 혼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로뿐 아니라 소자하(蘇子河)에서 태자하 상류를 거쳐 혼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교통로 또한 통제하던 성곽으로 추정된다.¹⁵ 마안산성은 고검지산성과 더불어 육도하를 따라 진입하는 적군을 방어하던 환인분지 서부상의 성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고성자성은 육도하와 혼강이 합류하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성장립자산성과 와방구산성은 환인분지에서 혼강 하류를 따라 집안 경내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¹⁶ 누하 유역의 협곡에 위치하고 있는 북구관애의 경우 남북을 가로지르는 성벽을 기준으로 동편, 즉 집안 쪽에서 건물

15 여호규, 1998, 위의 책, 156~157쪽.

16 환인 와방구산성에 대해 서쪽의 渾江 수로를 통제하던 성곽으로 보기도 한다(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41~42쪽; 梁志龍, 1992, 『桓仁地區高句麗城址概述』, 『博物館研究』 1992-1,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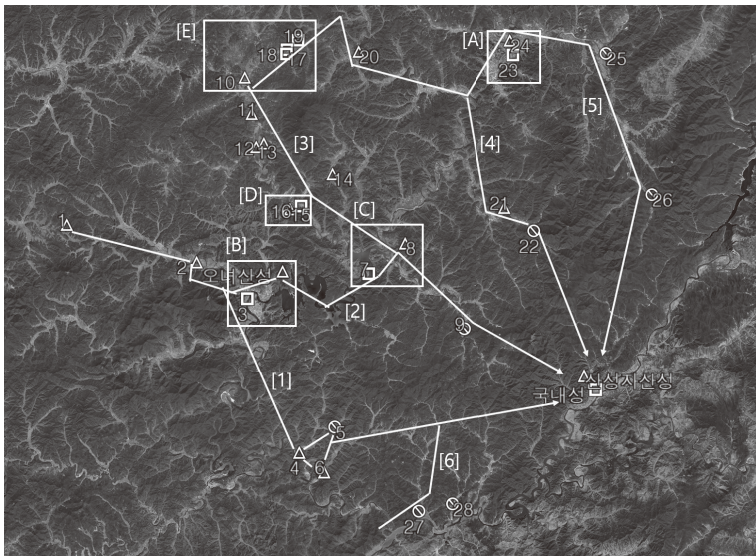


그림 1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 위치와 주요 교통로(□는 산성+평지성 조합지역)
(출처: 구글어스)

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서쪽에서 혼강과 누하를 따라 집안 경내로 진입 하던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육도하를 따라 환인분지에 이르는 다음 혼강을 거슬러 신개하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상에는 고검지산성-마안산성-하고성자성-오녀산성-나함성-패왕조산성-망파령관에 등 7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2]).

나함성은 혼강과 부이강이 교차하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패왕조산성은 혼강과 신개하의 합류처 동편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신개하 진입로를 봉쇄하던 성곽으로 추정된다. 즉, 환인분지나 부이강 방면에서 혼강 유역을 지나 집안분지에 도달하는 교통로상의 길목을 지키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망파령관에는 판차령(板岔嶺)으로 향하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패왕

조산성과 더불어 신개하 연안로를 차단하였던 성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신빈 왕청문(旺淸門) 일대에서 남쪽으로 부이강과 신개하를 따라 통구분지(通溝盆地)에 도달하는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상에는 고각산산성-전수호산성-사도구산성-흑구산성-건설산성-수허산성-동고성자유적-패왕조산성-망파령관애 등 9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3]).

고각산산성은 부이강 상류를 경유하여 통화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와 부이강 하류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의 분기점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부이강 상류와 통화 일대를 방어하던 성곽으로 추정된다. 전수호산성, 사도구산성, 흑구산성 등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부이강 연안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이강 연안을 통제하던 성곽으로 여겨진다. 건설산성은 부이강의 지류인 두도하(頭道河)를 통해 신개하로 진입하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둘레가 약 340m에 불과한 소형 성곽이라는 점에서 봉화대와 같은 통신·경보 시설로 추정하기도 한다.¹⁷

동고성자유적은 부이강 우안의 평지에 위치하는데, 성벽이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수허산성은 고각산산성과 더불어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 가운데 유일한 토축 산성이다. 부이강 좌안의 오녀산성으로 통하는 협곡에 위치하는데, 환인분지를 방어하기 위한 성곽일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왕청문 일대에서 부이강 지류인 삼과유수하와 라고하(喇蛄河)를 따라 통화지역의 혼강 본류에 이르는 다음 청하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상에는 고각산산성-남태고성-태평구문고성-의목수고성-영과포산성-대천초소-관마장관애 등 7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4]).

남태고성, 태평구문고성, 의목수고성 등은 전체 둘레가 200m 이하의 소규모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초소나 봉화대와 같은 군사시설로 추정된다.¹⁸ 영과포

17 李殿福 著, 차용걸·김인경 역, 1994, 『중국내의 고구려 유적』, 학연문화사, 53쪽.

18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 『通化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65~68쪽.

산성 또한 전체 둘레가 약 260m 정도의 소규모라는 점에서 초소로 추정된다.¹⁹

대천초소는 절벽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조망이 가능하고 전체 둘레가 153m로 규모가 작는데, 독립된 성곽으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7.5km 후방에 위치한 관마장관애의 전방 초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마장관애는 협곡을 가로지르는 관애 형태로 축조되었지만, 북·남·동 세 면에 성벽이 축조되어 어우러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포곡식 산성 유형을 띠고 있다. 북벽 바깥으로 참호와 참호독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혼강에서 청하를 따라 집안 경내로 진입하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으로 추정된다.²⁰

다섯 번째는 왕청문 일대에서 삼과유수하와 라고하를 따라 통화지역의 혼강 본류에 이른 다음 대라권구하(大羅圈溝河)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상에는 고각산산성-남태고성-태평구문고성-의목수고성-영과포산성-평강산고성-자안산성-이도구문관애-석호관애 등 9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5]).

자안산성은 혼강과 합밀하(哈蜜河)가 합류하는 통화 일대에 위치하는데, 통화 일대는 혼강 상류의 중심지로서 송화강의 지류인 휘발하(輝發河) 유역에서 용강산맥을 넘어 집안 경내로 나아가거나 부이강 유역에서 라고하를 거쳐 집안 경내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요충지에 위치하였다는 점과 전체 둘레가 2,753m로서 도성 유적을 제외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안산성의 전략적 위상이 매우 높았다고 여겨진다.

이도구문관애는 대라권구하와 혼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직접적으로 집안 경내로 향하는 교통로를 차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벽 안쪽의 골짜기를 이용한 군사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호관애의 경우 대라권구

19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 위의 책, 68쪽; 李殿福 著, 차용걸·김인경 역, 1994, 앞의 책, 53쪽.

20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2021a, 앞의 책, 28쪽.

하 하류 쪽에서 반원형 치와 참호가 확인되었는데, 이로 볼 때 혼강에서 대라권 구하를 따라 집안 경내로 진입하던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으로 여겨진다.²¹

여섯 번째는 압록강 하류를 따라 집안에 도달하는 교통로로 칠개정자관애-만구노변장관애 등 2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6]). 두 관애가 위치한 지역은 외차구하(外岔溝河)·양수하(凉水河) 일대인데, 그 위쪽의 압록강 수로는 매우 험하기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압록강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온 배들은 외차구하·양수하 일대에 정박한 다음 육로를 통해 집안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관애는 압록강 수로와 집안으로 향하는 육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²² 직접적으로 협곡을 통과하는 교통로를 차단하기 보다는 주변의 상륙 지점이나 수로를 통제하면서 압록강 하류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일곱 번째는 압록강 상류를 따라 집안에 도달하는 교통로이다. 이 교통로상에는 마록구고전호-장백고성-십사도구고성-십이도만관애-팔도구진산성-동마록포자고성-협피구고성-화피전자고성-임성고성-양민고성-장천고성 등 11기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2).

마록구고전호는 참호로 보고되었는데, 압록강 본류의 고구려 성곽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장백고성, 동마록포자고성, 협피구고성, 화피전자고성, 임성고성, 양민고성, 장천고성 등은 압록강변의 충적대지에 자리 잡은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군사 방어보다는 압록강 수로와 연관된 역참으로서의 기능이 강하였다고 여겨지고 있다.²⁴ 십사도구고성에서는 평지성뿐만 아니

21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2021a, 위의 책, 35쪽.

22 집안 칠개정자관애가 위치한 지점은 수풍댐의 건설로 인해 현재 수몰된 상태지만, 한때 황해나 발해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압록강 수로 교통의 요지로서 번성하였다고 한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80쪽).

23 여호규, 1998, 앞의 책, 117~118쪽; 2008, 「압록강 중상류 연안의 고구려 성곽과 동해로」, 『역사문화연구』 29, 133~137쪽;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188~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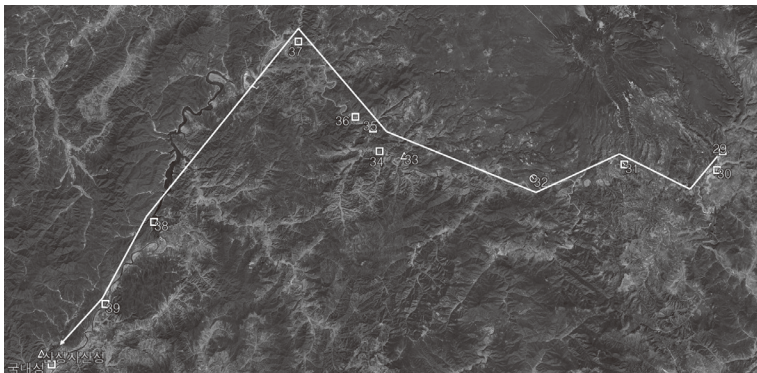


그림 2 압록강 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 위치와 교통로(출처: 구글어스)

라 관애도 볼 수 있는데, 역참과 군사 방어 기능의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십이도만관에는 압록강 상류와 하류 방면 모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록강 수로를 통제하던 성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팔도구진산성은 산 위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성곽이었다고 여겨진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을 살펴보면 집안 경내로 향하는 교통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고, 각 교통로마다 집안 경내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성곽으로 관애가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를 위협할 만한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침공 위협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압록강 상류 방면의 교통로를 제외하면 군사 방어적 성격이 강한 산정식 산성과 관애의 비중이 높다.

위와 같은 분포 양상 속에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대체로 집안, 즉 국내성 방어를 위한 도성 방어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석축 성곽, 예컨대 성장립자산성, 와방구산성, 북구관애 등은 5세기 이후²⁵ 그리고 패왕조산성은 6세기대²⁶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24 여호규, 2008, 위의 글, 132~147쪽.

2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22, 앞의 글, 36쪽.

기도 하며, 포곡식 석축 산성의 경우에는 5세기대에 이르러서야 보편적으로 축조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⁷ 즉, 일부 석축 성곽은 427년 평양 천도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성 방어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축조된 성곽 또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일대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멸망 당시 ‘5부(部) 176성(城)’으로 편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²⁸ 이는 성곽이 지방통치 단위로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천남생묘지명(泉南生墓誌銘)〉을 보면 천남생(泉男生)이 당(唐)으로 투항할 때 ‘국내성 등 6성 10여 만 호를 이끌고 왔고, 이어서 목저성(木底城) 등 3성이 행로를 함께하였다’고 한다.²⁹ 이는 국내성 일대가 천남생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³⁰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권역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그 권역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로 설정되고 있다.³¹ 즉,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 일부는 평양 천도 후 그

-
- 2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21, 「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年發掘簡報」, 『考古』 2021-11, 31쪽.
- 27 백종오, 2023,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중국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검토 학술회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149쪽.
- 28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高麗國, 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乃分其地置都督府九 州四十二縣一百, 又置安東都護府以統之.”
- 29 〈泉南生墓誌銘〉, “公率國內等六城十餘萬戶, 書籍輓門, 又有木底等三城, 希風共款.”
- 30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255쪽.
- 31 이경미, 2012,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과 기능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66, 125쪽.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배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성곽이 지방통치 단위였다면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성곽 일부는 일대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이었다고 여겨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곽이 중심 거점으로서 기능하였을까? 중심 거점은 평양 천도 이전에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글에서는 국내성기와 평양 천도 이후 구분 없이 망라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일대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민의 거주지와 멀지 않아야 하고 성내 진입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야 한다. 또한 통치를 담당하는 지배세력의 거주성 확보와 관청 설치 등을 고려하면 성곽내 가용 면적이 넓어야 하고,³² 다른 성곽과의 연계를 감안하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중심 거점을 가려내고자 한다면 주변 주거지 유무 여부와 교통로상의 요충지 여부 그리고 성곽의 입지와 규모 등이 고려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은 평지성, 산성, 관에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산성은 다시 산정식과 포곡식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중심 거점으로 적합한 성곽 유형으로는 평지성과 포곡식 산성을 들 수 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의 평지성과 포곡식 산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성곽은 자안산성이다.³³ 자안산성은 함밀하와 혼강이 합류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성문이 산성 가장자리의 평탄하고 완만한 골짜기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성내 진입이 용이하며, 성내에서는 건물지가 다수 확인되

32 임기환, 2015,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108쪽.

33 통화 자안산성에 대해 漢代의 郡縣城으로 파악하면서(柳巖·邵春華, 1991, 「吉林省通化市漢代自安山城調查與考證」, 『博物館研究』 1991-3, 77~78쪽) 第2玄菟郡의 치소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 2010-3, 38쪽), 최근 발굴성곽을 토대로 고구려가 축조하였다고 여겨지고 있다(徐坤, 2011, 「自安山城的考古收穫與初步認識」,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36~40쪽).

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전화(戰火)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성곽을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안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자안산성이 통화 일대의 중심 거점이었다고 여겨진다.³⁴

한편, 자안산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동남쪽으로 혼강을 사이에 두고 평강산고성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강산고성은 평지에 위치한 성곽으로 토벽이 있었다고 하나, 경작지로 개간되면서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유물로는 한대(漢代)의 기와와 토기가 대거 출토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한대의 평지토성일 가능성이 높긴 하다.³⁵ 하지만 성곽이 위치한 통화 일대가 혼강 상류의 중심지로서 통구분지는 물론 환인분지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가 통화 일대로 진출하고 자안산성을 축조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만약 고구려가 평강산고성을 활용하였다면 일대에서의 ‘산성+평지성’ 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그림 1-[A]).³⁶

‘산성+평지성’ 조합은 고구려의 초기 도성체제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어 왔다.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쌓았다’는 성곽, 즉 흘승골성(紇升骨城)에 대해서는 대체로 오녀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³⁷ 그런데

34 예컨대 <泉男生墓誌銘>에 보이는 ‘泉男生이 國內城 등 6성의 10여만 호를 이끌고 唐에 투항하였다’는 기록에서 6성 가운데 하나로 통화 자안산성을 지목하며 평양 천도 이후에도 지방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이경미, 2012, 앞의 글, 130~131쪽). 반면 자안산성에서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짐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5세기 초에 폐기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徐坤, 2011, 위의 글, 41~42쪽).

35 王志敏, 2010, 「高句麗故地與第二玄菟郡考」, 『東北史地』 2010-5, 17쪽.

36 고구려가 통화 평강산고성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대 평지토성의 존재를 통해 통화 일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7 환인 오녀산성에 대해 지세가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물자 보급이 힘들고 정상부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도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서 紇升骨城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耿鐵華, 2004, 「高句麗紇升骨城

일부 연구자는 오녀산성이 일상적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인근에 평상시 거점, 즉 평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지성의 위치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대체로 하고성자성으로 비정하고 있다.³⁸ 하지만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성곽을 오녀산성으로 비정한다면 홀본, 즉 졸본은 오녀산성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고성자성은 오녀산성의 서남쪽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³⁹ 그리고 하고성자성은 고구려 건국 시점이 아닌 2~3세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도 한다.⁴⁰

위와 같은 홀본의 위치를 감안하면서 나합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⁴¹ 하지만 고구려 성곽임이 명확하지 않고,⁴² 설사 고구려 성곽이라 할지라도 석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성곽일 가능성이 낮으며,⁴³ 오녀산성에서 직선거리로 15km, 교통로상으로는 35km 떨어져 있어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新考」, 『高句麗考古研究』, 吉林文史出版社, 95~110쪽).

- 38 蘇長清, 1985, 「高句麗早期平原城-下古城子」, 『遼寧丹東本溪地區考古學術討論文集』, 143쪽;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 앞의 책, 35쪽; 梁志龍, 1992, 앞의 글, 69쪽;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48~49쪽).
- 3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인 하고성자성을 紇升骨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耿鐵華, 2004, 앞의 글, 106~110쪽).
- 40 양시은, 2016, 앞의 책, 217쪽.
- 41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334~339쪽; 王從安·紀飛, 2004, 「卒本城何在」, 『東北史地』 2004-2, 44~46쪽.
- 42 漢代の 토성이었다가 석성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梁志龍, 1992, 앞의 글, 64~69쪽;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22쪽; 임기환, 1998, 「高句麗前期山城研究」, 『국사관논총』 82, 73쪽).
- 43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9쪽.

반면 평상시 거점을 오녀산성 동남쪽의 환인 고령묘자고분군 일대로 추정하면서 평지에 성곽을 축조하였다는 기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평상시 거점에는 성곽이 축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⁴⁴ 심지어 왕도에 오녀산성만 있었다고 보면서 평지성은 물론 평상시 거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⁴⁵

고구려 첫 번째 도성이 ‘산성+평지성’ 조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두 번째 도성은 ‘산성(산성자산성)+평지성(국내성)’ 조합임이 분명하다. 한편, 고구려 영역이었던 연변(延邊) 지역에서도 ‘산성+평지성’ 조합을 볼 수 있는데, 길림성 도문(圖門)의 마반촌산성(성자산산성)과 길림성 연길의 하룡고성, 그리고 길림성 훈춘(琿春)의 온특혁부성과 살기성이 이에 해당한다.

마반촌산성과 하룡고성은 포이합통하(布爾哈通河)와 해란강(海蘭江)의 합류처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이 거리는 불과 약 1.5km이다. 마반촌산성은 토석혼축의 포곡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가 4,454m인데, 포이합통하 연안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성내에는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고, 골짜기 입구에 성문이 있어 내부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하룡고성은 토석혼축의 평지성으로 전체 둘레가 984m이다.

두 성곽에서는 서로 비슷한 형태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⁴⁶ 이를 토대로 동일한 시기에 축조·활용되었다고 보면서 고구려가 ‘산성+평지성’ 조합을 통해 그 일대를 지배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⁴⁷ 반면 두 성곽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동시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면서, 처음에는 하룡고성이 중심 거점이었고 나중에 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마반촌산성이 축조되면서 중심 거점이 옮겨졌다고 추정하기도 한다.⁴⁸

44 여호규, 2014, 「고구려 도성의 구조와 경관의 변화」,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 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64~70쪽.

45 기경량, 2017,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63쪽.

46 魏存成, 1999, 「길림성 내 고구려산성의 현황과 특징」, 『고구려연구』 8, 51쪽.

47 방학봉, 1999, 「高句麗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 『경기사학』 32; 2002, 『발해성곽연구』, 연변인민출판사.

온특혁부성은 두만강과 혼춘하(琿春河)가 합류하는 충적평원에 위치한 토석혼축의 평지성이다. 현재 전체 둘레는 2,269m이지만, 고구려의 기와가 성 밖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발해가 고구려 평지성의 일부 구간을 조정하여 축조한 것이고, 고구려 시기의 성곽은 현재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⁹ 한편, 온특혁부성에서는 고구려의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성곽의 높은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살기성은 충적평원의 동북단에 위치하며 온특혁부성과 20여 km 떨어져 있다. 석축 포곡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가 7km에 달하지만, 성내가 대부분 산비탈이어서 가용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다. 이와 같이 온특혁부성과 살기성은 입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온특혁부성이 평상시 거점 그리고 살기성이 방어용 성곽으로서 세트를 이루며 혼춘분지(琿春盆地) 일대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⁰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변지역에 ‘산성+산성’ 조합이 등장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심 거점으로 처음에 평지성을 축조하고 나중에 군사방어적 요인을 감안하여 산성을 축조하면서 등장한 경우이고, 둘째, ‘평상시 거점’과 ‘군사 방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의 보완 속에서 등장한 경우이다.

한편, 연변지역에서는 고구려의 평지성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⁵¹ 연변지역

48 이성제,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 177쪽.

49 방학봉, 1999, 앞의 글, 3쪽.

50 박진석은 도문 마반춘산성+연길 하룡고성을 柵城으로 비정하였고(박진석, 1988, 「高句麗柵城遺址考」, 『朝鮮中世紀研究』, 延邊大學出版社), 임기환은 마반춘산성+하룡고성을 新城, 혼춘 온특혁부성+혼춘 살기성을 책성으로 비정하였다(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한편, 여호규는 이상 열거된 성곽을 布爾哈通河 연안의 延吉平原을 다스리던 거점성으로 보면서 고구려 후기 최고 지방관인 柵城褥薩이 관장했다는 12州的 치소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여호규, 2017, 「두만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현황과 지방통치의 양상」, 『역사문화연구』 61).

51 연변지역의 고구려 평지성에 대해서는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

은 옥저의 활동 무대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가 영향력을 미쳤던 곳이다. 그렇다면 평지성의 대거 축조는 지역에 대한 절대적 우위 속에서 방어보다는 지역 지배에 충실하고자 했던 결과로 추정되는데,⁵² 압록강 상류에 평지성이 많았던 배경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연변지역과 압록강 상류 일대의 성곽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지방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 우선 평지성을 축조하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포곡식 산성을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과정에서 중심 거점에 ‘산성+평지성’ 조합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산성+평지성’ 조합이 나타나는 성곽은 지방 지배의 중심 거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산성+평지성’ 조합이 나타나는 성곽으로는 전술한 자안산성+평강산고성 외에 오녀산성+하고성자성(그림 1-[B]), 패왕조산성+나함성(그림 1-[C]), 수허산성+동고성자유적(그림 1-[D]), 고각산산성+남태고성+태평구문고성+의목수고성(그림 1-[E])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합은 오녀산성+하고성자성인 듯하다. 오녀산성과 하고성자성은 혼강과 옥도하의 하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오녀산성은 도성 유적이 분명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기와 건물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상시 거점보다는 군사방어적 기능이 강한 성곽으로 추정된다.⁵³ 하고성자성은 한대 평지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⁵⁴ 근래에 고구려가 축조하여 활용한 성곽임이 확인되었다.⁵⁵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듯이 하고성자성은 환

동민, 2020,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X): 송화강-묵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52 이성제, 2009, 앞의 글, 180쪽.

53 양시은,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149~153쪽.

54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の都城」, 『北方文物』 1985-2, 29쪽;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14쪽; 田中俊明, 1994, 앞의 글, 22쪽; 윤용구, 1996, 「한국 고대의 중국식 토성에 대하여」, 『한국고대사논총』 8, 325쪽; 임기환, 1998, 앞의 글, 273쪽.

인분지 일대의 중심 거점이었다고 여겨진다.

패왕조산성+나합성 조합에서 나합성은 혼강과 부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고구려와 관련한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썰기형 돌로 성벽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⁵⁶

패왕조산성은 혼강과 신개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둘레가 1,260m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포곡식 산성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성내에서는 3개의 건물군과 거석열 유구,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볼 때 적지 않은 군사와 민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⁵⁷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나합성이 혼강+부이강+신개하 일대의 중심 거점이었다가 나중에 패왕조산성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허산성+동고성자유적 조합에서 수허산성은 토축 산성이라는 것 이외에 관련 자료가 없어 여러모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동고성자유적은 부이강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지 주민의 말에 따르면 ‘동고성자(東古城子)’와 ‘서고성자(西古城子)’라고 불린 두 개의 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성벽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⁵⁸

한편, 유적 내에서 길이 50m, 너비 약 20m인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지표에서 마제석기, 암기와,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그다지 넓지 않은 면적에서 많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당터(廟宇)로 추정하기도 한다.⁵⁹ 실제로 사당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위계가 높은 건물지였다고 볼 수 있다.

55 이경미, 2012, 앞의 글, 110쪽; 양시은, 2016, 앞의 책, 25쪽.

56 이경미, 2012, 위의 글, 111쪽.

57 耿鐵華, 2004, 앞의 글, 116쪽.

58 성벽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토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田中俊明, 1994, 앞의 글, 23쪽).

59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 앞의 책, 24~25쪽.

출토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암키와의 단면에서 꺾임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초기 유적인 집안의 마선구2378호분, 마선구626호분, 건강유적 등에서 출토된 암키와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양이 없는 고구려 초기의 토기도 출토되었다. 한편, 소성온도가 매우 높고 단단하며 문양이 있는 암키와가 출토되었는데, 제작 시기는 4세기 말보다 이르지 않다고 한다.⁶⁰

위계가 높은 건물지의 존재 그리고 비교적 이른 시기 및 4세기 말 이후의 유물 출토는 동고성자유적이 일대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오랜 기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적 주변에 고구려 초기 주민집단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⁶¹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동고성자유적이 부이강 일대의 중심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각산산성+남태고성+태평구문고성+의목수고성 조합에서 이들 성곽은 고구려와 관련한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고구려 성곽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고각산산성의 경우 부이강 상류를 경유하여 통화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와 부이강 하류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고,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성곽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고구려가 축조한 것으로 명확하게 비정할 수 있는 성곽이 없는 만큼, 성곽들이 위치한 일대에 중심 거점이 있었다고 무리하게 판단하지는 않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압록강 상류 유역에서는 양민고성이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양민고성은 압록강 상류에서 가장 넓은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전체 둘레가 약 1,400m 정도로 압록강 상류의 고구려 성곽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으로 주변 일대에 고구려의 적석묘와 봉토석실묘가 밀집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주변에 대규모 거주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

60 王志刚,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44쪽.

61 강현숙, 2015, 앞의 글, 9쪽.

들이 위와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⁶²

고구려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지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화 일대는 자안산성, 환인분지는 하고성자성, 혼강+부이강+신개하 일대는 나합성과 패왕조산성, 부이강 일대는 동고성자유적, 압록강 상류 유역은 양민 고성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지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들 성곽이 국내성 권역 내 소권역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육도하를 따라 환인분지에 이른 다음 혼강 하류나 누하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육도하를 따라 환인분지에 이른 다음 혼강을 거슬러 신개하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신빈 왕청문 일대에서 남쪽으로 부이강과 신개하를 따라 통구분지에 도달하는 교통로, 왕청문 일대에서 삼과유수하와 라고하를 따라 통화지역의 혼강 본류에 이른 다음 청하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왕청문 일대에서 삼과유수하와 라고하를 따라 통화지역의 혼강 본류에 이른 다음 대라권구하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압록강 하류를 따라 집안에 도달하는 교통로, 압록강 상류를 따라 집안에 도달하는 교통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고구려 성곽 가운데 일부는 국내성 방어를 위해 축조되었지만, 다른 일부는 평양 천도 후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고 일대 지배를 해야 하는 목적 속에서 축조되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는 일대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 평지성을 축조하였고 상황 변화에 따라 포곡식 산성을 축조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산성+평지성’ 조합이 나타나는 성곽은 일대 지배의 중심 거점일 가능성이 높는데, 통화 일대에서는 자안산성,

62 여호규, 2008, 앞의 글, 125쪽.

환인분지에서는 하고성자성, 혼강+부이강+신개하 일대에서는 나합성과 패왕조산성, 부이강 일대에서는 동고성자유적이 중심 거점이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압록강 상류 유역에서는 일대에서 가장 넓은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규모가 가장 큰 양민고성이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자료

『舊唐書』, 〈廣開土王陵碑〉, 〈泉南生墓誌銘〉.

단행본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방학봉, 2002, 『발해성곽연구』, 연변인민출판사.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여호규, 1998, 『고구려성(Ⅰ): 압록강 중상류편』, 국방군사연구소.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이경미·정동민, 2020,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X): 송화강-묵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a,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Ⅰ): 압록강 중상류1(환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1b,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Ⅱ): 압록강 중상류2(집안-신빈)』,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Ⅲ): 압록강 중상류3(통화-백산-임강-장백)』, 동북아역사재단.

李殿福 著, 차용걸·김인경 역, 1994, 『중국내의 고구려 유적』, 학연문화사.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_____, 2004b, 『丸都山城, 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査試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_____, 1986, 『通化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논문

강현숙, 2015, 「고구려 초기 도성에 대한 몇 가지 고고학적 추론」, 『역사문화연구』 56.

기경량, 2017,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태돈, 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방학봉, 1999, 「高句麗柵城의 위치에 대한 고찰」, 『경기사학』 32.

백종오, 2023,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중국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검토 학술회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양시은,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여호규, 2008, 「압록강 중상류 연안의 고구려 성곽과 동해로」, 『역사문화연구』 29.

_____, 2014, 「고구려 도성의 구조와 경관의 변화」,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 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_____, 2017, 「두만강 유역 고구려 성곽의 분포현황과 지방통치의 양상」, 『역사문화연구』 61.

윤용구, 1996, 「한국 고대의 중국식 토성에 대하여」, 『한국고대사논총』 8.

魏存成, 1999, 「길림성 내 고구려산성의 현황과 특징」, 『고구려연구』 8.

이경미, 2012,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과 기능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66.

이성제,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34.

임기환, 1998, 「高句麗前期 山城 研究」, 『국사관논총』 82.

_____,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_____, 2015,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 耿鐵華, 2004, 「高句麗紇升骨城新考」, 『高句麗考古研究』, 吉林文史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21, 「吉林集安市霸王城山城2015~2016年發掘簡報」, 『考古』 2021-11.
- 박진석, 1988, 「高句麗柵城遺址考」, 『朝鮮中世紀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徐坤, 2011, 「自安山城的考古收穫與初步認識」,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蘇長清, 1985, 「高句麗早期平原城—下古城子」, 『遼寧丹東本溪地區考古學術討論文集』.
- 梁志龍, 1992, 「桓仁地區高句麗城址概述」, 『博物館研究』 1992-1.
- 王從安·紀飛, 2004, 「卒本城何在」, 『東北史地』 2004-2.
- 王志剛, 2016, 「高句麗王城及相關遺存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王志敏, 2010, 「高句麗故地與第二玄菟郡考」, 『東北史地』 2010-5.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22, 「遼寧桓仁縣三座高句麗山城及北溝關隘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 2022-4.
-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 1985-2.
- 柳嵐·邵春華, 1991, 「吉林通化市漢代自安山城調查與考證」, 『博物館研究』 1991-3.
-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 2010-3.
-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공간적 분포

정동민

이 글에서는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통해 주요 교통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지방 통치를 위한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는 과정에서 일대 지배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곽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육도하(六道河)를 따라 환인분지(桓仁盆地)에 이르는 다음 혼강(渾江) 하류나 누하(漏河)를 따라 집안(集安)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육도하를 따라 환인분지에 이르는 다음 혼강을 거슬러 신개하(新開河)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신빈(新賓) 왕청문(王淸門) 일대에서 남쪽으로 부이강(富爾江)과 신개하를 따라 통구분지(通溝盆地)에 도달하는 교통로, 왕청문 일대에서 삼과유수하(三棵榆樹河)와 라고하(喇蛄河)를 따라 통화(通化)지역의 혼강 본류에 이르는 다음 청하(淸河)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왕청문 일대에서 삼과유수하와 라고하를 따라 통화지역의 혼강 본류에 이르는 다음 대라권구하(大羅圈溝河)를 따라 집안 경내에 도달하는 교통로, 압록강 하류나 상류를 따라 집안에 도달하는 교통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고구려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지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일대 지배를 위한 중심 거점으로 평지성을 축조하였고 상황 변화에 따라 포곡식 산성을 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를 감안하면 ‘산성+평지성’ 조합이 나타나는 성곽은 일대 지배의 중심 거점일 가능성이 높는데, 통화 일대는 통화 자안산성, 환인분지는 환인(桓仁) 하고성자성, 혼강+부이강+신개하 일대는 환인 나합성과 집안 패왕조산성, 부이강 일대는 환인 동고성자유적을 중심으로 삼아 지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압록강 상류 유역에서는 일대에서 가장 넓은 충적대지에 위치하면서 규모가 가장 큰 집안 양민고성이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고구려 성곽, 압록강, 혼강(渾江), 평지성, 포곡식 산성, 산성+평지성 조합

ABSTRACT

Spatial Distribution of Koguryo Fortresses i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Amnok River

Jung DongM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Koguryo(高句麗) fortresses i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Amnok River(鴨綠江) to identify key transportation routes and infer the central hubs of regional governance during the period when this area was designated as a distinct administrative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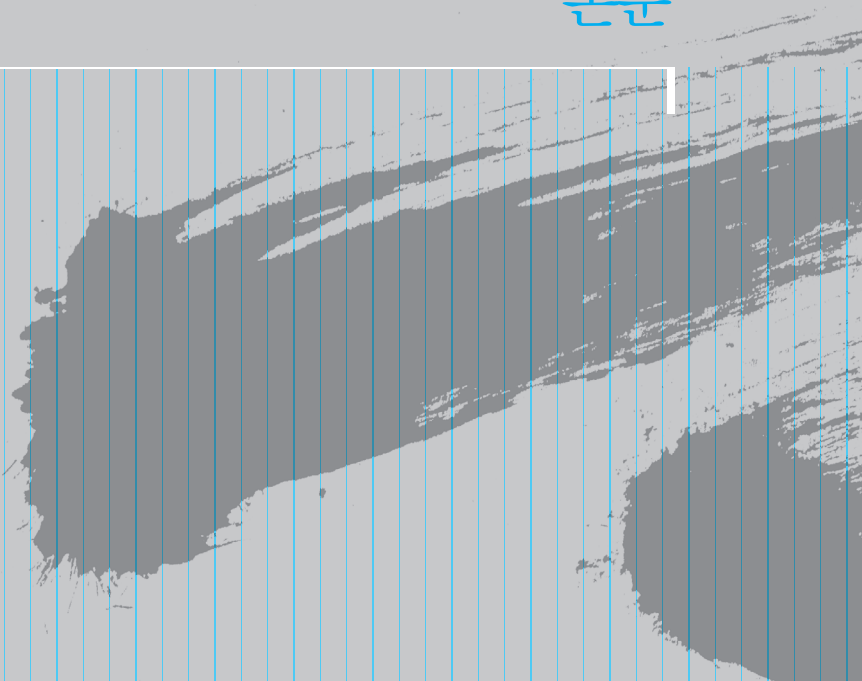
An analysis of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data reveals several strategic routes: from the Liudaohe(六道河) River through the Huanren Basin(桓仁盆地) to the Jian(集安) area via the lower Hunjiang(渾江) or Louhe(漏河) Rivers; a route that follows the Hunjiang River upstream from the Huanren Basin to Jian along the Xinkaihe(新開河) River; and pathways originating from the Wangqingmen(旺清門) area near Xinbin(新賓) traveling southward along the Fuergang(富爾江) and Xinkaihe Rivers to the Tonggou Basin(通溝盆地), or following the Sankeyushuhe(三棵榆樹河) and Laguhe(喇姑河) Rivers to the main

Hunjiang River course in Tonghua(通化), then proceeding along the Qinghe(清河) or Daluoquangouhe(大羅圈溝河) Rivers to Jian.

As Koguryo reached the stage of needing to govern the middle and upper reaches of the Amnok River as a distinct region, it is believed that the kingdom constructed flatland fortresses as central governing hubs and,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also built mountain fortresses that included valleys. Considering these developments, the appearance of 'Mountain fortress + Flatland' combinations suggests a high likelihood that these fortresses served as central hubs for regional control. In the Tonghua area, Jaansanseong Mountain Fortress was likely a key stronghold; in the Huanren Basin, Hagoseongjaseong Fortress; and in the area around the Hunjiang, Fuergang, and Xinkaihe Rivers, both Nahapseong Fortress and Paewangjo Mountain Fortress are presumed to have been central to the governance strategy. Additionally, the Donggoseongjayujuk Remains near the Fuergang River are believed to have been pivotal in this administrative structure. In addition, in the upper Reaches of the Amnok River, Yangmingoseong Fortress, the largest fortress in the region and located on the largest expanse of alluvial land, is believed to have functioned as a central hub.

Keywords: Koguryo Fortresses, Amnok River, Hunjiang River, Flatland Fortresses, Mountain Fortresses that included valleys, Mountain Fortress + Flatland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정천구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고승전의 등장과 그 변형들
- III. 전등록 중심의 선종사서
- IV. 기전체와 편년체 불교사서
- V. 속편들과 탈중세적 불교사서
-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역사서 편찬이다. 『상서(尙書)』, 『춘추(春秋)』, 『죽서기년(竹書紀年)』, 『좌전(左傳)』, 『국어(國語)』 등 이미 고대부터 수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고, 한대(漢代)에는 사마천이 기전체(紀傳體)라는 새로운 형식의 『사기(史記)』를 저술해 내놓았다. 이 기전체는 이후 왕조가 바뀔 때마다 편찬되는 정사(正史)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체제(體裁)의 역사서가 중세 내내 거듭 편찬되었다. 『자치통감』 같은 편년체는 물론 이거니와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나 강목체(綱目體)의 역사서들도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서들은 대개 유교 지식인이나 관료 등이 편찬했다. 간단히 말하면, ‘유교사서(儒敎史書)’이다.

중세에 중국에서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구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교사서가 대거 편찬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교에 못지않게, 어쩌면 유교보다 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불교 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불교는 외래종교지만,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57~75 재위) 때부터 수많은 승려의 헌신과 노력으로 중국 사회에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며 널리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교나 도교와 대립하기도 하고 그 둘과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불교 쪽에서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아 한 일이 역사서 편찬. 정확하게는 ‘불교사서(佛敎史書)’의 편찬이다.

불교사서의 존재는 쉽사리 확인된다. 20세기 초에 편찬된 대정신수대장경

* 투고: 2024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5일, 재심사 완료: 2024년 2월 28일, 게재 확정: 2024년 3월 4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6036).

(大正新修大藏經)¹의 ‘사전부(史傳部)’라는 항목에 대거 수록되어 있다. ‘사전(史傳)’은 역사서와 전기를 아울러 일컫는 오래된 용어이다.² 실제로 이 항목에는 『고승전(高僧傳)』, 『불조통기(佛祖統紀)』 같은 불교사서들과 『석가보(釋迦譜)』,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 같은 개별 전기들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그 형태나 구성이 어떠한 불교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서를 불교사서라 명명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불교사서들 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적도 없을 뿐더러 개관한 일도 거의 없다. 중국의 역사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모두 유교사서에 집중되어 있었고, 불교사서는 중국의 사학사(史學史)에 포함되지도 못했다.³ 불교학에서는 천위안(陳垣)이 1955년에 저술한 『중국불교사적개론(中國佛教史籍概論)』(北京: 科學出版社)에서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문헌들을 대략 소개하면서 『고승전』과 『경덕전등록』 등 일부 불교사서들을 소개한 적이 있을 따름이다.

중세에 불교는 정치와 사회, 문화, 사상, 일상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지대하고도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1차 자료가 중세

- 1 1924년에서 1934년에 일본의 ‘다이쇼 잇사이교 간코카이(大正一切經刊行會)’에서 편찬한 것으로, 한국의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일본 각지에 있던 한역 불전을 모두 조사해서 모았다고 전한다. 크게 인도부(印度部), 중국부(中國部), 일본부(日本部)로 나뉘는데, 중국부에 ‘사전부(史傳部)’라는 항목이 있다. 제49책에서 제52책까지가 사전부이며, 모두 95종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그 전부가 여기서 논의할 불교사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수록된 것이 전부도 아니다.
- 2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유협(劉勰)이 저술한 『문심조룡(文心雕龍)』은 당시까지의 문학론을 50개의 항목으로 정리해 집대성한 이론서이자 비평서이다. 거기에 ‘사전(史傳)’ 항목이 있으며, 역사서와 전기 문학을 다루고 있다.
- 3 이종동 저, 조성을 역, 2009, 『중국사학사』(원저는 1953년 출판, 해안: 유절 저, 신태갑 역, 2000, 『중국사학사강의』(원저는 1981년 출판, 신서원 등 중국의 사학사에 관한 저술들에서 불교사서를 거론하거나 중요하게 다룬 경우는 거의 없으며, 언급된 일조차 없었다. 가령, 전목(錢穆), 1973, 『中國史學名著』, 臺北三民書局出版, 177~179쪽에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뒤에 승려들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에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 안목을 갖추어 불교사를 서술하게 되었다면서 『고승전』을 짧막하게 언급한 것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내내 지속적으로 편찬된 불교사서들이다. 더구나 불교사서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유교사서와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이기도 하고, 불교의 교리들이 풍부하게 또 생동하게 표현되어 있는 철학 작품이기도 하다. 좁게는 불교문화를, 넓게는 중국문화를 두루 보여주는 것이 불교사서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학사에서 유교사서만 다루고 불교사서를 배제했다는 것은 심각한 편향이고, 중국 및 동아시아의 불교학에서 불교사서들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 또한 심각한 불균형이다. 이 글은 이런 편향과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시론의 성격을 띤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중세 동안에 편찬된 불교사서들을 소개하면서 그 역사적 양상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아 전하는 불교사서들을 주요한 시기별로 묶어서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의 편찬 의도와 체재, 서술 방식 등을 고찰해 대체적인 특성을 밝힌다. 이를 통해 불교사서의 편찬이 불교사의 전개와 맞물려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날 것이다.

II. 고승전의 등장과 그 변형들

불교사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5세기 말로 추정되지만,⁴ 현재 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사서는 6세기 초에 편찬되었다. 그때 독창적인 서술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은 8세기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대략 6세기 초에서 8세기 말까지를 불교사서 편찬의 제1기라 부를 만하다. 이 시기의 불교사서로

4 『고승전』 권14, 「序錄」. “齊竟陵文宣王三寶記傳, 或稱佛史, 或號僧錄, 既三寶共敘, 辭旨相關, 混濫難求, 更爲蕪昧. 瑯琊王巾所撰僧史, 意似該綜, 而文體未足. 沙門僧祐撰三藏記, 止有三十餘僧, 所無甚衆. 中書郎鄧景興東山僧傳, 治中張孝秀廬山僧傳, 中書陸明霞沙門傳, 各競舉一方不通今古, 務存一善不及餘行.” 혜교가 여기에서 불교사서라며 거론한 『삼보기전』, 『승사』, 『출삼장기집』, 『동산승전』, 『여산승전』, 『사문전』 등은 모두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저술된 것으로 간주된다.

는 모두 10종이 있다.

- (1) 『비구니전(比丘尼傳)』(4권, 516), 열전체(연대), 보창(寶唱), T50
- (2) 『고승전(高僧傳)』(14권, 519?), 열전체(십과), 혜교(慧皎), T50
- (3) 『속고승전(續高僧傳)』(30권, 645), 열전체(십과), 도선(道宣), T50
- (4)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5권, 690), 열전체(십과), 법장(法藏), T51
- (5) 『홍찬법화전(弘贊法華傳)』(10권, 706), 열전체(팔과), 혜상(慧詳), T51
- (6) 『전법보기(傳法寶紀)』(1권, 713), 열전체(계보), 두비(杜朮), T85
- (7)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1권, 713), 열전체(계보), 정각(淨覺), T85
- (8) 『법화전기(法華傳記)』(10권, 750), 열전체(십이과), 승상(僧詳), T51
- (9)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1권, 774), 열전체(계보), 작자 미상, T51
- (10) 『보림전(寶林傳)』(10권, 801), 열전체(계보), 지거(智炬), B14⁵

현재 전하는 첫 번째 불교사서는 『비구니전』(4권)이다.⁶ 보창(寶唱)이 516년에 저술했으며, 동진(東晉)에서 양(梁)나라 때까지 활동한 비구니 65명의 전기를 실었다. 불교사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들을 입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보창은 『비구니전』과 짝이 되는 『명승전(名僧傳)』(31권)도 편찬했다. 『속고승전』 권1에 실린 보창의 전기에, “역대의 승록을 찾아 모으고 처음으로 그 내용을 구별해서 하나의 서적으로 편찬해 ‘명승전’이라 했으니,

5 저자명 뒤의 영문은 문헌이 실려 있는 대장경을, 숫자는 권수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대장경이 언급되는데, B는 대장경보편, K는 고려대장경, T는 대정신수대장경, X는 만속장경을 가리킨다. 이하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것은 참고문헌에 밝혀두었다.

6 혜교는 『출삼장기집』(15권)을 불교사서로 보고 언급했으나, 한역된 경전의 목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불경을 한역한 경과에 대해 서술한 권1, 역경승들의 전기를 실은 권13~권15 등은 확실히 중국의 초기 불교사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며 혜교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승전』의 「역경(譯經)」편을 기술했다. 그러나 번역된 경전의 목록과 각 경전의 서문을 정리해서 나열한 것이 주요한 부분이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불교사서로 보기는 어렵다.

모두 31권이었다”⁷⁾는 서술이 나온다. 이는 보창이 중국의 초기 불교사를 기술하면서 비구와 비구니를 대등하게 다루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높지 않다. 그런데 『비구니전』과 달리 『명승전』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혜교가 『고승전』을 저술한 것과 관련이 있다.

우선 혜교는 ‘명승(名僧)’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름(名)이란 본디 실제와 상대되는 개념일 뿐이니, 실제로 행동했어도 그 빛을 감추면 (덕은) 높지만 이름이 나지 않고 부족한 덕이어도 때에 맞으면 이름은 드러나지만 (덕이) 높지 않다. 이름만 알려지고 (덕이) 높지 않은 이는 본디 기록할 사람이 아니므로 (제쳐두고) 공덕이 높으면서 이름이 나지 않은 이를 이제 갖추어 기록한다. 그리하여 명(名)자를 빼고 그 대신 고(高)자를 쓴다”⁸⁾고 했다. 자신의 저술을 ‘고승전’이라 명명한 까닭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명승전』은 31권인데, 혜교가 ‘고승’이라 할 인물들을 가려내 실은 『고승전』은 14권이다. 이는 『명승전』에 수록된 승려들이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명승전』은 방대한 규모에 걸맞은 체제도 갖추지 못했던 듯하다.

『명승전』의 체제가 어떠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앞서 보창의 전기에서 인용한 “처음으로 그 내용을 구별했다”고 한 구절에서 비구들의 행적을 나름대로 분류했을 가능성은 읽을 수 있다. 보창이 『비구니전』에서는 전기를 연대순으로 나열했지만, 적어도 수백 명의 비구가 입전되었을 『명승전』(31권)까지 연대순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수록할 비구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분류 기준 또한 부실했거나 부적절했을 공산이 크다. 혜교가 『고승전』을 저술하면서 십과(十科)를 마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승전』의 「서록」을 보면, 혜교가 갖가지 기록을 열람하고 식견 있는 선배들을 찾아 자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를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

7 『속고승전』 권1, 「釋寶唱」, “搜括列代僧錄, 創區別之, 撰爲部帙, 號曰名僧傳, 三十一卷.”

8 『고승전』 권14, 「序錄」, “名者本實之賓也, 若實行潛光則高而不名, 寡德適時則名而不高, 名而不高本非所紀, 高而不名則備今錄. 故省名音代以高字.”

있다. 마침내 혜교는 “한 명제의 영평 10년(67)에서 양 천감 18년(519)까지 453년 동안의 고승 257명, 거기에 덧붙인 200여 명을 그 공덕과 업적에 따라서 크게 열 갈래로 나누었다.”⁹ 열 갈래는 곧 「역경(譯經)」, 「의해(義解)」, 「신이(神異)」, 「습선(習禪)」, 「명률(明律)」, 「망신(亡身)」, 「송경(誦經)」, 「흥복(興福)」, 「경사(經師)」, 「창도(唱導)」 등이며, 흔히 십과(十科)라 부른다.¹⁰ 이 십과 덕분에 『고승전』은 불교사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훨씬 방대한 『명승전』을 비롯해 당시까지 전해지던 대부분의 불교사서들을 대체할 수 있었다. 다만, 『고승전』에서 비구니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비구니전』은 따로 전해질 수 있었다. 『고승전』에서 비구니를 배제한 일은 불교사서로서도 큰 결함이며, 비구와 비구니에 우열을 두고 차별한 듯해서 모든 존재를 대등하게 보는 불교 교리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고승전』에서 마련된 십과 체제는 도선(道宣, 596~667)이 649년에 저술한 『속고승전』(30권)에서 먼저 계승했다. 도선은 “『고승전』을 잇는다”는 의미의 책명 그대로 『속고승전』에 양나라 때부터 당나라 초기(645)까지 활약한 고승들 340명을 수록하면서 『고승전』의 십과를 일부 수정했다. 『고승전』의 「신이」를 「감통(感通)」으로, 「망신」을 「유신(遺身)」으로, 「송경」을 「독송(讀誦)」으로 바꾸었으며, 「경사」와 「창도」를 합쳐서 「잡과(雜科)」라 했다. 이는 『고승전』에서 설정한 과목의 명칭이 내용과 합치되지 않거나 과목의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법(護法)」을 새로 두어 불교계 내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었다.

도선은 『속고승전』에서 불교사의 실상을 더욱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십과를

9 『고승전』 권14, 「序錄」, “始於漢明帝永平十年, 終至梁天監十八年, 凡四百五十三載, 二百五十七人, 又傍出附見者二百餘人, 開其德業, 大爲十例.”

10 정천구, 2022, 「중국 고승전의 체제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집, 대순사상학술원에서 『고승전』, 『속고승전』, 『송고승전』, 『대명고승전』 등 중국의 대표적인 네 고승전을 중심으로 십과의 설정 과정과 각 과목이 갖는 의미, 이 과목들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변형되는지 등을 고찰한 바 있다. 따라서 고승전의 십과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정하고 보완했는데, 이로써 고승전은 역사서로서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 요컨대, 『속고승전』의 편찬으로 십과는 불교사서의 한 체재로서 확립될 수 있었다. 그런데 『속고승전』 못지않게 이런 역할을 한 불교사서들이 잇달아 편찬되었다. 앞에 제시한 10종의 불교사서 목록 중 (4), (5), (8)이 그것이다.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입지를 다진 불교는 수당 때에 더욱 융성했고 불교사서들 또한 잇달아 편찬되었다. 다만, 불교사서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690년 즈음에 법장(法藏)이 『화엄경전기』(5권)를, 706년에는 혜상(惠詳)이 『홍찬법화전』(10권)을, 750년에는 승상(僧詳)이 『법화전기』(10권)를 각각 저술했다. 『고승전』과 『속고승전』이 종파를 따지지 않고 그 덕행과 행적의 뛰어난만 중시했다면, 이 세 가지 불교사서는 종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화엄경전기』는 화엄종의 불교사서이며, 『홍찬법화전』과 『법화전기』는 천태종의 불교사서이다.

세 불교사서의 체재는 모두 십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 종파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변형되었다. 『화엄경전기』에서는 「부류(部類)」, 「은현(隱顯)」, 「전역(傳譯)」, 「지류(支流)」, 「논석(論釋)」, 「강해(講解)」, 「풍송(誦誦)」, 「전독(轉讀)」, 「서사(書寫)」, 「잡술(雜述)」 등 10과를 두었고, 『홍찬법화전』에서는 「도상(圖像)」, 「번역(翻譯)」, 「강해」, 「수관(修觀)」, 「유신(遺身)」, 「송지(誦持)」, 「전독」, 「서사」 등 8과를, 『법화전기』는 「부류증감(部類增減)」, 「은현시이(隱顯時異)」, 「전역연대(傳譯年代)」, 「지파별행(支派別行)」, 「논석부동(論釋不同)」, 「제사서집(諸師序集)」, 「강해감응(講解感應)」, 「풍송승리(誦誦勝利)」, 「전독멸죄(轉讀滅罪)」, 「서사구고(書寫救苦)」, 「청문이익(聽聞利益)」, 「의정공양(依正供養)」 등 12과를 두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엄경전기』와 『홍찬법화전』의 일부 과목이 겹치고 또 『화엄경전기』의 십과를 『법화전기』에서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화엄종과 천태종이 종파는 달라도 불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에서는 서로 비슷했음을 말해주며, 해교와 도선의 십과가 불교적 사실에 기반해 설정된 것이어서 변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알려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6), (7), (9), (10)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다.

화엄종과 천태종에서 각각 불교사서를 편찬한 시기에 가장 중국적인 종파인

선종(禪宗)에서도 불교사서를 거듭 편찬했다. 713년 즈음에 두비(杜朮)가 『전법보기』(1권)를, 정각(淨覺)이 『능가사자기』(1권)를 각각 저술했다. 774년 즈음에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역대법보기』(1권)가 편찬되었다. 『전법보기』는 보리달마(菩提達摩)에서 신수(神秀)까지 7대의 전기를, 『능가사자기』는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에서 시작해 보리달마를 거쳐 신수와 그 제자들까지 8대의 전기를 서술했는데, 둘 다 북종계의 선종사서(禪宗史書)이다. 『역대법보기』는 달마에서 혜능을 거쳐 지선(智詵), 처적(處寂), 무상(無相), 무주(無住)로 이어지는 보당종(保唐宗)의 법통을 서술한 선종사서이다.¹¹ 이 세 가지 선종사서는 8세기에 선종이 하나의 종파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정통 논쟁이 치열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¹² 스승에서 제자로 법통을 전하는 전등(傳燈)의 계보에 따라 서술함으로써 십과 체재의 불교사서에서 벗어난 파격 또한 보여준다.

위의 세 선종사서에서 주목할 점은 나중에 편찬되는 선종사서일수록 계보의 시작을 점점 더 올려잡는다는 점이다. 『전법보기』는 보리달마에서, 『능가사자기』는 보리달마 앞의 구나발타라에서 시작했고, 『역대법보기』에서는 붓다로부터 시작해 가섭, 아난을 거쳐 28조 승가라차(僧迦羅叉)까지 서천(西天, 인도)의 계보를 간략하게 서술한 뒤에 보리달마부터 동토(東土, 중국)의 전기를 시작했다. 이는 801년에 지거(智炬)가 저술한 『보림전』(10권)에서 더욱 명확해졌다.¹³ 『보림전』은 마조(馬祖)와 석두(石頭)의 계통을 정당화한 선종사서인데, 가장 큰 특징은 석가모니불에서 시작하면서 가섭부터 달마까지 이른바 ‘서천 27조’를 전법의 계보에 포함했을 뿐 아니라 그 조사들의 전기 또한 서술하고 달

11 세 전등사서의 자세한 성격에 대해서는 柳田聖山, 1967, 『初期禪宗史書の研究』, 禪文化研究所의 2장과 4장 참조.

12 중국에서 선종의 등장과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이부키 아츠시 지음, 최연식 옮김, 2011, 『중국 선의 역사』, 씨아이알 참조.

13 『보림전』은 명대 이후로는 보이지 않다가 1933년에 일본에서 권6의 필사본이 발견되었고, 1934년에는 중국 산서성(山西省) 조성현(趙城縣)의 광승사(廣勝寺)에 있던 금판대장경(金版大藏經) 안에 있던 것이 발견되었다. 광승사본은 권1~권5, 권 8 등 여섯 권뿐이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일곱 권만 전한다.

마에서 해능까지 동토6조를 완성한 일이다. 서천27조설은 선종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꾸며낸 계보지만,¹⁴ 10세기 이후 편찬되는 수많은 선종사서가 이 계보를 수용하면서 ‘정설’이 되고 역사적 사실로 여겨졌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위의 불교사서들은 기본적으로 고승들의 전기를 나열한 열전체인데, 『고승전』에서 정립된 십과를 기본틀로 확립했느냐, 변형했느냐, 그 틀에서 벗어났느냐에 따라 십과의 정형, 변형, 파격 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¹⁵ 『속고승전』은 십과를 정형화했고, 화엄종과 천태종 계열의 불교사서들은 변형시켰다. 그리고 선종의 불교사서들은 십과를 벗어나 ‘전등의 계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을 갖추었다. 십과 체재를 중심으로 볼 때, 『고승전』과 『속고승전』은 불교가 수용되고 전파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었고, 『화엄경전기』, 『홍찬법화전』, 『법화전기』 등은 불교 철학의 해석과 이해 과정에서 종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전법보기』 등 선종사서들은 불교가 창조적으로 해석되면서 중국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전등록 중심의 선종사서

앞선 시기의 마지막에 저술된 『보림전』 이후로 거의 15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불교사서가 눈에 띄지 않는다. 안록산과 사사명이 난(755~763)을 일으킨 이후로 오대십국(五代十國, 907~979)이 종식될 때까지 거듭된 정치적 혼란과 전란으로 말미암아 불교계 또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960년에 송(宋)이 건국되고 비로소 안정된 시기가 도래하자 불교사서 또한 본격적으로

14 선종에서 전등 의식이 성립되고 『보림전』에 이르기까지 전등의 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호귀, 2014, 「선종의 법맥의식과 전등사서의 형성」, 『불교학보』 6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자세하게 논의했다.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천구, 2024, 「7~8세기 중국 고승전의 정형화와 다양화」, 『대순사상논총』 48집, 대순사상학술원 참조.

편찬되기 시작했는데, 제1기와는 사뭇 다른 서술 방식이 나타났다. 13세기 초까
지 이어진 제2기에는 모두 12종의 불교사서가 편찬되었다.

- (11) 『조당집(祖堂集)』(20권, 952), 열전체(계보), 정(靜)·균(筠), K45
- (12) 『송고승전(宋高僧傳)』(30권, 988), 열전체(십과), 찬녕(贊寧), T50
- (13) 『대송승사략(大宋僧史略)』(3권, 999), 기사본말체, 찬녕, T54
- (14)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30권, 1004), 열전체(계보), 도원(道原), T51
- (15)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30권, 1029), 열전체(계보), 이준옥(李遵勗),
X78
- (16)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9권, 1061), 열전체(계보), 계송(契嵩), T51
- (17)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30권, 1101), 열전체(계보), 유백(惟
白), X78
- (18)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30권, 1121), 열전체(계보), 혜홍(慧洪), X79
- (19) 『응흥편년통론(隆興編年通論)』(29권, 1164), 편년체, 조수(祖琇), X75
- (20) 『승보정속전(僧寶正續傳)』(7권, ?), 열전체(계보), 조수(祖琇), X79
- (21) 『연등회요(聯燈會要)』(30권, 1183), 열전체(계보), 오명(悟明), X79
- (22)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30권, 1204), 열전체(계보), 정수(正受), X79

『조당집』(20권)은 952년에 완성되었는데, 천주(泉州) 초경사(招慶寺)의 정
수(淨修) 선사가 쓴 서문에 그 편찬 내력이 나온다. “가르침의 말씀은 천하에 널
리 퍼졌으나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지는 계통은 아직 자리 잡히지 못했으므로 늘
물이 쉽게 말라버릴까, 오(烏)자와 마(馬)자를 가리지 못할까 염려되었다. 이제
초경사의 정과 균 두 선사가 최근에 편집한 것을 꺼내는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금의 법요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제목이 ‘조당집’이다.”¹⁶ 『조당

16 『조당집』 권1, 「序」, “言教甚布於寰海, 條貫未位於師承, 常慮水涸易生, 烏馬難
辯. 今則招慶有靜·筠二禪德, 袖出近編古今諸方法要, 集爲一卷, 目之祖堂集.”

집』의 목적이 계통을 정리해서 확정짓는 데 있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앞선 『보림전』에서 이미 확립된 계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조당집』은 역사적 존재로 보기 어려운 과거불(過去佛)들까지 계보에 포함했다. 비바시불(毘婆尸佛)·시기불(尸棄佛)·비사부불(毘舍浮佛)·구류손불(拘留孫佛)·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가섭불(迦葉佛)·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등 이른바 과거칠불에서 시작해 천축27조와 중국6조를 거쳐 청원행사(靑原行思, 671~740) 이하 8대 및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 이하 7대까지 257명을 법맥(法脈)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8세기에 편찬된 선종사서들에서 다루던 북종과 남종의 정통 문제를 남종의 정통으로 귀결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림전』에서 시작된 서천(인도)과 동토(중국)의 계보를 확정한 것이다. 과거칠불에서 그 계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보림전』과 다를 뿐, 나머지 계보는 거의 같다. 이는 『보림전』을 참조했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미 이 계보가 널리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계보는 관찬 불교사서인 『경덕전등록』에 수용되면서 공인되기에 이른다.

송(宋, 960~1279)나라의 건국으로 정치가 안정되자 불교사서의 편찬이 이어졌다. 먼저 찬녕(贊寧, 919~1001)이 『송고승전』과 『대송승사략』을 잇달아 편찬했다. 『송고승전』은 『속고승전』의 십과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¹⁷ 당나라 때부터 활동한 고승 657명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뛰어난 고승들을 종파에 관계 없이 두루 서술해 『고승전』에서 『속고승전』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따랐다. 이와 달리 『대송승사략』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뒤에 갖추어진 갖가지 법식과 의례, 승직(僧職) 등 제도의 기원과 연혁을 밝혀 적은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의 불교사서이다. 『대송승사략』은 인물 중심의 불교사서들이 빠뜨린 부분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전등록 계통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황제의 칙서를 받아 편찬된 사실은 불교가 정치 권력에 예측될 징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17 정천구, 2022, 앞의 글, 195~200쪽 참조.

선종사서는 이미 8세기에도 편찬되었으나,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등록(傳燈錄)’의 등장은 1004년에 편찬된 『경덕전등록』부터이다. 『경덕전등록』 또한 도원(道原)이 황제의 명을 받아 저술했는데, 서문에서 그 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가나제바가) 바늘을 던진 현묘한 취지를 여는 것이 아니거나 거센 번개처럼 빠른 기미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거나 오묘하게 밝은 참된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니거나 고와 공의 깊은 이치를 본받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법등을 전한다는 전등(傳燈)의 비유에 들어맞아 눈의 막을 긁어내는 (돈오의) 공덕을 배울 수 있겠는가!”¹⁸ 이미 『전법보기』 등의 선종사서에서 강조하고 중시한 깨달음을 거듭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등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다.

『경덕전등록』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당집』에서 확정된 계보를 그대로 계승했다. 과거칠불에서 시작해 서천27조, 동토6조를 거쳐 법안문익(法眼文益)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52대, 1,701명의 전기와 기연(機緣)들이 집대성되어 있다.¹⁹ 특히 주목할 부분은 권27~권30이다. 권27에서는 선승은 아니지만 선문(禪門)에 현달했다고 여겨지는 인물 열 명의 전기를 서술하고, 이어 무명(無名)의 존자들이 남긴 빼어난 말들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이는 나중에 『연등회요』(1183)에서 「응화현성(應化賢聖)」과 「망명존숙(亡名尊宿)」이라는 항목으로 계승된다. 권28에는 「제방광어(諸方廣語)」라는 제목으로 열두 명의 선사가 남긴 긴 법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29와 권30에는 선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 계송들과 짝맞는 글들이 실려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경덕전등록』은 불교사서이면서 공안집의 성격도 아울러 띠게 되었는데, 이는 전등록 계통의 선종사서들이 갖는 특성이 되었다. 11세기 말을 전후해 『조당집』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것도 그런 특성이 중시되고 강화된 결과로 여겨진다.

간단히 정리하면, 『경덕전등록』은 이후에 두 가지 방면으로 커다란 영향을

18 『경덕전등록』 권1, 「序」, “自非啟投針之玄趣, 馳激電之迅機, 開示妙明之真心, 祖述苦空之深理, 卽何以契傳燈之喻, 施刮膜之功.”

19 『경덕전등록』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石井修道, 1987, 『宋代禪宗史の研究』, 大東出版社, 1장 참조.

끼친다. 하나는 공안집이 저술되는 길을 연 일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경덕전등록』을 바탕으로 고칙(古則) 100개를 뽑아 송을 붙여서 『설두송고(雪竇頌古)』를 저술하고,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 『설두송고』에 주석을 달아 『벽암록(碧巖錄)』(1125)을 저술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등록’이라는 불교사서의 한 갈래를 확고히 한 일이다. 이는 혜교가 십과를 마련해 『고승전』을 저술함으로써 ‘고승전’이 불교사서의 한 갈래로 확립된 것과 흡사하다.

『경덕전등록』에 이어 네 가지 전등록이 편찬되었다. 1029년에 이준육(李遵勗)이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을, 1101년에는 유백(惟白)이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을, 1183년에는 오명(悟明)이 『연등회요(聯燈會要)』를, 1204년에는 정수(正受)가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을 차례로 편찬했다. 『경덕전등록』을 포함한 이 다섯 가지 전등록을 ‘오등(五燈)’이라 일컫는다.

『천성광등록』은 석가모니불을 필두로 서천27조, 동토6조, 남악과 청원 문하의 선승들을 법맥에 따라 서술한 것이어서 『조당집』과 흡사하다. 『건중정국속등록』은 『경덕전등록』과 『천성광등록』을 이었기 때문에 ‘속등록’이라 명명되었는데, 역시 법맥과 기연어구, 계승 등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다만, 운문종(雲門宗) 계통의 선승들에 편중된 면이 있다. 『연등회요』 또한 앞의 선종사서들을 바탕으로 저술되었으며, 『경덕전등록』을 본받아 권29의 후반부에 「응화현성」과 「망명존숙」을 두었다. 이 「응화현성」은 선승은 아님에도 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전기를 서술한 부분으로, 『경덕전등록』보다 더 많은 인물을 수록했다. 「망명존숙」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뛰어난 존숙들의 언행을 실은 부분이며, 역시 『경덕전등록』보다 확대되었다.

오등의 마지막 전등록인 『가태보등록』에서 저자인 정수는 특이하게도 불심이 깊고 교리를 깊이 이해하는 황제들과 관료들, 서민들과 여인들, 비구니들까지 아울러 입전했다. 이는 앞서 편찬된 전등록들이 선승을 중심으로 기술한 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래서 전등록의 명칭도 ‘보등록(普燈錄)’이라 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252년에 보제(普濟, 1178~1253)는 이 다섯 가지

전등록을 종합하고 정리해 『오등회원』을 저술했다. 선종사에서 ‘전등록’과 ‘오등’은 이렇게 해서 확립되었다.

송대에 전등록 형태의 선종사서만 저술된 것은 아니다. 1061년에 계송(契嵩, 1007~1072)은 『전법정중기』(9권)를 저술했는데, 책명은 ‘법을 전한 올바른 종통(宗統)이나 계통에 관한 기록’을 의미한다. 실제로 권1부터 권6까지는 석가 여래를 시작으로 서천27조와 동토6조의 전기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정종(正宗)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나머지 세 권에서는 6조 혜능의 직계 1,304명, 방계 205명의 전기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권6까지는 이전의 전등록들에서 빌려온 내용들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고, 권7부터는 거의 범명만 나열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법정중기』는 선종 특유의 깨달음보다는 계보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선종사서라 할 수 있다.

혜홍각범(惠洪覺範, 1071~1128)이 1121년에 저술한 『선림승보전』(30권)은 『전법정중기』와 대비된다. 당말에서 송대까지 조사 81명의 전기만 수록했기 때문이다. 저술 의도는 혜홍이 순(珣) 상인에게 준 글에 잘 드러나 있다.²⁰ 혜홍은 처음에 『송고승전』을 읽고 운문(雲門)의 전기가 없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가 오(吳) 땅에서 만난 한 노승에게서 찬녕이 “운문은 강학(講學)과 관계가 없어 일 부러 뺐다”고 한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조산(曹山)과 동산(洞山)을 여행하다가 얻은 중요한 기록들이 『경덕전등록』에는 빠져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혜홍은 『송고승전』과 『경덕전등록』의 부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찬술할 결심을 했다. 그로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며 조사들의 전기를 그러모아 만년에 완성한 것이 『선림승보전』이었다.

『선림승보전』은 그 방대한 분량에 비해 아주 적은 81명의 조사만 입전했다. 이는 각 조사의 전기가 아주 길고 상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사들의 수행 방법과 깨달음을 얻은 기연, 주요한 계송과 짚막한 글, 문답 등을 풍부하게

20 이 글의 내용은 혜홍각범 찬, 원철 역주, 1999, 『선림승보전 상』, 장경각, 12쪽에 자세하게 나온다.

수룩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혜흥이 30년 이상 돌아다니며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허구나 다름없는 석가모니불과 서천 27명의 조사, 이미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동토의 여섯 조사는 모두 배제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선승들의 갖가지 말과 행동을 중시해 수록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저술이었다.

11세기 초부터 12세기 초까지 유사한 전등록이 잇달아 편찬되면서 선종사서들은 처음의 독창성을 차츰차츰 잃기 시작했다. 특히 종통에 집착한 『전법정종기』는 선종사서의 진부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혜흥의 『선림승보전』은 일시적이거나 선종에 참신한 기운을 불어넣는 구실을 했다. 12세기 후반에 조수(趙瑈)가 『승보정속전』(7권)을 저술해 『선림승보전』을 이으면서 송대 선승 30명의 전기만 수록한 것도 혜흥의 의도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속편에 지나지 않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조수의 저술 가운데 주목할 것은 『용흥편년통론』(29권)이다.

『용흥편년통론』은 1164년에 편찬되었으며, 중국에서 나온 최초의 편년체 불교사서이다. 조수는 동한 명제 영평 7년(64)부터 오대 후주의 현덕 4년(957)에 이르기까지 894년간의 불교사를 서술했다. 하나의 왕조가 시작될 때마다 서두에 그 왕조 때의 불교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것, 사이사이에 승려들의 전기를 둔 것, 중요 사건마다 그 뒤에 저자가 ‘논왈(論曰)’이라는 논평문을 실은 것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논평문은 계속 나오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책명에 ‘통론(通論)’이 붙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갖가지 고승전과 전등록 및 역대의 정사들 외에도 비문, 조령(詔令), 표문(表文), 서기(序記)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 사료적 가치 또한 크다.

제2기는 찬녕의 『송고승전』과 『대송승사략』으로 시작되었으나, 곧이어 『정덕전등록』과 이를 계승한 선종사서들이 잇따라 저술되면서 이른바 ‘전등록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전등록의 시대란 전등록의 정형화 또는 획일화나 다름 없는데, 계보 중심의 서술 방식이 고착화된 데서 입증된다. 이러한 흐름을 간파한 혜흥은 『선림승보전』으로 그 정형성을 깨뜨리려 했으나, 사상의 혁신이 동반

되지 못해 그 한계가 분명했다. 이런 와중에 조수가 편찬한 편년체의 『용흥편년통론』은 전에 없던 형식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불교사서가 편찬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였다.

IV. 기전체와 편년체 불교사서

앞 시기에 편찬된 마지막 불교사서는 『가태보등록』으로, 송대에 편찬된 오등의 마지막 전등록이다. 그러나 송대 불교사서의 마지막은 아니다. 그 뒤에도 남송이 멸망할 때(1279)까지 70여 년 동안 4종의 불교사서가 편찬되었는데, 그 체제나 내용이 새로워졌다. 이런 흐름은 원나라가 멸망하는 1368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제3기는 남송 후기부터 원 말기까지이며, 이 시기에 편찬된 불교사서는 모두 8종이다.

- (23) 『석문정통(釋門正統)』(8권, 1237), 기전체, 종감(宗鑑), X75
- (24) 『오등회원(五燈會元)』(20권, 1252), 열전체(계보), 보제(普濟), X80
- (25) 『불조통기(佛祖統紀)』(54권, 1269), 기전체, 지반(志磐), T49
- (26) 『석씨통감(釋氏通鑑)』(12권, 1270), 편년체, 본각(本覺), X76
- (27) 『역조석씨자감(歷朝釋氏資鑑)』(12권, 1275), 편년체, 희중(熙仲), X76
- (28)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22권, 1333), 편년체, 염상(念常), T49
- (29)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4권, 1354), 편년체, 각안(覺岸), T49
- (30) 『신수과분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30권, 1366), 열전체(십이과), 담령(曇靈), X77

먼저 『오등회원』에 대해 간단히 거론하겠다. 『오등회원』은 보제(普濟)가 『경덕전등록』에서 『가태보등록』까지 다섯 전등록을 집약해 1252년에 내놓은 선종사서이다. 다섯 전등록의 구성이 대체로 동일하고 내용도 중복되어 번쇄하

기만 하다는 판단에서 편찬된 것이므로 사실상 전등록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불교사서이다. 이 점은 이 시기에 기전체와 편년체 불교사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는 데서도 확인된다.

『오동회원』이 나오기 전에 불교사서의 편찬에서 전환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이 천태종에서 나온 『석문정통』(8권)이다. 북송 때 원영(元穎)²¹ 법사가 저술한 『천태종원록』(天台宗元錄)을 경원(慶元) 연간(1195~1200)에 거사 오극기(吳克己)가 필사하면서 책명을 ‘석문정통(釋門正統)’으로 고쳤다. 이를 종감(宗鑑)이 수정하고 확충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해 1237년에 완성한 것이 현재 전하는 『석문정통』이다.²² 기전체 불교사서로는 중국 최초이며, 이 밖에는 『불조통기』가 있을 따름이다. 그만큼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불교사서이다.

『석문정통』은 큰 틀에서는 유교사서의 기전체 형식을 따르지만 세부적으로는 불교적 특성을 살리는 항목들이 설정되어 있다. 큰 틀은 「본기」(권1), 「세가」(권1~권2), 「지(志)」(권3~권4), 「열전」(권5~권8), 「재기(載記)」(권8)로 이루어져 있다. 종감은 서문에, 「본기」로써 종파를 만든 이들을 높이고, 세가으로써 그것을 지키고 이론 이들을 드러내며, 지에서는 실행된 제도들을 자세히 서술해서 잘 해낸 승려들을 높이며, 열전에서는 (승려들의 전기를 통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온 양상을 보여주고, 재기에서는 (천태종 이외의 승려들 가운데) 우뚝한 이들의 전기를 서술했다²³고 쓰면서 자신의 의도와 함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본기」에서는 교주인 석가모니와 천태종의 고조(高祖)인 용수(龍樹)의 전기를 싣고, 「세가」에서는 혜문(慧文), 혜사(慧思), 지의 등 중국 천태종의 주요 조

21 이러한 사실은 『석문정통』 권7에 나오는 원영과 오극기의 전기에 기술되어 있다.

22 『석문정통』의 오극기 전기에 “(오극기는) 늘그막에 『석문정통』을 편집했는데, 「기운(紀運)」, 「열전」, 「총론」으로 구성되었다”(『釋門正統』 권7, 〈오극기〉. “晚編釋門正統, 曰紀運, 曰列傳, 曰總論.”)는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기전체 형식으로 『석문정통』을 구성한 이는 종감이다.

23 『석문정통』 권1, 「序」, “本紀以嚴創制, 世家以顯守成, 志詳所行之法, 以崇能行之侶, 諸傳派別而川流, 載記嶽立而山峙.”

사들을 서술했다. 「지」는 「신토지(身土志)」, 「제자지(弟子志)」, 「탑묘지(塔廟志)」, 「호법지(護法志)」, 「이생지(利生志)」, 「순속지(順俗志)」, 「흥쇠지(興衰志)」, 「척위지(斥僞志)」 등 8개로 세분되는데, 갖가지 제도와 풍속 따위의 불교적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다. 「열전」에서는 천태종의 승려들, 특히 송대 이후에 천태종을 중흥하는 데 기여한 승려들을 주로 입전했고, 불법을 수호하는 데 뛰어났던 다른 종파의 승려들과 속인들도 함께 실었다. 끝으로 「재기」에서는 선종, 화엄종, 율종, 밀교 등의 주요 고승들이 입전되었다. 송대에 지속적으로 편찬된 전등록, 즉 선종사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과 내용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1269년에 지반(志磐)은 『석문정통』보다 훨씬 방대한 『불조통기』(54권)를 편찬했다. 「본기」(권1~권8), 「세가」(권9~권10), 「열전」(권11~권22), 「표(表)」(권23~권24), 「지」(권25~권54)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문정통』처럼 기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반이 서문에서, “양저(종감)가 저술한 『석문정통』은 체재가 영성하며 글은 거칠고 뜻은 어그러져 있다”²⁴고 비판하고 있듯이 『석문정통』을 본떴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반은 “「본기」와 「세가」, 「열전」은 태사공을 본받았고, 「법운통색지」는 사마공을 본받았다”²⁵고 했다. 태사공은 사마천이며, 사마공은 『자치통감(資治通鑑)』(294권, 편년체 통사)을 저술한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을 가리킨다. 지(志)에 속하는 「법운통색지」는 『불조통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독특한 항목이다.

우선 「본기」에는 석가모니, 그리고 가섭부터 사자존자(師子尊者)까지 서토(인도)의 24조사, 혜문에서 형계담연까지 중국 천태종을 열고 계승한 동토의 9조사, 도수(道遂)에서 법지(法智)까지 형계 이후에 천태교학을 널리 편 8조사 등이 계보에 따라 입전되어 있는데, 천태종의 교리가 전해지고 도통이 이어진 과정을 보여준다. 「세가」에서는 「본기」에 나오는 조사들의 방계를 서술하고

24 『불조통기』 권1, 「序」, “良渚之著正統, 雖粗立體法, 而義乖文藏.”

25 『불조통기』 권1, 「序」, “紀傳世家, 法太史公; 通塞志, 法司馬公.”

있다. 「열전」은 「제사열전(諸師列傳)」(10권), 「제사잡전(諸師雜傳)」(1권), 「미상승사전(未詳承嗣傳)」(1권) 등으로 다시 세분되어 있으며, 모두 441명의 전기가 실려 있다. 「표」는 양무제 때인 502년부터 송나라 인종 때인 1033년까지 천태종이 널리 전파된 내력을 연표로 작성한 「역대전교표(歷代傳敎表)」, 「본기」와 「세가」, 「열전」의 인물들이 불도를 서로 전한 계보를 정리한 「불조세계표(佛祖世繫表)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항목도 매우 흥미롭고 새롭지만, 가장 주목을 끄는 항목은 「지」이다.

「지」는 전체 54권 가운데 30권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데, 「산가교전지(山家敎典志)」(권25), 「정토입교지(淨土立敎志)」(권26~권28), 「제종입교지(諸宗立敎志)」(권29), 「삼세출흥지(三世出興志)」(권30), 「세계명체지(世界明體志)」(권31~권32), 「법문광현지(法門光顯志)」(권33), 「법운통색지(法運通塞志)」(권34~권48), 「명문광교지(名文光敎志)」(권49~권50), 「역대회요지(歷代會要志)」(권51~권54) 등 아홉 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법운통색지」이다. 주소왕 26년(기원전 1023)부터 송 이종(理宗) 때(1227)까지 불교가 출현하고 중국에 전파되어 융성했다가 쇠락하는 동안에 일어난 불교사의 주요 사실들이 편년의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법운통색지」 자체가 편년체의 불교통사인 셈이다. 이로써 보면, 『불조통기』는 기전체 속에 편년체를 담은 불교사서라 할 수 있어 『석문정통』과 매우 다르다.

「지」의 다른 항목들 또한 독특하다. 각 항목들을 통해 불교사 전반을 두루 서술하고 있어 선종의 전등록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지반은 서문에서, “유교와 불교, 도교에서 각각의 법을 세운 일, 선종과 교종, 율종 등이 종파를 연 일 따위를 계통에 따라 한데 모아서 남김없이 다 기록했다”²⁶고 밝혔는데, 실제 구성과 서술 또한 그러했다. 선종사서처럼 천태종의 종파적 우월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다른 종파의 인물들과 일반적인 불교사까지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불조통기』의 특성이다.

26 『불조통기』 권1, 「序」, “儒釋道之立法, 禪教律之開宗, 統而會之, 莫不畢錄.”

이렇게 기전체 불교사서가 나온 뒤에 특이하게도 편년체 불교사서가 잇달아 편찬되었다. 앞 시기의 『융흥편년통론』(1164)으로부터 거의 100여 년 뒤인 1270년에 본각(本覺)이 『석씨통감』(12권)을 내놓았다.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본뜬 편년체 통사이다. 서주(西周)의 주소왕(周昭王) 갑인년부터 후주(後周)의 공제(恭帝) 경신년(960)까지 1930년에 걸쳐 불교와 관련된 일들을 서술하면서 불교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승려들의 전기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 편년체 속에 열전을 포함시킨 것은 『융흥편년통론』과 유사하지만, 주소왕 때부터 불교사를 서술한 것은 다른 점이다.

서문에서 본각은, “온갖 정전과 사서, 열전과 기록 등의 편년이 앞뒤가 일관되도록 이어가지 못하고 살펴보기에도 불편한 점, 게다가 대대로 이어진 신이한 일들도 숨기고 드러내지 못한 점을 민망하게 여겨 두루 구하고 널리 찾으려 밤낮 없이 힘써 그러모아 한 권을 이루었으니, 석씨통감이라 했다”²⁷고 밝혔다. 이는 갖가지 문헌들을 두루 참조해서 엮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책의 서두에 참조한 문헌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불서(佛書) 59종, 유서(儒書) 44종, 도서(道書) 3종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송나라 때의 필기(筆記)들도 참조했다.

『석씨통감』을 이어 원(元, 1271~1368)나라 때에도 편년체 불교사서들이 잇달아 편찬되었다. 1275년에는 희중(熙仲)이 『역조석씨자감』(12권)을, 1333년에는 염상(念常)이 『불조역대통재』(22권)를, 1354년에는 각안(覺岸, 1286~?)이 『석씨계고략』(4권)을 저술했다. 『역조석씨자감』은 주소왕 때부터 원나라 세조 지원(至元) 1년(1264)까지 서술한 통사인데, 송대 이전의 불교사는 『석씨통감』을 바탕으로 했고 송대 이후는 저자 자신이 그러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했다. 『역조석씨자감』은 특이하게 서두에 「제기(帝紀)」라는 항목을 두어 중국 고대의 삼황오제와 삼대(三代, 하·상·주)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했으며, 그런

27 『불조통기』 권1, 「序」, “櫛諸經史傳錄編年, 前後不相聯貫, 不便觀覽, 與夫歷代神異, 隱而不顯者, 旁求廣索, 繼晷焚膏, 集成一部, 目曰釋氏通鑑.”

뒤에 주소왕 때 마야부인이 태몽을 꾸고 석가모니를 낳았다고 하면서 불교사의 서술을 시작했다. 삼황오제와 삼대의 일을 서두에 넣은 것은 불교사를 중국의 고대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불조역대통제』와 『석씨계고략』에서도 이를 따랐다.

『불조역대통제』는 권1에서 과거칠불의 계승과 전통적인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 기술했다. 계승은 『경덕전등록』에 나오는 것을 따랐다. 권2에서는 반고(盤古)와 삼황오제, 삼대에 대해 서술했다. 권3부터는 주소왕 때를 기점으로 제왕의 기원(紀元)에 맞추어 중국의 불교사를 기술했으며, 아울러 석가모니와 서천의 27조사의 사적도 신고 유교와 도교 및 세속의 큰일도 함께 기술했다. 이로 말미암아 『역조석씨자감』보다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석씨계고략』 또한 삼황오제부터 기술하는데, 고작 네 권임에도 불교사와 세속사를 아울러 서술했다. 선종과 관련된 사적이나 선승들을 중요하게 다룬 점을 볼 때, 선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전체와 편년체가 주로 편찬되던 이 시기의 막바지인 1366년에 담령(曇靈)은 『신수과분육학승전』(이하 ‘육학승전’이라 줄여 일컬음)을 저술해 내놓았다. 양·당·송의 세 고승전 및 『오동회원』을 주요 자료로 삼아 한나라 때부터 북송 초까지 1,673명의 전기를 실었다. 그런데 ‘육학십이과(六學十二科)’라는 독특한 체재를 갖추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등 육바라밀을 바탕으로 육학(六學)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혜학(慧學)·시학(施學)·계학(戒學)·인욕학(忍辱學)·정진학(精進學)·정학(定學) 등을 차례로 배치했다. 이 여섯 항목은 각각 2개의 과목을 포함한다. 혜학에는 「역경(譯經)」과 「전종(傳宗)」이, 시학에는 「유신(遺身)」과 「이물(利物)」이, 계학에는 「홍법(弘法)」과 「호교(護敎)」가, 인욕에는 「섭념(攝念)」과 「지지(持志)」가, 정진에는 「의해(義解)」와 「감통(感通)」이, 정학에는 「증오(證悟)」와 「신화(神化)」가 있어 모두 열두 과목이다. 과목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고승전』과 『속고승전』 등의 십과를 변형하고 확장해서 육바라밀을 결부시킨 체제이다. 무엇보다도 『육학승전』은 이전의 세 고승전과 달리 통사인데, 이 또한 이 시기 불교사서의 한 특성을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제3기에는 제2기 때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불교사서들이 편찬되었다. 기전체가 처음으로 나타났고, 편년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쪽은 천태종 승려들이었으나, 뒤이어 염상과 각안 같은 선승들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해 편년체 불교사서를 편찬했다. 십과를 창의적으로 변형시킨 고승전도 저술되었다. 반면에, 불교계에서 선종의 교세가 여전했음에도 전등록은 새로 편찬되지 않았다. 이는 전등록이 공안집으로 여겨지면서 더 이상 불교사서로서 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V. 속편들과 탈중세적 불교사서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제4기가 시작된다. 왕조가 바뀌었다고 불교계가 재편되거나 불교사의 전환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으나, 흥미롭게도 불교사서의 편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요컨대, 제3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체재의 불교사서들이 더 이상 편찬되지 않고, 이전의 여러 시기에 편찬된 불교사서들의 속편(續篇)들이 줄지어 나왔다. 물론 제4기의 막바지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불교사서는 아래와 같다.

- (31) 『속전등록(續傳燈錄)』(36권, 1390 전후), 열전체(계보), 거정(居頂), T51
- (32) 『속불조통기(續佛祖統紀)』(2권, 1400?), 열전체(계보), 작자 미상, X75
- (33) 『신승전(神僧傳)』(9권, 1417), 열전체(연대), 주체(朱棣), T50
- (34) 『증집속전등록(增集續傳燈錄)』(6권, 1417), 열전체(계보), 문수(文秀), X83
- (35) 『대명고승전(大明高僧傳)』(8권, 1617), 열전체(삼과), 여성(如惺), T50
- (36) 『석감계고략속집(釋鑑稽古略續集)』(3권, 1627?), 편년체, 환륜(幻輪), T49
- (37) 『거사분등록(居士分燈錄)』(2권, 1632), 열전체(연대), 주시은(朱時恩),

X86

(38) 『불조강목(佛祖綱目)』(41권, 1634), 편년체(강목체), 주시은, X85

(39) 『보속고승전(補續高僧傳)』(26권, 1641), 열전체(십과), 명하(明河), X77

(40) 『오등회원속략(五燈會元續略)』(4권, 1644), 열전체(계보), 정주(淨柱),

X80

(41) 『계등록(繼燈錄)』(6권, 1650), 열전체(계보), 원현(元賢), X86

(42) 『오등엄통(五燈嚴統)』(25권, 1653), 열전체(계보), 통용(通容), X80~81

(43) 『남송원명선림승보전(南宋元明禪林僧寶傳)』(15권, 1677), 열전체(계보),

자용(自融), X79

(44) 『속등정통(續燈正統)』(42권, 1691), 열전체(계보), 성통(性統), X84

(45) 『오등전서(五燈全書)』(120권, 1700 전후), 열전체(계보), 초영(超永),

X81~82

(46) 『율종등보(律宗燈譜)』(8권, 1765), 열전체(계보), 원량(源諒), B22

(47) 『거사전(居士傳)』(56권, 1775), 열전체(연대), 팽제청(彭際淸), X88

(48) 『선여인전(善女人傳)』(2권, 1795), 열전체(연대), 팽제청, X88

제4기는 14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인데, 기간이 400여 년인만큼 편찬된 불교사서의 수도 많아 무려 18종이다. 그런데 1417년에 『증집속전등록』이 편찬된 뒤로 20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대명고승전』이 저술되었으므로 중간에 긴 공백기가 있다. 그런데 이 공백기가 불교사서의 편찬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글에서 이런 공백기가 있음에도 이 기간을 하나로 묶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제4기는 한마디로 ‘속편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먼저 14세기 말에 거정(居頂, ?~1404)이 저술한 『속전등록』(36권)을 보자. 책명에서 드러나듯이 북송의 『경덕전등록』을 이었다. 그리하여 육조 혜능의 10세손에 해당하는 수산성념(首山省念, 926~993)에서 18세손까지 송대와 원대 선승들의 전기를 실었는데, 내용은 기존의 전등록과 유사하다. 곧이어 1417년에 문수(文瑒, 1345~1418)가 『속

전등록』을 계승한 『증집속전등록』(6권)을 저술해, 송대와 원대 선종의 전적(典籍)과 탐명, 행장 등을 수록하고 육조의 18세손부터 25세손까지 500여 명의 전기를 실었다. 속편의 속편에 해당하는 불교사서이다.

『속불조통기』는 『불조통기』(1269)의 속편이며, 체제가 기전체가 아니라 전등록처럼 계보에 따라 승려들의 전기를 서술한 열전체이다. 『불조통기』의 열전 부분만 계승한 것이다. 환륜(幻輪)이 저술한 『석감계고략속집』은 『석씨계고략』(1354)의 속편으로, 원 세조(世祖, 1271~1294) 때부터 명 희종(熹宗, 1620~1627 재위) 때까지 불교사를 편년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정주(淨柱)의 『오등회원속략』, 원현(元賢)의 『계등록』, 통용(通容)의 『오등엄통』, 성통(性統)의 『속등정통』 등은 모두 『오등회원』(1252)을 이은 것들이다. 『오등전서』(120권)는 『오등회원』을 비롯해 온갖 전등록을 주요 자료로 삼아 편찬한 것이며, 전등록을 집대성한 불교사서이다. 『남송원명선림승보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선림승보전』(1121)의 속편이다.

1617년에 저술된 『대명고승전』은 『송고승전』을 이어 편찬된 일종의 단대사 불교사서인데, 십과가 아닌 삼과(三科)로 구성되어 있다. 불필요하다고 여긴 과목을 빼버렸다. 이는 불교의 쇠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⁸ 그럼에도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 명하(明河)가 1641년에 십과로 구성된 『보속고승전』(26권)을 편찬했으니, 『대명고승전』의 속편에 해당한다.

속편이 아닌 불교사서도 7종이 있다. 편찬된 연대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주체(朱棣), 곧 명의 성조(成祖, 1402~1424 재위)가 편집했다는 『신승전』은 수많은 고승전을 참조해 한대(漢代)부터 원대(元代)까지 불교사에서 신이한 행적을 남긴 승려 288명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서술한 것이다. 주시은(朱時恩, 1564~?)의 『불조강목』(41권)은 과거칠불 및 역대 조사들의 행적과 사적을 강목체(綱目體)로 서술한 것인데, 크게는 역대 연호의 순서를 따랐으므로 편년체이다. 저자가 거사라는 점에서도 특이하고, 강목체를 품은 편년체의 불교

28 이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2, 앞의 글, 200~204쪽 참조.

사서라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주시은은 거사들만 입전한 『거사분등록』도 편찬했다.

원량(源諒)이 1765년에 편찬한 『율종등보』는 율종의 유일한 불교사서이다. 책명의 ‘등보’에서 드러나듯이 전등록의 계보를 본떴다. 서천의 석가모니불과 다섯 존자를 율종의 종조로서 서술한 뒤에 동토의 율조들을 계보에 따라 기술했다. 율종의 역사가 일찍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뒤늦게 나온 불교사서이며, 그런 만큼 율종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불교사서들은 속편이든 아니든 모두 입전 대상이 승려들이다. 불교사서의 편찬에서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제1기의 『비구니전』 이후로 모든 불교사서는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불교사를 서술해왔다. 재가자들의 전기가 실리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했으나, 지극히 적은 분량만 할애되었을 뿐이다. 과연 이러한 서술이 불교사의 실상에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편향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불교 교리에도 어긋난다.

붓다는 분명히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고 가르쳤다. 출가자와 재가자에 차등을 두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교리이다. 그럼에도 불교사서에서는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뿐 아니라 재가자들도 대부분 배제되었다. 이는 오래된 정치적·사회적 차등이 불교계에 배어든 결과였다. 세간에서 신분의 고하, 남녀의 성별 따위로 차별하던 인식이 출가자와 재가자, 비구와 비구니의 차등도 당연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차별과 차등의 인식이 불교사서의 편찬에도 작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4기의 막바지에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불교사서들이 편찬되어 눈길을 끈다. 먼저 1632년에 주시은이 저술한 『거사분등록』(2권)을 보자. 유마힐, 부대사(傅大士)로부터 시작해 원나라 송경렴(宋景濂)에 이르기까지 선의 법등을 이어받은 거사와 관료 72명의 전기를 간략하게 서술한 열전체 불교사서이다. 책명에는 ‘등(燈)’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등록처럼 스승과 제자의 계보에 따라 기술되지는 않았다. 입전 인물이 거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시은은 왜 이런 불교사서를 저술했을까?

주시은은 서문에서, “그런데 법도가 성행하던 당시를 곰곰 생각해보면, 교화의 줄기가 있으면 반드시 교화의 가지가 있다. 교화의 줄기는 위에서 서술했듯이 전등록에서 갖추어 실었다. 교화의 가지로는 유마힐, 방도현(방거사), 무진거사 장상영, 송경렴 등이 있는데, 이들은 큰 것은 숨기고 작은 것을 드러내며 더러운 진흙탕에서 살아도 가명(假名, 임시적 언어)을 쓰며 실상을 이야기한다”²⁹고 말했다. 교화의 줄기는 조사나 선승들을, 교화의 가지는 거사들을 가리킨다. 전등록이 주로 줄기만 싣고 가지들을 제쳐둔 데 대한 보완으로 『거사분등록』이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승과 거사를 차등적으로 보고 있어 오랜 통념을 완전히 깨지는 못했다. 거사들만 수록하면서도 조사의 계보를 본뜬 데에 이미 그런 한계는 드러나 있었다.

『거사분등록』이 나온 지 150여 년이 지나자 방대한 분량의 『거사전』(56권)이 저술되었다. 저자는 거사인 팽제청(彭際淸, 1740~1796)이다. 팽제청은 『불조통기』, 『경덕전등록』, 『왕생전(往生傳)』 등 갖가지 문헌에서 거사들의 사적을 그러모아 열전체 형식으로 서술했다. 『거사분등록』이 선종에 치우쳐 있었다면, 『거사전』은 특정 종파에 한정하지 않고 후한 때부터 청 강희(康熙, 1662~1722) 연간까지 거사들을 두루 실었다.

팽제청은 『거사전』에 부치는 계송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내 들으니, 관세음보살은 변화하는 몸이 서른두 가지며 『화엄경』에도 십세 명의 선지식이 있다. 비구와 거사의 몸, 갖가지 천상과 인간의 모습들은 고정된 형태가 없이 바람을 따라 오가는 허공의 구름과 같고 또 비치는 해를 따라 다섯 가지 색을 드러내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³⁰ 팽제청은 비구와 거사들뿐 아니라 천상과 인간에서 쏠

29 『거사분등록』 권1, 「自敍」, “然考當時法道盛行, 有主化者必有分化者. 主化者如上述述, 具載傳燈. 分化者則有如維摩詰龐道玄張無盡宋景濂輩, 秘大現小, 帶水拖泥, 不壞假名而談實相.”

30 『거사전』 권1, 「題居士傳偈」, “我聞觀世音, 應身三十二, 華嚴善知識, 亦有五十三. 比邱居士身, 種種天人趣, 譬如空中雲, 隨風無定形, 又如海上波, 從日現五色.”

을 가진 이들은 모두 보살의 화신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존재를 대등하게 보았음을 의미한다. 차등적으로 본 주시은과는 인식이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팽제청은 『거사전』에 짝이 되는 『선여인전』(2권)도 저술했다.

1795년에 저술된 『선여인전』에는 진대(晉代)부터 청 건륭(乾隆) 연간(1736~1795)까지 147명의 재가 여성 불자의 사적이 실려 있다. 이 여성들의 신분은 황후에서 귀족 부녀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노파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팽제청이 갖가지 역사서를 비롯해 수많은 문집, 잡설 등을 두루 뒤져서 자료를 확보한 결과이다. 그가 굳이 『선여인전』을 저술한 것은 두 딸에게 대승경전을 가르치면서 고금의 선여인들이 어떻게 불법에 젖어들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팽제청은 본전을 서술하기 전에 서두에 이렇게 적었다. “한나라 이래로 여인 열전은 대부분 부녀자의 순종을 우선으로 했는데, 후대에 이르러 더없이 뛰어 나고 남달리 훌륭한 여인들이 이따금씩 나왔다. 그 지조와 절개를 미루어보면, 눈이나 서리처럼 맑고 깨끗해서 마치 저 하늘의 강한 바람을 타고 청신한 기운을 부려서 천제의 궁궐에서 노니는 사람이로다! 참으로 생사의 윤회를 끊고 열반의 피안에 오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걱정만 경지에 정신을 집중하고 중생세간을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³¹ 중세에 여성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이었다고 하면서 팽제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천제의 궁궐에서 노니는 신선이 나오고, 생사의 윤회를 끊고 열반에 드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이는 여인을 남성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탈중세적 인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네 번째 시기에 쏟아져 나온 속편 불교사서들은 종수와 수량에 관계없이, 아니 종수와 수량이 많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불교의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31 『선여인전』 卷上. “自漢以上, 傳列女者, 大都以婦順爲先, 至其後而卓絕瑰異之行乃間出. 推其志節, 皎如冰霜, 殆將乘罡風, 御顯氣, 而翱翔乎清都者耶! 夫誠欲斷生死流, 登涅槃岸, 必當棲神寂泊之場, 高蹈人天之表.”

말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체처두더라도 구성이나 체재라는 형식에서조차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거사전』과 『선여인전』은 역사적 변화에 걸맞은 인식의 전환을 일부 보여준 불교사서로 평가된다. 완전히 탈중세를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대로 한걸음 나아갔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다.

VI. 맺음말

중세부터 근대 직전까지 중국에서 편찬된 48종의 불교사서를 대략 정리하고 소개했다. 그동안 중국의 역사학 및 사학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시론적으로 그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했다. 그 결과, 중세 내내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 더구나 불교사의 전개와 맞물려서 다양한 서술 방식으로 편찬되었다는 점, 그리하여 불교사 및 불교문화사 전반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본문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먼저 불교사서의 서술 방식 또는 체재에 대한 것인데, 열전체, 편년체, 기전체, 기사본말체 등 네 가지가 있었다. 48종 가운데 38종이 열전체이고 그 밖에 편년체가 7종, 기전체가 2종, 기사본말체가 1종이었다. 비중이 가장 큰 열전체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순히 연대순으로 서술한 열전체(연대), 십과 또는 그 변형을 기본틀로 삼아 서술한 열전체(십과), 교조나 개조에서 시작해 계보를 따라 서술한 열전체(계보) 등이 그것이다.

열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불교사가 본질적으로 승려 개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불교의 교단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는 편년체 및 기전체 불교사서들이 세속의 정치사 또는 유교적 제왕의 연대에 맞추어 서술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불교적 사실보다 고승들의 전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는 중세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승려들의 행적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교사서를 서술하는 네 가지 방식은 불교사의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 서술 방식의 전환에 따라 네 시기로 구분했다. 제1기는 6세기 초부터 8세기 말(정확하게는 801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열전체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혜교가 십과를 마련한 『고승전』을 내놓은 뒤에 이 십과를 따르거나 변형한 체제들이 거듭 나타나면서 이 시기는 ‘고승전의 시대’가 되었다. 물론 십과를 벗어나 계보를 중시하는 열전체가 나왔으나, 크게 보아 고승전에 속하는 것이었다.

제1기에 변형된 십과와 계보 중심의 서술 방식이 나타난 것은 불교계가 종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종파들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면서 중국적인 색채를 띤 선종의 계보형 열전체가 제2기의 불교사서 편찬을 주도했다. 제2기는 10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까지인데, 『경덕전등록』이 나온 뒤에 이를 본받은 선종사서들이 잇달아 편찬되면서 선종의 계보형 열전체는 ‘전등록’ 또는 ‘등록’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전등록이 불교사서 편찬을 주도한 시기, 다시 말해 선종이 압도적으로 교세를 떨친 시기가 제2기이다.

제2기에 전등록이 잇달아 나와 압도하자 곧바로 이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체제의 불교사서들이 편찬되면서 제3기가 시작되었다. 제3기는 13세기 초부터 원나라가 멸망한 14세기 후반까지이다. 이 시기의 불교사서 8종 가운데 6종이 기전체와 편년체였다. 기전체는 이 시기에만 나타났고, 편년체 또한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기전체는 천태종에서 선택했으며, 편년체는 선종에서 채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등록이 공안집의 성격을 띠면서 불교사서로서 의의를 잃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 방식의 변화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제4기에서 입증되었다.

제4기는 명이 건국된 14세기 후반부터 청대 18세기 말까지이며, 이 시기에 편찬된 불교사서는 모두 18종이다. 기간도 길고 편찬된 수도 많으나, 14종이 17세기 이후에 편찬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불교사서를 잇는 ‘속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세에서 근대로 역사가 전환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걸맞은 대응

이나 반응이 불교계에 없었다는 방증이다. 불교의 쇠퇴가 불교사서의 편찬 양상을 통해서도 드러난 셈이다. 이 와중에 중세 내내 불교사서에서 간과되거나 배제되었던 거사들이나 선여인들만 입전한 열전체 불교사서가 편찬되어 주목된다. 비구 중심의 편향된 서술 태도가 중세가 다 지나서야 일부 시정된 것이다.

중세에 불교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전반에서 유교보다 더 깊고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교사서(佛敎史書)’이다. 이 글에서 살펴봐왔듯이 중국에서만도 방대한 불교사서가 편찬되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그 편찬 양상의 파악은커녕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정리했다.

이 글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동아시아 불교사서 전반에 대한 연구의 서론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서 편찬된 불교사서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편찬 양상을 고찰해서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또 불교사서들이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유교사서와도 비교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불교사학사(佛敎史學史, Buddhist historiography)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도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맺음말을 마친다.

참고문헌

자료

해홍각범 찬, 원철 역주, 1999, 『선림승보전 상』, 장경각.

劉勰, 『文心雕龍』.

高麗大藏經(K),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大藏經補編(B), <https://tripitaka.cbeta.org/B>

大正新修大藏經(T), <https://tripitaka.cbeta.org/T>

卍續藏經(X), <https://tripitaka.cbeta.org/X>

단행본

유절 저, 신태갑 역, 2000, 『중국사학사강의』, 신서원.

이부키 아츠시 지음, 최연식 옮김, 2011, 『중국 선의 역사』, 씨아이알.

이종동 저, 조성을 역, 2009, 『중국사학사』, 해안.

錢穆, 1973, 『中國史學名著』, 臺北三民書局出版.

陳垣, 1955, 『中國佛教史籍概論』, 科學出版社.

柳田聖山, 1967, 『初期禪宗史書の研究』, 선불교문화사.

石井修道, 1987, 『宋代禪宗史の研究』, 大東出版社.

논문

김호귀, 2014, 「선종의 법맥 의식과 전등사서의 형성」, 『불교학보』 6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정천구, 2022, 「중국 고승전의 체제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집, 대순사상 학술원.

——, 2024, 「7~8세기 중국 고승전의 정형화와 다양화」, 『대순사상논총』 48집, 대순사상 학술원.

중국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정천구

불교는 후한 때 중국에 전해졌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중국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한 과정을 서술하려는 의도에서 6세기 초 혜교는 십과 체재를 고안해 『고승전』을 저술했다. 그 이후 『고승전』을 본뜨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사서들이 편찬되었다.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불교사서는 이 글에서 정리해 소개한 것만도 48종이며, 권수로는 900권이 넘는다. 불교가 중국에서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학사에서는 불교사서가 거의 간과되거나 배제되어왔다. 이러한 편향을 시정하며 불교사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불교사서의 편찬에서 볼 수 있는 서술 방식 또는 체제는 열전체, 편년체, 기전체, 기사본말체 등 크게 네 가지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채택된 열전체는 다시 단순히 연대에 따라 서술하는 열전체, 십과 또는 그 변형된 방식으로 서술하는 열전체, 계보에 따라 서술하는 열전체 셋으로 나뉘었다. 어떠한 체재를 선택하느냐는 저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불교사의 흐름과 특히 깊은 관련이 있었다.

불교사서의 편찬 양상이 달라진 데 따라 시기는 넷으로 구분된다. 제1기는 6세기 초부터 8세기 말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십과 체재를 바탕으로 하는 열전체 곧 고승전의 편찬이 지배적이었다. 제2기는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 말까지인데, 계보에 따라 서술하는 열전체, 곧 전등록이라는 선종사서가 불교사서 편찬을 주도했다. 제3기는 제2기에 곧바로 이어진 시기로, 13세기 초부터 14세기 말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기전체와 편년체의 불교사서들이 새롭게 편찬되었는데, 이는 전등록이 주도한 불교사서 편찬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제4기는 명이 건국된 14세기 말부터 18세기 말까지로, 이 시기에는 이전 시기에 편찬된 불교사서들을 이은 속편들이 대거 나왔다. 그 와중에 거사들이나 선여인들만 입전한 열전체 불교사서 3종이 편찬되어 역사적 전환기에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불교사서(佛敎史書), 고승전(高僧傳), 십과(十科), 전등록(傳燈錄), 속편(續篇)

A Study of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in China and Their Historical Aspects

Jung Chunkoo

Buddhism was introduced to China during the later Han Dynasty, and only after hundreds of years did it deeply permeate Chinese society. With the intention of describing such a process, in the early 6th century, Hyegyo(慧皎) devised a system of ten subjects(十科) and wrote *Gaosengzhuan*(高僧傳). Since then, Buddhist historical texts(佛教史書) have been compiled in various ways, modeled after or influenced by *Gaosengzhuan*. There are 48 kinds of Buddhist historical text compiled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and the volume of the texts is over 900. Considering the influence Buddhism had in China, this is a natural result. Nevertheless, Buddhist historical texts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or excluded in Chinese historiograp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rrect this bias and raise the necessity for full-scale research on Buddhist historical texts in China.

There were four main narrative styles or formats found in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the Ranked biographies(列傳體), the Chronicle(編年體), the Annals and biographies(紀傳體),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events(紀事本末體). Among these, the Ranked biographies was the most adopted, and the Ranked biographies were also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Ranked biographies described simply according to chronology, the Ranked biographies described in ten subjects or a modified form thereof, and the Ranked biographies described according to genealogy. The choice of the style can be seen as a matter of the author's personal judgment, but according to what was considered in this study, it was particularly deeply related to the flow of the Buddhist histor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ompilation aspect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the period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the early 6th century to the end of the 8th century, and during this period, the compilation of the ranked biographies, that is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高僧傳), based on the ten subjects, was dominant. The second period is from the late 10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2th century, and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 was led by the Zen Buddhist historical text called the transmission of the lamp(傳燈錄), a collection of biographies written according to genealogy. The third period is a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second period, from the early 13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4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Buddhist historical texts of the Annals and Biographies format and the Chronicle format were newly compiled, which can be seen as a backlash against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led by the Transmission of the Lamp. The fourth period lasted from the end of the 14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During this period, many sequels(續篇) to the Buddhist historical texts compiled in the previous period were written. In the meantime, three kinds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containing only laymen or laywomen were compiled, showing that a change in perception was taking place during a historical turning point.

Keywords: Buddhist historical text,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the ten subjects, the transmission of the lamp, the seque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이라드의 역사에 대한 중국과 몽골의 인식 차이

— 또 다른 역사 갈등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여

심호성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중국-오이라드 관계 서술 방식
- III. 러시아-오이라드 관계 서술 방식
- IV. 개별 사건 및 인물에 대한 평가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오이라드(Oirad)인들은 몽골어 방언의 일종인 오이라드어(혹은 칼미크어)를 사용하며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몽골 계통의 사람들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북부·내몽골 자치구 서부·청해성(青海省) 북부와, 몽골국(國) 중부 및 서부,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칼미크(Kalmyk) 공화국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오이라드인들이 과거 17~18세기에 중앙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고 지금은 주로 중국·몽골·러시아 3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는 중국사·몽골사·러시아사에서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측의 오이라드 역사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오이라드(혹은 칼미크) 간의 역사적 우호관계를 강조할 뿐 오이라드의 역사를 러시아의 역사로 간주하지는 않는다.¹ 한편, 중국과 몽골 학자들의 오이라드 역사 연구는 이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양국의 역사학자들은 오이라드의 역사를 공히 자국사(自國史)의 일부로 인식하고 같은 역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역사 내러티브(narrative)를 만들어내고 있다.² 중국과

* 투고: 2024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22-기획연구-23).

- 1 러시아 학계의 대표적인 오이라드 역사 연구로는 I. Ia, Zlatkin, 1964, *Istoriia Dzhungarskogo khanstva (1635-1758)*, Moskva: Nauka와 B. A. Moiseev, 1998, *Rossii i Dzhungarskoe khanstvo v XVIII veke: Ocherk vneshnepoliticheskikh otnosheniĭ*, Barnaul: Izdatel'stvo AGU 등을 들 수 있다.
- 2 몽골 학계의 대표적인 오이라드 역사 연구로는 Ayuudain Ochir, 1993, *Mongolyn Oiraduudyn tūūkhiin towch*, Ulaanbaatar: Sükhbaatar KhK와 Ch. Dalai, 2006, *Oirad Mongolyn tūūkh*, Bibliotheca Oiratica 3, Ulaanbaatar: Soyombo printing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오이라드 역사 연구로는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準噶爾史略』, 北京: 人民出

몽골 양측의 오이라드 역사 해석 방식과 내러티브는 양국의 민족 형성(nation-building) 과정과 영토적 정통성 주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오이라드인들에 대한 중국과 몽골의 역사 내러티브는 상호 배타적이며 양립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이라드의 역사 내러티브를 둘러싼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중국 및 몽골 양국 간의 역사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이라드의 역사를 둘러싼 중국-몽골 양국 간 역사 분쟁의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오이라드 역사를 해석하는 중국 학계와 몽골 학계의 입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³ 중국 관변학계가 제시하는 오이라드 역사 내러티브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1985년 준가르사략편사조(準噶爾史略編寫組)에 의해 저술된 『준가르사략(準噶爾史略)』(北京: 人民出版社)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 및 소개할 것이다. 『준가르사략』은 중국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사, 몽골사, 오이라드사, 내륙아시아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저술한 학술서로서 중국 학계에 오이라드 역사 서술의 표준적인 틀을 제시해왔음은 물론 세계 학계에서도 널리 참조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책이다. 한편 몽골 학계를 대표하는 오이라드 역사 내러티브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체. 달라이(Ch. Dalai)가 2002년에 완성한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Oirad Mongolyn tüükh)』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달라이는 몽골 과학 아카데미의 원사(院士; academician)이자 몽골 과학 아카데미 역사연구소장을 역임한 몽골의 대표적인 몽골 및 중국 사학

版社와 馬大正·成崇德 主編, 2006, 『衛拉特蒙古史綱』,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등을 들 수 있다.

- 3 한국 학계의 기존 연구는 대부분 몽골사 및 북방 민족사에 대한 중국 학계의 인식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김장구 등, 2007,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정병준 등, 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강현사 등, 2008,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이근명 등, 2010,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 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참조하라. 그러나 몽골 및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몽골 학계와 중국 학계의 관점을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자로, 그가 저술한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오이라드와 준가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룬 몽골 학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준가르사략』이 제시하는 오이라드 역사 내러티브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오이라드는 오랫동안 중국 다민족 국가의 구성원 중 하나였으며, 그들이 분포한 지역은 중국 영토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② 오이라드와 중국의 각 민족은 오랫동안 서로 우호적으로 교류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중국의 서북(西北) 변경을 공동으로 개척하여 중국의 역사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③ 중국 서북 변경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오이라드와 명(明)나라, 준가르(오이라드의 일파)와 청(淸)나라 간에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갈등은 중국이라는 대가족 내에서 발생한 다툼에 속하는 것이고, 이들은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평화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시기에도 준가르의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의 불가분의 구성 요소이다. ④ 준가르를 비롯한 중국 서북방의 민족들은 러시아 제국의 확장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무력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고 완강하게 싸워 중국의 서북 변경을 지켜내는 데 위대한 공을 세웠고, 청나라의 통일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⑤ 청나라가 중국의 서북지역을 통일한 이후 오이라드의 사회질서가 크게 안정되어 인구와 가축이 빠르게 증가했고, 오이라드의 경제·문화생활도 상당히 발전했다.⁴

한편, 달라이의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오이라드의 역사를 몽골 역사의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보고, 오이라드 몽골인들이 몽골의 독립을 위해 외부의 침략자들과 용감하게 영웅적으로 싸워온 역사를 지녔다고 평가한다.⁵ 여기서 외부의 침략자는 다름 아닌 만주인과 그들이 세운 청나라를 지칭한다. 달라이는 청나라와 만주 황제의 가장 주된 대외정책 중 하나가 세 개의 몽골 세력, 즉 내몽골·할하 몽골·오이라드 몽골을 분리한 뒤 그들 모두를 차례차례 정복

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259쪽.

5 Ch. Dalai, 2006, 앞의 책, p. 3.

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⁶ 이 중 만주-청나라의 몽골 침략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것이 바로 오이라드 몽골인들이었다. 달라이에 따르면, 만주-청나라는 오이라드인들의 독립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분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에는 오이라드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데 이르렀다고 한다.⁷

이와 같이 오이라드의 역사를 서술하는 중국 학계와 몽골 학계의 내러티브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준가르사략』과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가 오이라드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II. 중국-오이라드 관계 서술 방식

『준가르사략』은 오이라드와 중국의 각 민족이 오래도록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이라드가 역사상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준가르사략』은 원나라 시기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元朝는 오이라드 등 여러 部의 소재 지역의 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을 살펴 경제적으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이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변화시켰다.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인구가 산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니세이강 상류의 산림민 및 유목민들과 군대의 양식 및 일상용품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元朝는 중원 지역으로부터 다수의 농민과 수공업 장인들을 예니세이강 상류의 欠欠州(혹은 謙州)로 이

6 Ch, Dalai, 2006, 위의 책, p. 79.

7 Ch, Dalai, 2006, 위의 책, pp. 261~262.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자인 달라이가 청나라를 중국인(Khyatad/Kitad)이 아닌 만주인의 나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이라드를 포함한 몽골인들을 정복한 주체가 중국 및 중국인(여기서는 漢人)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시키고 농지 개간을 진행하며 수공업 생산을 발전시켰다. … 농지 개간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元 조정이 공급했다. … 南人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수리·관개 사업을 돕도록 했다. … 元 조정은 각지로부터 장인들을 파견하여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으로 보내어 各族 인민들이 陶冶와 冶煉하는 것을, 배와 漁具를 만드는 것을 돕도록 하고, 또한 工匠局 등을 설립하여 생산을 관리하고 기술을 제고하며 해당 지역의 생활과 생산상의 수요를 해결하도록 했다. … 元 조정은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1291년 역참로를 열기로 결정하고 … 키르기즈로부터 오이라드에 이르는 지방에 6개의 驛站을 세우는 것을 의논하여 정하게 했다. … 元 조정이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에서 취했던 일련의 조치는 중국 內地와 오이라드 등 변경 지역 간의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밀접하게 했으며, 각 민족의 교류와 우호 합작을 촉진하였고, 오이라드인들과 기타 산림민들로 하여금 점차 농업과 수공업 생산에 종사하도록 가르쳤으며, 생활 수준을 단단히 제고하고 풍부하게 했다. 상당수의 漢族, 위구르족 등의 인민들도 해당 지역 인민들의 독특한 생산기술을 배워 수렵과 목축의 생산 지식을 증가시켜 생활 및 생산의 수요를 만족시켰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자연에 대한 투쟁에서 예니세이강 상류 지역의 각 민족과 우호하고 함께 살며 서로 도와 조국의 북부 변강을 함께 개척했다(이하 강조는 필자).⁸

이어서 명나라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1] 明朝 초기 오이라드는 비록 목축업과 수렵 방면에서 일정한 발전이 있었지만 몽골 봉건 영주들 간의 설 새 없는 전쟁과 자연재해 때문에, 또한 봉건 영주들의 잔혹한 착취 때문에, 생산력은 매우 낮았고 단일 유목 경제로부터 多種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느렸다. 이 때문에 절박한 필요가 발생하여 오이라드는 中原 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 및 발전시켰고 이로써 각종 필수품을

8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21~23쪽.

교환하여 취득했다.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빈곤한 牧民들은 소와 양 등을 곡식·섬유·술 등의 물건과 교환하여 이로써 생활에 필요한 것을 보충했다. 한편, 고위 관원, 귀족 그리고 크고 작은 봉건 영주들은 무역을 통해 폭리를 취하여 대량의 사치품을 획득했다. 광대한 漢族 지역의 인민들에 대해 말하면, 몽골의 좋은 품종의 말·소·양·노새 등이 수입되는 것은 중국 內地의 목축업 발전에 유리했고, 펠트·가죽옷 등 물품의 교환은 中原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면직물과 비단 등의 물자가 변경 지역에서 잘 팔리는 것 또한 강남 지역 방직업의 번영을 자극하고 촉진했다. 동시에 明 조정은 朝貢무역과 변경 시장(互市)을 통해 변경 방어에 필요한 대량의 말을 취득하였고, 또한 변경의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⁹

- [2] 大同 등 여러 곳에 馬市가 설립되고 무역의 형식이 朝貢으로부터 발전하여 馬市, 民市, 月市, 小市 및 私市에 이른 것은 蒙·漢 인민들이 경제·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부지런히 투쟁한 결과였다. 明代만 살펴봐도 오이라드와 명나라 사이에 비록 “울란호쇼(忽蘭忽失溫)의 전투”, “土木의 變” 등이 발생하였지만, 평화공존과 우호 왕래는 여전히 蒙·漢 관계의 주류로 오이라드와 中原 지역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밀접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¹⁰

마지막으로 청나라 시기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외부의 세력이 점점 압박해 들어오고 오이라드의 각 봉건 영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으며 인민들이 불만을 가져 분분히 도망치며 반항의 엄중한 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할하와 오이라드의 각 部 수령들은 신속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 淸朝를 향해 계속하여 사신을 보내어 通好하고

9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46쪽.

10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51쪽.

조공을 바쳤다.¹¹

[2] 오이라드의 사절단과 상단이 대량의 말과 낙타를 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張家口 및 古北口の 軍民들은 종종 상단을 맞이하여 길가에서 상품을 매매하여 일종의 유동적인 民市를 형성했다. 비록 淸 조정이 수차례 금지했지만 근절할 수 없었다. 貢市를 통해 서로 있고 없는 것을 교환했으며, 蒙·漢 인민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했다.¹²

[3] 갈단이 준가르部的 수령을 자임한 이래 淸 정부와의 관계는 臣屬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본적으로 밀접했고 또한 부단히 발전하고 있었다. ... 1688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조공 사신이 入關했다. ... 조공 사신과 상단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준가르 지역의 중원 지역과의 무역 관계 또한 날로 강화되었다.¹³

[4] 체왕 도르지남잘이 준가르部를 통치한 이후에도 [준가르는] 계속하여 淸 정부와 예속 관계를 유지했고, 중국 內地와 계속하여 밀접한 경제 교류를 진행했다.¹⁴ (대괄호 안의 내용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요컨대 『준가르사략』은 역사상 ‘오이라드’라 불린 몽골계 집단이 중국 본토에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특히 漢人들)과 장기간에 걸쳐 밀접한 경제적 상호 관계를 맺어왔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밀접한 상호 관계가 오이라드가 중화 민족(中華民族)의 일원이자,¹⁵ 중국이라고 하는 다민족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나라 시기의 산림민으로서의 오이라드와 명나라 시기에 몽골 초원

11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58~59쪽.

12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62쪽.

1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95쪽.

1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80쪽.

15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241쪽.

을 지배했던 오이라드, 그리고 청나라 시기에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오이라드는 모두 완전히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같은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 세 오이라드 집단은 지리적인 위치, 지배층의 출신, 국가 체제 등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존재였다.¹⁶ 따라서 원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긴 시기 동안 오이라드라는 단일한 집단이 중국 본토와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아울러 오이라드와 명나라 사이에 조공 및 변경 무역 관계가 형성된 것은 무역을 위한 오이라드 지배층의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의 결과였지,¹⁷ 몽·한(蒙·漢) 인민들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투쟁의 결과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준가르와 청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에도 잦은 부침이 있었고 양국 관계가 아예 단절된 시기도 많았다.

한편, 『준가르사략』은 오이라드의 일파인 준가르인들이 건설한 준가르국(國)을 중국 서북방의 ‘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중국 관변학계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논할 때 사용하는 용어 및 논리와도 같은 것이다.

러시아 세력의 東進과 남침의 위협 및 생산 발전과 경제 교류의 수요를 맞이하여, 오이라드 각 部의 인민들은 모두 전란을 몇 번 겪은 토지에서 안정된 통일 국면이 출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바야투르 홍타이지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 추세에 적응하여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준가르部로 하여금 점차 오이라드 각 部의 정치 중심이 되게 하였고, ... 중국 서북 변경에서 점차 준가르部의 봉건 영주를 핵심으로 하면서 오이라드의 다른 각 部의 수령들이 연합한 민족 정권을 형성했다.¹⁸

16 오이라드의 각 시대별 역사에 대해서는 Christopher P. Atwood, 2004, *Encyclopedia of Mongolia and the Mongol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Inc., pp. 419~423을 참조하라.

17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 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483~491쪽.

18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65~66쪽.

또한 『준가르사략』은 오이라드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오이라드인들이 살았던 모든 지역은 역사상 중국 영토의 분할 할 수 없는 일부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준가르사략』은 역사상 한 번도 중국의 영토인 적이 없거나, 현재 명백히 중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도 역사상 중국의 영토로 간주 하기도 한다.

- [1] 1581년 러시아의 확장주의자들이 우랄산맥을 넘은 이후, [러시아인들은] 서(西)시베리아 남부의 원래 준가르에 속했던 광대한 영지를 침략하여 점거했다. 예를 들어, 톰스크·옴스크·예니세이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세미팔라틴스크 등이 모두 러시아 확장주의자들에 의해 점거당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중국의 준가르 등의 인민들과 그 조상들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했던 곳이다.¹⁹
- [2] 이르티시강 兩岸의 초원은 칼미크인(=오이라드인)들의 전통적인 유목지였다. 러시아가 타라(Tara) 지역에 침입했을 때 준가르인들은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바라빈스크인들과 타라 부근의 다른 투르크인들은 일찍이 그들에게 귀순해 왔고 예로부터 그들의 속민이므로 ...”²⁰
- [3] 17세기 이후 러시아는 토볼스크, 타라 등의 거점으로부터 동쪽과 남쪽을 향해 침투 확장하여 점차 준가르 전통의 유목지에 톰스크(1604), 쿠투네츠크(1618), 예니세이스크(1619), 크라스노야르스크(1628), 일립스크(1630), 야쿠츠크(1632) 등의 군사 요새를 건립했다. 러시아 침략자들은 요새의 군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인민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했고 그들을 협박하여 차르의 통치에 굴복시켰으며 동시에 무장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점거한 지역을 공고히 하고 또 확대했다.²¹

19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6쪽.

20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78쪽.

21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79쪽.

- [4] 러시아의 침략자들이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고, 경제적으로 준가르 속민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군사적으로 준가르의 땅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군사 요새를 건립하는 것에 직면하여, 바야투르 홍타이지는 준가르 인민들의 지지하에 러시아의 날로 확대되는 침략에 대해 여러 종류의 저항을 진행하였고, 결국 무장 반항에 이르게 되었다. 1634년에 야미쉬湖를 보위하기 위한 전쟁이 터졌다. 1613년 이후 러시아는 부단히 야미쉬호로 사람을 보내어 약탈을 행하였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가르의 인민들은 장기간의 투쟁을 진행하였다.²²
- [5] 1716년 여름 [러시아는] 한 군관(軍官)을 보내어 원정군을 이끌고 야미쉬湖 지역을 다시 한번 점령하도록 했다. 표트르 1세는 [한 서신에서] 우리 준가르의 領地를 러시아의 시베리아 邊區에 속하는 것으로 말했다.²³

위의 인용문 [1]~[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준가르사략』은 서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톰스크·쿠즈네츠크·옴스크·예니세이스크·일림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세미팔라틴스크 등의 지역이 모두 ‘중국의’ 준가르 인민들과 그 조상들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오이라드의 전통적인 유목지였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역사상 오이라드인들이 분포했던 모든 지역이 중국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보는 『준가르사략』의 기준에 따르면, 위의 시베리아 남부의 도시들은 모두 역사상 중국의 영토로 간주된다. 그러나 위의 도시들은 모두 17세기 이래로 확고부동한 러시아의 영토이며, 역사상 중국에 근거한 어떤 제국(帝國)도 톰스크를 위시한 시베리아 남부의 도시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준가르사략』의 영토관을 고수한다면,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역사에 근거한 영토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용문 [4]~[5]에 나오는 야미쉬호(湖)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야미쉬호는 이르티시강 중류에 위치한 염호(鹽湖)로(정

22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81쪽.

2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53~154쪽.

확한 위치는 북위 51°52', 동경 77°29') 오늘날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Pavlodar) 주(州)에 있다. 이곳은 17세기에 오이라드의 영역이었으나,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러시아인들이 호시탐탐 지배권을 노리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시베리아 남부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 근거지를 둔 어떤 국가도 야미쉬호와 그 인근 지역에서 실질적인 존재감을 보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야미쉬호가 한때 오이라드의 영역이었던 것을 근거로 중국이 이곳을 역사상 자국의 영토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카자흐스탄과의 역사 내지는 영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로 보나 오늘날의 지정학적인 현실로 보나, 중국이 이들 지역에서 『준가르사략』의 영토관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의 인용문은 몽골 지역에 대한 『준가르사략』의 인식을 보여준다.

- [1] 갈단은 러시아의 부추김과 사주 아래 주의를 동방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타격의 창끝을 먼저 할하 몽골 지역으로 향하게 했다. 이 때문에 1680년대에 우리나라의 할하 몽골 지역의 투쟁의 형세는 복잡한 국면을 드러냈고, 침략 세력과 반침략 세력, 분열 세력과 통일 세력은 장기간 충돌과 투쟁을 경험했다.²⁴
- [2] 18세기 전기에 … 표트르 1세는 … 동방과 남방을 향해서도 확장을 진행했다. 그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몽골 지역에 항상 사람을 보냈고, 특히 오이라드 몽골 지역에서 정보를 탐색하며 준가르의 봉건 영주에게 러시아에 臣服하라고 협박했다.²⁵

인용문 [1]에서 『준가르사략』은 “우리나라의 할하 몽골 지역”이라고 적음으로써 할하 몽골의 영역이 중국의 땅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청 시대 할

2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99~100쪽.

25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46~147쪽.

하 몽골의 영역은 오늘날 몽골국(Mongolia)의 영토에 해당한다. 할하 몽골 지역이 1691~1911년의 시기에 청나라의 영역에 포함되긴 했지만, 오늘날 몽골국은 엄연한 독립국이기 때문에 『준가르사략』에 드러나는 이러한 영토 인식은 향후 중국-몽골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용문 [2]에서도 『준가르사략』은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1세가 “우리나라의 몽골 지역에” 항상 사람을 보냈다고 함으로써, 오늘날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북부 지역부터 러시아의 부랴트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몽골 지역을 중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준가르사략』의 이러한 영토 인식은 부랴트 공화국 혹은 러시아와 영토·역사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오이라트 관계에 대하여 달라이의 『오이라트 몽골의 역사』는 『준가르사략』과 매우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

- [1] 17세기 초반 만주의 침입은 크게 가시화되어 1636년 초 내몽골의 24아이막 중 16아이막이 이미 만주를 따르게 되었다.²⁶
- [2] 만주 측에서 할하에 보인 압박은 더욱 강해져, [할하의] 세 칸국을 자신들끼리 반목하게 하려는 비밀스러운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만주인들은 몽골 독립의 근간을 지키고 남아 있던 가장 강력한 투시예투 칸 아이막을 내로부터 분열시키고, 오이라드로부터 분리시키며, [투시예투] 칸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려는 행동을 실시했다. ... 바야투르 홍타이지와 오치르투 타이지의 시기에 [오이라드는] 남쪽으로부터 만주의 위협, 동쪽으로부터 약간의 할하의 위협, 서북쪽으로부터 카자흐의 위협에 각각 직면했다. 특히 만주 황제 측에서는 동남쪽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무역로를 봉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야투르 홍타이지는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여 특히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속민이 아닌 양상으로 러시아에 기대는 정책을 추구했다.²⁷

26 Ch, Dalai, 2006, 앞의 책, pp. 78~79.

27 Ch, Dalai, 2006, 위의 책, pp. 85~87.

- [3] 바야투르 홍타이지는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주-청나라 정부와 굳건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을 위해 두 개의 독립국의 지위에 있어야 했다.²⁸
- [4] 생계는 양측의 큰 이웃인 러시아 및 만주와 대적하지 않고 사신을 교환하며 우호적으로 있기 위해 힘썼다. ... 그러나 생계 홍타이지는 만주-청나라가 몽골을 차례차례 차지하려는 정책을 잘 이해하여, 그 위협으로부터 오이라트 민중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한 만주에 복속하면 안 된다고 할하의 노안들에게 상기시켰다.²⁹
- [5] 당시 만주의 황제는 세 개의 몽골을 차례로 차지하려는 정책을 활발하게 실시했다. ... 만주인들은 내몽골과 외몽골에서 배신하는 노안들을 찾아 대거 이용했다. 이후 만주 황제가 전력을 다해 오이라트 몽골을 침략하여 차지하고 학살하려는 해로운 생각을 실행하는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오이라트 몽골인들은 힘을 합하여 단일한 칸의 지도 아래에 들어가 독립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게 되었다. 위의 상황이 준가르 칸국을 건립하는 데 이르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러한 준가르 칸국을 갈단 보속트가 건립했다.³⁰
- [6] 만주는 내몽골과 할하의 일부 배신자 노안들을 갈단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용했다. ... 이렇게 몽골을 몽골군대로 싸우게 하는 나쁜 전략을 만주 황제가 사용했다. ... 만약 할하의 노안들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때 몽골인들은 만주의 침략에 매우 큰 타격을 주어 분명히 독립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올라후이강의 전투에서 승리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훈련받은 오이라트 군대가 母國을 지킨다는 믿음과 생각으로 매우 용감하게 싸운 것이었다.³¹

28 Ch. Dalai, 2006, 위의 책, p. 89.

29 Ch. Dalai, 2006, 위의 책, p. 95.

30 Ch. Dalai, 2006, 위의 책, p. 99.

31 Ch. Dalai, 2006, 위의 책, pp. 146~147.

[7] 투시예투 칸 차쿤 도르지가 비록 만주 앞에 무릎 꿇는 정책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1688년까지 할하인들은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³²

[8] 만주인들은 투시예투 칸 차쿤 도르지와 운두르 계겐 등의 대(大)노얀과 후투트들을 배신하도록 끌어들이 갈단과 직접 대적하게 만듦으로써, 할하-오이라드 전쟁을 만주가 할하와 준가르를 연달아 정복하는 침략전쟁으로 바꾸었다.³³

위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내몽골·할하 몽골·오이라드의 세 몽골 지역을 청나라 혹은 중국과 명백히 구별되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주-청나라를 몽골 전체를 위협하며 침입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또한 청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속되기 전까지 할하 몽골과 준가르가 엄연한 독립국이었음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에 따르면, 오이라드·준가르와 중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역사 내러티브는 ‘만주-청나라로부터 몽골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오이라드인들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갈단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1] 체왕 랍단은 무엇보다 먼저 청나라와 적대하면 안 된다고 보고, 사신을 보내어 서로 우호할 것과 무역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시간을 버는 정책을 따랐다. … 만주 황제가 우호적인 척하며 체왕 랍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호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한 것은 표면적인 거짓된 행동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준가르 칸국의 남쪽에는 매우 강한 큰 만주 국가가 접경하고 있으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³⁴

32 Ch, Dalai, 2006, 위의 책, p. 133.

33 Ch, Dalai, 2006, 위의 책, p. 165.

- [2] 이 두 大國은 모두 준가르를 복속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주된 위협이 있는 쪽은 실제로 만주-청나라였다. 러시아 정부에게는 당시 준가르를 직접 정복할 정책이 없었고, 또한 준가르를 스스로 복속해 오도록 만드는 것 혹은 만주와 연결되는 국경 지역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준가르를] 독립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만주는 서몽골을 정복하여 준가르 칸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된 방향이었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려는 의지도 있었다.³⁵
- [3] [준가르의] 사신 초이납하는 1722년 가을 할하의 영역을 통해 쩡춘담바 후투와 함께 북경에 이르러 강희제를 알현했다. ... 강희제는 체왕 랍단의 우호하고자 하는 바람을 승인했다. 만주 측에서는 준가르를 서둘러 공격하지 않고, 또한 일리 방향으로 보냈던 2만의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만주 황제의 교활한 속임수였다. 준가르를 러시아에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숨겨진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⁶
- [4] 준가르 칸국에게 만주의 침략은 가장 위협한 것이었다. 체왕 랍단은 자신이 지배하는 동안 준가르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³⁷
- [5] 준가르국과 만주-청나라 사이에 발생한 호통 노르의 전투는 좋은 조직자인 칸과 함께 오이라트 몽골 인민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협하는 외국의 적을 용감한 투쟁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³⁸
- [6] 조국과 민중의 독립을 위해 외국의 침략자에 대항하여 오이라트 인민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던 투쟁의 한 예가 바로 이 전투[즉 호통 노르 전투]의 활동이었다.³⁹

34 Ch. Dalai, 2006, 위의 책, p. 169.

35 Ch. Dalai, 2006, 위의 책, pp. 183~184.

36 Ch. Dalai, 2006, 위의 책, p. 188.

37 Ch. Dalai, 2006, 위의 책, p. 190.

38 Ch. Dalai, 2006, 위의 책, p. 197.

39 Ch. Dalai, 2006, 위의 책, pp. 202~203.

- [7] 건륭제 즉위 이후 만주 정부의 정책은 준가르와 서둘러 싸우는 것을 멈추고, 군대의 조직을 일신하여 성공적이지 않은 관원과 장군들을 교체하고, 갈단 체령의 약간의 요구를 표면적으로 들어주며, 국경을 확정하는 문제를 대화하고, 준가르의 정치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갈단 체령에 반대하는 어떠한 힘이라도 지지하고 지원하며, 할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청해와 티베트를 준가르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여 관계를 끊으며, 러시아 정부와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⁴⁰
- [8] [1739년] 양국 사이에 국경이 ... 정해져 합의를 만들어낸 것은 만주가 비록 준가르를 침략하여 차지하려는 장기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어쨌든 준가르국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증명으로서 역사에 남았다.⁴¹

위 인용문에 따르면, 준가르를 직접 정복할 정책 및 의도가 없었던 러시아와 달리, 만주-청나라는 오이라드를 정복하고 준가르국을 붕괴시키는 것이 대외 정책의 주된 방향이었다. 따라서 준가르국의 존립에 대한 최대 위협은 만주-청나라가 침략해 오는 것이었고, 이따금 보이는 만주 황제들의 준가르에 대한 유화책은 교활한 속임수이거나 거짓된 행동에 불과했다. 따라서 오이라드인과 준가르국은 외국의 침략자에 대항하여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해야만 했다. 아울러 달라이는 1739년 준가르와 청나라 사이에 벌여졌던 국경 획정 협상을 언급하며, 양국 간 국경의 획정은 청나라가 준가르국이 독립국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40 Ch, Dalai, 2006, 위의 책, p. 205.

41 Ch, Dalai, 2006, 위의 책, p. 207.

Ⅲ. 러시아-오이라드 관계 서술 방식

『준가르사략』의 오이라드 역사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오이라드의 일파인 준가르인들이 건설한 준가르국과 청나라 간의 관계를 서술할 때, 양국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러시아 제국의 식민주의적 확장정책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준가르사략』의 역사 내러티브에서 러시아 제국은 중국의 서북 변경 영토를 빼앗기 위해 몽골과 오이라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군사·외교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 [1] 1580년대부터 러시아는 동쪽으로 우랄산맥을 넘어 서시베리아 지역으로 식민 확장을 시작했다. ... 1579년 러시아의 차르는 러시아의 대지주이자 대상인인 스트로가노프를 지지하여 코사크 도주범 예르막을 보내 서시베리아를 모험하게 했다. 1582년 예르막의 군대는 서시베리아 칸국(khanate)의都城 시비르를 공격하여 점령했고, 이후 이르티시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16세기 말에 이르러 러시아 식민지 확장 세력은 오브강 東岸에 도달했다. 1586년 그들은 우랄산맥 以東 지역에 첫 번째 식민 거점인 튜멘을 건립했고, 1587년에는 토볼스크를 건립했으며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총독은 이곳을 주둔지로 삼았다. 또한 러시아 세력은 계속해서 동쪽과 남쪽으로 침입했다. 동쪽으로 서시베리아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 북부 변경을 침략하는 죄악 행위를 적극적으로 회색했다.⁴²
- [2] [1635년경] 러시아 제국의 침략 기세는 이미 할하와 오이라드 지역을 넘보기 시작했다. 압박하고 회유하며 망령되게 몽골 각 部の 수령들을 꺾어 러시아에 臣服시키려 함과 동시에 또한 무장 정복, 거주민 약탈, 내전 유발 등의 수단을 통해 침략의 마수를 중국의 북부와 서북 변경 지역으로 뻗었다.⁴³

42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77쪽.

4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58쪽.

[3] 바이투르 홍타이지가 민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연한 투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준가르에 대한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 생계는 바이투르 홍타이지를 계승한 이후 한편으로는 淸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 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계승하여 준가르 인민을 이끌고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생계의 재위 기간에 러시아 정부는 서시베리아의 식민 당국에 명령하여 부단히 생계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정치적 회유와 위협을 진행했다.⁴⁴

[4] 바이투르 홍타이지와 생계의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한 투쟁을 살펴보면, 이는 주로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예의와 절차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는 민족 존엄을 지키고 민족 굴욕에 반대하느냐, 아니면 민족 존엄을 버리고 민족 굴욕을 감수하느냐를 반영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텔레우트의 백성들에 대해 實物 세금을 징수하는 권익을 둘러싼 다툼으로, 민족 주권을 보호하고 무력 침략에 반대하느냐, 아니면 민족 주권을 팔아버리고 무력 위협에 굴종하느냐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의 문제에서 바이투르 홍타이지와 생계는 준가르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체현했고, 러시아가 위협과 이익으로 회유하는 것을 버텼으며, 러시아의 준가르에 대한 확장 침략의 야심을 좌절시켰다.⁴⁵

[5] 준가르 인민들은 근 반세기 동안 러시아 침략자들과 왕래했던 절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경고에만 기대는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투쟁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 1667년 5월 생계는 4,000여 명으로 조성된 군대를 이끌고 크라스노야르스크를 포위했고, 분노한 준가르의 軍民들은 성안에 포위된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에게 소리 높여 외쳤다. ...⁴⁶

4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81~82쪽.

45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85~86쪽.

46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85쪽.

위 인용문 [1]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준가르사략』은 러시아의 서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중국 북부 및 서북부 변경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하 몽골과 오이라드의 영역이 이미 중국 북부 및 서북부 변경 지역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인용문 [3]~[5]에 따르면, 중국 서북방 변경 지역을 차지하려는 러시아 제국의 시도는 준가르국의 군주 바아투르 홍타이지와 그의 후계자인 생계의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한 ‘투쟁’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준가르사략』은 준가르국 초기 역사를 ‘중국(혹은 중화민족)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및 투쟁’이라는 틀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바아투르 홍타이지와 생계가 러시아 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준가르 초기 역사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의 실상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바아투르 홍타이지와 생계가 당시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적대했던 것은 러시아 측이 원래 준가르에 공납을 바치는 속민이었던 텔레우트인·키르기즈인·바라빈인 등에 대해 공물을 징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바아투르 홍타이지와 생계는 재위 중이던 1635~1670년에 러시아 측과 여러 차례 사신과 상단을 교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당시 오이라드와 준가르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중국인 혹은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⁴⁷

『준가르사략』에 따르면, 생계가 사망한 이후 새로이 준가르국의 군주로 즉위한 갈단의 시대에도 러시아 제국은 ‘중국 북부 및 서북부 변경 지역’에 대한 침략을 멈추지 않았다.

[1] 갈단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야만 비로소 몽골을 정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47 17~18세기에 준가르인을 포함한 오이라드인들은 중국인(Kitad), 티베트인(Töböd), 무슬림(Khoton), 러시아인(Oros) 등과 분명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Ghabang Sharab, “Gharban sharawyn zokhioson tod üsgiin dörwön oiradyn tüükh,”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Ms. no. 1407/96, ff. 10~11을 보라.

중원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 러시아는 갈단을 끌어들이고 매수하여 중국에 대한 침략 및 확장을 강화했고, 또한 갈단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지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은 정치적 기초였다. ... 갈단은 러시아의 부추김과 사주 아래 ... 공격의 창끝을 먼저 할하 몽골 지역으로 향하게 했다.⁴⁸

[2] 갈단이 할하 몽골에 출병한 시기는 러시아군이 바이칼호 以東 지역에서 몽골 인민을 향해 진공했던 군사행동과 밀접히 배합되었고, 갈단과 러시아군은 서로 호응하여 할하 몽골을 협공하여 몽골 초원 지역의 형세를 중국에 불리하게 만들었고 중국 인민들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을 약화시켰으며, 淸 조정이 네르친스크에서 부득불 러시아에 중대한 양보를 하게 만들었다.⁴⁹

[3] 淸 정부는 영토의 안정을 보위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갈단에 대한 결연한 투쟁을 진행했다.⁵⁰

[4] 淸 정부가 준가르가 일으킨 전란을 평정한 것은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반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이 전쟁은 당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로 향해 가는 역사의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었고, 각 族의 인민들이 통일과 안정을 요구하는 공동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각 族 인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투쟁의 승리는 우리나라의 서북부와 북부 지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보를 내딛는 것이었고, 또한 러시아가 서북지역을 집어삼키고 중국을 침략하려는 야심을 유력하게 타격하였으며, 다민족 국가의 독립과 온전함을 보위한 것이었다.⁵¹

위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준가르사략』은 러시아 제국이 준가르국의

48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99~100쪽.

49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03쪽.

50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06쪽.

51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20쪽.

갈단 보속투 칸을 부추기고 매수하여 준가르국의 군대와 함께 ‘중국의 북부 변경’ 즉 할하 몽골 지역을 침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강희제의 청나라가 갈단 보속투 칸의 군대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것은 중국이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반항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자, “다시 한번 통일로 향해 가는 역사의 추세에 순응하는 것”이자, “다민족 국가의 독립과 온전함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준가르사략』의 이러한 서술은 다소 무리한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갈단 보속투 칸이 1688년 할하 몽골을 공격한 역사적 배경에는 자삭투 칸위(位)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할하 몽골 내부의 오랜 분쟁이 있었다. 아울러 갈단 보속투 칸의 할하 몽골 공격을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할하 몽골의 투시예투 칸 차쿰 도르지가 1688년 1월 자삭투 칸의 영역을 공격하여 자삭투 칸을 죽이고, 뒤이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삭투 칸의 영역에 와 있던 갈단의 동생 도르지잡을 살해한 것이었다.⁵² 따라서 준가르의 갈단 보속투 칸이 러시아에 매수당해, 혹은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 할하 몽골을 침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할하 몽골 및 청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갈단 보속투 칸이 러시아에 여러 차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갈단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군사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갈단 보속투 칸이 러시아 제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다거나, 혹은 러시아 군대와 호응하여 함께 할하 몽골 및 청나라와 싸웠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준가르사략』에 따르면, 러시아 제국의 ‘중국 서북지역’을 향한 침략행위는 갈단 보속투 칸의 뒤를 이어 준가르국의 군주로 즉위한 체왕 랍단 및 갈단 체왕의 치세도 계속되었다.

[1]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1세는 부단히 사람을 보내어 침입하여 준가르의 유목

52 烏雲畢力格·白拉都格其 主編, 2006, 『蒙古史綱要』,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73~175쪽.

지에 요새를 건립하고 堡壘를 설치하며, 준가르 인민을 죽이고 약탈하고 납치하여 준가르의 인민들이 러시아를 향해 모피 實物稅를 바치도록 강요했다. … 17세기에 러시아 침략 세력은 남쪽을 향해 확장하여 준가르의 일부 유목지를 탈취했다. 그러나 준가르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 때문에, 18세기 초년 이전까지 러시아 확장주의 세력은 여전히 크라스노야르스크·토مس크·옴스크 부근의 一線에 저지되어 막혀 있었다. … 그러나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의 탐욕은 억제되지 않았고, 조금의 기회만 있어도 변경의 국경선을 준가르 관할 지역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준가르 인민들은] 여러 차례 압박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지키며 반격하여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해 첨예한 투쟁을 전개했다.⁵³

[2] 야미쉬湖는 이르티시강으로부터 약 6,5베르스트(verst) 떨어져 있고, 이르티시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서북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외에 그곳은 뒤쪽으로 바이칼湖 지역으로 통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어, 러시아 정부가 이 지역에 요새를 건립한 것은 중국을 침략하려는 전략적 수요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었다.⁵⁴

[3] [러시아 원정대를 무찌른] 야미쉬湖 전투는 준가르 인민들이 자신의 목지와 가정과 민족 주권을 보위하기 위해 진행한 한 차례 승리의 전투였으며, 그것은 러시아 확장주의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⁵⁵

[4] 이후 러시아는 또한 이르티시강 유역에 건립한 보루들을 연결하여 [이것을] 이르티시강 堡壘線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를 시베리아 보루선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러시아 확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범한 역사적인 증거이다.⁵⁶

[5] 淸 정부는 러시아가 부단히 체왕 랍단에게 사람을 보내어 책동을 진행하여 중

5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147~148쪽.

5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50쪽.

55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53쪽.

56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56쪽.

국의 통일을 파괴할 것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 [러시아 사신] 운코프스키는 1722년 2월 5일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11월 17일 체왕 랍단의 궁정에 도달했다. 운코프스키는 준가르의 정치·경제·군사·지리·풍속 등의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정찰을 진행하였고, 또한 일리 계곡 일대의 지형을 측량하여 “당시의 요구를 매우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를 그려서 우리나라의 서북지역의 정황과 관련된 대량의 정보를 훔쳐 가, 이후 러시아의 우리나라 서북지역에 대한 침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⁵⁷

[6] 체왕 랍단으로부터 갈단 체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관점은 앞뒤로 일치했다. 그들(즉 러시아)의 强暴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하며 민족 주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체의 영웅적인 기개는 준가르 인민들이 외래의 침략에 반항하는 영웅적인 인민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들의 용감한 투쟁은 러시아의 준가르를 병탄하려는 음모를 유력하게 좌절시켰으며, 러시아 확장주의자들의 침략의 氣焰에 타격을 주었고, 우리나라 서북의 광대한 지역의 안전을 유효하게 방어했다.⁵⁸

위 인용문에 따르면, 체왕 랍단과 갈단 체렁의 시대에도 러시아는 이른바 ‘중국 서북지역’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접지 않았다. 이 시기가 되면 러시아 세력은 이르티시강을 따라 요새와 보루를 건설하며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이르티시강 유역에는 이르티시강 보루선(堡壘線)(혹은 시베리아 보루선)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반 부흐골츠 및 이반 리하료프 등이 이끄는 러시아 탐험대가 몇 차례 조직되어, 이르티시강 중류의 야미쉬호와 상류의 자이상호 지역에까지 도달했다. 러시아 탐험대를 맞이한 준가르인들은 야미쉬호 등지에서 러시아 탐험대를 크게 무찌르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그러나 준가르 군대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준가르국은 러시아인들이 이르티시강을 따라 요새를

57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58~159쪽.

58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61쪽.

건설하며 남하하는 것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했고, 그 결과 이르티시강 중류 유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영역을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다.⁵⁹ 따라서 체왕 랍단 및 갈단 체령 시대의 러시아-오이라드 관계에 대한 이러한 역사 내러티브는 그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맞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초중반 당시 준가르 제국을 ‘통일된 중국’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준가르인들의 러시아 세력에 대한 투쟁을 중국의 영토와 민족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준가르사략』의 역사 서술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달라이의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준가르사략』과 달리 러시아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

- [1] 오이라드 몽골은 러시아와 좋은 이웃 관계를 맺었다. 이는 준가르 칸국 시기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⁶⁰
- [2] 만주 황제 측에서는 동남쪽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무역로를 봉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투르 홍타이지는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여 특히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속민이 아닌 양상으로 러시아에 기대는 정책을 추구했다. ... 이렇게 사신을 교환한 덕분에 오이라드와 러시아의 우호 관계가 확대되고, 오이라드의 상인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관세와 세금 없이 무역하게 되었다.⁶¹
- [3] 생계 홍타이지는 만주-청나라가 몽골을 차례차례 차지하려는 정책을 잘 이해하여,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오이라드 민중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⁶²

59 James Forsyth, 1992,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7~128; Peter C. Perdue, 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11~213.

60 Ch. Dalai, 2006, 앞의 책, p. 12.

61 Ch. Dalai, 2006, 위의 책, pp. 86~87.

62 Ch. Dalai, 2006, 위의 책, p. 95.

- [4] 갈단의 우호적인 이웃으로 나란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편지를 제정 러시아 정부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1673년부터 준가르와 러시아 간의 대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⁶³
- [5] 준가르 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따랐던 정책의 주된 목적은 러시아와 좋은 이웃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아시아의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명성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국제관계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대외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준가르 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이웃으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갈단이 칸에 즉위한 이후 준가르의 대외정책은 적극적이 되었고, [준가르가] 동투르키스탄과 카자흐 및 중앙아시아의 상당한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동쪽으로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여 시베리아에서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있던 러시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준가르 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시베리아의 도시들을 잃지 않고, 준가르-러시아 국경선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격화시키지 않으며, 향후 준가르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만주-청나라와 정치·무역 관계를 확립하여 준가르의 영역을 상인들과 사신들이 자유롭게 통과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준가르 칸국의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만주의 침략 정책에 직면하고 있던 시대에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얻는 것은 중요했다.⁶⁴
- [6] 러시아는 극동에서 확장하기 위해 준가르의 칸 체왕 랍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체왕 랍단도 만주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기댈 생각이 있었다.⁶⁵
- [7] 이러한 상황을 준가르의 체왕 랍단 칸은 잘 이해하고, 러시아와 영토 등 일부 문제로 소규모의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만

63 Ch. Dalai, 2006, 위의 책, p. 115.

64 Ch. Dalai, 2006, 위의 책, pp. 115~116.

65 Ch. Dalai, 2006, 위의 책, p. 172.

주에 대항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준가르 칸국은 단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대내적·대외적 상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몽골·외몽골·서몽골의 힘을 합하여 만주와 투쟁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⁶⁶

- [8] 남쪽으로부터 만주의 위협에 매우 크게 직면하게 된 매우 어려운 때에 러시아 측의 희망을 받아들여 우호하는 것은 적절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갈단 체렝은 보고, ...⁶⁷

- [9] 오이라드의 사신 초이남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 1723년 5월 초이남하는 만주의 사신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체왕 랍단에게 모든 일을 보고했다. 체왕 랍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 러시아 차르에게 “우리는 너희의 속민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요새를 지어 광산을 파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답서를 지닌 도르지라는 사신을 운코프스키와 함께 표트르 대제에게 보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준가르의 사신 도르지를 1724년 4월 4일에 페테르부르크에서 맞이하여 만나고 준가르와 우호적인 관계를 승인했다.⁶⁸

- [10] 갈단 체렝은 이 시기에 러시아와 합의에 도달하려고 또한 매우 큰 노력을 했다. [갈단 체렝은]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와 평화를 깨지 않고, 러시아의 관할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질의 칼미크로 도망쳤던 톱샹 쇼나를 돌아오게 하고 ... 러시아의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 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만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호하는 것은 갈단 체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⁶⁹

- [11] 그 외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당국은 준가르 칸국과 정기적으로 사신을 교환하여 때로는 1년에 2번 사신을 보내곤 했다. 이로부터 볼 때, 러시아와 준가르

66 Ch. Dalai, 2006, 위의 책, p. 184.

67 Ch. Dalai, 2006, 위의 책, p. 185.

68 Ch. Dalai, 2006, 위의 책, p. 188.

69 Ch. Dalai, 2006, 위의 책, p. 195.

양국 간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지향하는 대외 관계가 매우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말할 때, 몽골과 러시아의 인민들 사이에 친밀한 전통적인 관계가 정해지는 데 오이라트 몽골 인민들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단 체렌의 시대에 준가르와 러시아의 관계가 모든 면에서 평탄하지는 않았고 [준가르와 러시아 간] 국경 충돌은 정기적으로 발생했다.⁷⁰

- [12] 아무르사나가 숨을 거둘 때 그의 곁에는 러시아의 하급 관원 글라조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 러시아 군관이 서몽골 용사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몽골과 러시아 인민 간 우호의 상징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하급 지휘관 글라조프와 총독 소이모노프가 용사 아무르사나의 곁에서 머리를 숙이고 애도했다는 것을 서몽골 인민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 아무르사나가 만주 군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부터 도입된 것이 아니고, 러시아인들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아마도 이것은 몽골과 러시아 인민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정하고 있던 하나의 상징일 것이다.⁷¹

위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몽골 학계에서는 몽골과 오이라트인들이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좋은 이웃 관계를 맺어왔고, 러시아의 속민이나 관할이 아닌 상태에서 우호적인 이웃으로 병존해왔으며, 만주-청나라의 위협과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아무르사나의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에피소드를 몽골-러시아 간 우호의 상징으로 표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와 오이라트의 관계가 시종일관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제국과 준가르국은 텔레우트·키르기

70 Ch. Dalai, 2006, 위의 책, p. 196.

71 Ch. Dalai, 2006, 위의 책, pp. 266~267.

즈·바라빈 등의 산림민들에게 공물을 징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반목했다. 아울러 부호골츠와 리하료프 등이 이끄는 러시아 탐험대가 각각 이르티시강 중류의 야미쉬호와 상류의 자이상호 지역에까지 진출했을 때, 러시아와 준가르 사이에는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러시아 제국과 준가르국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사신 교환과 외교협상을 멈추지 않았다. 요컨대 오이라트(준가르 포함)-러시아 관계는 어느 국제관계와 마찬가지로 우호적일 때도, 적대적일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몽골 학계에서는 왜 러시아를 시종일관 우호적인 이웃이었던 것으로 서술한 것일까? 이러한 몽골학계의 역사 서술 방식에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 1911년과 1921년에 각각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몽골인(여기서는 외몽골인)들의 역사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외몽골인들의 인식 속에 친러·반중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²

IV. 개별 사건 및 인물에 대한 평가

이 장에서는 오이라트 및 준가르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중국 학계와 몽골 학계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 먼저 1640년에 개

72 이러한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911년과 1921년의 몽골 독립에 대해서는 Charles R. Bawden, 1968,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이평래, 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호; 橋誠, 2011, 『ボグド・ハーン政權の研究: モンゴル建國史序説 1911-1921』, 東京: 風間書房 등을 참조. 몽골인들의 반중 정서에 대해서는 Uradyn E. Bulag, 1998, *Nationalism and Hybridity in Mongol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ranck Billé, 2015, *Sinophobia: Anxiety, Violence, and the Making of Mongolian Ident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등을 참조하라.

최된 ‘몽골-오이라드 대화맹’과 이를 계기로 제정된 『몽골-오이라드 법전』의 성격에 대해 『준가르사략』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준가르의] 바야투르 홍타이지와 [할하 몽골의] 자삭투 칸의 노력으로 1640년 9월 초 타르바가타이에서 오이라드와 할하 각 部 봉건 영주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통칭 『1640년 몽골-오이라드 법전』이 제정되었다. ... 그 주요 목적은 봉건 영주의 노동 인민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하고, 오이라드와 할하 각 部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며, 외적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동맹을 건립하는 데에 있었다. ... 『몽골-오이라드 법전』은 또한 외적의 침입에 연합하여 저항하는 것을 특히 강조 하여, 적에 대해 용감하게 싸우는 정신을 선창했다. ... 이 법전의 제정은 몽골 각 部の 단결을 강화하고 외부의 침입을 공동으로 방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또한 러시아가 [몽골과 오이라드] 각 部の 관계를 도발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에,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음모를 꾸미는 것에 유력한 타격을 가했다. 법전의 제정 이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이라드의 각 部와 신흥 清朝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고 通貢과 연락이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⁷³

위 인용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640년에 제정된 『몽골-오이라드 법전』은 몽골과 오이라드 각 세력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외부의 침입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는 당시 몽골과 오이라드의 공통된 주적이 마치 러시아였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부정확한 것으로, 몽골과 오이라드인들이 1640년에 모여 동맹을 맺고 공통의 법전을 제정한 것은 북방의 러시아가 아닌 남방의 청나라의 존재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할하 몽골과 오이라드인들은 1636년 청나라가 차하르 몽골의 립단 칸과 그의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날의 내몽골 전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자, 이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청나라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로 동

7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59~61쪽.

맹을 맺었던 것이다.⁷⁴ 따라서 『준가르사략』의 저자들은 ‘오이라드와 준가르는 예로부터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 외부의 적은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다’는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 내러티브에 합치시키기 위해 『몽골-오이라드 법전』의 목적과 성격을 다소 왜곡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달라이의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1640년의 ‘몽골-오이라드 대회맹’과 『몽골-오이라드 법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삭투 칸 소브다는 할하의 모든 노얀들의 화합에 힘쓰고 [그들을] 통합하여 군세게 하는 것을 외치는 한편, 오이라드 서몽골과 함께 만주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 만주에 대항하여 싸울 때 할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자삭투 칸 소브다는 오이라드 연합의 칸인 두 명의 타이지에게 사신을 보내어 공동의 힘으로 독립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통합된 회맹을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 회맹에서는 몽골의 대외 상황이 매우 긴박해지는 때에 내부의 결속을 되살려 공동의 힘으로 외부의 적의 침략을 격퇴하는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이렇게 회맹을 통해 『몽골-오이라드 법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법전의 가장 주된 중요성을 말하자면, 외적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한 것이다. 법전에 있는 외적이란 일반적으로 만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전에서 정확히 만주라고 쓰지는 않았다. … 『몽골-오이라드 법전』이 제정된 이후 몽골의 사정은 잠시나마 안정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만주 황제는 법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여 몽골 전체를 차지하려는 행동을 …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했다.⁷⁵

다음으로 자삭투 칸위의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할하 몽골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685년 개최된 ‘후렌 벨치르의 회맹’에 대해 『준

74 Lhamsuren Munkh-Erdene, 2010, “The 1640 Great Code: An Inner Asian Parallel to the Treaty of Westphalia,” *Central Asian Survey* 29-3, pp. 269~288.

75 Ch. Dalai, 2006, 앞의 책, pp. 79~82.

가르사략』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685년(康熙 24) 淸 정부는 할하 몽골 여러 部 간의 불화를 조정하기 위해, 尙書 아르니(阿爾尼) 등을 파견하여 달라이 라마의 대리인 갈단 시레투와 회동하여 후렌 벨치르에 가서 회맹하게 하였고, 투시예투 칸과 자삭투 칸은 相問抱見의 예를 행하며, “和好하고 분쟁을 멈출 것”을 표명하였고 “우호 관계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다.” 내부에서 단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하 몽골 인민들의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유력해졌다. 할하 몽골 인민들의 러시아에 대항하는 투쟁은 알바진(雅克薩) 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었다.⁷⁶

요컨대 『준가르사략』은 청나라가 주도한 후렌 벨치르 회맹으로 인해 할하 몽골 여러 세력 간의 불화가 조정되어 상호 우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할하 몽골의 내부적인 단결이 이루어져 할하 몽골인들의 러시아에 저항하는 투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렌 벨치르 회맹은 사실 러시아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고, 할하 몽골 내부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회맹 도중에 발생한 티베트의 갈단 시레투 라마와 할하 몽골의 젹춘담바 후툽투 칸의 전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 갈단 보속투 칸이 할하 몽골을 공격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⁷⁷

후렌 벨치르 회맹에 대해 『오이라트 몽골의 역사』는 『준가르사략』과 매우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즉, 후렌 벨치르 회맹은 만주 황제의 할하 몽골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오히려 할하 몽골 내부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할하 몽골과 준가르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76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100쪽.

77 Christopher P. Atwood, 2004, 앞의 책, p. 193; Peter C. Perdue, 2005, 앞의 책, pp. 147~148.

- [1] 자삭투 칸위 계승 분쟁 때문에 발생한 위기는 할하·오이라드·만주·티베트 간의 다툼으로 변화했다. 관련자들은 모두 각자의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만주 황제에게는 자삭투 칸위를 계승하기 위해 일어난 그 혼란을 이용하여, 그것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할하를 자신의 지배에 편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갈단에게는 할하를 만주에 잃지 않고, 1640년 『몽골-오이라드 법전』의 사상을 굳게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달라이 라마에게는 할하와 오이라드의 내부에서 황교(黃敎)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할하 내부의 손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⁷⁸
- [2] 후렌 벨치르 회맹은 만주의 정치적인 통제와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1640년의 몽골-오이라드 회맹의 결정을 무력화시켜 할하와 준가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할하 노안들의 위기를 만주에 유리하게 활용하여 할하와 준가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할하를 만주의 영향권에 더욱 깊이 들어오게 하는 등 준가르에 반대하는 역할과 의도가 다분했고 그 의도를 실현할 수 있었다. 회맹 이후 할하의 내부 사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만주인들은 할하 노안들의 위기를 교활하게 이용하여 애국적인 노안들을 차별하고 차륄도르지를 필두로 한 배신자 노안들을 지지하여, 내몽골을 차지하는 데 활용했던 교활한 전략을 외몽골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항하여 갈단 보속투 칸은 용감하게 반대하며 일어섰다. 준가르의 칸 갈단 보속투는 만주의 침략적인 나쁜 생각을 모두 이해하고, 그들의 수족이 된 차륄도르지의 배신자적인 행동에 무력으로 대결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보았다. ... 후렌 벨치르 회맹은 할하 내부의 사무에 만주 황제가 침투하여 간섭하는 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⁷⁹

다음으로 갈단 보속투 칸의 준가르 군대가 할하 몽골에 승리를 거둔 이후

78 Ch, Dalai, 2006, 앞의 책, pp. 122~123.

79 Ch, Dalai, 2006, 위의 책, p. 127.

1691년에 개최된 ‘돌론 노르의 회맹’에 대해 『준가르사략』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할하 몽골의 여러 部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손길은 할하 지역의 형세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다. 귀부한 할하 인민들을 安置하고 전란을 막으며 북부의 변경 방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淸 정부는 할하 몽골 3부가 그의 통할하에 들어오는 것을 정식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內·外 몽골의 수령들을 돌론 노르에 모아 회맹 의식을 거행하여 漠北을 진일보하게 통일했다. 1691년(康熙 30) 4월 康熙帝는 돌론 노르에 친히 가서 회맹을 주재했다. … 돌론 노르의 회맹은 淸 정부가 漠北 지역을 다시 한번 통일하고 북부 변경을 안정화한 중요한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할하 몽골 지역을 청 정부의 관할하에 다시 한번 통일했을 뿐 아니라, 갈단 군대의 유린을 피하고 동시에 또한 러시아의 침입을 유력하게 제어했으며, 북부 변경의 방어를 강화했다.⁸⁰

한편, 『오이라트 몽골의 역사』는 돌론 노르의 회맹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인다.

[1] 1691년 4월 강희제는 할하를 만주-청나라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예식과 회합을 돌론 노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돌론 노르의 회맹으로 인해 할하의 최고 군주는 만주 황제가 되었지만, 몽골의 노안들은 영토를 다스리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 강희제는 할하의 35명 배신자 노안들에게 높은 칭호와 지위를 내리고, 그들 중 34명을 호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했다. 그들은 만주 황제에게 노예같이 봉사하며 갈단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돌론 노르의 회맹에서 할하가 만주의 속민이 되기로 정식으로 맹세한 것은 할하와 준가르의 통합된 힘으로 만주에 대항하려는 갈단의 투쟁에 큰

80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110~111쪽.

타격이 되어 몽골 전체의 독립에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⁸¹

- [2] 만주인들은 할하와 오이라드의 전쟁에서 할하의 힘이 매우 약해지고 영토가 없어진 것을 이용하여, 할하의 노안들에게 뇌물을 주어 끌어들이고, 할하인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관대한 군주인 척하는 거짓의 가면을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적극화했다.⁸²

- [3] 얼마 안 되는 할하의 배신자 노안들은 만주 황제 앞에 노예처럼 고개를 숙이고, 할하 인민의 권리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오이라드 인민들에 대항하여 외국의 군대와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⁸³

다음으로 갈단 보속투 칸과 그의 활동에 대한 『준가르사략』 및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의 관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준가르사략』은 갈단 보속투 칸의 친(親)러시아적 성향을 강조하며 그와 그의 활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1] 일찍이 생계 집정 시기부터 갈단은 친러시아적인 태도를 취했다. 1668년 생계의 사신이 러시아에 약탈당한 준가르의 屬民 텔레우트인들을 귀환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전쟁 불사의 각오를 표시했을 때 갈단은 오히려 반대의 논조를 보였다. ... 갈단이 준가르의 통치권을 획득한 이후,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의 [러시아의] 침략에 항거하고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에 반하여 점차 러시아와 상호 관계를 맺는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⁸⁴
- [2] 1673년 10월 러시아 사신 아블린을 호송하여 토볼스크에 도달한 갈단의 대표는 이후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러시아 당국의 예우를 받았다. 그들은 갈단이 러시아에 보낸 두 통의 편지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 편지에서 갈단은 차르를

81 Ch. Dalai, 2006, 앞의 책, pp. 140~141.

82 Ch. Dalai, 2006, 위의 책, p. 134.

83 Ch. Dalai, 2006, 위의 책, p. 143.

8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97쪽.

위해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표명하였고, ... [갈단은] 사방을 병탄하고 중원을 넘보았고, 이 때문에 그는 외부 세력의 지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갈단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야만 비로소 몽골을 정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원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요컨대 러시아는 갈단을 끌어들이고 매수하여 중국에 대한 침략 및 확장을 강화했고, 또한 갈단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지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은 정치적 기초였다. ... 갈단은 러시아의 부추김과 사주 아래 ... 공격의 창끝을 먼저 할하 몽골 지역으로 향하게 했다.⁸⁵

[3] 갈단은 初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체 없이 군사동맹을 건립할 것을 시도했다. ... 갈단은 [러시아의 사신] 골로빈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골로빈에게 즉각 군대를 이끌고 약속한 장소로 와서 회합하여 공동으로 작전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군사원조를 받기 위해 갈단은 민족 주권과 신성한 영토를 팔아버리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고, ...⁸⁶

[4] 갈단은 울란 부투의 패전 이후 계속 호브드 지역에 웅거하며 殘部를 모으며 휴양하고 인구를 늘리며 권토중래할 것을 기약했다. 이를 위해 갈단은 다방면으로 음모를 꾸몄다. 먼저 그는 연이어 사람을 파견하여 러시아에 가서 활동하게 했고 더욱 많은 군사 지원을 획득할 것을 기도했다. ... 갈단은 [차르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말했다. “우리들은 줄곤 폐하와 같은 사업을 가진 형제로 우호하고 친선해왔다. 몽골은 폐하와 우리의 적이다. ...”⁸⁷

[5] [토볼스크의 행정장관] 마트베이 유딘은 또한 연이어 인원을 파견하여 갈단을 향해 우호와 동정을 표명했다. 러시아 대표의 빈번한 활동으로 인해 갈단은 변경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파괴하고 또한 악화시켰다. ... 1691년 이후 갈단은 매년 進貢을 명목으로 [청나라에] 대량의 인원을 보냈다. 이 사람들은 오

85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99~100쪽.

86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03~104쪽.

87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11~112쪽.

가는 길에서 평화를 깨고 무리한 분쟁을 일으켰고, 또한 달라이 라마의 사신을 사칭하며 곳곳을 정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활동을 진행했다.⁸⁸

- [6] 1695년(康熙 34) 5월, 갈단은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바얀 울란 일대에 진출했고, ... 러시아의 중용 아래 갈단은 또한 전쟁의 불길을 일으켰다.⁸⁹

이상의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준가르사략』은 갈단을 개인적인 야심의 실현을 위해 민족과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 주권과 신성한 영토”를 거리낌 없이 팔아버렸으며, “변경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다방면으로 음모를 꾸미며, 러시아의 부추김과 사주와 중용을 받아 전쟁을 일으킨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갈단 보속투 칸과 그의 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 [1] 일반적으로 갈단 보속투 칸은 남쪽의 이웃인 만주-청나라와 언젠가 한 번은 대결한다는 정책을 항상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쪽의 큰 이웃인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 1670~1680년대에 준가르 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전 시대보다 매우 개선된 것은 양측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었다. 준가르 칸국의 입장에서는, 동쪽에서 만주의 침략정책에 직면하고 있던 시대에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얻는 것은 중요했다.⁹⁰
- [2] 호브드市를 설립한 것은 갈단이었다. 그리고 호브드의 옆에 만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투쟁을 위한 요새를 건설했다.⁹¹

88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12쪽.

89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13쪽.

90 Ch, Dalai, 2006, 앞의 책, pp. 115~116.

91 Ch, Dalai, 2006, 위의 책, p. 112.

- [3] 갈단 보속투 칸은 남쪽의 이웃인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정책을 굳세게 실행했다. 갈단은 만주 황제의 비밀스러운 침략정책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에 대항하여 가벼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보았다.⁹²
- [4] 갈단의 대외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독립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몽골과 준가르를] 지키는 것이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갈단은 할하와 무장 투쟁을 벌여 차쿤 도르지와 같은 배신자 노안들의 행동을 타파하고 할하의 민중들을 만주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의도했다.⁹³
- [5] 준가르국의 갈단 보속투 칸이 할하를,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로 투시예투 칸 차쿤 도르지와 운두르 계겐 자나바자르를 공격한 주요 원인은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할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투시예투 칸 아이막을 만주에 잃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할하의 배신자 지도자인 차쿤 도르지를 공격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교적 숭배물로서 할하의 인민들이 숭배했던 운두르 계겐의 명성을 만주에 반대하는 몽골 인민의 통합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⁹⁴
- [6] 할하-오이라드의 전쟁에서는 원래 갈단이 승리를 거두어 할하의 대부분의 땅을 지배하에 넣었다. 당시 오이라드와 할하를 갈단 칸이 다스리는 것을 애국적인 몽골인들은 모두 승인하고 받아들였다.⁹⁵
- [7] [내몽골의 많은 타이지와 노안들은] 갈단의 군대에게 군량과 탈것 그리고 가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그들은 만주 군대의 정보를 갈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몽골인들이 만주의 침략을 속으로 완전히 반대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⁹⁶
- [8] 할하의 영역에서 갈단이 약탈을 자행했다고 만주 사료에서 기록한 것은 루머

92 Ch. Dalai, 2006, 위의 책, p. 117.

93 Ch. Dalai, 2006, 위의 책, pp. 120~121.

94 Ch. Dalai, 2006, 위의 책, p. 134.

95 Ch. Dalai, 2006, 위의 책, pp. 143~144.

96 Ch. Dalai, 2006, 위의 책, p. 146.

이다. 갈단이 할하의 땅에 있을 때 보통 인민들은 군량 등으로 갈단을 정기적으로 돕고 지지했다.⁹⁷

- [9] 갈단의 이번 전쟁의 목적은 할하를 만주의 지배로부터 되찾아 나오게 하고, ... 다시는 만주의 국경을 넘어 들어가 싸우지 않으며 단지 할하의 영역을 지키는 활동이었다. ... 만주의 침략과 그에 동조하여 음모를 꾸민 배신자 노안들에 대하여 오이라드의 힘뿐만 아니라, 할하와 내몽골의 애국적인 힘도 통합하여 일어날 시도를 했다.⁹⁸
- [10] 용감한 애국자 갈단 보속투 칸은 1697년 3월 13일 54세로 아츠 암태라는 장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 만주의 강희제는 몽골의 독립을 위해 피곤함 없이 분투했던 갈단을 봉괴시키고 제거해버린 주된 군주가 맞다.⁹⁹
- [11]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전쟁 때에는 굴복했던 귀족 및 상층 계급들과 달리 갈단은 자신의 계급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몽골의 독립을 위해서도 매우 굳세게 투쟁했던 인물이었다. ... 갈단은 단지 오이라드뿐만 아니라 몽골 전체의 독립을 위해 굳세게 투쟁한 사람이 맞다.¹⁰⁰
- [12] 일반적으로 갈단이 만주와 싸웠던 이 두 번의 전쟁은 섭정 상계 가초를 필두로 한 티베트 지배층의 명령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해도 큰 잘못은 아니다. 그들은 달라이 라마의 제자였던 할하의 젹춘담바의 배신을 매우 싫어했다. 또한 갈단을 이용하여 만주의 힘을 감소시켜 티베트의 독립을 지키려는 숨겨진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¹⁰¹

요컨대 몽골 학계의 역사 내러티브에서는 갈단 보속투 칸을 만주의 침략정

97 Ch. Dalai, 2006, 위의 책, p. 153.

98 Ch. Dalai, 2006, 위의 책, p. 158.

99 Ch. Dalai, 2006, 위의 책, p. 165.

100 Ch. Dalai, 2006, 위의 책, p. 166.

101 Ch. Dalai, 2006, 위의 책, p. 156.

책에 저항하여 오이라트뿐 아니라 할하와 내몽골을 포함한 몽골 전체의 독립을 위해 굳세게 투쟁한 용감한 애국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갈단 보속투 칸의 만주-청나라에 대한 투쟁은 애국적인 몽골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몽골 학계에서 갈단 보속투 칸의 할하 몽골 및 내몽골 침입을 부추긴 존재로 러시아 제국이 아닌 섭정 상계 가초를 필두로 한 티베트 지배층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아무르사나에 대한 『준가르사략』 및 『오이라트 몽골의 역사』의 관점을 살펴보자. 먼저 『준가르사략』에 따르면, 아무르사나는 갈단 보속투 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국의 부추김과 사주를 받아 중국 서북 변경 지역에서 반란과 분열과 침략을 획책한 인물이다.

- [1] 러시아는 공공연히 중국-러시아 쌍방 간의 협의를 위반하고 힘을 다해 준가르部 상층귀족의 분열 세력을 선동하여 ... 部衆이 밖으로 도망쳐 러시아에 투항하도록 하였고, ... 아무르사나가 청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이후 러시아는 또한 힘을 다해 [그를] 지지했다. 러시아의 군정 당국은 이미 아무르사나에게 연속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어 그의 반란 행동에 지지를 표명하고 또한 부추김을 진행했다.¹⁰²
- [2] 1756년 가을 아무르사나는 카자흐로부터 타르바가타이로 몰래 돌아와 殘部를 모아 청나라 군대를 향해 반격하였고, 또한 러시아에 사람을 보내어 원조를 요청하여 러시아의 힘을 빌려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을 망령되어 시도했다. ... [아무르사나는] 러시아 군대가 반란군을 보호하여 청나라 군대의 진공을 막아주는 것을 러시아에 투항하는 조건으로 삼았다.¹⁰³
- [3] 러시아는 아무르사나를 숨기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 일찍이 술책을 부렸다. ... 러시아가 아무르사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서부 邊疆을 분열 및

102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203쪽.

10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205쪽.

침략하려는 죄악의 음모를 기도했던 것은 아무르사나의 사망과 함께 파산을
선고받았다.¹⁰⁴

이와 대조적으로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아무르사나를 만주의 억압으로
부터 조국을 해방하고 독립된 몽골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투쟁
한 “몽골 인민의 독립 무장 투쟁 지도자”이자 “민중 용사”이자 “애국자”로 평가
하고 있다.

- [1] 이것은 아무르사나가 만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다와치를 밀어내어 실각시키
고, 준가르 칸국의 국권을 부활시켜 안정시키며 강화한다는 숨겨진 계획이
었다. …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무르사나·칭군잡·셴텐발지르는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여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일을 잊지 않을 것에 대해 마음을 모아 비밀
리에 밀접한 연합을 맺었다.¹⁰⁵
- [2] 아무르사나는 준가르를 정복하는 전쟁에 만주 군대의 중요한 관직을 맡아 참
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라드 몽골 인민에 대항하여 피를 흐르게 하며 싸우
지는 않았다. 단지 자신의 기의와 투쟁을 실행하기 위해 만주를 잠시 이용한
것이었다.¹⁰⁶
- [3] 오이라드 서몽골의 민중들은 준가르 칸국 독립의 마지막 화롯불을 지키려고
용감하게 결정하여 민중 용사 아무르사나의 지도 아래 마지막으로 일어나 투
쟁했다. 할하 몽골에서는 칭군잡이 이끄는 무장 투쟁이 일단 일어났다. 이것
을 몽골 역사에서는 “몽골 인민들의 1755~1758년의 독립 무장 투쟁”이라고
부른다.¹⁰⁷

10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207쪽.

105 Ch. Dalai, 2006, 앞의 책, pp. 232~233.

106 Ch. Dalai, 2006, 위의 책, p. 237.

107 Ch. Dalai, 2006, 위의 책, p. 243.

- [4] 아무르사나와 청군잡은 조국을 만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체적인 수도와 군대와 의무와 세금의 법률이 있는 독립된 몽골국을 부흥시키려고 의도했다.¹⁰⁸
- [5] 아무르사나와 청군잡이 외국인 만주의 잔인한 억압에 대항하는 독립의 대투쟁에서 자신의 인민들을 이끌고 들어가 반란을 이끌며 자신들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웠던 애국자들임은 사실이다. ... 아무르사나가 비록 만주에 복속하여 높은 지위와 관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국가를 위해 결코 진심으로 분투한 적은 없었다. ... 곧 만주의 지배에 대항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끌며 일어났다. 서몽골 인민들의 1755~1758년 독립투쟁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조직하여 이끄는 일에서 아무르사나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 1755~1758년에 걸쳐 아무르사나는 반란군을 이끌고 외부의 적인 만주인과 내부의 배신자 노얀 타이지들에 대항하여 몇 년에 걸쳐 용감한 투쟁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진압당하는 데 이르렀다. 만주 군대에 마지막으로 패배한 뒤에도 아무르사나는 용기가 약해져 낙담하거나 조국의 독립투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큰 이웃 나라인 러시아 방향으로 도망쳐 러시아 정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사망했다.¹⁰⁹
- [6] 아무르사나가 돌아와 조국을 만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은 서몽골·우랑하이·칼미크의 인민들 사이에 널리 남아 있다.¹¹⁰

마지막으로 청나라의 준가르 정복을 바라보는 『준가르사략』과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의 관점은 사뭇 대조적이다. 먼저 『준가르사략』은 청나라의 준가르 정복의 의도와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08 Ch. Dalai, 2006, 위의 책, p. 267.

109 Ch. Dalai, 2006, 위의 책, pp. 268~269.

110 Ch. Dalai, 2006, 위의 책, p. 270.

- [1] [두르부드의] 세 명의 체랭과 아무르사나 등이 청나라에 복속하여 온 것은 乾隆帝에게 준가르 내부에서 서로를 찬탈하고 살육하는 상황과 군중이 다와치에 반대하고 … 떠나가는 정황을 알려주고, 준가르 통치 세력을 평정할 시기가 이미 무르익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으며, 淸 정부가 일리로 군사를 보내어 新疆 지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었다. 건륭제가 보기에 준가르 귀족 통치 세력이 … 평정되지 않으면 … 국가의 통일도 실현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준가르部の 동란의 시기를 이용하여 일리 지역에 進兵하기로 결심했다.¹¹¹
- [2] 준가르部の 인민들은 사분오열하는 정권에 이미 염증을 느끼고, 일 년 내내 안경을 얻을 수 없는 전란 속에서의 생활에 매우 피로를 느껴, 통일과 화평의 국면이 이른 시일 내에 출현하기를 바랐다. … 오이라트 各部의 인민들이 힘을 다해 지지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兩路軍은 거침없이 쳐들어가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었다.¹¹²
- [3] 淸 정부가 新疆을 통일한 이후 취했던 각 항의 정치·군사적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新疆과 中原 지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일체가 되게 하여, 우리나라의 서부 변경 방어를 공고하게 하여 러시아의 확장과 침략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淸 정부가 天山의 남북을 통일한 이후, 경제적으로도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로써 新疆 지역의 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했으며 … 특히 戶屯의 대대적인 실시는 중국 内地의 漢族 농민들을 新疆으로 대거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였고, 곧 内地의 선진적인 생산도구와 경작 기술을 가지고 와서, 新疆 지역의 농업 생산기술의 낙후된 상황을 변화시켰으며, 따라서 농업노동생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또한 중국 内地와 新疆 지역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각 민족 간의 교류 관

111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앞의 책, 190쪽.

112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192쪽.

계를 증진하고, 백성을 이주시켜 변경을 채워 각 민족이 공동으로 신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¹¹³

- [4] [청나라의 신강 정복 이후] 많은 도시가 건설되고 발전한 것은 특히 천산북로 지역에 건설된 일련의 城市들이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황망하여 성곽이 없는 낙후된 상황을 변화시켰다. ... 점차 신강 지역의 문화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변화시켰고, 신강의 各族 인민들과 內地 漢族 인민들의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촉진했다. 요컨대 정치상의 통일로부터 천산 남북의 各族 인민들은 한 시기의 비교적 안정된 사회 환경을 얻어 노동 생산에 종사했으며, 사회·경제 생활을 회복 및 발전시켜 인구 또한 신속히 증가했다.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는 또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인 발전을 촉진했다.¹¹⁴

즉, 건륭제가 1754년 준가르 공격을 결정한 것은 “통일과 화평의 국면이 이른 시일 내에 출현하기를 바라는” “준가르 인민들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신강 지역과 국가의 통일’이라는 대의와 역사의 추세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청나라의 준가르 정복과 통일의 결과 신강 지역은 과거에 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했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는 건륭제의 준가르국 공격과 정복을 ‘오이라드인들의 독립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분쇄’한 것이자 ‘무고한 오이라드인들에 대한 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 [1] 만주의 침략자들은 오이라드 몽골의 땅에 침입해 들어와 평범한 민중들에게 매우 잔혹한 고통을 주었으며 다양하게 모욕하며 억압했다. ... 당시 만주 군대의 관리와 장군들은 오이라드 서몽골 백성들을 다시 부흥하여 일어날 어떠한 능력도 없어질 때까지 쇠퇴시키라는 칙령을 황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

113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213~214쪽.

114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위의 책, 215~216쪽.

음껏 멋대로 행동하여 다양한 공격적인 행동을 극한으로 실시했다.¹¹⁵

- [2] 1757년 2월 … 兆惠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완전히 무찌른 다음, 준가르의 정의로운 타이지들은 만주의 군대와 계속해서 싸워 자신들의 땅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 건륭제는 일리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 만주의 장군과 군대를 죽이고 무력화시킨 것을 듣고 나서, 새로이 양로의 대군을 동원하여 서몽골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그 지역을 영구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게 했다. 다시 말해 서몽골의 평범한 평화로운 백성들과 아들들, 여성들을 학살하여 파괴하는 건륭제의 유혈 공격이 이렇게 시작되었다.¹¹⁶

- [3] [아무르사나의 죽음으로] 독립을 위한 모든 정의로운 투쟁이 손상을 입고 진압되었다.¹¹⁷

- [4] 만주의 군대는 이렇게 반란군 부대를 연이어 공격하면서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여 끝장냈다. 그러나 만주 정부의 주된 목적은 반란을 단지 진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반란의 모든 군대와 서몽골의 인민들을 학살하고 나서 그 영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다. … 진실로 만주의 군대는 자신들의 주군인 황제의 명령에 따라 서몽골 인민들을 반란을 일으켰든 아니든 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¹¹⁸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준가르사략』과 『오이라드 몽골의 역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 관변학계와 몽골 학계의 공식적인 오이라드 역사 내러티브를 비교해보았다.

115 Ch. Dalai, 2006, 앞의 책, p. 235.

116 Ch. Dalai, 2006, 위의 책, p. 255.

117 Ch. Dalai, 2006, 위의 책, p. 258.

118 Ch. Dalai, 2006, 위의 책, p. 261.

그 결과 오이라드사에 대한 양국 학계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국 학계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공식 오이라드 역사 내러티브는 ① 오이라드와 준가르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중국 역사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으며, 심지어 할하 몽골(지금의 몽골국)의 역사도 중국사의 일부로 기술하고 있다. ② 준가르 제국을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으로 간주하고 한때 오이라드와 준가르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지역을 역사상 중국의 영토인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도 역사 분쟁의 소지가 있다). ③ 오이라드와 준가르의 역사를 러시아 침략주의자 혹은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의 역사로 해석함으로써 중국의 애국주의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러시아 제국을 중국 북방과 서북방 변경 지역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⑤ 오이라드와 준가르가 청나라와 분쟁을 벌인 경우 그것을 러시아 침략주의자들이 사주하거나 위협을 가한 결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몽골 학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오이라드의 역사는 몽골 역사의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이고, ② 오이라드 몽골인들은 몽골의 독립을 위해 외부의 침략자들에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투쟁해 온 역사를 지녔으며(여기서 외부 침략자는 만주인과 그들이 세운 청나라를 지칭), ③ 만주-청나라의 침략에 투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았지만, ④ 결국 오이라드인들의 독립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은 만주-청나라에 의해 분쇄되고, 오이라드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중국과 몽골 간 오이라드 역사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향후 양국 간의 역사 및 영토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이라드의 역사를 둘러싼 중국·몽골 양국 학계의 입장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중국과 여러 가지 역사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Ghabang Sharab, “Gharban sharawyn zokhioson tod üsgiin dörwön oïradyn tüükh,” National Library of Mongolia, Ms. no. 1407/96.

단행본

강현사 등, 2008,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김장구 등, 2007,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고구려연구재단.

이근명 등, 2010,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 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정병준 등, 2008,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馬大正·成崇德 主編, 2006, 『衛拉特蒙古史綱』,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烏雲畢力格·白拉都格其 主編, 2006, 『蒙古史綱要』,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準噶爾史略編寫組, 1985, 『準噶爾史略』, 北京: 人民出版社.

橘誠, 2011, 『ボグド・ハーン政權の研究: モンゴル建國史序説 1911-1921』, 東京: 風間書房.

Atwood, Christopher P., 2004, *Encyclopedia of Mongolia and the Mongol Empire*, New York: Facts On File, Inc.

Bawden, Charles R., 1968,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Billé, Franck, 2015, *Sinophobia: Anxiety, Violence, and the Making of Mongolian Ident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Forsyth, James, 1992,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rdue, Peter C., 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Uradyn, E. Bulag, 1998, *Nationalism and Hybridity in Mongol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lai, Ch., 2006, *Oirad Mongolyn tiiikh*, Bibliotheca Oiratica 3, Ulaanbaatar: Soyombo printing.

Ochir, Ayuudain, 1993, *Mongolyn Oiraduudyn tiiikhiin towch*, Ulaanbaatar: Sükhbaatar KhK.

Moiseev, B. A., 1998, *Rossii i Dzhungarskoe khanstvo v XVIII veke: Ocherk vneshnepoliticheskikh otnosheniĩ*, Barnaul: Izdatel'stvo AGU.

Zlatkin, I. Ia., 1964, *Istoriia Dzhungarskogo khanstva (1635-1758)*, Moskva: Nauka.

논문

이평래, 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호.

Munkh-Erdene, Lhamsuren, 2010, “The 1640 Great Code: An Inner Asian Parallel to the Treaty of Westphalia,” *Central Asian Survey* 29-3.

오이라드의 역사에 대한 중국과 몽골의 인식 차이

— 또 다른 역사 갈등의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여 —

심호성

오이라드(Oirad)인들은 몽골어 방언의 일종인 오이라드어(혹은 칼미크어)를 사용하며 티베트 불교를 신봉하는 몽골 계통의 사람들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 북부·내몽골자치구 서부·칭해성(青海省) 북부와 몽골국 중부 및 서부,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칼미크(Kalmyk) 공화국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오이라드인들이 과거 17~18세기에 중앙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고 지금은 주로 중국·몽골·러시아 3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는 중국사·몽골사·러시아사에서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학계의 오이라드 역사 연구에서는 러시아와 오이라드(혹은 칼미크) 간의 역사적 우호 관계를 강조할 뿐 오이라드의 역사를 러시아의 역사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한편, 중국과 몽골 학자들의 오이라드 역사 연구는 이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양국의 역사학자들은 오이라드의 역사를 공히 자국사(自國史)의 일부로 인식하고 동일한 역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역사 내러티브(narrative)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과 몽골 양측의 오이라드 역사 해석방식과 내러티브는 양국의 민족형성(nation-building) 과

정과 영토적 정통성 주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오이라드에 대한 중국과 몽골의 역사 내러티브는 상호 배타적이며 양립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이라드의 역사 내러티브를 둘러싼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중국 및 몽골 양국 간의 역사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학계와 몽골 학계의 대표적인 오이라드 역사 연구서를 비교·분석하여 중국-몽골 양국 간 역사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주제어: 중국, 몽골, 오이라드, 러시아, 역사 내러티브

ABSTRACT

Historiographical Discrepancies over Oirad History between Chinese and Mongolian Academia

Shim Hosung

The Oirads are a Mongolic people, who primarily speak a Mongolian dialect known as Oirad (or sometimes Kalmyk) and adhere to Tibetan Buddhism. Currently, Oirads are concentrated in such regions as northern Xinjiang, western parts of Inner Mongolia, northern parts of Qinghai in China, central and western parts of Mongolia, and the Kalmyk Republic in Russia. Their history is significant in Chinese, Mongolian, and Russian historiographies due to their past influence and present dispersion across these three countries. Russian scholars emphasize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Oirads (or Kalmyks) but do not necessarily consider Oirad history as part of Russian history. In contrast, Chinese and Mongolian scholars approach Oirad history differently: They incorporate Oirad history as an integral part of their own national histories. Their interpretations and narratives

diverge significantly, often leading to mutually exclusive viewpoints. These differing perspectives stem from the critical role that Oirad history has played in nation-building and territorial claims for both China and Mongolia. Consequently, the narratives surrounding the Oirads may contribute to historic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context, my analysis focuses on comparing representative research works on Oirad history from Chinese and Mongolian academia. By doing so, this article can shed light on another facet of the historical conflict between China and Mongolia.

Keywords: China, Mongolia, Oirad, Russia, Historical Narrative

19세기 후반 니가타의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

김현철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근대 일본의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 관련 규칙의 제정

III. 개항 이후 니가타항의 변화와 외국인의 거류 현황

IV. 니가타항 내 외국인의 거류와 토지·가옥 임차 문제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개항장은 외국인이 이주, 거류하여 새로운 조약, 규칙을 교섭,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항장의 영토와 주권이 침해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영국 등 5개국과의 수호 통상 조약에 의해 하코다테,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니가타의 5개 항구를 개항하였다. 이 5개 개항장 중에서 필자가 니가타(新潟)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열도 서해안에 위치한 니가타(新潟)는 일본 동해안에 위치한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규모나 거류지 관련된 이슈도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니가타는 일본 내 다른 개항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거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니가타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 기존의 다른 개항장의 경험과 관련 조약의 처리과정이 참조가 되었다. 즉, 니가타항은 일본의 5개 개항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개항되고 개발되어 외국인과의 마찰이나 갈등에 대처하거나 외교 협상 시 기존의 다른 개항장의 사례와 경험을 참조하여 일본 정부나 해당 현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개항장과 달리, 니가타항 개항과정에서 주변의 보조항이 같이 개항되었다. 니가타시 주변에 위치한 에비스항[夷港, 현재의 사도섬의 료츠항(兩津港)]은 니가타항 개항 당시 보조항으로 개항되었으며, 니가타항에 건너온 외국인들이 사도섬에 들어가는 출입항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니가타의 개항과정을 돌이켜 볼 때, 니가타항뿐만 아니라 에비스항의 개항도 같이 연계시켜

* 투고: 2024년 4월 14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3-기획연구-06).

파악해야 한다. 개항 이후 외국인의 도래와 거류지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에서 니가타의 경우에도 건너온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의 거주가 니가타항과 에비스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니가타항 개항 이후 건너온 외국인에 대한 일본 내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 국가에서 건너와 니가타에 거류하는 경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니가타항은 나가사키, 요코하마 등 다른 개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편이다. 최근 들어 개항장으로서 니가타의 특성과 역사적 운영과정에 주목하여서, 니가타항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료들을 소개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연구들이 있다.¹ 이 외에 건축, 도시공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개항 당시 니가타를 포함하여 개항장의 외국인 거류지의 구체적 입지 현황과 부지 면적 등의 확장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² 개항 이후 니가타의 변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개항 150주년을 맞아 니가타시 차원에서 정리되었다.³ 그리고 20세기 초 러일전쟁 이후 일본 내에서 대륙진출 및 환동해 지역 진출의 거점항구로서 니가타의 지리적·경제적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였다.⁴ 20세기 초 이후 니가타항의 본격적인 항만 건설과정과 한반도와 관련지어서 북선 항로 개설과정이 연구되었다.⁵ 또한 1945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니가타 지역의 역사문제와

1 이에 대해서는 青柳正俊, 2016, 「雑居地新潟に関する一考察-「外国人の居留地外居住問題」をめぐる展開」, 『東北アジア研究』, 20을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村田明久, 1990.8, 「外国人居留地の建設過程と計画手法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報告集』第414号를 참조.

3 新潟市 編輯・發行, 2018, 『図説 新潟開港150年史』, 新潟市歴史博物館.

4 이에 대해서는 배규성, 2018,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환동해 인식 및 접근에 대한 연구: 니가타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조사보고서』(1907)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5권 제1호, 93~118쪽 참조.

5 이에 대해서는 김윤미 2019, 「일본 니가타항을 통해 본 '제국'의 환동해 교통망」, 『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이규태, 2015, 「일본의 동해횡단항로의 개척과 전개」, 『도서문화』 45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이규태·김백영, 2017,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동해군용정기항로의 설치와 운용」, 『도서문화』 49집, 목포대학교 도

한일관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검토하였으며,⁶ 1945년 이후 니가타항을 포함한 니기타 지역의 발전 전략을 강구해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⁷ 이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니가타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도섬 에비스항과 연계하여 살펴본 경우는 드문 편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내에서 니가타 지역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그 시기는 주로 20세기초 이후여서, 19세기 후반 개항과정에서 외국인의 도래와 거주 및 에비스항의 개항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19세기 후반 니가타항과 사도섬 에비스항이 개항되기까지의 과정을 서구와 체결한 관련 조약 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니가타와 사도섬에 외국인들이 건너가게 되는 과정과 니가타항 내 외국인 거류로 인한 토지 임차 문제의 대두와 그 처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대 일본의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 관련 규칙의 제정

1. 서구와 수호통상조약 체결과 니가타, 사도섬의 개항

1858년 막부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 등과 체결한 일련의 수호통상조약에 의해, 하코다테·요코하마·고베·나가사키 등이 개항되었다. 1858년(안세이 5년) 6월 19일 조인한 미일수호통상조약 제3조에서 개항장으로 시모다, 하코다테 밖,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또는 일본 서해안의 한 항구), 효고의 개항기일, 시모다를 폐쇄하는 기일, 개시장(開市場)으로서 에도, 오사카를 개시(開市)하는 기일이 정해졌다. 니가타항은 조약 체결 시에는 1860년 1월 1일 개항하

서문화연구원 참조.

6 정미애, 2002, 『니가타에서 본 한일관계』, 제이앤씨.

7 양기호, 1994, 「일본 니가타현의 지역발전 전략」, 『지역발전연구』 제4집.

기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항구들에 비해 늦은 1869년에 개항되었다.⁸

또한 미일수호통상조약 제7조에서 가나가와, 하코다테, 효고, 나가사키, 니가타의 각 유보규정(遊歩規程)이 약정되었다.⁹ 일본이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와 체결한 개항 관련 조약 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거주 범위와 토지 매매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니가타의 개항 시기와 개항장 내 외국인의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1858년 일본과 미국 간에 체결된 미일수호통상조약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니가타의 경우 개방하는 기한으로서 무오년 3월에서 20개월 후부터(1860년 1월 1일) 개방한다. 만약 니가타를 개항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인근에 항구 하나를 별도로 선정한다.

… 이 조약에 기재한 각 지역은 미국인에게 거주를 허가한다. 거주자는 일정한 토지를 값을 지불하고 빌리거나, 그곳의 건물을 사도 지장없다. 또한 주택, 창고를 세우는 일도 허락한다. 다만 이들 건물에 기대어 요새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규칙을 견고히 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개조, 보수하고자 할 때 일본 관리가 이를 조사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미국인이 건물을 빌릴 수 있는 일정 장소 및 항구마다의 정칙(定則)은 각 항 관리와 미국 영사가 정한다. 만약 의론하여 정하기 어려울 경우는 그 사건을 일본 정부와 미 공사에게 보여 처리하게 한다. 거주지 주위에 문과 담을 세우지 말고 출입을

8 이상 미국·영국 등 5개국과의 수호통상조약(‘안세이(安政) 5개국 조약’으로도 불림)에 의해 일본 내 개항·개시된 장소와 실제 날짜는 다음과 같다.

* 개항장(開港場): 가나가와(神奈川〈横浜〉, 1859년 7월 1일), 나가사키(長崎, 1859년 7월 1일), 하코다테(箱館〈函館〉), 1859년 7월 1일), 효고(兵庫〈神戸〉, 1868년 1월 1일), 니가타(新潟, 1869년 1월 1일)

* 개시장(開市場): 오사카(大阪, 1868년 1월 1일), 에도(江戸〈東京〉, 1869년 1월 1일).

川崎晴朗, 2002, 『築地外國人居留地』, 東京: 雄松堂出版, 9~10쪽.

9 大山梓, 1960, 『安政条約と外国人居留地』, 『国際政治』, 1960년 14호, 112쪽.

자유롭게 한다.¹⁰

또한 1858년 체결된 ‘영일수호통상조약 및 무역장정’의 제3조에서 하코다테,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의 개항을 규정하였다. 그중 니가타 개항에 대한 ‘영일수호통상조약 및 무역장정’ 해당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가타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신할 항구를 일본 북해안에서 무오 7월부터 약 16개월 후(1860년 1월 1일) 개방할 것이다.¹¹

아울러 ‘영일수호통상조약 및 무역장정’의 제3조에서는 개항장 항구에서 영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해당 지역에서 영국인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앞서 기재한 각 항 및 시가지에서 영국 신민 거류를 허락한다. 이들은 어느 한 곳의 땅을 임차하고 그곳에 있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주택, 창고를 건설할 수 있으나 이를 세움에 있어 요해의 장소를 영위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르기 위해 그 건물을 건축, 수선할 때에는 일본 관리가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국 신민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한 장소 및 항구별 규정은 각 곳의 일본 관리와 영국 영사가 정할 것이다. 만일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건을 일본 정부와 영국 대사에게 보이고 처치하게 할 것이다. 거류 장소의 주위에는 문과 담장을 세우지 않으며 출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개항 장소에서 영국 신민의 유보 규정 중 니가타는 니가타 치정(治定) 후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되었다.

10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근대 조약과 동아시아 영토침탈 관련 자료 선집 II』, 동북아역사재단, 173~174쪽. 이 조항들이 포함된 ‘미일수호통상조약 및 무역장정’의 체결 배경과 주요 내용, 일본어 원문 및 한글 번역문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위의 책, 161~182쪽 참조.

11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위의 책, 197~198쪽. 이상 ‘영일수호통상조약 및 무역장정’의 체결 배경과 주요 내용, 일본어, 영어 원문 및 한글 번역문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위의 책, 182~228쪽 참조.

영일수호통상조약상의 이러한 내용들은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미일수호통상조약의 관련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 하겠다.¹²

이후 서구 각국은 1867년 니가타시 근처 사도섬(佐渡島)의 에비스(夷)항을 보호항으로 지정한 후 니가타항에 외국인 거류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867년(계오 3) 10월 29일 ‘니가타사주에비스항외국인거류협정(新潟佐州夷港外国人居留取極)’이 체결되었다.¹³ 동 협정 제7조에 니가타 및 에비스항에 외국인의 주거 창고 시설 및 토지 임대를 규정하고, “또한 별도로 거류지(居留地)를 정한다”라고 명기되었다.¹⁴ 메이지 신정부하에서 1869년에 체결된 ‘오(오스트리아-헝가리)·일 수호통상항해조약’의 제3조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구체적으로 니가타와 에비스항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니가타, 하코다테에서는 사방 10리로 한다. 에비스항에서는 사슈섬 전역(佐州全島)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¹⁵ 위 조약들의 내용으로 볼 때,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과 영일수호통상조약에서는 니가타를 개항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인근의 다른 항구를 개항할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1869년 오·일 수호통상항해조약에서 니가타항 이외에 사도섬의 에비스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점이 주목된다.

12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위의 책, 198쪽. 이상 개항장에서 영국 신민의 유보규정은 미일수호통상조약의 제7조 내용과 동일하다. 미일수호통상조약의 제7조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위의 책, 175쪽 참조.

13 니가타 개항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각국 공사관과 주고받은 서한과 공문을 모은 문서로 外務省 外交史料館, 「新潟開港一件並附屬書類」(明治 元年-九年)가 있다. 여기에는 1870년 8월 11일자로 파크스 영국공사가 데라시마(寺島宗則) 대보(大輔)에게 “新潟夷港外国人居留地規則 其外ノ意”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도 포함된다. 이 자료들은 2024년 5월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홈페이지(<http://www.jacar.go.jp>)에서 검색 및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14 大山梓, 1960, 앞의 글, 112~117쪽.

15 ‘오(오스트리아-헝가리)·일 수호통상항해조약’의 일본어본의 한글 번역본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앞의 책, 255~262쪽, 일본어 원문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위의 책, 242~249쪽 참조.

위 3개 조약이 체결된 약 10년간 일본 내 개항시기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미일수호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상업 또는 거주 무역을 위해, 186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에도(지금의 도쿄)에 체류(逗留)하는 것을 허용하고, 186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오사카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니가타 또는 이를 대신하는 일본 서해안의 한 항구는 1860년 1월 1일부터 개항해야 했다.

그러나 막부 말기의 정세는 이러한 개시 및 개항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연기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862년 6월 6일 일본과 영국 간에 체결된 런던각서에 의해 효고와 니가타의 개항, 그리고 오사카, 에도의 개시를 5년간 연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막부 말기에 니가타 및 에비스항의 개항 실시를 1868년 3월 9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신의 전란으로 메이지 정부는 니가타 지방이 지배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개항 연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등 서구 각국은 개항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니가타 항에 외국 상선을 회항시켜 이 지역의 전투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결국 메이지 신정부는 서구 각국 공사에게 니가타 및 에비스항은 1868년(메이지 원년) 11월 19일(서력 1869년 1월 1일)부터 개항한다고 통보했다.¹⁶ 그 이전 니가타 개항에 임박하여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가 내항하여 에비스항이 적합한지 검토 분석하였다. 원래는 노토(能登)반도의 나나오항(七尾港)을 보조항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나나오(七尾)는 번령(藩領)이어서, 양이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일본 국내정세에서 외국인이 이곳에 왕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낀 막부는 직할지(天領) 사도의 에비스항을 보조항으로 선택하였다.¹⁷

16 大山梓, 1960, 앞의 글, 122쪽.

17 野口敏樹, 2016, 「七港開港までの夷港のあゆみ-兩津開港150年時代を迎えて-」, 野口敏樹, 『佐渡人のくらしをつむぐ』, 佐渡ジャーナル社, 72~74쪽.

2. 일본 개항장 내 외국인 거류지 현황과 거류지 관련 규칙의 제정

위에서 살펴본 조약들에서 니가타를 포함하여 5개 항구의 무역활동을 위해 개항장과 외국인 거류지 설정 등이 규정되었다. 서구와 체결된 이들 조약에 근거하여 가나가와, 나가사키, 하코다테 세 항구에도 1873년 이후 외국무역이 시작되었고, 외국인의 거주무역을 위한 각 거류지의 설정도 필요하게 되었다. 각 개항장에는 외국인의 영주(永住)가 인정되어 거주외국인은 하나의 토지를 임차하고 여기에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주택·창고를 건설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창고 건설을 명목으로 요새나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항장의 지역구획 및 항만 규정은 외국 영사와 지방관헌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와 해당국 외교대표 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¹⁸ 또한 개항 당시 일본 내 외국인들은 개항장·거류지로부터 10리(약 40km) 이내의 이동과 여행은 허용되었지만, 그 이상의 여행은 외무성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불평등조약 개정에 따라 1899년 외국인 거류지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¹⁹

개항 당시 처음에는 일본인과의 잡거는 상정되지 않았다. 그후 하코다테·고베·니가타의 3곳에서 잡거지가 성립되었으나, 그 과정은 3개 도시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개항 이후 일본 내 외국인 거류지를 구분짓는 용어 중의 하나인 ‘잡거지(雜居地)’라는 말은 외국인 거류민의 거주와 상업 활동을 위해 마련된 전용구역인 ‘거류지’와 대비되어 그 명칭 그대로 일본인과 외국인이 섞여 사는(混住) 구역이었다. 이들 개항장에서 당시 거류지와 잡거지의 현황을 개괄하면 <표 1>과 같다.

18 大山梓, 1960, 앞의 글, 112쪽. 이에 따라 나가사키, 요코하마, 하코다테, 오사카 등 개항장의 거류지 규칙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大山梓, 1960, 위의 글, 112~122쪽 참조.

19 山田耕太, 2022, 「開港場新潟に來た外国人居留者」, 『敬和學園大學人文社會科學研究所年報』 No. 20, 57쪽.

〈표 1〉 일본 개항개시(開港開市)에서 거류지(居留地)와 잡거지(雜居地) 현황²⁰

(단위: 평)

항구	개항개시 (開港開市)의 구분	거류지(居留地)의 유무 여부	거류지 면적 (1885년의 경우)	잡거지(雜居地) 의 유무 여부	영구임차토지 (永代借地) 면적 (1899년)
하코다테 (函館)	개항(開港)	있음	1,730	있음	5,800
요코하마 (横浜)	개항	있음	348,197	없음	326,335
나가사키 (長崎)	개항	있음	105,787	없음	105,041
고베 (神戸)	개항	있음	49,645	있음	40,167
오사카 (大阪)	개시(開市) (나중에 개항)	있음	7,747	있음	10,415
도쿄 (東京)	개시	있음	26,162	있음	29,192
니가타 (新潟)	개항	없음	0	있음	0

위와 같이 개항 관련 조약의 규정에 따라 1899년 일본과 외국들 간 개정조약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거주는 원칙적으로 거류지와 잡거지의 구역 내로 한정되었다. 다만 이 원칙의 예외로서 거류지외의 거주가 인정된 외국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공사관의 직원 및 고용된 외국인이었다. 실제로 일종의 편법으로서 고용된 외국인이 자기가 소속하는 시설(학교 등) 내, 또는 고용주가 소유하는 가옥에 거주하는 것도 인정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토지임차거래를 관리, 통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정되었다. 대표적 예로서 1874년 8월 12일 일본 정부가 공포한 ‘태정관(太政官) 포고 제85호’에는 거류지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토지와 가옥을 빌릴(賃家賃地) 때에는 빌려

20 青柳正俊, 2016, 앞의 글, 3쪽에 실린 표를 재인용함.

주는 일본인이 임차계약서의 원문인 약정초안을 첨가하고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문의하며, 그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고지되어 있다.

그리고 1874년 8월 22일 일본 내무성(內務省)은 개항개시를 관할하는 지방청인 개척사(開拓使), 가나가와현, 나가사키현, 효고현, 오사카부, 도쿄부, 니가타현에 위의 태정관포고의 취지를 철저하게 반영하여 실제 수속절차를 지시하는 공문을 통지하였다. 내무성 지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빌린 사람(借主)이 직무를 떠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빌린 집에서 퇴거시키며(제1조), 빌린 사람 이외의 외국인이 동거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조), 빌린 사람이 부지 내에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여 그것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것(제3조) 등 태정관 포고의 취지가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²¹

위에서 살펴본 ‘외국인의 거류지 외 문제’에 관한 태정관 포고 제85호와 내무성 지시공문을 합하여 ‘1874년(메이지 7)의 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도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각국 공사관은 도쿄 지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태정관포고 제85호는 도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니가타는 다른 개항장의 외국인 거류지에 비해 외국인 거류자 수가 매우 적었고, 연도별로 보면 매년 약간 명, 많을 때에도 20명 정도였다. 이에 비해 요코하마와 고베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도쿄와 오사카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도쿄에서는 쓰키지(築地)에, 오사카에서는 가와구치(川口)에 ‘카이시(開市)’라는 명칭으로 외국인 거류지가 조성되었다.²² 그리하여 일본 내 7개의 개항개시(開港開市) 중에서 니가타의 경우는 별도의 외국인 토지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 거류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그 전역이 내외국인이 혼거하는 구역, 즉

21 태정관포고 제85호와 내무성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靑柳正俊, 2016, 앞의 글, 6~7쪽 참조.

22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57~58쪽.

‘잡거지’로 여겨졌다.²³

니가타와 에비스항의 외국인 거류에 관한 규칙으로서 1867년 11월에 체결된 ‘니가타사주에비스항외국인거류협정’에서 니가타와 에비스항은 별도의 외국인 거류지를 설치하지 않고, 외국인은 지방관현인 니가타 봉행소의 관할구역에서 일본인과 잡거(雜居)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니가타와 에비스항 두 곳에서 외국인은 일본인을 상대로 여인숙, 주거 또는 창고를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고, 정당한 용도의 땅을 빌리는 것(借入)도 인정되었으며 특별히 거류지를 정하지 않았다.²⁴ 다른 개항장의 경우 별도의 외국인 거류지가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잡거지’에 대해 운영 규정이 있었으나, 니가타의 경우 ‘잡거지’라고 하여도 기존 개항장의 ‘잡거지’ 규정과 똑같이 운영될 수는 없었다.

III. 개항 이후 니가타항의 변화와 외국인의 거류 현황

1. 개항 이후 니가타항의 확장과 항로의 개설

일본 니가타현의 중심인 니가타 시내에서 동해 연안과 시나노강(信濃川) 사이에 위치한 니가타시마(新潟島) 지역은 북쪽 지방으로 떠나는 선박의 기항지(寄港地)였다. 에도막부는 1843년 니가타를 서일본의 해운거점지로 지정하고 막부의 영지에 편입하였다. 막부는 니가타에 행정기관으로 봉행소(奉行所)를 설치하고 외국 선박들을 경계하기 위한 군사시설로 해안에 방어시설물을 구축하였다.²⁵

23 青柳正俊, 2016, 앞의 글, 2쪽.

24 野口敏樹, 2016, 앞의 글, 72, 74쪽; 大山梓, 1960, 앞의 글, 122쪽.

25 고대로부터 19세기 후반 개항 이전까지 니가타항의 변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新潟市 編輯・發行, 2018, 앞의 책, 7~30쪽 참조.

개항 당시 시나노강 하구에 위치한 니가타항은 하천의 경사가 심하고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없는 불리한 입지조건이었다. 당시 니가타주재 영국 외교관들은 니가타항의 입지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보고하였다. 1869년부터 영사 대리로 활동한 제임스 트루프(James Troup)는 무역항으로서의 니가타항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크스 공사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는 니가타항에서 무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서 당시 위조지폐가 유통되고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의 신뢰성이 낮고 니가타의 항만시설이 미비한 점 등을 거론하였다. 니가타항의 한계로서, 해로로는 주로 요코하마항에서 니가타항으로 물품이 수입되고, 육로로는 일본상인들이 운송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왔다. 쌀 거래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점과 일본의 상관습, 그리고 니가타항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5월부터 11월까지로 1년 중 반년 가까이 눈과 폭풍우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니가타항의 불리한 여건으로 지적하였다.²⁶ 이후 1872년 5월에 니가타 영국 부영사로 부임한 제임스 엔슬리(James J. Ensly)도 왔든 참사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니가타항이 수심이 얕고 앞바다에는 대형 선박이 정박할 곳이 없으며, 에비스항과 니가타항의 왕래가 극히 불편하여 보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²⁷

니가타항은 시나노강 하구(信濃川河)에 위치한 항구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적인 선박인 기타마에부네(北前船)²⁸와는 다른 대형 서양식 선박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준설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니가타에서는 1868년에 호쿠

26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1870년 1월 25일자 제임스 트루프 니가타 영국 영사가 파크스 주일 공사에게 보낸 보고서(F.O. 262/176, Troup to Parkes, January 25, 1870) 원문(영어)의 자세한 내용은 青柳正俊, 2021a, 「開港新潟の対外関係と居留外国人」, 新潟大学博士學位論文의 부록 1~10쪽에 수록된 '1869年に関する年次報告'를 참조.

27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59~60쪽.

28 기타마에부네(北前船)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일본의 연안해역에서 화물을 운반한 선박을 지칭하며, 서양식으로 제조된 선박들과 구분된다. 니가타에서는 기타마에부네를 포함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배를 가이센(回船)이라고 지칭한다.



그림 1 니가타항 실측도(1875년 측량)²⁹

에쓰무신전쟁(北越戊辰戦争)이 발발하여 다른 항구보다 1년 늦은 1869년 11월 19일에 개항했다. 이후 니가타항은 하천 개수와 제방봉사를 통해 대형선박의 정박이 가능하게 항만시설을 확장해가면서 <그림 1>의 모습과 같이 근대 항구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³⁰

에도시대부터 니가타항은 서해안지역의 물류거점이었으며, 이곳에서 수송하는 수출품의 대부분은 쌀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이 사할린, 연해주, 캄차카반도 해역으로 나가 연어와 송어 잡이가 번성하자, 니가타항은 북양어업의 중계항으로 변창하게 되었다.³¹ 실제로 개항 이후 니가타항에 다음과 같이 일본 국내

29 니가타대신궁(新潟大神宮)이 소장하고 있는 「니가타항실측도(新潟港實測圖)」는 “1875(明治8)年の新潟町と堀”라는 제목하에 니가타시 역사박물관 미나토피아 내에 전시된 것을 필자가 2022년 11월 촬영한 것이다. 이 제도의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細井將右, 2020, 「明治前期ジュルダンらの新潟港図と永井獨楽造」, 日本地理学会, 『2020年度日本地理学会秋季学術大会 発表要旨集』, 2020.10.10.~11.22를 참조.

30 개항 이후 니가타항의 변화와 확장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관련 사진, 지도 등 자료에 대해서는 新潟市 編輯・發行, 2018, 앞의 책, 32~78쪽 참조.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 선박이 출입하면서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1869년 니가타항이 개항한 첫해에는 연간 40척에 가까운 외국 선박이 드나들었고, 외국인 체류자가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요코하마나 요고(요코) 등 일본 내 다른 항구와의 왕래였다. 이어 1871년부터 1877년까지는 항구가 하구에 있어 수심이 깊지 않고, 항구의 정박지가 외해(外海)와 차단되지 않아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대형 선박 출입에 부적합하여 외국 선박의 왕래는 연간 10척 이하로 정체되어갔다. 무역액도 매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878년에 예외적으로 연간 30척 이상의 선박이 드나들면서 이해에만 당시 금액으로 1,000엔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기근이 발생하여 니가타에서 대량의 쌀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 후 1879년부터 1883년까지는 니가타항에 외국 선박의 왕래가 거의 없어 다시 침체되었다가 1884년 연간 몇 척의 외국 선박 왕래를 마지막으로 외국 선박이 끊겼다. 그 대신 1887년 이후부터는 일본 선박의 왕래가 점차 늘어나면서 거래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주로 요코하마, 고베 등 다른 개항장에서 니가타로 운반된 주요 수입품은 면사를 비롯한 면제품, 모직물, 철 등 금속제품이었고, 니가타에서 다른 개항장을 경유한 주요 수출품은 쌀, 차, 생사를 비롯한 비단제품이었다.³²

개항을 계기로 니가타항에서 일본 국내 및 해외로 나가는 항로가 개설되었다. 1879년에 니가타물산회사(新潟物産会社)가 설립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893년 해산하였다. 이것이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정기항로 개설 운동의 기점이 되어 1896년 니가타-블라디보스토크-카라프트 간 정부 보조에 의한 정기항로가 시작되었다. 1891년 5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철도가 착공되자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럽과 연결되는 동양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96년 10월 보조금을 지급하여

31 이규태, 2015, 앞의 글, 101~105쪽.

32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58~59쪽.

체신성 특별보호항로로서 ‘니가타-블라디보스토크’ 정기항로를 개설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동해횡단항로였다. 부정기적이었지만 무역은 계속되어 1892년에는 사쓰키마루(五月丸)호가 ‘니가타-블라디보스토크’ 간을 수차례 왕복하였다.³³ 1902년 일본 정부는 일본 연안과 한반도 연안을 일주하면서 대각선으로 동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개설하였다. 당시 새로 개설된 항로는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동해를 일주하면서 대각선으로 동해를 횡단하는 ‘갑선(甲線)’ 및 ‘을선(乙線)’으로 구성되었다. 이 갑선과 을선 항로 모두 쓰루가(敦賀)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되었으며, 이후 ‘쓰루가-블라디보스토크’ 항로는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간선이 되었다. 이들 항로에 니가타와 에비스항이 경유지 중의 한 곳이었다.³⁴

2. 니가타항에 온 외국인들의 규모와 특징

개항 당시 일본 내 외국인 거류자 중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왔다. 외국 정부에서 파견된 외교관이나 민간인, 일본의 국가나 지방 현에서 고용한 ‘고용 외국인’이 있었다. 고용 외국인 중에는 식산흥업을 위해 일한 기술자, 영어 교사나 의학 교사 등 교육자, 무역상, 선교사 등이 있었다.³⁵ 개항 이후 외국인 거류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일본 외무성 기록에 따르면, 1888년 외국인 거류자 규모가 요코하마는 4,494명, 고베는 1,110명, 나가사키는 1,005명, 도쿄의 쓰키지는 773명, 오사카의 가와구치는 280명, 하코다테는 93명이었으

33 이규태, 2015, 앞의 글, 101~105쪽.

34 당시 ‘갑선(甲線)’ 및 ‘을선(乙線)’의 구체적 항로에 대해서는 이규태, 2015, 위의 글, 107~110쪽 참조.

35 거류지 외국인이란 일반적으로 거류지 또는 잡거지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행이나 방문, 조사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한 외국인 체류자는 외국인 거류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58~60쪽.

나, 니가타는 20명에 불과하였다. 1868~1899년에 걸쳐 개항장 니가타에 거주한 외국인 거류자의 총수는 어린이를 제외하고 100명 정도로 알려졌다.³⁶

다른 개항장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개항장 니가타에 온 외국인 거류자들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니가타에서도 1869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개항한 직후에는 15~2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류했다. 그 후 1872년 니가타현령으로 부임한 구스모토 마사타카(楠本正隆)에 의해 본격적인 개화 시책이 전개되고 1873년 기독교 포교 금지가 해제되는 것을 배경으로 니가타 내 거류하는 외국인들이 등장하였다. 이 무렵에는 관립학교인 양학교, 의학교에 고용된 외국인이 몇 명 초청되었으며, 기독교 포교를 위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주하고, 몇 명의 외국인 상인이 진출하였다.³⁷

니가타 영국영사가 개항 직후인 1869~1880년대에 걸쳐 니가타 거주 외국인수의 추이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그중 사도섬에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76년 말: 현재 여기(니가타 지칭) 영사구역에는 21명(어린이는 제외)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영국인이 19명임. 니가타에 18명, 사도(佐渡)에 3명임. 니가타에 거주하는 18명 중에서 3명의 독일인이 회사를 만들어 교역에 관여하고 있음.³⁸

36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76쪽. 개항당시 니가타항의 모습과 외국인 거류지의 분포를 표시한 지도로서 1881년 12월에 작성된 「니가타항실측도(新潟港実測図)」와 「니가타구전도(新潟区全図)」로 보는 외국인 거류지(1880-1882년)가 있다. 新潟居留地研究会, 『新潟開港150周年記念 第13回 外國人居留地研究会 2020全國大會 新潟大會-居留地のリベラルアーツ教育』發表資料集, 2020년 9월 21-22일, 23쪽 참조.

37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58~60쪽.

38 青柳正俊, 2021a, 앞의 글, 159쪽에 실린 ‘표 32: 니가타의 외국인수의 추이’의 내용을 재인용함.

니가타에 건너온 외국인들을 직종별-직업별로 살펴보면 영사-무역상 등이 17명으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고용외국인이 21명으로 두 번째이다. 이들이 온 것은 개항 후 몇 년 이내의 초창기이며, 대부분 개항 후 10년 이내에 떠났는데, 니가타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 무역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많은 것은 선교사 신분으로 온 사람들로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영어 교사로 온 사람들이 전체 외국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이들 영어 교육자들은 관립학교에 고용되거나,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

다음으로 개항장 니가타에 온 거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35명으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선교사이다. 그다음으로 많은 프랑스인은 약 30명으로 모두 파리와방선교회와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선교사들이다.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영사관계, 광산관계, 관립학교의 영어 교사, 선교사 등 각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일본 전체 고용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인이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는 독일과 네덜란드 7명으로 상인이 눈에 띈다. 그 다음이 캐나다 교사 3명,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요리사 1명이다. 일본 개항장 내 다른 거류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노동자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리하여 니가타에서는 차이나타운(中華街)이 형성되지 않았다.³⁹ 개항 초기 니가타 시 내에 거류한 외국인들의 국적과 규모를 각 시기별로 조사한 <표 2>에 의하면, 미국인, 영국인 등 서구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거류한 것으로 보인다.

개항 초기인 1869년부터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은 영사에 해당하는 직책을 두었다. 영국은 외교관인 영사, 부영사 등이 무역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독일인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미국은 주로 상인 등 민간인에게 영사, 부영사 등의 직무를 위임하였다. 니가타항 개항과 동시에 가장 먼저 영사를 두

39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75~76쪽. 당시 니가타에 거류한 외국인의 성명과 국적 분류에 대해서는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79~84쪽 참조.

〈표 2〉 개항 직후 니가타초(新潟町)에 거류한 외국인의 추이⁴⁰

조사 연월	1869년 11월	1871년 9월	1872년 3월	1873년 1월	1873년 11월	1874년 1월	1874년 7월	1876년	1878년	1879년
국적										
미국	4명							2명		
영국	2명		2명		2명	2명	3명	10명	7명	6명
네덜란드	6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2명	3명
프랑스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1명	2명	3명	3명
독일	4명	2명	2명	3명	3명	3명	3명	4명	3명	3명
이탈리아								1명	1명	1명
스위스	1명									
중국		1명	2명	1명	1명					
계	18명	5명	8명	7명	8명	8명	8명	21명	16명	16명

고 영사관을 개설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니가타의 첫 번째 영국 영사는 존 F. 로더(John Fredric Lauder)였다. 로더는 1869년 경비관 존 피츠제럴드(John Fitzgerald), 외국인을 경호하는 별동대 10명과 함께 육로로 니가타에 도착하였다. 데라마치(寺町)의 가쓰라쿠지(勝樂寺)에 영국 영사관을 개설하고 일본인 서기 1명, 잡역부 1명, 경비원 1명 총 3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로더는 니가타의 무역항으로서의 장래성에 대해 화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과 항만 시설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에게 보고하고 반년 후인 1869년에 가나가와(요코하마) 영사관으로 돌아갔다. 초대 영사인 로더의 뒤를 이어 제임스 트루프(James Troup)가 1869년부터 1871년까지 약 2년간 영사 대리로 활동하였다.⁴¹

40 『新潟市史』通史編 3에 수록, 『新潟市史』通史編 3, 新潟市 編輯・發行, 2018, 앞의 책, 41쪽에 실린 표 재인용.

41 山田耕太, 2022, 앞의 글, 59~60쪽. 개항 당시 니가타에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등 외국 영사관의 설치과정과 외교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개항 이후 일본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유럽과 미국의 학자, 기술자 등을 고용해 일본인에게 지식과 기술을 직접 전수하는 ‘고용 외국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중에서도 식산흥업을 위해 공부성(工部省) 관련 고용 외국인이 많았고, 출신 국가는 1900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순으로 많았다. 그 정점은 1874~1875년으로 총수는 연간 600명을 넘었다. 그 후 급속히 감소하여 두 번째 정점인 1889년에는 200명을 넘어섰지만 그 후 다시 감소하였다. 개항장 니가타에도 1869년부터 1880년 사이에 공부성 관계 9명, 문부성 관계 4명, 현청(県庁) 관계 9명 총 22명의 고용 외국인이 왔다.

그중 공학(工学) 관계를 보면, 공부성에서 고용한 사도섬 광산(佐渡金山) 관계자가 7명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니가타현에서 고용된 선박 관련된 2명이다. 영국인 에라스무스 H. M. 가와어(Erasmus H. M. Gower)는 막부 말기에 에도 막부에 고용되어 홋카이도의 가야누마(萱沼) 탄광 개발을 담당하였다. 가와어는 1868년에 광산 조사를 위해 사도섬(佐渡)에 한 번 왔지만, 에도 막부가 폐망하자 사도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메이지 정부에 고용되어 1869년에 아이카와(相川) 광산을 조사하고, 1870년 7월에 영국인 제임스 스콧을 데리고 사도로 부임하였다. 가와어는 채광에 처음으로 화약을 사용했고, 광석의 운반 방법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깔아 기계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한 기계를 정비한 제광소는 실패하면서 1873년에 해고되었다. 한편, 스콧은 1881년 11월까지 11년간 기계 겸 제광사(機械兼製鉱師)로 일하며 사도 광산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⁴²

1873년 10월 가와어를 대신하여, 미국인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세계 각지의 광산을 돌아다닌 알렉시스 제닌(Alexis Jenin)이 부임하였다. 제닌은 용광로를 건설하고 개갱사(開坑師) 겸 제광사로 1876년 10월까지 사도에 머물렀다. 1873년 11월에는 독일인 아돌프 레(Adolph Reh)가 개갱사 겸

는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59~63쪽 참조.

42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63쪽.

제광사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사도 광산에서 수갱을 파고 있지 않았으나 아돌프 레가 온 이후 1875년부터 3년에 걸쳐 대수갱(大堅坑)을 개삭하고 갱내를 통합 정리하였으며 1878년에 사도를 떠났다. 또한 1873년 3월에는 제임스 데일(James Dale), 존 시몬스(John Simmons), 토마스 트렐러(Thomas Treloar) 등 3명의 영국인 광부가 고용되었다. 데일은 1874년 11월까지, 시몬스는 1876년까지, 트렐러는 1877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⁴³

사도 광산 이외에 고용된 외국인으로는 선박 관계자 2명을 들 수 있다. ‘니가타사주에비스항외국인거류협정’ 제3조에 따라 폭풍 등으로 니가타항에 입항할 수 없을 때 피난할 수 있는 보조항으로 에비스항을 개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니가타항과 사도섬의 에비스항 사이를 운항하기 위해 증기선을 건조하고 조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1871년 영국인 니콜 맥니콜(Nichol McNichol)이 고용되어 사도섬의 가모코 호숫가(加茂湖岸)에서 일본 최초의 증기선 니가타마루(新潟丸)를 건조하였다. 당시 증기선을 운전, 조종할 수 있는 일본인이 없어서, 니가타현은 1869년경부터 니가타에 거주한 네덜란드 상인 제임스 반덴 보펜 파그(James, v. B. Fagg)에게 1872년부터 1874년까지 증기선의 조종을 맡기면서 일본인이 조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하였다.⁴⁴

그리고 니가타에 온 선교사 중 프랑스의 도르와르 드 레제 신부는 에비스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레제 신부는 1877년 사도섬 내 적박항(赤迫港)에서 당시 유명했던 눈병을 치료하면서 섬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레제 신부의 선교 활동 결과로 에비스축지(夷築地)에 천주당[나중에 료츠교회(兩津教會)]이 건립되었고, 이후 사도 내 최초의 기독교 거점이 되었다.⁴⁵

43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63~64쪽.

44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64쪽. 이 외에 개항 당시 니가타항에 건너온 영어교사 등 교육관계 종사자와 의사, 선교사들에 대한 분류와 외국인 명단은 山田耕太, 2022, 위의 글, 64~84쪽 참조.

45 野口敏樹, 2016, 앞의 글, 73쪽.

3. 사도섬 에비스항의 개항과 니가타-사도 간 항로의 운행

에비스항에는 1869년에 세관이 설치되었으며, 외국인 거류규칙이 정해졌다. 외국 선박에 대한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니가타항과 에비스항을 오가는 증기선을 건조하도록 규정하였다. 1892년 이타가키 다이ске(板垣退助) 내무대신이 사도섬에 와서 가모코 호수(加茂湖)를 군항으로 할 목적으로 기를 파견하여 에비스항과 가모코 호수를 측량하였으나, 그후 진전되지는 않았다.⁴⁶

니가타 개항의 조건으로 사도 에비스항이 보조항으로 지정된 이후 일본 최초의 철제 증기선 니가타마루가 1871년부터 니가타항과 에비스항 간 연락선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건조한 증기선인 니가타마루와 호쿠에쓰마루(北越丸)는 민간에 임대하여 니가타-에비스 항로를 운항하게 하였다. 신도리마루(新通丸), 산키치마루(三吉丸) 등은 에비스 항로, 사카타(酒田) 항로, 나오에쓰(直江津) 항로에 취항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부정기적이어서 계절에 따라 운항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885년 사도섬에서 옛사기선(越佐汽船)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니가타-에비스 간에 와다쓰마루(度津丸)를 취항시켰다. 와다쓰마루는 연간 100회 이상 왕복 운항했고, 하루 반이면 해협을 건너 사도와 니가타 간의 왕래는 편리해졌다.⁴⁷ 에비스항 개항 이후 당시 기록(『西洋形船舶留記』)에 의하면 니가타-에비스 간 정기적 항로에 취항한 선박들의 현황과 항로는 <표 3>과 같다.⁴⁸

46 野口敏樹, 2016, 위의 글, 73쪽.

47 新潟市歴史博物館 編, 2008, 『海峽を越えて-佐渡と新潟-』, 新潟市歴史博物館, 13~14쪽. 개항 이후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니가타-사도 간 항로를 운항한 선박 현황과 승객의 증가 추세 등 개괄적 설명과 자료는 新潟市歴史博物館 編, 2008, 위의 책, 12~19쪽 참조.

48 관련 표는 新潟市歴史博物館 編, 2008, 위의 책, 13쪽에서 재인용함.

〈표 3〉 니가타-에비스 간 정기항로의 운항 현황

연대	선박명	취항기간	비고
1870~1874	新潟丸	1871년 7월	
	新潟丸	1873년 6~9월	
1881	新通丸	1881년 6~9월	
	新潟丸	1881년 8~12월	
1882	新通丸	1882년 1~12월	
	北越丸	1882년 3~10월	
1883	新潟丸	1883년 1~10월	
	北越丸	1883년 5~12월	
	三吉丸	1883년 6~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第貳号三吉丸	1883년 11~10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1884	第壹号三吉丸	1884년 1~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3월 · 10~12월
	第貳号三吉丸	1884년 3~10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新潟丸	1884년 4~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1월
	北越丸	1884년 5~12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1885	第壹号三吉丸	1885년 1~12월	夷港은 1~5월, 그 외는 酒田航路
	第貳号三吉丸	1885년 1~12월	夷港은 1~5월, 그 외는 酒田航路
	北越丸	1885년 1~12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新潟丸	1885년 3~10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度津丸	1885년 7~12월	
	魁丸	1885년 4~5월	
1886	度津丸	1886년 1~12월	
	第壹号三吉丸	1886년 1~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3월
	第貳号三吉丸	1886년 1~11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3월
	越佐丸	1886년 5~12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夷港은 10~12월

1887	度津丸	1887년 1~12월	
	第壹号三吉丸	1887년 1~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3월,
	第貳号三吉丸	1887년 2~11월	대부분은 函館航路
	越佐丸	1887년 1~3월	
1888	一号度津丸	1888년 1~12월	
	壹号三吉丸	1888년 2~11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2~3월 · 11월
	船名 不明	1888년 7~12월	
1893	壹号度津丸	1893년 1~12월	
	三号度津丸	1893년 1~12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夷港은 1~5월 · 11월 · 12월
	五号度津丸	1893년 1~12월	夷港은 1~4월, 9~12월, 그 외는 直江津航路
	六号度津丸	1893년 10~12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夷港은 11 · 12월
	七号度津丸	1893년 4~12월	대부분은 直江津航路, 夷港은 4월 · 10월 · 11월
	壹号三吉丸	1893년 1~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2월
	三号三吉丸	1893년 1~12월	대부분은 酒田航路, 夷港은 1~3월
	新潟丸	1893년 1~12월	夷港은 1~3월, 9~12월, 그 외는 直江津航路
	魁益丸	1893년 1~6월	

기록에 의하면 사도섬에 간 최초의 조선인은 1889년 궁내성 어료국이 설치한 사도 광산학교(기술자 양성소) 입학생이었다. 1892년 4월 제1회 졸업생 명단에 조선인 박창규(朴昌圭), 구연수(具然壽), 박치운(朴致雲)의 이름이 있다. 이들은 조선 정부의 광산 정책에 따라 입학해 근대 광산학을 배웠다. 미쓰비시광업(주)이 작성한 자료(1902~1929)에서 확인한 조선인 노동자도 21명이다.⁴⁹ 19세

49 정혜경, 2022,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동북아역사리포트』 제7호, 동

위의 기록에 따라 당시 조선인들이 사도섬에 갔다면, 이들은 조선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니가타로 이동하였으며, <표 3>에서 언급한 운항노선을 따라 니가타항에서 사도섬의 출입항구인 에비스항으로 취항했던 선박들을 타고 건너갔을 것으로 보인다.

IV. 니가타항 내 외국인의 거류와 토지·가옥 임차 문제

1. 니가타항의 외국인 토지 임차 문제의 대두와 니가타현의 입장

앞 절에서 살펴본 니가타의 개항 관련 조약에 의해서 외국인은 니가타에 거주하기 위한 토지 가옥을 그 소유자와 계약하여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항장 중 니가타에서는 외국인 전용(專用) 거류지가 없었으나, 외국인 거류지 규칙에 의해 외국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이 니가타 전 지역에 걸쳐 인정되었다.⁵⁰

그럼에도 앞 절에서 살펴본 일본 정부가 지시한 ‘1874년의 조치’ 이후 이를 근거로 니가타에서 외국인이 집을 빌리는 것(借家)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였다.⁵¹ 이후 1875년 니가타에서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주는(賃家) 안건 중에서 ‘1874년의 조치’를 운영하여 적용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75년 4월 다카자와 신시치로(高澤真七郎)가 영국인 선교사 테오볼드 팜(Theobald A. Palm)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니가타현청에 신고하였다. 그 후 니가타현청은 1875년 4월 30일 다카자와 신시치로로부터 제출받은 약정서안을 첨부하여 이를 수락할지

북아역사재단, 1~4쪽 참조.

50 개항 초기 니가타시 내의 토지, 가옥을 외국인에게 빌려준 현황은 新潟市 編輯・發行, 2018, 앞의 책, 41쪽에 수록된 “표- 1870-1882년의 니가타초(新潟町) 민간 소유토지(民有土地), 가옥(家屋)의 외국인 대부(貸付) 상황(狀況)”을 참조.

51 青柳正俊, 2016, 앞의 글, 3~4쪽.

에 대해 내무성에 문의하였다. 구스모토 마사타카(楠本正隆) 니가타현령은 1875년 7월 12일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의견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내무경에게 상신하였다. 즉, 구스모토 니가타현령은 “니가타는 원래 잡거가 허용되던 거류지이며, 다른 개항장에서 거류지 밖에 거주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1874년에 공포한 ‘태정관 포고 제85호’와 같은 해 내무성이 지시한 공문에 따르면 거류지 내에서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에 대해 관청이 간섭하게 된다”고 적었다. 게다가 구스모토 니가타현령은 “외국인에게 토지와 가옥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地家賃借)에 관해서는 토지매도는 인정하지 말 것, 가옥대차는 반환을 주장하는 권리를 잃지 않도록 연한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 등의 너그러운 양해만 통지하고, 그 밖의 세부 항목에 관해서는 모두 관련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데 맡겨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하면서, 앞선 내무성의 지시공문 적용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오쿠보 내무경은 “내무성의 지시공문 그 자체가 너그럽다”고 응답하면서, “니가타현 내 구호장(区戸長)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1875년 8월 난부 노부치카(南部信近) 니가타 현령대리가 니가타현 니가타초(新潟町) 내의 지방 5개 소구(小区) 호장들에게 “외국인에게 가옥 임대는 그때마다 반드시 계약서의 문안을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나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도록 하라”고 공포하여 알리고, 관공서에 사전 문의의 취지를 구내에 철저히 하도록 전하였다. 니가타의 외국인 거류지 문제의 처리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중앙 내무성의 공문과 지시에 따라 니가타현청으로부터 니가타 지방 구내에 관련 사항들이 전달, 지시되었다.⁵²

52 青柳正俊, 2016, 앞의 글, 8~10쪽.

2. 외국인 토지 임대 문제로 인한 갈등과 외교 협상의 전개

이후 니가타 내 외국인 거류지 주택임대를 둘러싼 의견 충돌과 대립 양상은 아래와 같이 니가타현청 대 영국영사관, 일본정부 대 주일영국공사관 간으로 확대되었다.⁵³

그 사례로서 1877년 4월 7일 영국 선교사 파이스(Philipp K. Fayson)은 니가타시 내 갓코우초(学校町) 마을 내에 토지 임차(借地)를 희망하여, 영국 부영사 트루프(James Troup)를 통해 니가타현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나가야마 모리테루(永山盛輝) 니가타현령은 같은 달 4월 10일자로 트루프 영국 부영사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토지 임차에 대해서는 니가타 내 읍(邑)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마치가이쇼(町会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으므로, 토지를 빌려주는 마키오카 데쓰야(牧岡鉄弥)는 이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구장(区長)·호장(戸長)을 통해 니가타마치가이쇼에 신청해야만 한다.” 위에서 니가타 현령이 “니가타마치가이쇼가 규칙을 만들어놓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니가타현청에서 약정서 문안을 산하 지방단체에 보내준 것이었다.⁵⁴

위의 상황을 알게 된 트루프 부영사가 니가타현청에 항의하자, 다음 날인 1877년 4월 11일과 12일 및 4월 23일에 나가야마 현령과의 직접 회담이 이루어졌다. 위 양자 간 협의과정에서 니가타현령은 “장기간의 토지 임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 기한은 최장 3년 정도로서, 갱신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전하였다. 이에 트루프 부영사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트루프 부영사는 니가

53 당시 니가타현, 일본 외무성과 내무성, 니가타 영국영사관, 도쿄의 주일영국공사관 간에 주고 받은 서한과 보고서, 공문들의 원본 사료 중 일부는 外務省 外交史料館, 「新潟居留外国人ニ対シ地所家屋相對貸借關係規則協議一件」第一卷, 1872-1884에 수록되었다. 이 사료들은 2024년 5월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홈페이지(<http://www.jacar.go.jp>)에서 검색 및 PDF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54 青柳正俊, 2021a, 앞의 글, 191~192쪽. 1877년 4월 7일자로 작성된 토지 임대 약정서의 원문 사료 내용은 青柳正俊, 2021a, 위의 글, 192쪽에 게재되어 있다.

타현청과의 현지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니가타현령에게 양국 간 규칙 제정을 위한 협상을 도쿄, 즉 일본 정부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나가야마 현령도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트루프 부영사는 1877년 4월 18일에 도쿄의 파크스 주일공사에게 파이슨의 토지 임차 승인 신청 건을 계기로 전개된 니가타 상황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파크스 공사는 위 서한을 받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였다. 한편, 나가야마 니가타현령도 4월 13일자로 내무성과 외무성에 파이슨으로부터의 토지 임차 신청 건을 전달하였다. 내무성은 당분간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 신청 사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내무성에 문의하도록 니가타현에 지시하였다.⁵⁵

니가타의 외국인 파이슨의 대지 임차 신청 건에 대해 1877년 9월 5일 외무성이 내무성과 협의하여 작성한 약정서 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 연한을 25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또한 도로폭의 준수, 공용을 위한 토지 수용,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⁵⁶

1877년 9월 22일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약정서 문안을 가지고 파크스 주일영국공사와 교섭하였다. 1877년 9월 12일 최초 교섭 시,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외무경은 이 약정서 문안에 원래 일본인들을 규율하기 위해 위한 국내 규칙들이 포함되어있지만 파크스 공사와의 양해사항으로 삼겠다고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는 임차기한을 2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문제삼으면서 반대하였다. 이어 1877년 9월 24일에 열린 제2차 교섭 시에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는 “토지 임차(借地)의 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데라시마 외무경은 “임대연한을 정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영구히 토지를 빌리는 것이 되지 않는가”라고 반박하였다. 그후 1877년 10월 1일 제3차 교섭 시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는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영국인도 토지 임차에 연한은 없으며, 일본 내 다른 개항장은 무기한이어서 니가타가 무기한으로

55 靑柳正俊, 2021a, 위의 글, 193쪽.

56 일본 정부의 약정서 문안 원문 내용은 靑柳正俊, 2021a, 위의 글, 194~195쪽 참조.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데라시마 외무경은 “우리나라(일본)에서도 귀국(영국)과 같을 수는 없다. 니가타는 이미 약속이 끝난 다른 항구와는 다른 이야기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데라시마 외무경과 파크스 주일 공사 간에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교섭 시 쟁점은 토지의 임차연한의 상한이었으나, 일영 양국 간에 타협점이 도출되지 못하였다.⁵⁷

그 후 니가타현청은 위에서 언급한 토지 임차에 대한 일본 정부안을 가지고 니가타 현지에서 토지 임차를 허가해도 좋은가라고 내무성에 문의하였다. 당시 나가야마 니가타현령이 보낸 서한에는 니가타 내 독일인, 프랑스인과도 토지를 대여하는 기한이 만기가 되어 초과된 것도 있어서, 영국 공사와의 담판이 성립 되면, 독일 영사와는 현지에서 담판하고 그 외는 중앙에서 각국 공사와 담판하여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니가타현령의 제안을 받아서 오쿠보 내무경은 1878년 4월 8일 이 제안에 동의한다는 점을 추가하여 데라시마 외무경에게 회부하였다. 이 서한을 받은 데라시마 외무경도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와의 교섭 시 토지 임차연한을 25년으로 정했던 방침을 50년으로 양보한다는 의향을 전하였다. 그러나 오쿠보 도시미치 내무경이 암살당한 후 그 후임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878년 5월 22일자로 외무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니가타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계약을 갱신하면 될 뿐이며, 임차연한 25년이라는 정부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⁵⁸

결국 영-일 양국 간 외국인 토지 임차 약정서안에 대한 교섭이 중단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파이스는 다른 방식을 통해 본인이 희망했던 토지를 사실상 구입하였다. 1877년 11월 1일자로 파이스와 마키오카 데쓰야 간에 작성된 약정은 가옥의 임차였다. 계약서상에서 가옥을 빌리는 사람(借主)인 파이스는 마키오카 데쓰야에게 1,200엔을 지급하

57 데라시마 외무경과 파크스 주일공사 간 교섭 내용은 青柳正俊, 2021a, 위의 글, 195~196쪽 참조.

58 당시 니가타현령과 오쿠보 내무경, 데라시마 외무경 간의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青柳正俊, 2021a, 위의 글, 196~198쪽.

며, 매년 20엔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임차대금은 계약 만기로 해지할 때나 파이슨이 니가타 집에서 퇴거할 경우에 파이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⁵⁹ 1,200엔이라는 당시로서는 큰 액수의 대금 지급은 마키오카가 당초 파이슨이 원했던 니가타시 내 갓코우초의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가옥을 건축하는 자금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파이슨은 약정서상으로 토지 임차(借地)가 아닌 가옥을 빌리는(借家)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당시 ‘니가타사주에비스항외국인거류협정’ 제7조에 가옥의 차입이라면 외국인은 어떠한 유보도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니가타마치가이쇼는 이 임차계약서가 외국인의 토지 임차와는 무관하다고 간주함으로써, 니가타현청에 문의하지 않고 처리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차 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주일영국공사관 간에 협상이 진행되다가 중단됨에 따라, 파이슨은 처음에는 토지를 구입하는 형태에서 자신이 건축비용을 지급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니가타 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⁶⁰

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가타항은 막부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 등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 의해 개항되었으며, 그 특징으로서 다른 개항장과 달리 니가타시 근처 사도섬(佐渡島)의 에비스항이 보조항으로 같이 개항하였다.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과 영일수호통상조약에서는 니가타를 개항

59 당시 파이슨과 마키오카 간 약정서의 내용과 허가 신청과정에 대해서는 靑柳正俊, 2021a, 위의 글, 199~200쪽 참조.

60 靑柳正俊, 2021a, 위의 글, 201~202쪽.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데라시마 외무경 후임으로 부임한 이노우게 가오루(井上馨) 외무경 재임시기 영국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靑柳正俊, 2021a, 위의 글, 202~220쪽 참조.

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인근의 다른 항구를 개항할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약 10년이 지난 1869년 오·일 수호통상항해조약에서는 니가타항 이외에 사도섬의 에비스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이러한 개항조약의 체결 결과, 개항장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빌려 주택과 창고를 건축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1867년 ‘니가타 사주에비스항 외국인 거류협정’에서 니가타항과 에비스항에서는 별도의 외국인 거류지를 설치하지 않고, 일본인과 잡거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다른 개항장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개항장 니가타에 온 외국인 거류자들은 주로 선교사, 외교관, 무역상, 영어교육자들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고용한 광산 기술자와 니가타현에서 고용한 선박 기술자들은 사도섬의 광산개발과 니가타-에비스항 간 증기선의 건조와 운항에 참여하였다

당시 동해에 면하고 있는 니가타항은 하천의 경사가 심하고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개항 당시 니가타주재 영국 외교관들이 에비스항과 니가타항의 왕래가 불편하여 보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이후 니가타항은 하천 개수와 제방공사를 통해 대형선박의 정박이 가능하게 항만시설을 확장해가면서, 일본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 선박이 출입하면서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일본 최초의 증기선 니가타마루가 1871년부터 니가타항과 에비스항 간 연락선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도섬 등 민간에서 선박회사가 설립되어 니가타-에비스항 간에 여러 척의 기선을 취항시키면서 1890년대까지 정기 항로가 운영되었다.

19세기 개항 이후 니가타항은 일본 내 다른 개항장과 달리 외국인 전용 거류지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토지 임차 등 외국인 거류지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였다.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거주하기 위한 토지 가옥은 소유자와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지시, 즉 태정관 포고 제85호와 ‘1874년(메이지 7)의 조치’를 근거로 하여 심사하기 시작하면서, 니가타 내 외국인의 주택 및 토지 임차 허가 과정에서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하였다. 니가타현청은 현지 영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토지 임차 과정을 중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면서, 독자적인 토지 임차 약정서안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또한 외무성이 주일영국공사관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양국 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영국 측은 자국의 관례와 일본 내 다른 개항장의 사례를 들어 토지 임대기한을 정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영국과 일본 국내 사정의 차이, 그리고 니가타와 다른 개항장과의 차이를 들어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국인의 토지 임차 규정에 대한 영일 양국 간 및 일본 정부와 지방 현 간의 입장 차이로 해결 가능성이 어려워지자, 결국 외국인이 토지 임차 대신 가옥 임대라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상 니가타에서 거류지 문제로 인한 외국인과의 갈등 시 일본 정부와 니가타현청이 다른 개항장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처한 과정은 당시 개항장에 관련된 외교협상의 사례로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니가타 개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19세기 개항 이후 니가타항의 항만 확장과 선박 건조, 항로 운항의 경험들은 이후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일본에서 한반도를 거쳐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진출하는 기항지가 되고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또한 니가타항의 보조항으로서 사도섬 에비스항이 개항 되고 19세기 후반 니가타-에비스항 정기 항로가 운항됨으로써, 서구의 광산, 선박기술자들이 사도섬의 광산 개발과 해운교통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말에 조선인들이 사도광산학교에 입학했다는 기록이 있어 니가타의 외국인 거류지와 에비스항의 개항은 일본 개항장 내 외국인과 한국인의 이동과 교류 및 거주 흔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근대 조약과 동아시아 영토침탈 관련 자료 선집 Ⅱ』, 동북아역사재단.

정미애, 2022, 『니가타에서 본 한일관계』, 제이앤씨.

정재정, 2022, 『일제의 조선 교통망 지배-해운·철도·소운송·도로·항공-』, 동북아역사재단.

明治期外交資料研究会, 1996, 『明治期外交調書集成 条約改正関係調書集 第5卷-条約改正係 条約調査報告集 (2)』, クレス出版.

山本修之助, 1972, 『佐渡の百年』, 佐渡の百年刊行会.

新潟居留地研究会, 2020, 『新潟開港150周年記念 第13回 外國人居留地研究會 2020全國大會 新潟大會-居留地のリベラルアーツ教育』發表資料集, 2020年 9月 21-22日.

新潟市歴史博物館 編, 2008, 『海峽を越えて-佐渡と新潟-』, 新潟市歴史博物館.

新潟市 編輯・發行, 2018, 『図説 新潟開港150年史』, 新潟市歴史博物館.

両津市中央公民館 編, 1969, 『両津町史』, 両津市中央公民館.

田中圭一 外, 2004, 『新潟県の歴史』, 山川出版社.

川崎晴朗, 2002, 『築地外國人居留地』, 雄松堂出版.

논문

김윤미, 2019, 「일본 니가타항을 통해 본 '제국'의 환동해 교통망」, 『동북아문화연구』 제60집.

——, 2022, 「러시아 연해주의 해양경계와 중일전쟁」, 『슬라브연구』 제38권 1호.

김재준·김병철, 2009, 「19세기 중반 미국 언론의 일본 개항 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26집.

김현수, 2007, 「주일영국공사 파크스의 외교활동, 1865-68」, 『영국연구』 제17호.

- 미타니 히로시, 2010, 「막다른 골목으로부터의 탈출: 적극적 개국을 향한 전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개항을 보는 제3의 눈』, 인하대학교출판부.
- 박광현, 2016, 「귀국사업과 ‘니가타’- 재일조선인의 문학지리」, 『동학어문학』 제67집.
- 배규성, 2018,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환동해 인식 및 접근에 대한 연구: 니가타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가라후토 조사보고서』(1907)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5권 제1호.
- 양기호, 1994, 「일본 니가타현의 지역발전 전략」, 『지역발전연구』 제4집.
- 정혜경, 2022,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동북아역사리포트』 제7호, 2022년 1월 1일, 동북아역사재단.
- 이규태, 2015, 「일본의 동해횡단항로의 개척과 전개」, 『도서문화』 45집,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 이규태·김백영, 2017,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동해군용정기항로의 설치와 운용」, 『도서문화』 49집,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 葛西大和, 1997, 「近代日本における外国貿易港の配置と貿易額の地域的構成」, 『季刊地理学』, Vol.49, No.2.
- 権田益美, 2019, 「幕末から明治初期の新潟開港場の変遷: 開港延期問題を通して」, 『港湾経済研究』 58, 日本港湾経済学会.
- _____, 2020, 「明治初期の新潟開港場の史的様相: 運上所設立と外国人商人のビジネス」, 『港湾経済研究』 59, 日本港湾経済学会.
- 大山梓, 1960, 「安政条約と外国人居留地」, 『国際政治』, 1960年 14号.
- _____, 1961, 「日本における外国人居留地」, 『アジア研究』 7卷 3号, アジア政経学会.
- _____, 1962, 「安政条約と開市開港」, 『外交史及び国際政治の諸問題: 英修道博士還暦記念論文集』, 慶応通信.
- 山田耕太, 2022, 「開港場新潟に來た外国人居留者」, 『敬和學園大學人文社會科學研究所年報』, No. 20.
- 松沢裕作, 2022, 「開港場と直轄県: 新潟津留問題を中心に」, 『年報政治学』, 2022(2), 日本政治学会.
- 野口敏樹, 2016, 「七港開港までの夷港のあゆみ-兩津開港150年時代を迎えて-」, 野口敏樹, 『佐渡人のくらしをつむぐ』, 佐渡ジャーナル社.

- 青柳正俊, 2016, 「雑居地新潟に関する一考察-「外国人の居留地外居住問題」をめぐる展開」, 『東北アジア研究』 20,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 _____, 2021a, 「開港新潟の対外関係と居留外国人」, 新潟大学博士學位論文.
- _____, 2021b, 「居留地なき開港場新潟の成立と顛末」, 全国居留地研究会 2020 新潟大会.
- 村田明久, 1990a, 「外国人居留地の建設過程と計画手法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報告集』 第414号.
- _____, 1990b, 「外国人居留地の都市空間要素と構成比の比較考察」, 『1990年度 第25回日本都市計畫學會學術研究論文集』.

19세기 후반 니가타의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

김현철

이 글에서는 19세기 후반 니가타(新潟)항과 그 보조항인 에비스(夷)항[현재 사도섬의 료쓰항(兩津港)]의 개항과정을 서구와 체결한 조약들의 내용, 니가타에 외국인들이 건너온 현황과 니가타-사도섬 간 여객선 항로 개설과정, 그리고 외국인 거주로 인한 토지 임차 문제의 대두와 그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막부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와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에 의해 개항한 니가타는 늦게 개항되었으나, 근처 사도섬(佐渡島)의 에비스항이 보조항으로 개항하였다. 개항 이후 니가타와 에비스항에서는 별도의 외국인 거류지를 설치하지 않고, 일본인과 잡거하게 되었다. 니가타항에 온 외국인들은 매우 적은 규모이지만 주로 선교사, 외교관, 무역상, 영어 교육자들이었다. 니가타에 온 서구 광산 및 선박 기술자들이 사도섬의 광산개발과 니가타-에비스항 간 증기선의 건조와 운항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인들이 사도광산학교에 입학했다는 기록이 있어 니가타의 외국인 거류지와 에비스항의 개항은 개항장 내 외국인 및 한국인의 이동과 교류 및 거주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개항 이후 니가타항은 불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항만 확장과 정기항로 개설을 통해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에서 한반도를 거쳐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항

지가 되었다. 개항 이후 니가타항 내 외국인의 주택 및 토지 임차 허가 과정에서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하였다. 외국인의 토지 임차 규정에 대한 영일 양국 간 및 일본 중앙정부와 니가타 지방현 간의 입장 차이로 해결이 어려워지자, 결국 외국인이 토지임차 대신 가옥임대라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주제어: 니가타(新潟)항, 에비스(夷)항, 미일수호통상조약(1858), 외국인 거류지, 니가타-에비스항 간 항로, 외국인의 토지 임차

ABSTRACT

The Opening of Niigata Port and the Foreign Settlements in the Late 19th Century

Kim Hyunchul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Niigata Port in the late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reaties signed with the West, the arrival of foreigners in Niigata, the establishment of a passenger ferry route between Niigata and the Sado Islands, and the emergence of land tenure issues due to foreign residence.

Opened by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Austria-Hungary, the towns of Niigata were opened lately, with the nearby port of Ebisu on Sado Island serving as a secondary port. Niigata and Ebisu ports did not establish separate foreign settlements, but rather mixed with Japanese residents.

The foreigners who came to Niigata were mainly missionaries, diplomats, traders, and English educators. Western mining and ship engineers who came to Niigata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mines on Sado Island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teamships

between Niigata and Ebisu ports. Niigata Port expanded its harbor and established regular shipping routes for Japan's trade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As it became difficult to resolve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the British and Japanese governments and Niigata prefecture on foreigners' land lease regulations, foreigners actually secured living space through a method of renting houses instead of renting land.

Keywords: Niigata Port, Ebisu port on Sado Island,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Empire of Japan(1858), Foreign Settlements, The ship route between Niigata and Ebisu Port, Lease of land by foreigners

개항 이후 최혜국대우 조항의 조약 내 삽입과 반영 추이

민회수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최혜국대우의 개념과 역사
- III.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 최혜국대우 조관의 누락
- IV.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최혜국대우의 등장
- V.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의 등장과 정립
- VI. 맺음말



I. 머리말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조선은 미국(1882), 영국·독일(1883), 러시아·이탈리아(1884), 프랑스(1886), 오스트리아(1890) 등 서구 열강들과 잇따른 조약(treaty) 체결을 통해 만국공법적 근대 국제질서로 편입되어갔다. 이 시기 조선을 포함하여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은 일반적으로 ‘불평등조약’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형식상 주권국가 간의 대등한 자격으로 체결됨에도 내용상으로 볼 때 한쪽에만 유리하고 편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는 두 가지 요소는 ① 영사재판권 또는 치외법권¹ 및 ② 최혜국대우이다.² 전자는 조약 체결 당사자 중 일방국의 국민이 상대국 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상대국이 포기하고 해당 국민의 국적 국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조약 체결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규정³이다.

이들 중에서 전자의 경우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조약을

* 투고: 2024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영사재판권(consular jurisdiction)과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이 완전히 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영토주권국가가 개항지 등 자국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포기한 뒤 상대국에게 행사하게 허가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보다 본질적 개념은 치외법권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주제는 본고의 검토 대상이 아니기에 양자에 대한 엄밀한 구분과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2 다만 각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통상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불평등 요소를 감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요소는 각 조약마다 모두 달라서 여러 조약에서 공통되는 내용이라고 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https://stdict.korean.go.kr>) 참조.

체결한 대상 국가별로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왔다.⁴ 하지만 이에 비해 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미진하였다. 대개 조선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혜국대우 자체를 주제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하였다.⁵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사실상 유일한 경우는 사카이 히로미의 연구이다. 즉,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을 이 최혜국대우 관련 내용 삽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논문 및 이듬해의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대두된 최혜국대우의 ‘균점’에 대한 조선 측의 대응을 추적한 연구 등을 통해 개항 이후 조선이 체결한 조약에서의 최혜국대우와 관련된 많은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배출한 바 있다.⁶

그런데 이렇게 소략하나마 진행되어온 관련 연구성과들에서 한 가지 결여된 부분이라면, 최혜국대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영사재판권과는 달리 최혜국대우는 현재도 존재하는 경제적 개념인 만큼, 물론 역사학적 접근이 위주가 되겠으나 이와 더불어 현대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또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불평등 요소’로만 치부되었을 뿐 그 본질에 대한 유의미한 접근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조·일수호조규를 포함하여 조선이 개항기에 체결한 조약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긴 호흡의 고찰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관련 연구에 대한 상세한 동향은 조국, 2021,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간 영사재판권 행사 문제-내외국인 혼합 사건에서의 관심(觀審)·청심(聽審) 시행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5, 81~84쪽 참조.

5 그나마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 조관의 삽입 과정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 ‘均霑’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의 경우 박한민, 2019,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경계』 111, 조·영수호통상조약의 경우 한승훈, 2006, 「朝英條約(1883.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韓國史研究』 135 참조.

6 酒井裕美, 2013, 「朝米修好通商条約(一八八二年)における最恵国待遇をめぐる一考察」, 『朝鮮學報』 229; 酒井裕美, 2016, 『開港期朝鮮の戦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学出版会.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경제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최혜국대우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본 뒤, 이를 기반으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부터 불평등조약의 전형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는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까지를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조항의 삽입 문제를 조선을 주체로 하는 관점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최혜국대우가 갖는,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양상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II. 최혜국대우의 개념과 역사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조항’의 경우 Most-Favored-Nation Clauses)’의 개념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정의는 1978년 UN 산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제 13차 세션에서 채택된 ‘최혜국대우에 관한 조문 초안(Draft Articles on most-favoured-nation clauses with commentaries)’ 중 제5항에 나오는 이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는 (그것을) 부여하는 국가가 수혜받는 국가 혹은 그 국가와 일정한 관계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제3국 또는 그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못하지 않게 제공하는 대우이다.⁷

7 「Draft Articles on most-favoured-nation clauses with commentaries (1978)」, 〈Article 5.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s treatment accorded by the granting State to the beneficiary State, or to persons or things in a determined relationship with that State, not less favourable than treatment extended by the granting State to a third State or to persons or things in the same relationship with that third State. …”(국제연합 산하 국제법위원회 누리집,

즉, 최혜국대우는 이를 수혜받는 국가에 대해 그를 제외한 제3국에게 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혜국(가장 혜택받는 국가)’이라는 어감에서 풍기는 다소 특권적인 인상과는 달리 실제 그 목적은 수혜국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대우의 시행 의무가 조약 체결 대상국 중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편무적·쌍무적 최혜국대우로 구분할 수 있고, 시행의 조건 유무에 따라서 조건부·무조건 최혜국대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우의 적용 범위는 기준에서 볼 때 포괄적·한정적 최혜국대우로, 그리고 적용 시행의 양태에 따라 자동적·비자동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⁸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최혜국대우의 분류 기준별 형태

연번	분류기준	내용	형태
1	시행 의무	일방에만 존재	편무적
		쌍방에 존재	쌍무적
2	조건 유무	조건 없음	무조건
		조건 존재	조건부
3	적용 범위	특별 제한 없음	포괄적
		특수 분야 한정	한정적
4	시행 양태	자동 시행	자동적
		자동 시행 ×	비자동적

<https://legal.un.org/ilc>).

- 8 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17~218쪽. 참고로 이 책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한정적 최혜국대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개괄적(概括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우리 말에서는 ‘포괄적(包括的)’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역사는 멀리는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2세기에 들어 영국과 대륙 간의 조약에 최초로 출현한다고 한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이 해외무역에서 경쟁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서아프리카의 아랍 군주들 및 비잔틴 황제들에게 요청하였다. 15세기에 이르면 보다 정교한 형태의 규정이 등장하며, 17세기 후반에는 최혜국대우 규정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18세기 들어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조약이 상업(commercial) 조약과 정치(political) 조약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조약에 현대적 유형의 최혜국대우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조건부 최혜국대우가 1778년 프랑스-미국 간 조약에서 최초로 등장하면서 무조건-조건부 최혜국대우가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최혜국대우는 다소 후퇴하여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 결과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체결된 평화조약들에서 최혜국대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조건 개념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최혜국대우 개념의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상기 ILC의 초안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이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 과정 등이 상세하게 언급된 바 있다.⁹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최혜국대우를 영사재판권과 더불어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불평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원용해온 것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찍부터 존재해왔으며, 심지어 현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하의 내용으로 구성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제1부 제1조는 현대에 존재한 최혜국대우의 대표적 사례로 불리고 있다.

9 이성덕, 2004, 「최혜국대우-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 개념-」, 『서울국제법연구』 11-1, 84~88쪽.

수입 혹은 수출에 대해, 또는 수입 혹은 수출과 관련되어 부과하거나 수입 혹은 수출에 대한 지급의 국제적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해, 동 관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관해, 수입 혹은 수출 관련 모든 규칙이나 절차에 관해, 그리고 제3조 2항과 4항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관해 계약 체결 당사자가 다른 국가를 원산지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부여하는 제반 편의나 호의, 특권 혹은 면제(이하 본문과 각주 내 인용문의 원문과 번역문에서의 굵은 글씨 및 밑줄은 강조를 위해 필자가 표기함)는 다른 모든 계약 체결 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나 행선지로 하는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¹⁰

개항기에 체결된 1:1 조약과는 달리 GATT는 다자간 조약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상기 내용은 분명히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따라서 이렇게 현대 세계 무역기구의 공식 규정에도 등장하는 최혜국대우에 대하여 이를 무조건적으로 ‘침략’으로 전제하고 연구하는 동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¹² 상술한 바와 같이 편무적·쌍무적 등의 구체적 양

10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PART I, 〈Article I: 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대한민국 외교부 누리집, <https://www.mofa.go.kr>).

11 물론 주지하다시피 1947년에 출범한 GATT 체제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설립되어 다소간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GATT 체제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해야지 무조건 최혜국대우 내용이 존재한다고 해서 불평등조약이라거나, 아니면 이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등성이 감소했다는 식의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Ⅲ.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 최혜국대우 조관의 누락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개념과 역사 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조선이 체결한 조약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이 반영되는 추이에 대해 알아보자. 주지하다시피 조선이 최초로 체결한 근대 만국공법적 조약은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로, 그 체결 과정은 알려진 바와 같이 1875년 운요(雲揚)함 사건을 일으킨 일본이 이에 대한 사과 요구를 명분으로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전권사절로 임명하고 조약 체결을 위해 강화도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 측에서는 접견대관 신현(申櫛)과 부관 윤자승(尹滋承) 등을 보내어 1876년 2월 10일(음력 1월 16일)부터¹² 조약 체결 협상이 시작되었고, 일본 측에서는 준비한 조약문 초안을 2월 12일에 조선 측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은 이하와 같은 내용으로 제12관에 있다.

일본국은 예전부터 외국 인민의 통상을 허가한 각 항구에서 조선국 인민의 왕래와 무역을 동일하게 허락하며, 이후 타국이 조선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조약을 논의하여 정할 때 만약 이 조약 내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타국에 허락하는 조건

-
- 12 다만 당시에는 제국주의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맥락이 존재하였음도 충분히 고려하여 현대의 최혜국대우를 기계적으로 시대적 맥락이 다른 과거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13 이 당시 조선 측은 음력을 사용하였으나, 일본과 더불어 이후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등)이 모두 양력을 사용한 관계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 표기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음력을 병기한다.

이 있으면 일본국 또한 이와 다름없이 그 특전을 받아야 한다.¹⁴

일단 이 조항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외견상 서로 다른 층위로 느껴지는 내용이 상호 대구를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앞부분의 일본 측이 취하는 조치는 일본이 이미 개항한 항구들에서 조선인들의 무역을 허용하는 내용인 반면, 뒷부분의 한국 측 조치는 전형적인 최혜국대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호주의’적 관념에 따른다면, 앞부분은 일본 측의 조선에 대한 최혜국대우 허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일단 상기 앞부분의 내용을 일본 측이 삽입한 이유는 2월 19일에 있었던 양국 대표단 간의 조관별 심의 과정에 대한 일본 측의 기록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제12관: 일본국에서 종전에 외국 인민에게 통상을 허용한 각 항구는 모두 조선 인민이 왕래하여 무역하는 것을 허가해서 타국과 다름이 없게 하며 ...¹⁵

즉,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이 타국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부분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다. 최혜국대우 역시 제3국과 비교한 불평등 삭제가 주요 내용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뒷부분의 최혜국대우가 일본 측의 편의를 봐주는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외견상 상호주의처럼 보이기 위해 앞부분을 첨입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층위의 내용, 정확히 말하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최혜국대우)보다 조선 측에 편의를

14 『倭使日記』(奎貴16034) 제1책, 丙子 1월 21일 啓下, “... 第十二款 日本國 從前准外國人民通商各港口 均許朝鮮國人民來往貿易 他國爾後朝鮮國修通好議立和約 若有此條約內所不裁 而別許他國條件 則日本國 亦無不同 得其特典 ...”

15 『日本外交文書』(이하 『일외』 약칭) 9, 문서번호 20, 99쪽, “... 第十二款 日本國 從前外國人民ニ准シテ通商スル各口ハ均シク朝鮮國人民ノ來往貿易スルヲ免許シ他國ト異ナルナシ ...”

주는 내용(기존 개항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못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마도 일본 측에서 조선 측에 조약을 강요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 사료의 부재로 정확한 내막은 알기 어렵다.¹⁶

아무튼 이러한 일본 측의 제의에 대한 조선 측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A. 제12관에 적힌 내용 중에서 ‘이후 조선국이 타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운운’하는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규(素規)를 스스로 조심하여 지켜서 타국과 서로 통하지 않으니 곧 ‘남의 신하된 자는 외교를 하지 않는다’(人臣無外交)는 의리인 것이다. 귀국에 대해서는 300년 동안 형제의 우의가 있어서 지금 다시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니 어찌 별도로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통하는 것을 허락할 이치가 있겠는가? 이 한 조관은 지워버리는 것이 옳다.¹⁷

B. 제12관: 우리나라는 본래 다른 나라와 서로 통교하지 않으며 오로지 일본과만 교린의 우의로 서로 우호 관계를 가진 것이 오래되었으니, 어찌 별도로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이 있겠는가? 본래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를 분명하게 답변하는 게 좋겠다.¹⁸

A는 2월 19일에 일본 측 전권대신 구로다가 조선 측 접견대관 신현의 문병

16 다만 일본의 조약에 규정된 개항장이 이미 최혜국대우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조선 역시 최혜국대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17 신현(申櫟) 지음·김종학 역, 2010,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199쪽, “... 我曰 第十二款所陳中 爾後朝鮮國 與他國修好云云者 我國自守素規 與他不相通者 卽人臣無外交之義也 至於貴國 三百年有兄弟之誼也 故今復修好 豈有別許他國通好之理乎 此一款 抹去可也 ...”

18 『왜사일기』 제1책, 丙子 1월 26일 啓下, “... 第十二款 我國本不與他國相通 而惟日本則鄰誼相好久矣 安有他別國之通好立約等事 本不必舉論矣 以此明白答之 爲好耳 ...”

을 온 자리에서 수호조규 원안에 대한 조관별 심의를 하는 중에 신헌이 한 말이며, B는 20일에 의정부에서 신헌에게 보낸 지시사항 중 일부로, 일본 측 원안의 조관별 수정 및 6개의 추가 삽입 조항 등을 지시하는 내용 중 일부이다. 공통적으로 조선은 일본 이외의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일본 외 타국과의 조약 체결을 전제한 최혜국대우 조관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 이외에 최혜국대우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조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국 대표들은 2월 11¹⁹·12²⁰·13²¹·20일²²의 총 4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고, 이들 자리에서 운요함 사건에 대한 사과, ‘대일본(大日本)’ 국호의 ‘대(大)’자 및 국왕의 수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날 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표단의 일시적 철수까지 거론되는 등 나름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최혜국대우 조항과 관련된 논의는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비록 상술한 신헌의 최혜국대우 조관에 대한 거부 의사 표명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자신들의 대신과 깊이 상의해서 선처하겠다고 답변했지만,²³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알려진 바와 같이 총 13관의 일본 측 원안에서 이 최혜국대우가 빠진 12관으로 최종안이 완성되어 2월 27일자(음력 2월 3일)로 조인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양측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조선 측의 입장에서

19 2월 11일의 1차 회담 기록은 『왜사일기』 제1책, 丙子 1월 19일 啓下 참조(일본 측 기록은 『일외』 9, 문서번호 16, 80~87쪽).

20 2월 12일의 2차 회담 기록은 『왜사일기』 제1책, 丙子 1월 20일 啓下 참조(일본 측 기록은 『일외』 9, 문서번호 17, 87~92쪽).

21 2월 13일의 3차 회담 기록은 『왜사일기』 제1책, 丙子 1월 21일 啓下 참조(일본 측 기록은 『일외』 9, 문서번호 18, 92~95쪽).

22 2월 20일의 4차 회담 기록은 신헌(申櫟) 지음·김종학 역, 2010, 앞의 책, 209~218쪽 참조(일본 측 기록은 『일외』 9, 문서번호 21, 99~103쪽).

23 신헌(申櫟) 지음·김종학 역, 2010, 앞의 책, 199쪽.

본다면, 대표단의 말대로 당시 일본 이외 국가와의 조약 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은 1866~1871년 사이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펜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등 서구 열강과 연속적인 충돌을 통해 서구를 ‘금수’로 치부하는 적개심이 사회 도처에 만연한 상태였으며,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미양요 직후 전국에 설치한 척화비였다. 따라서 비록 일본이 서구 열강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서양과 한패라는 ‘왜양일체론’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각한 대원군이 정부 대신들을 대상으로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비난하는 글을 돌렸으며,²⁴ 최익현은 도끼를 가지고 고종 앞에 앞드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조약 체결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²⁵ 유배갈 정도로 민심은 흥흥하기 그지없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조약 체결은 사실상 이러한 거국적 반대 분위기하에 고종과 박규수 등 일부 측근을 중심으로 밀어붙인 결과였으며, 일본 외 타국과의 조약 체결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하에 나오는 일본 측이 기록한 신현의 최해국대우 조관 관련 언급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은 서양 각국과 대부분은 원수가 되어 결코 조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가령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일본과 상의하여 전적으로 일본의 주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만약 일본에 허가하지 않은 것을 각국에 허가하는 경우 일본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 조회해야 마땅하며,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미리 이 조관을 둘 경우 마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으니, 청컨대 이 조관을 삭제하기 바란다.²⁶

24 『龍湖閑錄(韓國史料叢書 25)』 4[國史編纂委員會(이하 ‘국편’ 약칭), 1971], 352~353쪽, 「正月十八日 雲峴書」.

25 『勉菴集』 권3, 「疏」, 〈持斧伏闕斥和議疏(丙子正月二十二日)〉

26 『일외』 9, 문서번호 20, 99쪽, “... 彼云此條朝鮮ハ西洋各國ト多クハ讐敵ナリ決シテ條約ヲ結フヲ爲サス假令ヒ條約ヲ結フニ至ルモ必ス先ツ日本ト謀リ摠テ日本ノ周旋ニ賴ラサルヲ得ス其時ニ當リ若シ日本ニ許サル所ノ條件ヲ各國ニ許スニ至ラハ日本政府ヨリ朝鮮政府ニ照會シテ可ナリ然ラハ事ニ於テ成ラサルナシ今預メ此

최혜국대우 조관(이하 ‘최혜국조관’으로 약칭)의 ‘타국과 수교하고 조약을 체결할 경우’라는 언급으로 인해 조선이 일본 이외의 국가와 향후 조약 체결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점을 두려워하여 이를 삭제하라는 요청에서 당시 조선 내의 배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은 강렬한 서양 배척 분위기에 따라 일본 이외 국가와의 조약 체결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메시지로 오인될 수 있는 최혜국조관의 내용 삭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측의 경우는 어떨까? 종래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조선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의 연구를 통해 실상은 이와 달랐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일단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운요함 사건은 당시 내무경(內務卿)으로 있던 오클로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이끄는 정권이 내각 분리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선의 폭거로 일본 측에 선전되어 정한론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당시 파견된 일본 측 대표단은 이러한 일본 내 정한 열기를 해소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고 협상에 임하게 되었으며, 교섭이 실패할 경우 정한의 열기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열되어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²⁷

따라서 대표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을 타결하여 조약 체결을 성공시켜야 하는 처지였으며, 협상 결렬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피해야 할 악몽이었다. 물론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협박하기도 하였지만, 오클로 정권은 겉으로는 조선을 포함외교로 개국시킨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실제로는 전쟁을 벌일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²⁸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 측은 부산 외 2개 항구의 추

條款ヲ設ケヲクトキハ外國ト條約ヲ結フノ意アルニ似タリ請フ此款ヲ削除セン ….”

27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24~431쪽.

28 김종학, 2017,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과정의 재구성: 『심행일기(沁行日記)』와 몇 가지 미간문헌에 기초하여」, 『한국정치학회보』 51-5, 206쪽.

가 개항, 조선 연해 측량권, 편무적 영사재판권 등의 실익을 얻었으나, 군주 칭호, 사절 상주, 내지통행 등은 받아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였던 운요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강화도 개항조차 사실상 얻지 못하였다.²⁹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것으로 보이는 최혜국대우 문제를 고집할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³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하여 ‘타국과 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다’는 조선 측의 반대 논리는 역으로 일본이 당분간 조선 내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³¹

이렇게 조선과 일본은 조약 교섭 당시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한쪽은 최혜국대우 조관 삽입에 반대함과 더불어 다른 한쪽은 그 조항의 유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해 일치’의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왕의 수결 문제와 같이 사절단의 철수까지 논의되는 강경한 논쟁이 벌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쪽은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이 별다른 이의도 없이 수용되어 최종안이 확정되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일수호조규에서 최혜국조관이 삭제된 것을 조선 측이 해당 조항의 불평등성을 인식해서 취한 ‘자주적 개항’을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은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평가라고 하겠다.

29 김홍수, 2009, 앞의 책, 454쪽. 사과 문안은 이를 어떻게든 받아 가야 했던 일본 측에서 초안을 만들어 조선 측에 제시하고 의정부는 이를 거의 그대로 정서해서 보냈는데, 내용상 사죄의 의미는 전혀 없었기에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김홍수, 2022, 『운요함 사건과 강화도조약』, 동북아역사재단, 139~140쪽).

30 다보하시는 이에 대해 당시 일본 정부가 최혜국대우 문제에 대단히 민감했기에 이 조관도 상당히 중요시했을 것이지만, 대표단에서 조선 정부의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최혜국조관의 철회를 승낙했다고 평가하였는데(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2013,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上, 일조각, 465쪽),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동의하기 어렵다.

31 실제로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전까지 6년여 동안 일본은 사실상 조선 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IV.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최혜국대우의 등장

조·일수호조규는 어디까지나 ‘구호중수(舊好重修)’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한 데 지나지 않으며, 서구 열강과의 관계 수립은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조선 정부의 입장은 조약 체결 이후에도 당분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이 주일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과 회견하면서 서구열강과의 수교를 권고받고,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을 통한 방아론(防俄論)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황준헌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귀국 후 고종에게 바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교섭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881년에 유생들의 강렬한 척사 상소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의 권유 및 제대신헌의(諸大臣獻議) 등의 절차를 거쳐 방아론에 입각한 서구 열강과의 교섭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의 주선하에 미국 측과 수교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1882년 5월 22일자(음력 4월 6일)로 미국 전권대신인 해군 제독 슈펠트(R.W.Shufeldt)와 조선 측 전권대신 신헌·김홍집 사이에 총 14관으로 구성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근대 이후 한국이 체결한 조약 중 최혜국대우 조항은 이 조약에서 처음 등장한다. 즉, 마지막 조관인 제14관에 다음과 같이 미국 측에만 해당하는 편무적인 최혜국대우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지금 양국이 논의하여 정한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혜정(惠政)·은전(恩典)·이익을 타국 또는 그 나라 상인에게 베푸는 경우, 배로 항해하거나 통상무역으로 서로 왕래하는 등의 일을 막론하고, 해당 국가와 그 상인들이 예로부터 (이익을) 받지 않았고 또 이 조약에 기재되지 않은 것 또한 미국 관원과 백성에게 일체 동일하게 (그 혜택을) 입도록 허가한다. 이러한 종류의 타국의 이익을 우대하는 바에 있어 만약 규약을 제정하여 상호 보답할 경우, 미국 관원과 백성도 반드시 상호 보답하는 전문조항을 약정하고 일체 준수하여 우대하는 이익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허가한다.³²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무조건적 최혜국대우가 아니라 조건부라는 점이다. 즉, 후반부에 ‘전문조항을 제정하는 경우’라는 단서하에 이를 ‘일체 준수’한다는 조건이 최혜국대우의 향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³³

상기 14관이 전형적인 형태의 최혜국조관이라고 한다면, 이 조약에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최혜국을 거론하는 내용이 몇 군데 더 눈에 띈다. 우선 제2관에 다음과 같이 영사 등 외교관에 한정된 최혜국대우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 우호 관계를 맺은 뒤 두 나라는 병권대신(秉權大臣)을 서로 파견하여 피차의 도성에 주재시킬 수 있으며, 모두 피차의 통상 구안(口岸)에 영사(領事) 등의 관리를 설치함에 있어 똑같이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이들 관원이 본지(本地)의 관원과 교섭하려 왕래할 경우 똑같이 서로 같은 품급(品級)에 상당하는 예로 대해야 한다. 두 나라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 관원이 받는 여러 가지 우대는 피차 가장 우대받는 나라의 관원과 다름없이 한다.³⁴

아울러 제5관에는 다음과 같이 역시 관세율이라는 분야에 한정된 최혜국대우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32 『高宗實錄』 권19, 19년 4월 6일 辛酉, “… 第十四款 現經兩國議定嗣後 大朝鮮國君主 有何惠政恩典利益 施及他國 或其商民 無論關涉海面行船通商貿易交往等事 爲該國并其商民 從來未霑 抑爲此條約所無者 亦准美國官民 一體均霑 惟此種優待他國之利益 若立有專條互相酬報者 美國官民 必將互訂酬報之專條 一體遵守 方准同霑優待之利益 ….”

33 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 조건의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 최혜국대우라기보다는 ‘단서 조항이 붙은’ 최혜국대우 정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34 『高宗實錄』 권19, 19년 4월 6일 辛酉, “… 第二款 此次立約通商和好後 兩國可交派秉權大臣 駐紮彼此都城 並於彼此通商口岸 設立領事等官 均聽其便 此等官員 與本地官交涉往來 均應用品級相當之禮 兩國秉權大臣與領事等官 享獲種種恩施 與彼此所待 最優之國 官員無異 ….”

조선국 상인 및 상선이 미국에 가서 무역할 경우 납부하는 선세(船稅) 및 일체의 각 비용 모두는 미국의 해관 장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본국의 인민 및 가장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여 세초(稅鈔)의 액수를 더 올릴 수 없다.³⁵

그런데 14관 이외 항목에서 등장하는 최혜국대우는 편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14관과는 달리 조·미 양측 모두에 해당하는 쌍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혜국조관의 삽입은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일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당연히 해당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겠으나, 조·미조약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청은 서구 열강에 대한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는 의도로 조선 측에 조약 체결을 권고함과 동시에, 조약 체결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였다. 그 목표는 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이 만국공법 체제로 편입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음으로써 중국의 주요 조공국에서 이탈하여 사대질서가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³⁶

한편, 조선의 경우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전 국민적인 강력한 서양 배척 분위기에 서양과 직접 협상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청의 중재 제안을 수락하여 조·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홍장과 슈펠트 사이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조약의 문안 작성이나 수정 등에도 이홍장 등 청 측의 영향이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조약 체결에

35 『고종실록』 권19, 19년 4월 6일 辛酉, “… 第五款 朝鮮國商民並其商船 前往美國貿易 凡納稅船鈔並一切各費 應遵照美國海關章程辦理 與征收本國人民及相待最優之國 稅鈔不得額外加增 ….”

36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大出版部, 284쪽.

대한 조선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미조약은 여러 차례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중 일부가 현전하는데³⁷, 우선 상기 3개의 최혜국대우 구절이 어느 단계의 초안에 등장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2관에 등장하는 외교관에 한정된 최혜국대우의 경우, 가장 초창기의 초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제2관: 이번에 조약을 체결하여 우호 관계를 맺으면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 통상항구에 1인의 총영사를 파견하여 주재시킬 수 있으며, ... 다만 파견되는 영사관은 반드시 정직한 관원이어야 하며, 상인으로 겸직시켜 충원할 수 없고, 또한 무역을 겸하여 종사할 수 없다. 무릇 재임 중 지방관과는 모두 평등한 예절로써 상대하며,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은 가장 우대받는 국가의 영사관을 대우하는 것과 다름없다.³⁸

상기 조관은 마건충(馬建忠)이 조선이 비단 미국뿐 아니라 서구 열강 중 불특정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한 조약의 초안 중 일부이다.³⁹ 여기서 이미 조약에 포함된 외교관에 한정된 최혜국대우는 어느 정도 그 골격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 조선 측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관세율에 한정된 최혜국대우의 경우, 미국 측이 가장 처음 제시한 초안⁴⁰ 내의 제7관에 다음과 같이 이미 그 골격이 보이고 있다.

37 조약의 초안에 대한 시기별 정리는 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32쪽의 <表 2> 참조.

38 『清季中日韓關係史料』(이하 『중일한』 약칭) 2, 문서번호 353, 附件 5, 473쪽, “... 第二款 此次立約通好[]國可派一總領事於某口駐劄 ... 惟所派領事官 必須正直官員 不得以商人兼充 亦不得兼作貿易 凡在任內與地方官 俱以平行之禮相見 所獲種種恩施 與待最優之國領事官無異 ...”

39 사카이 히로미의 분류에 의하면 초안 ②이며, 작성 시기는 1881년 1월 28일로 추정된다(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32쪽).

40 사카이 히로미의 분류에 의하면 초안 ⑤이며, 작성 시기는 1881년 11월 30일이다(酒井裕美, 2016, 위의 책, 232쪽).

조선의 국왕 전하는 이에 조선의 개항장에서 수출·입 및 무역 명목의 톤세 또는 관세에 대해 … 다른 어느 국가나 조선 신민의 선박에 부과·징수하는 것과 비교하여 … 다른 종류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그에) 동의한다.

미합중국은 이에 미합중국의 개항장에서 수출입 및 무역 명목의 톤세 또는 관세에 대해 … 톤세·수출입 관세에 있어 미합중국을 차별하지 않는 다른 모든 국가의 선박이나 미합중국 시민의 선박·화물에 부과·징수하는 것과 비교하여 … 다른 종류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그에) 동의한다.⁴¹

비록 최종안과 비교해볼 때 ‘가장 우대받는 국가(最優之國; 최우지국)’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다른 모든 국가 및 자국민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상 최혜국대우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초안에 이미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만큼, 이 역시 조선 측의 대응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⁴²

41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2012,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조미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234쪽, “… Art. VII. His Majesty the King of Chosen hereby promises and agrees that no other kind or higher rate of tonnage dues or duties for imports or exports or trade shall be imposed or levied in the open ports of Chosen … than are imposed or levied on vessels of any other nation, or on those of subjects of Chosen. The United States hereby promise and agree that no other kind or higher rate of tonnage dues or duties for imports shall be imposed or levied in the ports of the United States … than are imposed or levied on vessels of other nations which make no discrimina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onnage dues, or duties on imports, exports, or trade; or than are imposed or levied on vessels and cargo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42 이 문제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측의 초안에서는’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흥장 작성 버전에서 처음 발견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38쪽),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슈펠트가 작성한 미국 측 초안에 그 오리지널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편무적 최혜국조관을 담은 14관의 경우, 일단 마진충이 기초한 상기의 초창기 초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⁴³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초안에는 조건이 붙지 않은 편무적 최혜국대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⁴⁴ 이것이 최종안과 같이 조건부 최혜국대우로 변경된 상태의 최초의 초안은 이흥장과 슈펠트 간의 협상 이후 수정본에서 발견되는데,⁴⁵ 문제는 이러한 조건이 붙는 내용으로의 변경이 과연 조선 측의 의향이나 의견 제시에 따른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단 해당 초안을 총리아문에 보고하는 이흥장의 공문에서 협상 당시의 상황을 담은 내용으로 이하의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 2월 27일·3월 1일에 슈펠트 총병(總兵)과 홀콤브(C. Holcombe) 서리공사가 같이 와서 그 밖의 각 조관을 상의하여 정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태고 늘려 저 쪽 사신들이 고친 경우도 있고, 저쪽 사신들이 보태고 늘려 저희 쪽에서 고친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원본과 비교하면 더 세밀해진 듯합니다. 다만 홀콤브 서리공사가 자못 매우 교활하고 간교하여 많은 언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제1관은 우선 비워두기로 논의하였으며, 해당국(미국)의 회신을 기다렸다가 없앨지 그대로 둘지를 다시 의논할 예정입니다. 조약의 초고본이 이미 정해져서 저 이흥장은 용지의 끝부분에 도장 하나를 날인했고, 아울러 슈펠트 총병에게도 서명하도록 요청하여 증거로 삼게 했습니다. (이 초안을) 조선 배신(陪臣)에게 교부해서 신속하게 가지고 귀국하여, (나중에) 때가 되면 해당국(조선)에서 별도로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슈펠트와 협상할 때 의지할 근거로 삼도록 하려 합니다. …⁴⁶

된다.

43 『중일한』 2, 문서번호 353, 부건 5, 472~475쪽.

44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2012, 앞의 책, 235쪽.

45 『중일한』 2, 문서번호 393, 부건 2, 559쪽. 이 버전은 사카이 히로미의 분류에 의하면 초안 ㉑이며, 작성 시기는 1882년 2월 27일이다(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32쪽).

46 『중일한』 2, 문서번호 393, 565~566쪽, “… 二十七日 三月初一日 薛總兵與何署使偕來 商訂此外各款 有敝處續增而該使酌改者 有該使續增而敝處酌改者

주지하다시피 당시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제1관에 삽입하는 여부로, 청국 측이 강하게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협상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상기 부분은 그 외의 기타 부분에 대한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목에 해당한다. 위 인용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일단 협상 과정은 분명히 미국 측 대표인 슈펠트와 주청 미국 공사 홀콤브 및 청 측 대표 이홍장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초안을 ‘조선 배신’⁴⁷에게 넘긴다는 언급에서 조선 측이 이 협상에 간여하지 않았음도 유추할 수 있다. 즉, 협상 과정에서 원래 조건이 없는 최혜국조관이었던 미국 측 안을 조건부로 변경시키도록 요구한 주체는 사실상 이홍장을 중심으로 하는 청 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⁴⁸

그렇다면 혹시 조선 측에서 이홍장에게 의견 제시를 통해 이러한 내용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방법은 있다. 바로 조선 측 인사들이 이홍장이나 슈펠트 등과 접촉하여 회담한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다. 협상 대리로 내세운 이홍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요구했을 정도라면 당연히 이후에 협

大致較原本 似更周密 然何署使 狡獪頗甚 未免多費唇舌 現議暫空第一款 俟該國回信 再議去留 稿本既定 鴻章於紙尾鈐一圖章 並屬薛總兵簽字爲據 擬交朝鮮陪臣 迅齋回國 以爲屆時該國另派大員與薛使商辦之依據 ….”

47 정황상 金允植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8 사카이 히로미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홍장이 조선을 대표한다는 상정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40쪽) 이홍장이 작성한 초안을 조선 측 초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14관의 조건부 편무적 최혜국조관에 대해서는 이홍장과 조선을 분리하여 파악하면서, 당시로서는 희귀한 케이스인 조건부 최혜국대우가 조관에 삽입된 점을 조선 측의 최혜국조관에 대한 반대가 강경하였던 증거로 보았다. 그런데도 삽입된 것은 이홍장이 속방조관과의 균형을 위해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이해하였다(酒井裕美, 2016, 위의 책, 237쪽). 하지만 조건부 최혜국대우가 희귀한 케이스라는 사실과 조선 측의 반대가 강경하였다는 추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며, 무엇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부 최혜국대우의 첫 등장 자체가 이홍장의 협상 초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정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상 내용 관련 대화나 추가적인 협상 등을 진행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홍장은 역관 이용숙(李容肅)과 1882년 2월 26일에 두 차례 만나서 조약 체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⁴⁹ 여기서 최혜국조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홍장은 당시 청에 영선사로 가 있던 김윤식과도 1월 17⁵⁰·19일,⁵¹ 2월 7⁵²·14일,⁵³ 4월 4⁵⁴·21일⁵⁵의 총 여섯 차례에 걸친 회동을 통해 영선사 관련 문제는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조·청 속방관계를 위시하여 영사재판권, 공사 주경, 세척 및 관세율, 교회 설립, 미곡 수출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최혜국조관과 관련된 논의는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김윤식은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북(周馥)과도 2월 27일,⁵⁶ 3월 7일,⁵⁷ 4월 8일⁵⁸의 세 차례에 걸쳐 회담한 바 있는데, 역시 최혜국조관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김윤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역관 이응준(李應俊)이 5월 8⁵⁹·12일⁶⁰의 두 차례에 걸쳐 마진충과 회동하며 조약 체결 협상과 전권 부여

49 『중일한』 2, 문서번호 353, 부건 2, 467~470쪽; 『중일한』 2, 문서번호 353, 부건 6, 475~480쪽.

50 國史編纂委員會, 1958, 『從政年表·陰晴史(韓國史料叢書 6)』(이하 『음청사』로 표기), 26~28쪽.

51 『음청사』, 29~32쪽.

52 『음청사』, 44~47쪽.

53 『음청사』, 52~54쪽.

54 『음청사』, 87~89쪽.

55 『음청사』, 103~106쪽; 『중일한』 2, 문서번호 394, 부건 3, 571~574쪽.

56 『음청사』, 65~66쪽.

57 『음청사』, 72~74쪽.

58 『음청사』, 92~94쪽.

59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13, 632~633쪽.

60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20, 640~642쪽.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는 언급이 없다. 이후 마건충은 조선 측 전권대신 김홍집과도 조약의 최종 조율 및 사후 처리를 위해 5월 14⁶¹·17⁶²·19⁶³·20⁶⁴·22(2회)⁶⁵·27일⁶⁶의 일곱 차례에 걸쳐 회담하였다. 이 역시 주로 속방조관과 미곡 수출 문제가 중심 논의 주제였으며, 해관 설립 및 국기 제작 등 여타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혜국조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음이 확인된다.⁶⁷

따라서 조약의 협상·체결 과정에서 최혜국조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한 흔적이 없는 조선 측에서 협상을 대리하는 이흥장에게 해당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조선 측은 최혜국조관에 대하여 관심 자체가 없었으며, 삭제나 수정을 요구할 의향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조선이 근대적 조약에 무지하여 이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준 결과로 봐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음은 일단 미국을 조약 체결 대상 국가로 삼은 것 자체가 조선 측의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고 하겠다. 조선은 수신사 김홍

6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이하 ‘아연’ 약칭) 編, 1967, 『舊韓國外交文書(이하 ‘구한국’ 약칭)』 10(美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문서번호 2, 1~3쪽(이후 『구한국외교문서』 중 동일 서적 출전의 각주가 반복될 경우 ‘미안’ 1’의 형식으로 표기);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24~26, 643~646쪽.

62 『미안』 1, 문서번호 5, 3~6쪽;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28~29, 648~651쪽.

63 『미안』 1, 문서번호 8, 7쪽;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30, 651~653쪽.

64 『미안』 1, 문서번호 9, 7~8쪽;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31, 653~654쪽.

65 조약 체결일인 이날 첫 번째 회담은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33, 655~656쪽, 두 번째 회담은 『미안』 1, 문서번호 14, 12~13쪽; 『중일한』 2, 문서번호 420, 부건 32, 654~655쪽 참조.

66 『미안』 1, 문서번호 16, 14쪽.

67 다만 5월 17일의 제2차 회담에서 논의된 조약 문구에 대한 수정 사항에 제14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순한 표현의 수정이지 본질적 의미가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미안』 1, 문서번호 5, 附, 6쪽).

집·조병호(趙秉鎬) 및 조사시찰단 등의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시행 중인 조약의 불평등성을 인식하였고, 관세자주권 상실에 의한 저율의 관세가 청·일본에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과 더불어 서구를 대상으로 일본이 조약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상대적으로 ‘공평한’ 국가로 인식하여 조약 체결을 추진한 것이었다.⁶⁸ 비록 이후 체결된 조·영조약의 ‘균점’으로 인해 그 효과는 상실되었지만, 조·미조약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에 불평등성 배제의 흔적이 보인다는 일반적인 평가는 결코 우연의 산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김윤식이 조약의 세부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고종에게 보고하는 내용 중 다음에 제시한 부분은 당시 조선이 조·미조약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 중국과 일본은 병사를 일으킨 뒤 조약을 논의하여 정하였기에 일이 흡족하지 않았습디만, 이번에는 호의로 조약을 맺는 것이니 어찌 유독 만국의 예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히 말할 수 있는 단서가 없지는 않으니, 비록 모든 사안마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병사를 일으킨 뒤 조약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과 동등한 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⁶⁹

약소국이어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아편전쟁과 흑선(黑船) 내항 등 무력에 굴복하여 조약을 체결한 청·일과 달리 조선과 미국은 평화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므로 이들 나라와는 다르며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나름 대등한 위치라는 관점에

68 한승훈, 2018,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2, 220쪽.

69 『음청사』, 56쪽, “… 而中國日本用兵後議約 故事未洽 今番以好意修約 何獨不得萬國之例乎 不過爲弱小 不能優占地分耳 然在我不可言之端 縱未能件件滿意 恐不宜與用兵後議約同例也 ….”

서 생각하고 있었기에 불평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이 최혜국대우 문제를 살펴본다면, 조선은 결국 최혜국대우 조항을 불평등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설사 이를 문제로 인지했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V.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의 등장과 정립

일본은 주지하다시피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6개월 뒤에 체결된 무역장정에서 조선과 상호 관세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였다.⁷⁰ 이후 1880년대 들어 수신사 김홍집, 조병호 등이 세칙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없던 중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세칙이 제정됨으로써 일본도 더는 이를 회피할 명분이 없게 되어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임오군란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인 1883년에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변리공사가 조선에 부임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⁷¹ 그 결과 7월 25일자(음력 6월 22일)로 조·일통상장정이 총 42관으로 개정되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혜국조항이 규정되었다.

… 단 현시점 또는 만약 장래에 조선 정부에서 어떤 권리·특전·혜정·은우(恩遇)

70 근래의 연구에서는 이 당시의 면세는 비단 수입세뿐 아니라 수출세에도 역시 해당 하는 것이기에 양국 간 무역 확대에 방점이 찍힌 조치로 봐야 하며, 이후로 실제 양국이 의도한 대로 무역의 확대에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 면세조치를 단순히 무관세 무역이라는 침탈을 당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종래의 연구 경향은 재고를 요한다고 하겠다(김홍수, 2017,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7, 413~415쪽).

71 수신사의 세칙 협상 및 통상장정 제정을 위한 조·일 양국 간 협상에 대해서는 박한민, 2019, 앞의 글 참조.

를 타국의 관리·백성에게 베풀 경우 일본국의 관리·백성 또한 즉시 일체 그 혜택을 누린다. ...⁷²

상기 내용은 42관에 걸친 조항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장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는 형태로 삽입되어 있다. 이 내용의 삽입과 관련하여 역시 조선 측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조선은 세울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과 나름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나, 앞서 조·미조약과는 달리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규정하는 상기 내용에 대해 조선 측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⁷³

이렇게 조·일통상장정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무조건적·편무적 최혜국조관은 이후 조·영조약에서 완성되어 정착되게 된다. 이후에 체결된 열강과의 조약이 대부분 이 조·영조약을 모델로 하여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1882년 미국과의 조약 체결 협상 시 영국·독일과의 협상도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 타결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높은 관세율 등에 반발한 본국 상인·언론 등의 비판에 따른 의회의 비준 거부로 인해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영효, 김옥균, 민영익 등 개화파가 일본 도쿄에서 주일 영국공사 파크스(H. S. Parkes)와 1차 협상을 하고, 일본 고베 주재 영

72 『고종실록』 권20, 20년 6월 22일 庚午, “... 但現時若將來, 朝鮮政府, 有何權利特典及惠政恩遇, 施與他國官民, 日本國官民, 亦卽一體均沾”

73 사카이 히로미는 이에 대해 일본의 최혜국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이보다 전에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한 일본의 군점 금지를 주장하는 셈인데, 일본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군점이 청과의 무역장정만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군점 대상에 무역장정이 포함된 이상, 조선 측이 그 근거가 되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주장과 이를 따로 떼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조선은 일본과의 교섭에서 무역장정에 따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주장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최혜국조관의 거부를 감히 언급하지 못한다는 외교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46쪽), 과연 조선이 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도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임오군란 이후 내정간섭을 자행하던 청의 속방이라는 조항을 그렇게 중시하였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국영사 애스틴(W. G. Aston)이 1883년 4~5월에 걸쳐 조선에 와서 독판(督辦) 민영목(閔泳穆)을 위시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약칭 ‘통서(統署)] 관리들과 2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파크스가 전권대표의 자격으로 10월에 방한하여 민영목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 11월 26일자(음력 10월 27일)로 조·영조약이 타결되었다.⁷⁴ 여기에서 최혜국조관은 이하의 내용으로 제10관에 기재되어 있다.

현재 양국 간의 논의·결정을 거쳐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 이후로 대조선국 대 군주는 항구에 진입·진출하는 각종 항목의 진입·진출 화물세의 세칙(稅則) 및 일체의 사항에 있어 지금 이후 어떤 혜정·이권의 시행이 타국 및 타국 신민들에 미칠 경우, 영국과 영국의 신민들 또한 일체 똑같이 (이를) 누릴 수 있다.⁷⁵

내용상 상술한 조·일통상장정과 유사한 전형적인 편무적·무조건적 최혜국조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협상 내용 또한 현재 조선 측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영국 측 자료에는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이 눈에 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파크스가 작성한 초안에는 쌍무적 최혜국대우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영국에 대한 조선 측의 특혜 균점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영국 측의 균점 의무 역시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다.⁷⁶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크스는 1883년 6월 22일 외상 그랜빌(G. L. G. Granville)에게 조약 초안을 보고하며 각 조항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74 조약의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승훈, 2006, 앞의 논문 참조.

75 『고종실록』 권20, 20년 10월 27일 甲戌, “…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施及他國 並他國臣民人等之處 英國及英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

76 이 내용은 파크스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한 영문본 초안에 등장함은 물론, 한문본으로 작성한 초안에서도 그 흔적이 보인다(민회수, 2021,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332~333쪽).

하고 있다.

… 제12관은 최혜국대우 관련 조항입니다. 제 초안의 표현은 윌리스(Willes) 제독의 조약에서 해당되는 조항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 조항의 조건 부분을 삭제시키면서 소급적·상호주의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며, 이는 아마도 조선 정부에서 집요하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영국·조선 간 신규 체결 조약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이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각하의 특별 지시를 받을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⁷⁷

즉, 파크스는 조·미조약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붙어 있던 최혜국조관에서 조건을 삭제하는 무조건부 내용으로 변경하는 대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래 조선 측의 의무만 규정했던 편무적인 내용을 영국 측의 의무도 병기하는 쌍무적인 내용으로 바꾸도록 허용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경을 조선 측에서 집요하게 주장하리라는 예상 또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최종 결과는 편무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건만 삭제된 형태로 최종 조인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영국은 조선과의 조약 협상 과정을 독일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파크스는 독일 전권대표 자페(E. Zappe)와 함께 협상에 임하였다. 애초에 영국 본국에서 파크스에 내려온 훈령은 조건부 조항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으

77 Park, Il-Keun, 1982,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近代韓國關係 英·美外交資料集』(이하 『AADM』으로 약칭), 新文堂, 290쪽, “… Article XII is the favoured-nation clause. The wording of my draft differs materially from that of the corresponding Article (XII) in Admiral Willes’ Treaty in respect of the omission of the conditional portion of that Article, and in rendering it retrospective and also reciprocal, which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bably tenaciously claim. The negotiator of a new British Treaty with Korea would feel the need of receiving special instructions on this subject from your Lordship. ….”

나, 이는 파크스와 자페 모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었으며, 자페의 경우 쌍무적인 내용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파크스도 본국의 훈령에 따르지 않고 조건부 구절과 쌍무적 구절을 모두 삭제하여 조약 원안을 조선 측에 제시하였다.⁷⁸ 이후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하의 내용에서 그 과정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 우리는 결국 작년 조약의 조건부 조항과 제 조약 초안의 조선에 유리한 상호 조항 모두의 삭제를 관철해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상품과 제조물에 대한 수출입 관세에 대하여”라는 어구의 삽입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항은 가장 자유주의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어구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했는데, 조선 측 대표는 명백히 그 의미와 목적을 불신했으며, 제 독일 동료는 그 삽입에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에 유리한 상호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조약 체결 쌍방에 모두 적용 가능할 것이기에, 이 어구가 조선 정부의 자유로운 처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선 대표를 만족시켰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조항의 삭제로 인해 저는 이런 주장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⁷⁹

78 『AADM』, 395쪽.

79 『AADM』, 395~396쪽, “... We eventually carried our point in regard to the omission both of the conditional clause of last year's Treaties and also of the reciprocal clause in favour of Corea of my draft Treaty, whilst, as already mentioned, I secured the insertion of the words, “especially in relation to import and export duties on goods and manufactures.” But I was obliged to yield in regard to the words, “this Article shall be interpreted in the most liberal sense,” as the Korean Plenipotentiary was evidently distrustful of their meaning and object, and my German colleague attached no value to their insertion. If the reciprocal clause in favour of Corea had been retained, I might then have satisfied the Korean Plenipotentiary that these words involved no reflection on the liberal dis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s it would have been applicable to both of the High Contracting Powers; but I was deprived of this argument

상술한 내용은 조약 체결 이후인 12월 6일에 파크스가 그랜빌에게 조약 협상의 전말을 보고하는 문서 중 일부이다. 결국 양자 모두의 삭제를 최종적으로 달성했으나 ‘조항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⁸⁰는 어구를 추가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이는 쌍무적 최혜국조관 중 영국 측의 의무를 규정한 구절을 삭제하여 편무적으로 만듦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다. 해석을 자유주의적으로 한다는 구절 삽입이 향후 영국 측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우려하여 이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조선 측 협상 대표가 그리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쌍무적 내용이 편무적으로 변경되어 조선에 불리하게 된 것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동시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조건부 삭제와 편무적 내용으로의 변화 모두를 수용했음은 물론 이에 대해 크게 분쟁을 벌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선 측이 최혜국조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영조약에서는 편무적이고 무조건적인 최혜국조관이 제10관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후 이 조약이 서구 열강과 체결하는 조약의 전형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후에 체결한 이탈리아(1884),⁸¹ 러시아(1884),⁸² 프랑스(1886),⁸³ 오스트리아(1890),⁸⁴ 벨기에(1901),⁸⁵ 덴마크(1902)⁸⁶ 등과의 조약에서 최혜국조관은 모두 이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었다.⁸⁷ 아

by the omission of that clause. ...”

80 이 구절은 아마도 19세기 영국의 자유무역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81 『고종실록』 권21, 21년 윤5월 4일 丁未.

82 『고종실록』 권21, 21년 윤5월 15일 戊午.

83 『고종실록』 권23, 23년 5월 3일 乙未.

84 『고종실록』 권29, 29년 5월 29일 丙戌.

85 『고종실록』 권41, 38년 3월 23일.

86 『고종실록』 권42, 39년 7월 15일.

87 수록된 조항의 번호도 벨기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이 10관에 기재되었다(벨기에에는 9관). 다만 1899년에 대한제국과 청국 사이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은 최혜국조관이 빠져 있는 대신 조약 전반에 걸쳐 ‘최혜국’이라는 표현이 다수

올려 최혜국조관의 특성상 해당 조관이 적용되는 국가들은 모두 ‘균점’을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조·영조약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조약 체결 이후 미국,⁸⁸ 일본⁸⁹ 등 이전에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모두 균점을 요구했고 조선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⁹⁰

지금까지 최혜국조관이 처음 등장한 조·미조약, 무조건적 내용으로 변화한 조·일통상장정, 그리고 이후 대서구 조약의 전형이 된 조·영조약 등 3개 조약을 대상으로 최혜국조관의 등장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측의 반응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혜국대우 문제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면 조선은 나름대로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당한 협상을 해왔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조약에 무지’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무력하게 빼앗겼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최혜국대우의 허용 결과 각국의 특전 ‘균점’으로 인한 문제 또한 조선 측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이를 우려하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4조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⁹¹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측의 침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조·영조약 협상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다음 기록들은 일정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여타의 조약들과는 다르다(『고종실록』 권39, 36년 9월 11일).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殷丁泰, 2005,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歷史學報』 186; 이은자, 2013, 「韓·中 近代 外交의 실험, 1895-1905年」, 『중국근현대사연구』 58),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88 『미안』 1, 문서번호 69, 47쪽.

89 아연 편, 1965, 『구한국』 1(日案 1), 고려대학교출판부, 문서번호 252, 128쪽.

90 다만 일본의 경우 조선 측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처음에는 균점을 순순히 승인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승인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酒井裕美, 2016, 앞의 책, 252~258쪽 참조.

91 아연 편, 1970, 『구한국』 8(淸案 1), 고려대학교출판부, 문서번호 17, 11쪽.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A. … 그들(조선 통서 관리: 필자 주)은 … 조선 정부는 이미 다른 국가에 허락한 특권을 어느 한 나라에 거부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⁹²

B. … 그 시행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의 원칙이 준수되어온 협정은 이미 체결되었으며, 한 국가에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우대가 이루어진 적은 없기에, 이에 대한 우리의 조치는 여왕폐하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⁹³

A는 1883년 6월에 파크스가 조·영조약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그랜빌 외상에게 상신하는 내용 중 일부로, 애스틴이 협상차 조선의 통서에 가서 논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특권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어느 한 국가만 차별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B의 경우 애스틴이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선에 보낸 국서에 대한 민영목의 회신 중 일부로, 역시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하고 특정 국가에만 우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조선 정부는 특정 국가에 허용한 권리는 다른 국가에게도 공평하게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전제로 생각해볼 경우, 애당초 조·미조약의 14관, 조·일통상장정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조·영조약의 10관에 규정된 이른바 ‘최혜국대우’는 조선 측에서 거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1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92 『AADM』, 279~280쪽, “... They declared ... that it was wholly foreign to the inten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fuse to one nation privileges which they had already allowed to another. ...”

93 『AADM』, 285쪽, “... Agreements have already been concluded, in the execution of which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has been adhered to; and no favoured treatment having been extended to one (country) more than to another, our action in this respect is in accord with the views expressed by your Excellency ...”

최혜국, 곧 ‘가장 혜택받는’ 국가라는(영어로는 ‘Most Favored’)표현에서 마치 차별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 같은 용어와는 달리, 실제 내용은 타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곧 오히려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상기 최혜국조관의 특징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가 ‘공평’을 중시한다면 ‘차별’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 내용을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조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3개 조약의 협상에 걸친 공통적인 침묵 또한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것이다. 역시 전술하였지만 최혜국대우가 오늘날 현대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조선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결코 무지해서도 소극적이어서도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하에 행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⁹⁴ 물론 조선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조관으로 인해 생기는 균점의 문제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내키거나 좋아하지는 않았지만,⁹⁵ 그럼에도 응당 따라야 할 ‘의무적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 하나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의무만 규정하는 편무적인 내용은 분명히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는 점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최혜국대우를 거부하는 형편이었던 조선은 미국과의 통상조약 또한 신사척사운동(辛巳斥邪運動)이라는 전 국민적 저항을 받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구와의 조약 체결에서도 서구의 침탈을 가급적 억제하는 쪽에 주력할 상황이었으며 조선 상인이 해외

94 당시 조선보다 앞서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한 청과 일본 역시 대부분의 조약에 이러한 편무적·무조건적 최혜국대우 조관이 있다는 사실도 조선이 이들 나라의 선례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5 앞서 간략하게 각주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균점의 승인조차도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순히 응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로 진출하여 무역을 한다는 상정은 사실상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최혜국대우에서 조선 측의 특혜 군점 조항이 생기더라도 그 실익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었다. 조선은 조·미조약에서는 미곡 수출이나 포교 허용 문제, 조·영조약에서는 영사재판권 조건부 폐지 조항 삽입이나 내지여행권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대 국가들과 상당한 논쟁을 하며 자국에 필요한 조건을 관철하려 한 만큼,⁹⁶ 이렇게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문제는 반대로 양보 카드로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개항 이후 조·일수호조규부터 조·미수호통상조약까지 최혜국대우 조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혜국대우는 기본적으로 이를 수혜받는 국가에게 제3국에의 대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수혜국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데 있다. 형태상 편무적·쌍무적, 조건부·무조건, 포괄적·한정적, 자동적·비자동적 등으로 구분되며, 일찍이 11세기 유럽에서 그 맹아가 등장한 후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해왔고, 현재도 존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 불평등조약의 대명사로 전제하는 경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는 최혜국조관이 누락되어 있다. 원래 일본 측이 제시한 원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 이외 제3국과의 조약 체결을 전제하는 내용이 서두에 삽입되어 있어서 조선 측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서구에 대한 적개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 관계로 서양과의 조약 체결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측의 경우 파

96 심지어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 삽입 문제는 민영목이 협상 자체의 무효를 거론하기까지 할 정도였다(한승훈, 2006, 앞의 글, 244쪽).

견된 전권사절단은 일본 국내의 정한론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약을 체결해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으며, 막무가내로 요구조건을 강요하여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피해야 할 입장이었다. 따라서 운요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같이 핵심 과제로 설정한 것들도 성취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최혜국조판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이렇게 양측의 사정이 절묘하게 결합하여 최혜국조판 문제의 경우 조선 측의 반대 의사에 일본 측도 별이의 없이 삭제하는 형태로 귀착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14관에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조건부 형태로 삽입되었다. 원래 미국 측에서 제출한 원안은 조건이 빠진 형태로, 조선이 당시 국내 사정상 대신 협상을 위임한 청의 이홍장 측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이홍장과 조약 관련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은 김윤식과의 대화 및 미국 측 대표 슈펠트와 조선 측 전권대신 김홍집 간의 회담 등에서도 일체 최혜국조판과 관련된 언급은 없는 것을 볼 때, 조선 측은 최혜국조판의 삽입이나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물론 당시 조선이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에서 맺은 조약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국을 통상조약 체결 대상으로 삼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최혜국조판에 대한 침묵은 결코 조선이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에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삽입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조선 측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같은 해에 체결된 조·영조약은 이후 불평등조약의 전형이 된 조약으로서, 제10관에 무조건적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규정되는데, 영국 측 협상 대표 파크스가 작성한 초안에는 조선 측의 권리도 포함되는 쌍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삭제되었는데, 역시 조선 측에서 크게 저항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여러 조약 체결

시 최혜국조관에 대해 조선 측의 반응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조선이 무지해서라기보다 최혜국조관 자체가 용어에서 풍기는 불평등한 느낌과는 달리 오히려 불리함을 제거하여 공평함을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명분상 거부할 수 없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편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불평등의 요소이지만, 조선은 서구 배척 분위기가 득세한 당시 상황상 최혜국조관을 쌍무적으로 적용받아도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협상 과정에서 보다 역점을 둔 사안에 대한 요구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사료

『高宗實錄』, 『倭使日記』(奎貴16034), 『勉菴集』.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65, 『舊韓國外交文書 1(日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70, 『舊韓國外交文書 8(清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_____, 1967, 『舊韓國外交文書 10(美案 1)』, 高麗大學校 出版部.

國史編纂委員會, 1958, 『從政年表·陰晴史(韓國史料叢書 6)』.

_____, 1971, 『龍湖閒錄(韓國史料叢書 25)』 4.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편, 2012, 『近代韓國外交文書 제4권: 조미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신현(申櫛) 지음·김종학 역, 2010,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日本外交文書』, 『清季中日韓關係史料』.

Park, Il-Keun, 1982,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近代韓國關係 英·美外交資料集』, 新文堂.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스넷, <http://contents.nahf.or.kr>

단행본

김홍수, 2009,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_____, 2022,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동북아역사재단.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2013,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上, 일조각.

宋炳基, 1985, 『近代韓中關係史研究: 19世紀末의 聯美論과 朝淸交涉』, 檀大出版部.

酒井裕美, 2016,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学出版会.

논문

김중학, 2017,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과정의 재구성: 『심행일기(沁行日記)』와 몇 가지 미간문헌에 기초하여」, 『한국정치학회보』 51-5.

김홍수, 2017,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57.

민희수, 2021,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영국 국립기록 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박한민, 2019,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경계』 111.

殷丁泰, 2005,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歷史學報』 186.

이성덕, 2004, 「최혜국대우-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 개념-」, 『서울국제법연구』 11-1.

이은자, 2013, 「韓·中 近代 外交의 실험, 1895-1905年」, 『중국근현대사연구』 58.

조국, 2021,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중일 간 영사재판권 행사 문제-내외국인 혼합 사건에서의 관심(觀審)·청심(聽審) 시행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5.

한승훈, 2006, 「朝英條約(1883.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韓國史研究』 135.

_____, 2018,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조선의 관세자주권 확보 시도와 좌절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2.

酒井裕美, 2013, 「朝米修好通商條約(一八八二年)における最惠国待遇をめぐる一考察」, 『朝鮮學報』 229.

개항 이후 최혜국대우 조항의 조약 내 삽입과 반영 추이

민회수

최혜국대우는 기본적으로 이를 수혜받는 국가에게 제3국에 대한 대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서는 누락되었다. 일본 측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3국과의 조약 체결을 전제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선 측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사회 전반의 대서구 적개심으로 인해 서양과의 조약 체결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사절단은 국내의 정한론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약을 체결해야 했기에 협상 결렬은 피해야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최혜국대우 조관(최혜국조관)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이렇게 양측의 사정이 결합하여 최혜국조관 문제는 조선 측의 반대 의사에 일본 측도 이의 없이 삭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귀착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14관에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조건의 형태로 삽입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협상 대표들 간 일체의 회담에서 최혜국조관 관련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조선은 최혜국조관의 삽입이나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이 나름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을 통상

조약 체결 대상으로 삼은 점을 감안하면, 최혜국대우에 대한 침묵은 이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편무적 최혜국대우가 삽입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조선의 이의 제기 흔적은 없다. 이는 조·영조약 제10관에도 규정되는데, 영국 대표 파크스의 초안은 쌍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이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변화하는데 역시 조선 측의 큰 저항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에 대한 조선의 무반응은 최혜국조관 자체가 용어의 불평등한 느낌과는 달리 불리함을 제거하여 공평함을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명분상 거부할 수 없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의 소산으로 보인다. 다만 편무적인 점은 불평등성이 있지만, 조선은 압도적 서구 배척 분위기의 상황상 최혜국조관을 쌍무적으로 적용받아도 실익이 없을 것이기에 협상 과정에서 다른 역점 사안에 대한 요구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최혜국대우, 조약, 조·일수호조규, 조·미조약, 조·일통상장정, 조·영조약, 편무적, 공평

ABSTRACT

The Insertion and Reflection of the Most-Favored-Nation(MFN) Treatment Clauses in the Treaties of Korea after 1876

Min Hoisoo

The treatment of the most-favored-nation(MFN) basically guarantees the level of equality or higher to the beneficiary countries compared to the treatment of third countries, and was omitted at the 1876 Korea-Japan Treaty due to circumstances on both sides. And the first unilateral MFN clause was inserted at the 1882 Korea-U.S. Treaty in a conditional form, later at the 1883 Korea-Japan Treaty of Commerce and Korea-U.K. Treaty in an unconditional form. Korean Government had no mention on it in all cases, probably due to the judgment that the MFN clauses could not be refused because they have a character that aims for fairness by eliminating disadvantages. And Korea's non-response to the unilateral aspects of MFN seems to have been due to the purpose of negotiation to achieve the requirements for other key issue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because it would not be of practical benefit even if

the MFN treatment was applied bilaterally.

Keywords: most-favored-nation(MFN), 1876 Korea-Japan Treaty, 1882 Korea-U.S. Treaty, 1883 Korea-Japan Treaty of Commerce, 1883 Korea-U.K. Treaty, unilateral, fairness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와 그 영향

이현우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 활동
- III. 서구 학자들의 고고 발굴이 중국 고고학에 미친 영향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2021년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고고학연구소(考古學研究所)는 『중국고고학백년사(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를 발간하여 중국 고고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였다. 총 3권 1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276인의 고고학자가 집필에 참여한 중국 최대 규모의 고고학 총서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원에서 대규모 출판 사업을 실시하여 기념한 중국 고고학 탄생의 해는 1921년으로,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¹의 하남성(河南省) 민지현(澠池縣) 양소(仰韶)유적 발굴이 그 시작점이다.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이때부터 1940년대까지를 중국고고학의 시작기²이자 과학고고학(科學考古學)의 시대³로 평가하는데, 중국 현대고고학의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실제 안데르손이 양소유적을 발굴하기 이전부터 서구의 학자들이 중국 내지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에두아르 샤반느, 에른스트 보쉬먼, 에밀 리쌍, 테야르 드 샤르댕 등이 중국 내지에서 고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후반 중국 고고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서구 학자들이 중국 내지에서 실시한 고고 조사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들의 활

* 투고: 2024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5일, 재심사 완료: 2024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19)로 수행된 연구임.

1 Andersson은 안데르손, 안델손, 안테르손 등으로 번역된다. 스웨덴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앤더슨이지만 국립국어원의 표기 기준에 따라 안테르손으로 표기한다.

2 王巍, 2021, 「中國考古學百年歷程回眸」, 『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第1卷上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5쪽.

3 張光直 著, 陳星燦 譯, 1995, 「考古學和中國歷史學」, 『考古與文物』第3期, 1쪽.

동이 중국 고고학의 시작기, 즉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중국 고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II.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 활동

동인도회사를 앞세운 유럽 제국(諸國)과 청(淸)의 교역은 유럽에 이색적인 동방의 물품과 문화를 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학자들에게도 중국 조사와 연구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19세기 후반 서구의 자본주의국가들이 제국주의(帝國主義)로 전향하면서 중국은 한층 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서구의 학자들은 탐험대 혹은 고찰대를 조직하여 조사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⁴

1. 중국 현대고고학의 탄생 전야: 1920년 이전

서구 학자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이미 중국 신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의 실크로드 탐사에 뛰어들었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중국 내지에 들어와 조사와 채집 활동을 진행하였다(표 1). 중국 내지에 들어온 서구 학자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출신이 많았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인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에두아르 사반느와 같이 중국학을 전공한 학자도 있었으나 고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화학, 의학, 건축학 등 고고학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톨릭 신부(아르망 다비드), 개신교 선교사(토마스 토렌스), 침례회 의료선교사(사무엘 콜링), 내지회(內地會) 전도

4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考古, 56쪽.

〈표 1〉 19세기 중엽~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유물 채집 및 유적 조사 활동(서북지역 제외)

시기	조사자		조사지역	조사대상	성격
1860년 전후	영국	존 안데르손(John Andersson)	雲南	마제석기	채집
1866년	프랑스	아르망 다비드(Armand David)	內蒙古	석촉	채집
1872년	영국 러시아	스테판 부셀(S. W. Bushel) 그로스브너(T. G. Grosvenor)	內蒙古	元上都	조사
1893년	러시아	포조도니브(Pozdoniev)	內蒙古	林西 白塔子	조사
1886년	—	코텔리(F. C. Cotelli)	陝西	석기	채집
1898년	이탈리아	엔리코 지글리올리(E. H. Giglioli)	福建 福州 陝西 延安	玉斧 장방형유공석부	채집 채집
—	영국	존 코긴 브라운(J. Coggin Brown)	雲南	석기 12점	채집
—	영국	에드워드 바버(E. Colborne Baber)	四川	마제석부	채집
—	미국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	河北	석부	채집
1905년	영국	사무엘 콜링(S. Couling)	山東	석기	채집
1905년	독일	에른스트 보쉬먼(E. Boerschmann)	浙江	普陀山 건축물	조사
1907년	프랑스	에두아르 샤반느(Édouard Chavannes)	東北지역 河南 登封 山東,河南,山西	고구려 적석총 石闕 석굴사원	조사
—	영국	토마스 토렌스(T. Torrance)	四川	崖墓	조사
—	—	빌즈(C. Beals)	安徽 蕪湖	전실묘	조사
1914년	프랑스	빅토르 스갈랑(V. Seglen)	江蘇,四川,陝西	고건축 및 애묘	조사
1914~1915년 1920년	오스트레 일리아	제임스 휴스턴 에드가(J. H. Edgar)	岷江 지구 四川 汶川	신석기유물 姜維城유적 채도	채집 조사
1913년 1917년	벨기에	페르난드 부켄스(F. Buckens)	河南 滎陽	전실묘	조사

시기: 빈칸은 정확한 조사시기를 알 수 없음

陳星燦 지음, 趙賢庭 외 옮김, 2011; Berthold Laufer, 1912를 토대로 작성



그림 1 유물 채집 및 유적 조사에 참여한 종교인

좌: 다비드 (https://en.wikipedia.org/wiki/Armand_David 인용)

중: 토렌스 (https://en.wikipedia.org/wiki/Thomas_Torrance 인용)

우: 에드가 (<https://china.usc.edu/calendar/jh-edgar-australian-missionary-tibetan-chinese-border-1902-1936> 인용)

사(제임스 에드가)와 같이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그림 1).

서구 학자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탐을 결성하여 유적과 건축물을 조사하고, 유물을 채집하였다. 당시 이들의 활동 범위는 서쪽으로는 운남과 사천, 북쪽으로는 내몽고와 중국 동북지역, 남쪽으로는 북진성에 이른다. 이들의 조사 활동은 조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행 혹은 답사 중의 유물 채집 활동이다. 운남이나 내몽고, 섬서성 등을 여행, 답사하면서 유물을 채집하였는데, 채집 유물은 대부분 석촉, 석부과 같은 선사시대 석기이다. 결과적으로는 유물을 채집하여 자국으로 반출하거나 자국에 소개하여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과정은 ‘비목적성 고고활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어느 정도의 목적성을 가진 조사 활동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두아르 샤반느와 에른스트 보쉬먼이다.

에두아르 샤반느는 프랑스에서 중국사를 전공한 전문가로, 1889년 북경에 왔다. 이후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전반부를 번역하여 1895~1905년까지 번역문을 출간하였으며, 산둥 무량사(武梁祠)를 방문한 뒤 1893년 중국 한대의 석각(石刻)에 대한 저서도 출판하였다. 1907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집안(輯安, 현재 集安) 통구에서 광개토대왕비를 탁본하였으며, 고구려 적석총과 도성을 답사하였다.⁵ 연이어 산둥, 하남, 산서 등지의 석비와 석궐(石闕), 석굴사원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와 연구의 결과물을 저서로 출판하였고, 사진으로 상세히 남겼다(그림 2). 그 결과 샤반느는 당시 ‘서방 한학(漢學)의 일인자’로 칭해지기도 하였다.⁶

보쉬먼은 독일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였다. 1902년 독일 군인으로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이미 중국 고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2년간의 체류기간 동안 북경 서쪽의 벽운사(碧雲寺)를 세밀하게 계측하였으며, 1905년 절강성 보타산(普陀山) 건축물을 조사하였다. 이후 1930년대까지도 중국에 방문하여 조사를 지속하였다. 에른스트 보쉬먼의 중국 고건축 조사는 개인의 전공과 지적 호기심에 기반한 목적성을 가진 조사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사례는 페르난드 부켄스의 한묘(漢墓) 조사이다. 부켄스는 본디 의사로, 중국과 벨기에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철도 사업에 고용되었다. 하지만 그는 하남성 영양(滎陽) 전실묘를 비롯하여 많은 시간을 화북지역 한묘의 조사와 기술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조사 활동은 당시 잔존하고 있던 건축물, 사원, 탑, 석굴, 석궐, 애묘(崖墓)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노출되었거나 철도 부설 시 확인되었던 전실묘 등 대부분 한대(漢代)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빅토르 스갈랑은 프랑스의 군의관으로, 사천의 소화현(昭化縣)에서 포삼

5 Chavannes Édouard, 1907, “Rapport sur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éen de Kao-keou-li,” *Comptes rendu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51(9), pp. 549~575.

6 載仁(Jean Pierre Drege) 著, 院洁卿 譯, 2012, 「西方漢學第一人-愛德華·沙畹」, 『史學理論研究』第1期, 136쪽.



그림 2 서구 학자들의 중국 조사와 사진

상: 보쉬먼(Ernst Boerschmann, 1923 수정 후 인용)

하: 샤만느(<https://photographyofchina.com/author/edouard-chavannes> 및 Chavannes Édouard, 1907 수정 후 인용)

낭묘(鮑三娘墓)를 발굴하였다. 또한 섬서성 한 괘거병묘(霍去病墓) 앞의 석마(石馬), 사천 거현(渠縣)의 원씨궐(沅氏闕), 보녕현(保寧縣)의 애묘, 광원현(廣元縣)의 천불암(千佛岩)을 발견한 바 있다. 코즐로프(P. K. Kozloff)는 1907~1909년에 감숙(甘肅) 장액(張掖) 액제납하(額濟納河)에서 서하(西夏) 폐지(廢地)를 발굴하여 『역경(易經)』, 『본초(本草)』, 『법화경(法華經)』 등의 서적과 고불화, 지폐 등을 발견하였다. 이후 토사도한(土謝圖汗)의 셀렝가강 상류의 낙안산(諾顏山)에서 진한시대의 무덤 212기를 발굴하였다. 이미 도굴되었고, 관 상부에 못으로 고정된 금박과 청동용기, 철촉, 마노수(瑪瑙獸), 비단, 모직물 등을 발견하였다. 한 점의 완 저부에서는 ‘상림(上林)’이라는 두 글자가 확인되기도 하였다.⁷

서구 학자들 중에는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고, 모두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전공한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조사의 결과를 답사기, 단행본, 간보(簡報) 등의 형식으로 출판하였으며, 조사 당시의 도면과 사진을 상세히 남기기도 하였다. 샤반느와 보쉬먼, 부켄스가 대표적이다. 출판물에는 조사 과정, 유적과 유물의 소개, 도면과 사진이 실려 있기에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학문적 성과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조사 활동이 어느 정도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졌으며, 그 결과물이 보고서로서의 역할과 학술적 가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① 개인적인 활동에 국한되었으며, ② 채집, 조사된 유물은 자국으로 반출되었고, ③ 답사기, 단행본, 간보 모두 자국에서 출판되었다. 즉, 이 당시 서구 학자들의 조사 활동은 지극히 학자 개인과 개인이 속한 국가만 존재했을 뿐이며, 그들의 활동에 중국과 중국인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은 서구 열강들과의 연이은 전쟁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체결로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했고 내부의 혼란은 가중되었으며 열강들의 침탈은 가속화되었다. 이 때 내지에 들어온 서구 학자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신비롭고 이국적인 공간이자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비근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낙후되고 열악하다는 인식도 공존하였다. 그들의 조사 활동 이면에도 중국 문화에

7 衛聚賢, 2017, 『中國考古小史 中國考古學史』, 三晉出版社, 65~67쪽.

대한 존중보다는 문화적 우월감, 개인적 호기심과 탐구심의 충족이 우선이었다. 당시의 중국 내부의 연구 풍토 역시 전통적인 금석학(金石學) 연구 위주로,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교육받은 인재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중국 연구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중국 연구자들이 고고학의 전면으로 나서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2. 중국 현대고고학의 맹아: 1920년대

일반적으로 중국고고학계에서는 1920~1940년대를 중국고고학의 시작기로 보는데, 1920년대(1921~1928)를 별도로 중국 고고학의 형성기, 1930~1940년대(1929~1949)를 초보 발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⁸

중국 현대고고학의 시작과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요안 군나르 안데르손이다. 안데르손은 스웨덴의 지질학자로, 1914년 중국 북양정부(北洋政府)의 요청으로 중국에 와서 농상부(農商部)의 광정고문(鑛政顧問)을 맡았다. 1916년 위안스카이(袁世凱) 사후 중국 내 정황이 불안정하여 더 이상 광산 조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어릴 때부터 고생물화석 수집을 좋아한 데다 1916년 산서성(山西省) 남부의 황하 연안에서 황토 퇴적층과 고생물화석(淡水化石)을 발견했기에 그의 관심은 고생물화석 수집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⁹ 이후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안데르손은 포유동물의 화석채집에 집중하였고, 지질조사 동료들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양의 석기를 채집하였다. 1920년에 “Stone Implements of Neolithic Type in China”를 발표하면서 그의 관점은 자연에서 문화로 옮겨갔다.¹⁰

8 朱乃誠, 2021, 「中國考古學百年歷程」, 『南方文物』第1期, 43쪽.

9 王浩輝, 2015, 「論安特生在中國考古學史上的地位」, 蘭州大學研究生學位論文, 13쪽.

10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앞의 책, 97쪽.



그림 3 안데르손과 양소촌 발굴 당시 사진(侯俊杰, 2021 수정 후 인용)

1918년 연경대학(燕京大學) 화학과 교수 기비(J. M. Gibb)가 주구점(周口店) 계골산(鷄骨山)에서 가져온 화석을 보고 처음으로 주구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동물화석을 발견하였다. 1921년 오스트리아 고생물학자 오토 즈단스키(Otto Zdanski)와 주구점 용골산(龍骨山)을 시굴조사하여 동물화석과 석영편을 발견하였다. 이해 4월에 안데르손은 동물화석과 석기 수집을 위해 류장산(劉長山)과 함께 하남성 승지현 양소촌에 방문한다. 양소촌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깊은 구가 발견되었는데, 층간의 경계가 명확한 토층이 노출되어 있었다. 하층은 제 3기의 홍토(紅土)이고, 그 위가 회색토(灰色土)였는데, 이 회색토층에서 마광채도(磨光彩陶)편을 포함한 토기편, 석분(石鱗)과 같은 석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때 안데르손은 정미한 채도와 석기의 공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¹¹ 6월에는 요서지역으로 이동하여 금서현(錦西縣) 사과둔(沙鍋屯) 동굴유적을 발굴하고, 10월부터는 다시 양소촌으로 돌아와 지질조사소의 위엔푸리(袁復禮), 데이비스 블랙(Davidson Black), 즈단스키 등과 함께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양소촌 남쪽 17곳을 발굴하였다(그림 3). 1923~1924년 안데르손은 채도문화가 이 지역을 거쳐 중원으로 유입된다는 추정의 고고학적 검증, 청해호 근방

11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위의 책, 99쪽.

의 지질 정황 조사, 감숙 동부와 청해(青海) 귀덕(貴德)지역의 동물화석 수집을 위해 감숙·청해 일대를 집중 조사하고 발굴을 진행하였다.¹² 안데르손의 연구 성과는 『중화원고지문화(中華遠古之文化)』, 『봉천금서현사과둔동혈층(奉天錦西縣沙鍋屯洞穴層)』(위엔푸리 번역), 『감숙고고기(甘肅考古記)』[러선린(樂森璉) 번역]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번역되었는데, 『봉천금서현사과둔동혈층』은 거의 완전한 발굴 보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에밀 리쌍(Emile Licent)은 프랑스 예수회 신부로, 1920년 감숙 황토층에서 석영석기를 채집하고, 1922년 샤라오소골강 유역을 조사하였다. 이후 고생물 학자이자 파리 천주교학원의 교수 테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을 초청하여 샤라오소골강 일대에서 대량의 동물화석과 석기를 발견하였는데, 화석 중 인류의 치아 1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1923년에는 영하(寧夏) 수동구(水洞溝)에서 다량의 동물화석과 불에 탄 뼈, 석기를 발견하였다. 이들 유적은 모두 다량의 구석기와 동물화석이 공반되고, 인류화석도 확인된 중국 최초의 유적이다.¹³

Ⅲ. 서구 학자들의 고고 발굴이 중국 고고학에 미친 영향

1. 서구 학자들의 고고 발굴과 중국고고학

19세기 중엽~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은 중국 내지에 들어와 목적성 없는 선사 유물 채집 활동이나 잔존하고 있는 역사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1921년 안데르손의 양소촌 발굴은 중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과학적 발굴 조사로,¹⁴

12 溫麗曉, 2013, 「論安特生在近代中瑞考古學交流中的作用」, 蘭州大學研究生學位論文, 19~20쪽.

13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앞의 책, 106~107쪽.

14 王巍, 2021, 앞의 글, 3쪽.

중국 현대고고학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양소촌 발굴의 성과는 중국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새로운 자료와 관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야외고고학(野田考古)¹⁵은 이전 시기의 채집과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1) 학문분야

양소촌유적에서 ‘채도’의 발견과 ‘마제석기와의 공반 관계’ 확인은 매우 중요한 발굴 성과이다. 안테르손은 양소촌과 주변에서 발굴한 유적을 묶어 채도를 특징으로 하는 양소문화(仰韶文化)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명명된 고고문화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민족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고문화(archaeological culture)의 개념과 선사시대 연구에 문화사적 접근법이 발달하고 있었으며,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의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의 출간 이후 고고문화는 유럽고고학자들의 작업도구가 되었다.¹⁶ 안테르손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고고문화의 개념을 중국고고학에 접목시켰다. 이는 당시 국제 고고학의 관례를 따라 처음 발견된 지명에 따라 명명된 것이기도 하다.¹⁷ 안테르손은 양소문화 채도 문양과 중앙아시아 아나우(Anau) 및 러시아 서남의 트리폴리에(Tripolje) 채도 문양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채도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전파되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는 중국문명의 기원 탐색과 맞물려 중국문명서방기원설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채집된 석기는 역사시대의 것으로 생각되었고, 중국에는 석기시대가 없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양소촌에서 석기와 채도가 공반되었으며, 안테르손은 양소문화를 한족(漢族)의 선사문화로 판단하였다. 이에 중국 선사

15 지표·지굴·발굴조사와 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 조사(field archaeology)를 중국에서는 野田考古, 한국에서는 야외고고학이라 한다.

16 Bruce G. Trigger 지음·성춘택 옮김, 1997, 『브루스 트리거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19~220쪽.

17 侯俊杰, 2021, 「百年仰韶村」, 『文物天地』第6期, 82쪽.

시대에 석기가 없었다는 인식을 뒤엎고 중국 무석기(無石器)시대는 곧 종언을 고한다. 또한 안데르손이 비록 채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래되었다는 본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감숙·청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가 이 지역에서 발견, 발굴한 유적과 유물은 후에 제가(齊家)문화, 반산(半山)문화, 마창(馬廠)문화, 신점(辛店)문화, 사정(沙井)문화 등으로 명명되어 중국 신석기시대 고고문화 설정의 밑바탕이 되었다.

2) 고고학 방법론-유형학(類型學)¹⁸

19세기 유럽에서는 크리스티안 톰센(Christian Thomsen)의 삼시기법(三時期法)과 오스카 몬텔리우스(Oscar Montelius)의 유형학(類型學, typology)이 대두되어 선사시대의 시대 구분 및 편년 축 형성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1920년대 서구 학자들이 중국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발굴·채집된 유물들을 유형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에밀 리쌍과 테아르 드 샤르댕 등은 수동구와 샤라오소골강 유역의 구석기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유형학을 유물 분석에 이용한 것은 안데르손이었다. 안데르손은 『봉천금서현사과둔동혈층』에서 석기와 토기를 분류하였다. 석기는 타제(打製)석기와 마제(磨製)석기·석환(石環)·석구(石鉤)·석주(石珠) 등으로 분류하고, 석주는 다시 형태와 크기를 기준으로 대타원(大橢圓)·세장(細長)·소횡(小橫)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토기 연구에서 ① 태토, ② 원형(原形), ③ 채색 및 문양, ④ 다른 그룹 토기와와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태토에 따라 두 그룹, 크기와 장식기법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문양의 시문기법을 기준으로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었다. 석기를 타제와 마제, 토기를 조도기(粗陶器)과 세도기(細陶器) 혹은 조질(粗質)과 니질(泥質)로 나눈 것은 현재까지도 상용되는 대분류 기준이다. 또한 현재의 유형학(typology)적 관점에서

18 Typology를 중국에서는 유형학, 한국과 일본에서는 형식학(形式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면, 타제석기·마제석기·석환·석구 등으로 크게 분류한 것은 형식(形式, form)의 설정이며, 형태나 크기, 문양 등은 각 유물의 세분 및 형식(型式, type) 설정을 위한 주요 기준 속성(屬性, attribution)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이미 유형학의 기본적인 방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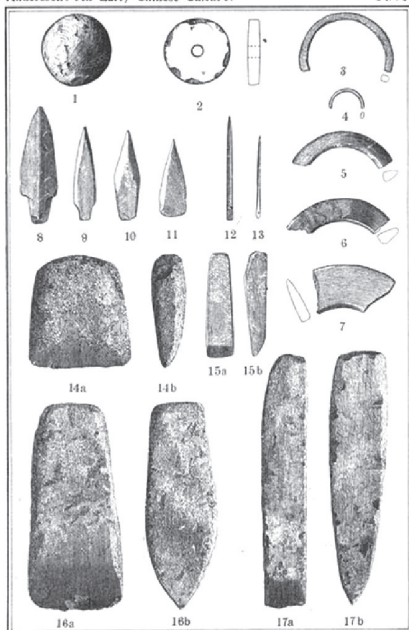
곧이어 앙소촌 발굴개보에서 더욱 세분화된 형식을 설정하였다. 석기를 석도(石刀)·석분(石鏃)·석부(石斧)·석촉(石鏃)·석환(石環) 등으로 나누고, 토기를 첨저기(尖底器)·정(鼎)·력(鬲)·완(碗)·배(杯)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현재 중국고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석분·석부·정·력은 모두 안데르손의 연구를 계승한 것이다.¹⁹

안데르손은 *An Early Chinese Culture*에서 분(鏃)과(戈)에 대해 유형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각각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였다(그림 4-中右). 유럽 신석기시대의 단순한 석제 도끼에서 청동기시대의 세련되고 장식성이 뛰어난 청동 도끼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 몬테리우스의 분석과 분의 형태 차이를 토대로 석분이 공부(鑿部), 즉 소켓이 있는 동분·철분의 프로토타입(prototype)임을 밝혔다. 과 역시 고식의 석제 프로토타입에서 얇고 유려하게 마무리되는 형태의 동과로 변화하며, 1 → 6(그림 4-中)의 ‘형식 조열(typological series)’을 완성하였으며 이 조열을 “아름다운 형식 조열(beautiful typological series)”이라고 표현하였다. 현재 유형학에서는 기종으로서의 상위개념인 form과 form 내에서 시간성을 가지는 속성을 묶어 조합한 하위개념 type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안데르손의 유형학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typ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석과와 동과가 하나의 typological series를 이루고 있다. 동과에 한해서 보면, 과신(戈身)의 폭과 형태라는 속성에 기반하여 2~6으로 세분하였는데, 2~6 각각이 현재의 type이며, 2에서 6으로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유려하게 변화하는 형식 조열을 완성하였다. form과 type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유형학과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다.

19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앞의 책, 172쪽.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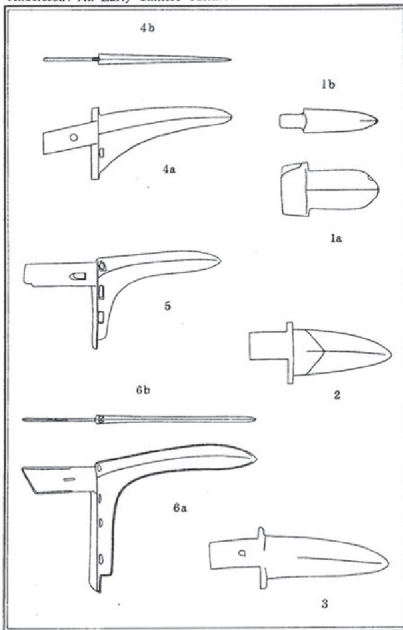
Pl.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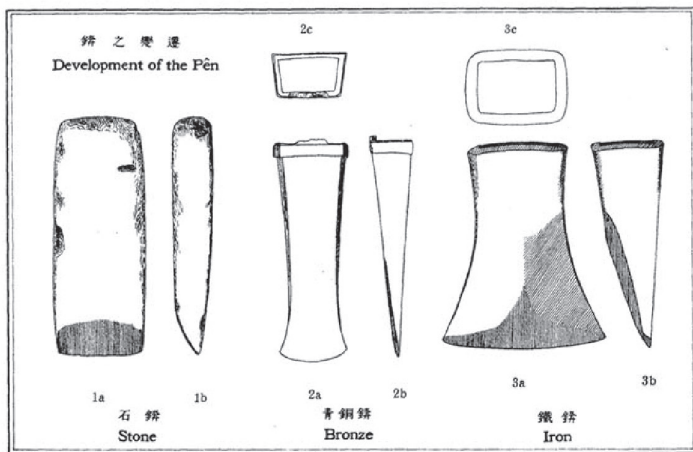
Artifacts of the Yang Shao Culture.
物道紀化文部仰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Pl.V.



戈之變遷 第一圖石戈 第二至第六圖青銅戈
Development of the Ko. (Fig 1. Stone; Fig 2-6 Bronze.)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Pl.IV.

그림 4 안데르손의 양소문화 출토 유물 도판 및 과(戈)와 분(鉞)의 변천(J. G. Andersson, 1923)

형식(type), 프로토타입, 고식(primitive type), 토착 형식(autochthonous type) 등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형식 조열을 통한 유물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 등 중국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형학 역시 이 시기 안데르손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야외고고학-발굴과 보고

주구점, 사과둔, 양소촌 그리고 감숙·청해 지역에서 진행된 안데르손의 일련의 발굴 조사는 기존의 조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유럽과 미국의 고고학, 고생물학 등에서 사용되던 도구들이 중국 유적 발굴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끝이 일직선인 삽, 작은 삽, 곡괭이, 송곳, 망치, 갈고리, 붓 등이 사용되었다.²⁰ 그리고 발굴에서 트렌치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층위 구분, 층위 내 유물(표본) 위치 그리고 트렌치에서 확인된 유구 등을 모두 도면화하였다(그림 5-1, 2). 양소촌 발굴 중 도로 측구에 노출된 벽의 토층도에서 흙의 성질에 따라 층위를 구분하였고, 층마다 다른 문양을 넣어 표시한 도면도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사과둔 동굴유적 발굴 시에는 이미 동굴(유구)의 평면도와 퇴적의 횡·종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유구 혹은 토층 내 일정한 기준선(0m선)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물과 화석의 위치를 표시하였다(그림 5-2, 3下). 현재 토층 기준선과 격자 방안의 역할과 같다. 당시 유럽에서는 삼시기법, 유형학과 함께 층위학이 고고학의 기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안데르손이 원래 지질학자였기 때문에 층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층위 자체를 중요시하였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적 분포도와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의 작성이다. 안데르손이 2년간 감숙·청해 일대를 조사하며 여러 유적을 발견하였는데, 하천이나 장성을 중심으로 이들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그림 5-4, 5). 또한 등고선이 표현된 지형도에 강이나 도로, 마을 등을 표시하고 유적의 분포 혹은

20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위의 책, 1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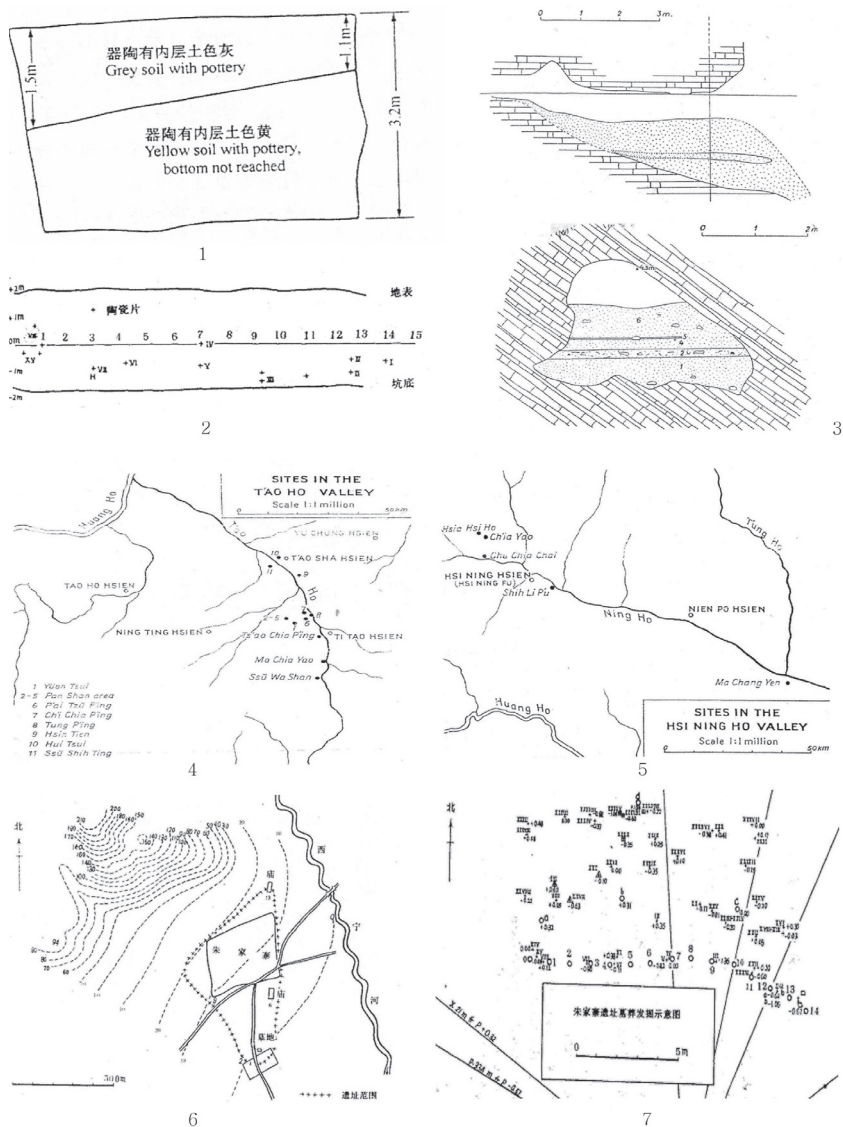


그림 5 안데르손의 도면(王浩輝, 2015 수정 후 인용)

1. 양소춘유적 제2지점 트렌치 단면도 2. 주가채(朱家寨)유적 단면도 3. 사과둔유적 단면도 4. 조하(洮河) 유역 유적분포도 5. 서녕하(西寧河)유역 유적분포도 6. 주가채유적 분포도 7. 주가채유적 무덤분포도

발굴 범위를 그렸으며(그림 5-6), 발굴 이후에는 유구의 배치 상황을 자세히 표시하였다(그림 5-7). 당시 안테르손이 그린 유적 분포도,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의 기본 틀은 현재까지도 간보(簡報)나 보고서에 사용되고 있다.

유물의 실측에서도 새로운 실측 도면이 작성되었다. 토기는 외형 스케치에서 벗어나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면도와 단면도를 그렸다(그림 6-左上 2~4). 토기 편(片)의 경우 평면도를 중앙에 배치하고 좌우에 단면도를 기울기에 맞게 그렸다(그림 6). 금속기는 평면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측면도, 상면에 단면도를 배치하였고, 석기 역시 평면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측면도를 배치하였다. 평면도에 측면도 및 단면도가 함께 배치된 경우 유물 번호 옆에 소문자 알파벳 a, b, c를 붙여 분리 표기하였다. 이때 이미 유물 실측의 기본 방법이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축척 표시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테르손의 유물 도면은 현재 중국 보고서의 도면과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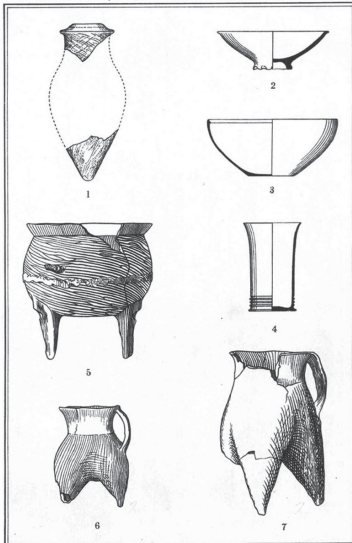
1920년대 초 안테르손의 발굴 조사는 중국 야외고고학의 신지평을 열었다. 그의 발굴과 보고 방식은 이전 시기에는 없던 매우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었으며 비교적 객관적이었다. 1926년 리지(李濟)가 산서 서음촌(西陰村)유적을 발굴했는데,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고고학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 발굴 조사이다. 이듬해 『서음촌사전적유존(西陰村史前的遺存)』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 안테르손의 토기와 석기 분류, 유구 단면도, 토기 실측도가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의 트렌치 조사법이나 유적, 유구, 유물 도면 등은 중국고고학에 녹아들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안테르손의 발굴부터는 ‘중국인’이 적극적으로 발굴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류장산, 바이완위(白萬玉), 위엔푸리를 비롯하여 안테르손에게 지도받은 중국인 조수들이 발굴에 참여하거나 직접 발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 시기 서구 학자들의 채집과 조사는 지극히 개인에게 한정되었고 중국과 중국인이 배제되었다면, 이때부터는 보조적이든 수동적이든 중국인이 본격적으로 고고 활동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당시 안테르손의 ‘과학적’ 발굴은 민주와 과학을 슬로건으로 한 신문화운동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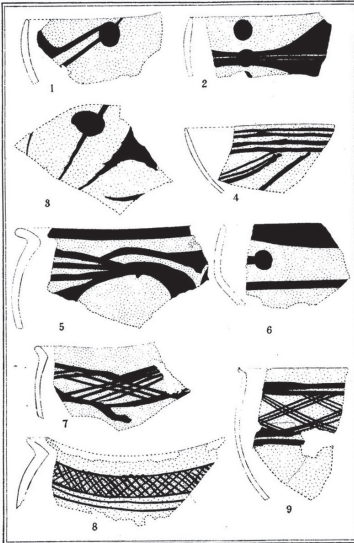
Pl. VII.



Monochrome Pottery of the Yang Shao Culture.
器陶色單之紀化文器石部仰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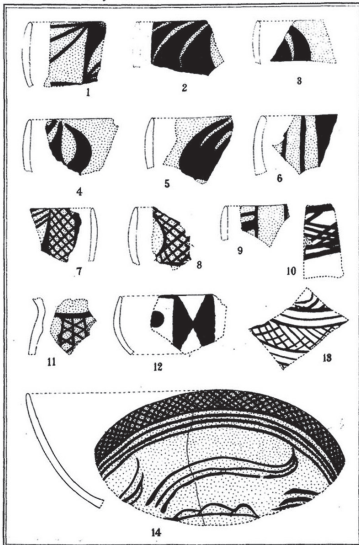
Pl. X.



Painted pottery, Yang Shao T'wen. Half of nat. size. 中 之 小 大 物 原 表 特 記 器 陶 色 部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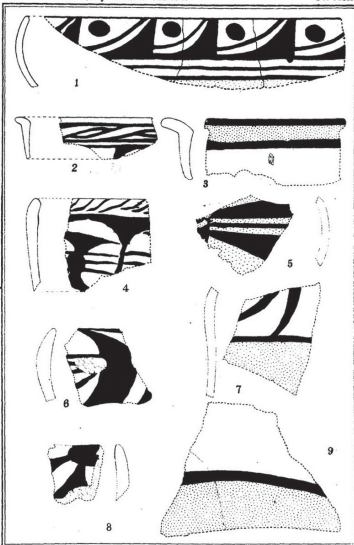
Pl. XI.



Painted pottery, Yang Shao T'wen. Half of nat. size. 中 之 小 大 物 原 表 特 記 器 陶 色 部

Andersson: An Early Chinese Culture.

Pl. XII.



Painted pottery, Yang Shao T'wen. Half of nat. size. 中 之 小 大 物 原 表 特 記 器 陶 色 部

그림 6 안데르손의 유물 실측 도면(J. G. Andersson, 1923)

의 가치에 부합하였기에 중국 지성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고고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갔다.²¹ 이후 리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고고 연구학파가 중국고고학파의 주류가 되며 역사언어연구소 전통이 중국고고학 연구의 기본내용이 된다.²² 하지만 그 근간에는 안테르손의 발굴 조사 그리고 안테르손의 동료 혹은 그에게 지도받은 조수들이 있었다. 리지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1925년 말~1926년 초 산서성 남부 조사에 함께한 위엔푸리는 안테르손과 함께 양소촌, 신점유적 발굴에 참여한 당시의 ‘발굴 베테랑’이었다.

2. 중국문명서방기원설의 제창과 중국 고고학계의 반응

20세기 초에 출현한 민족주의는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이 하나의 광범위한 정체(整體)임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지식인들 역시 민족 공동체 의식의 제기 속에서 중국문화의 기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²³

1921년 양소촌에서 채도가 확인되고 안테르손은 양소촌과 주변 유적을 묶어 양소문화로 명명하였다. 그는 양소문화의 채도가 근동(近東)에서 기원하여 신석기시대 후기에 신장, 감숙을 경유하여 하남으로 유입된 후 재지의 고유문화와 융합되어 선사문화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으며, 그 주체를 한족으로 이해하였다. 채도가 서쪽에서 기원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채도서래설(彩陶西來說)(그림 7)은 곧 중국문명서방기원설로 이어진다.

서방기원설은 1920년대 후반부터 발굴의 일선에 선 해외유학파에게 비판

21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중국 증사주의적 고고학의 성립-」, 『崇實史學』 45, 372~373쪽.

22 陣洪波 저·이영남 옮김, 2015, 『중국 과학 고고학의 흥기 1928~1949년 역사언어연구소 고고학사』, 국학자료원, 16~22쪽.

23 류리·천신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2,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19쪽.



Comparison between painted pottery of Honan, Anau & Tripolje

圖號比之器陶色普處三留波里脫諾亞南河

그림 7 채도서방기원설 관련 토기 비교(J. G. Andersson, 1923)

을 받게 되는데, 서음촌을 발굴한 리지가 선두 주자였다. 서음촌 발굴 보고서의 ‘결론’에서 서음촌 전체 유존이 안테르손의 6기, 즉 양소기(仰韶期)에 가장 가까운데, “외국에서 보이는 앤더슨과 아르네가 인용한 채도는 당연히 매우 상세히 연구하고 비교할 가치가 있으며, 지금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와 비교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찾은 채도가 확실히 서방에서 발원했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각지의 채도 편 의 제작 및 두께를 중앙아시아와 근동의 출토품과 비교하면 양소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²⁴ 중국 고고학자가 처음으로 발굴하고 출판한 보고서에서 채도의 제작기법과 기면의 두께 차이, 즉 유물의 관찰과 분석에 근거하여 채도서래설을 반박한 것이다. 량스용은 미국 유학 중 중국에 잠시 돌아와 청화국학연구원(淸華國學研究院)에서 조교를 맡았는데, 이때 청화학교에 소장 중이던 서음촌 출토 도기(陶器)를 정리하였다. 1930년 『산서서음촌사전유지적신석기시대적도기(山西西陰村史前遺址的新石器時代的陶器)』(영문판)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는데,²⁵ “우리는 서음과 아나우 문화 I 기의 채도 간에 약간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서음과 아나우 문화 II 기 간에도 약간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뚜렷한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소 채도와 아나우 문화 채도 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중국 신석기시대 채도의 발상지 및 그것과 아나우 보고서에 실린 채도 간의 명료한 관계의 진정한 의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마무리 짓는다.

비판의 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리지와 량스용 모두 서방기원설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셈이다. 하지만 량스용이 지적한 “약간의 관계”까지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반론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서방기원설은 절대 긍정 혹은 절대 부정 없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또한 이때는 안양 은허(殷墟)

24 李濟, 1927, 『西陰村史前的遺存』, 淸華學校研究院, 28~29쪽.

25 1959년에 출판된 『梁思永考古論文集』에 증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와 북경 주구점(周口店) 발굴이 이루어졌기에 고고학계의 시선이 상(商)과 갑골문(甲骨文), 구석기시대로 분산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서방기원설은 1930년대 용산문화의 정립으로 인해 점차 힘을 잃게 된다. 1928년 우진딩(吳金鼎)은 산둥성(山東省) 장구현(章丘縣) 용산진(龍山鎮) 성자애(城子崖)유적의 서면 단층에서 석기, 골각기와 함께 얇고 마연된 흑도(黑陶)를 발견하였다. 이는 곧 역사언어연구소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1930~1931년 리지와 랑스용이 두 차례의 정식 발굴을 진행하였다. 1934년 중국 최초의 대형 야외고고보고 전간(傳刊) 『성자애-산동력성룡산진지흑도문화유지(城子崖-山東曆城龍山鎮之黑陶文化遺址)』가 발간되면서 정미한 흑도를 특징으로 하는 용산문화(龍山文化)가 정립되었다. 그리고 1931년 안양(安陽) 후강(后崗)유적에서 양소-용산-은문화층이 순서대로 중첩되어 있는 이른바 ‘후강삼첩층(厚崗三疊層)’이 확인되었고 채도, 흑도, 회도를 특징으로 하는 세 고고문화, 즉 양소, 용산, 상문화의 상대 연대 문제도 해결되었다.²⁶

랑스용은 후강삼첩층을 확인한 이후 양소문화는 서에서 동으로 발전하였고, 용산문화는 동에서 서로 발전하였으며, 실제 중국의 동부와 서부에 양소문화와 용산문화라는 다른 계통의 문화가 이원대립(二元對立)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⁷ 이를 통해 상문화는 용산문화와 근접하며 양소문화와는 요원하므로 중국 문화의 기원이 용산문화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방기원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⁸ 양소 용산 동서이원대립설은 안데르손의 서방기원설 이후 1930~1940년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학설로 자리 잡게 된다.

26 王巍, 2021, 앞의 글, 4쪽.

27 陳星燦, 1993, 「二元對立: 30年代中國史前文化研究的新階段」, 『近代史研究』第4期, 173쪽.

28 陳星燦 지음·趙賢庭 외 옮김, 2011, 앞의 책, 234~245쪽.

IV. 맺음말

서구의 학자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중국 내지에 들어와 조사와 채집 활동을 진행하였다. 중국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종사자들이었으며,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활동 범위는 서쪽으로는 운남과 사천, 북쪽으로는 내몽고와 중국 동북지역, 남쪽으로는 복건성에 이르렀다. 이들의 조사 활동은 비목적성 고고 활동과 어느 정도의 목적성을 가진 조사 활동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물은 답사기, 단행본, 간보(簡報) 등의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지극히 학자 개인과 개인이 속한 국가만 존재했을 뿐 주체인 중국과 중국인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1920년대 초, 안데르손의 사과둔, 양소촌, 감숙·청해 지역 등의 발굴 조사를 기점으로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발굴과 기록 방법이 도입되고, 중국 학자와 조수들이 발굴 현장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발굴 보고서의 유적 분포도와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물 실측 도면은 이후 중국 고고학에서 계속 활용되었으며, 중국 유물을 대상으로 한 유형학적 분석도 안데르손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후 리지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과학고고 연구학파가 중국고고학의 주류가 되지만 그 근간에는 안데르손의 발굴 조사 그리고 안데르손의 동료 혹은 그에게 지도받은 조수들이 있었다. 안데르손 외에 리쌍과 샤르맹은 중국 구석기 고고학의 서막을 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중국고고학의 핵심 주제는 중국문화의 기원 탐구였다. 안데르손은 채도를 특징으로 하는 양소문화를 제창하였으며, 채도서래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중국문명서방기원설로 이어졌으며, 중국고고학계는 이 학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후 1930년대 용산문화의 정립으로 양소 용산 동서이원대립이 제기되었으나 안데르손의 서방기원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문화혁명 이전 안데르손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동조자로 비판받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 그의 발굴 및 연구 성과의 학술적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류리·천칭찬 지음, 김정열 옮김, 2012, 『중국고고학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 Bruce G. Trigger 지음·성춘택 옮김, 1997, 『브루스 트리거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 陳星燦 지음, 趙賢庭 외 옮김, 2011,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考古.
- 陳洪波 저, 이영남 옮김, 2015, 『중국 과학 고고학의 흥기 1928~1949년 역사언어연구소 고고학사』, 국학자료원.

- 安特生 著, 袁復禮 譯, 1923, 『奉天錦西縣沙鍋屯洞穴層』, 農商部地質調查所.
- 李濟, 1927, 『西陰村史前的遺存』, 清華學校研究院.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 衛聚賢, 2017, 『中國考古小史 中國考古學史』, 三晉出版社.

- Boerschmann, Ernst, 1923, *Picturesque China*, New York: Brentano's Publishers.
- Berthold, Laufer, 1912, *Jade A Study in Chinese Archaeology and Religion*, CHICAGO U.S.A.

논문

-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중국 증사주의적 고고학의 성립-」, 『崇實史學』 45.
- 溫麗曉, 2013, 「論安特生在近代中瑞考古學交流中的作用」, 蘭州大學研究生學位論文.
- 王巍, 2021, 「中國考古學百年歷程回眸」, 『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 第1卷上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浩輝, 2015, 「論安特生在中國考古學史上的地位」, 蘭州大學研究生學位論文.
張光直 著, 陳星燦 譯, 1995, 「考古學和中國歷史學」, 『考古與文物』第37期.
載仁(Jean Pierre Drege) 著, 阮涪卿 譯, 2012, 「西方漢學第一人-愛德華·沙畹」,
『史學理論研究』第1期.
陳星燦, 1993, 「二元對立: 30年代中國史前文化研究的新階段」, 『近代史研究』第4期.
朱乃誠, 2021, 「中國考古學百年歷程」, 『南方文物』第1期.
侯俊杰, 2021, 「百年仰韶村」, 『文物天地』第6期.

Andersson J. G., 1923, "An Early Chinese 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mmerce*, The Geological Survey of China.

Édouard, Chavannes, 1907, "Rapport sur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éen de Kao-keou-li," *Comptes rendus des séance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51(9).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학자들의 중국 고고 조사와 그 영향

이현우

19세기 말부터 서구 학자들은 중국 내지에 들어와 조사와 채집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고고학과 관련 없는 분야를 전공한 이들이 대부분이며,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0년대 초, 안데르손의 사과둔, 양소촌, 감숙·청해 지역 등의 발굴 조사를 기점으로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발굴과 기록 방법이 도입되고, 중국 학자와 조수들이 발굴 현장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리지(李濟)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과학고고 연구학파가 중국고고학의 주류가 되지만 그 근간에는 안데르손의 발굴 조사 그리고 안데르손의 동료 혹은 그에게 지도받은 조수들이 있었다. 또한 발굴 조사 이후 유물의 실측, 유형학적 분석 역시 안데르손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외에 리쌍과 샤르맹은 중국 구석기 고고학의 서막을 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중국고고학의 핵심 주제는 중국문화의 기원 탐구였다. 안데르손은 채도를 특징으로 하는 양소문화를 제창하였으며, 채도서래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중국문명서방기원설로 이어졌으며, 중국고고학계는 이 학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1930년대 용산문화의 정립으로 양소 용산 동서이원대립이 제기되었으나 안데르손의 서방기원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주제어: 서구 학자, 안데르손, 양소문화, 유형학, 중국문명서방기원설

ABSTRACT

Archaeological Research of China by Western Scholar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Its Influence to Chinese Archaeology

Lee Hyunwoo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estern scholars entered China, and investigated sites and collected artifacts. Most of them did not major in archaeology, and some of them were religious people. In the early 1920s, starting from the excavation of ShaGuoTun, Yangshao, Gan-Qing area of J. G. Andersson, advanced and scientific excavation and recording methods were introduced, and Chinese scholars and assistants began to appear in the excavation site. Since then, the scientific archaeology research group centred on Li Ji and students who studied abroad became the mainstream of Chinese archaeology, however, there were also Andersson's excavation and Anderson's colleagues or assistants inside. In addition, drawing method of artifacts and typological analysis after excavation were also established by him. Besides Andersson, Licent and Chardin also opened the prelude to

Chinese Paleolithic archaeology.

The core theme of Chinese archaeology during this period was the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Chinese culture. Andersson presented the YangShao Culture characterized by the painted pottery, and insisted the painted pottery originated from the West. This soon led to the theory of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zation, and the Chinese archaeology community accepted this theory as it was. With the establishment of LongShan Culture concept in the 1930s, the dual confrontation theory that the YangShao Culture and Longshan Culture coexisted in west and east China was raised, however, Andersson's theory was not completely denied.

Keywords: western scholars, J. G. Adersson, YangShao Culture, typology,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zation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과 뉴패러다임

윤휘탁 |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교수

I. 머리말

II.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 추이

III. 백두산 자연생태 문화관광산업 실태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에 백두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은 99%인 24만 4,000여 명이었다고 한다.¹ 매년 백두산을 찾는 외국인은 사실상 한국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백두산은 우리 민족과 불가분의 정체성 공간으로 우뚝 솟아 있다. 또한 중국의 만주족 역시 백두산을 자신들의 발상지로 여긴다. 특히 북한에서는 백두산이 혁명의 고향, 김일성 일가의 항일 성지로 우상화되고 있다. 현재 북·중 국경에 걸쳐 있는 백두산은 남북한과 중국 만주족에게 영산·성산이라는 민족표상 혹은 ‘상징화한 민족 정체성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백두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만주(중국 동북지역)를 매개하는 공간인 동시에, 한민족과 만주족의 역사·문화·신앙·민속·정서가 깃들어 있는 신비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산과 그 수계로 형성된 압록강-두만강 변경 지역은 조선왕조 및 근대시기 국경·영토분쟁까지 맞물리면서 남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지정학적·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는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 및 만주 역사의 귀속권 강화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비롯해 청대사(淸史, 만주사 포함) 해석(‘新淸史’²)을 둘러싼 미·중

* 투고: 2024년 3월 28일, 심사 완료: 2024년 5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3-백두산심화연구-10).

1 長白山管委會交通運輸局, 「長白山保護開發區綜合交通運輸發展“十四五”規劃」,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http://www.changbaishan.gov.cn/shjj/qhgh/zhtysfz145gh/202206/P0_20230213279874162822.pdf), 11쪽.

2 김형중, 2016.9,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의 분석과 전망」, 『東北亞歷史論叢』 제53집, 동북아역사재단; 윤옥, 2015, 「新淸史와 앞으

간의 역사인식 충돌과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청사찬수공정(淸史纂修工程)’³을, 그리고 한중 간의 갈등 속에 백두산의 역사문화적 귀속권 강화 및 정치경제적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백두산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각종 전략사업은 백두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상 구축을 위해서도 백두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1년부터 본격화된 ‘장백산문화건설공정’에서는 체계적인 백두산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백두산 관광정책은 “제13차 5개년(2016~2020) 계획” 기간 다양한 내용과 체계성을 띠기 시작했다.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에서는 백두산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관광자원을 결합시키고 지역 간의 세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백두산 관광정책이 추진되고 있다.⁴ 게다가 관광산업정책은 백두산의 문화관광 및 경제적 주도권 확보하는 데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은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의 의도와 추진방향, 특징과 한계 등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을 통해 백두산을 둘러싼 북·중 간의 교류와 협력,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백두산 관광실태를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중국

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제47집, 효원사학회; 김선민, 2013, 「신청사와 만주학」, 『만주연구』 제16집; 李昭勇, 2014, 「強調“滿洲之道”的“新清史”芻議」, 『滿族研究』 2014年 第2期; 劉小萌, 2010.9.21, 「關於新清史的幾點看法」, 『中國近代史所網』.

- 3 허혜윤, 2009,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국가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다-」,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2집; 정혜중, 2008, 「중국에서의 ‘청사고’ 연구와 평가」, 정혜중·김형중·유장근 공저,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40~44쪽; 조영현, 2012, 「청사공정 10년의 빛과 그림자」, 『민족연구』 52집.
- 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 2021.10,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劃」(<http://www.changbaishan.gov.cn/shjj/qhgh/cbs145whhlyfzgh/202206/P020220624389444567830.pdf>).

의 백두산 관광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방향을 정하고 백두산 전략을 수립 할지도 가늠케 해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한과 중국을 포괄한 백두산 관광사업을 모색해 남북한의 관계개선 및 한중 우호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백두산 권역은 한중 역사분쟁의 잠재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중 간에 역사적·문화적·정서적으로 서로 얽힌 채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매개하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남북한과 중국이 백두산을 공동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으로 관리해나간다면, 백두산은 향후 한중 우호의 상징이자 공동번영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 분석은 바로 그러한 거시적 관점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유용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백두산에 관한 선행연구는 어떠한가? 남북한 학계 및 중국학계의 백두산 연구는 역사, 문화, 자연생태, 지질, 화산, 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⁵ 그렇지만 국내학계에서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이 글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남북한 관계의 관점에서 백두산 관광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을 다룬 글,⁶ 중국의 ‘백두산공정’, 즉 ‘장백산문화건설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과 그 공정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

- 5 이것에 관해서는 배성준, 2018, 「백두산 연구의 기회와 위기: 1990년대 이래 백두산 연구의 흐름과 과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제84집; 윤휘탁, 2013,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연구와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집, 고려사학회 참조.
- 6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승채, 1995, 「북경통신: 백두산관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北韓』 제285집, 북한연구소; 임한수, 1992, 「백두산의 지리적 배경과 관광자원」, 『관광연구저널』 제2집, 한국관광연구학회; 김재민, 2000, 「백두산지역 리조트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호텔관광학회; 김재민·김경희, 2005, 「백두산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호텔관광학회; 김재민·김경희, 2006, 「백두산 관광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8권 제4호; 유승권, 2007,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공항 개선」, 『技術士』 제40권 제6호, 한국기술사회; 유승권, 2019, 「백두산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 개선 및 남북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한토목학회지』 제67권 제4호, 대한토목학회 등이 있다.

는 ‘장백산문화론’을 다룬 글,⁷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한중 국경·영토분쟁 추이와 논리,⁸ 민족 영산으로서의 백두산의 표상화⁹ 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있다.

중국어학계의 백두산 관련 선행연구는 배성준과 윤휘탁이 정리한 것처럼, ‘장백산문화론’, 여진족(만주족)과 백두산의 상관성,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국경·영토분쟁 추이 등 백두산의 역사문화 및 인문지리, 지질·화산·자연생태·동물·식물 등의 자연과학, 광천수·온천 등의 자원개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주제와 연관된 백두산 관광정책 연구는 온천 자원개발, 빙설(氷雪)관광 상품설계, 향촌(鄉村)관광 발전정책, 백두산 관광상품 개발, 장백산자연보호구 내 관광지 공간의 변화 추이 등 몇 편의 논문에 불과

- 7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제76집, 백산학회; 윤휘탁, 2007, 「中國의 東北文化疆域 認識 考察-“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5집, 한국중국학회; 조법중, 2008,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제79집, 백산학회; 윤휘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東北亞歷史論叢』 제48집, 동북아역사재단; 윤휘탁, 2018, 「滿洲(長白山) 主人論’: ‘만주 및 백두산의 역사적 주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론」, 『송실사학』 제41집, 송실사학회; 윤휘탁, 2018.6, 「중국의 ‘백두산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에 관한 試論-」, 『中國近現代史研究』 제78집, 중국근현대사학회; 문상명, 2022b,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東北亞歷史論叢』 제78집, 동북아역사재단; 문상명, 2022a,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東北亞歷史論叢』 제76집, 동북아역사재단; 량대언, 2011, 「白頭山(長白山)和中, 韓(朝鮮) 國境線 問題」, 『국학연구논총』 제8집, 백민국학연구원이 있다.
- 8 이 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으로는 김춘선, 2002, 「鴨綠·豆滿江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고려사학보』 제12집, 고려사학회;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東洋學』 제4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이은자, 2008, 「한·중 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등이 있다.
- 9 진태하, 1990, 「民族의 聖山으로서 白頭山考」, 『인문과학연구논총』 제7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박찬승, 2013, 「백두산의 ‘민족 영산’으로의 표상화」,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55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박계리, 2011, 「백두산: 만들어진 전통과 표상」, 『美術史學報』 제36집, 미술사학연구회.

하다.¹⁰ 이것은 중국공산당 및 각 정부가 정책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한 채 상명하달식의 지시를 내리는 정치상황에서 민간학자들이 정책영역에 끼어들기 어려운 중국 특유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정책문건, 언론보도 등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II.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 추이

2005년 중국에서는 백두산의 역사문화적 영유권과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백두산에 대한 통일적인 기획·보호·개발·관리를 위해 백두산 특별 행정구역(長白山保護開發區)을 설치했다. 이와 아울러 2006년 백두산 특별 행정구역의 보호·개발·관리를 전담하는 지방정부로서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에서는 장백산관리위원회로 약칭)를 설립했다.

백두산 특별행정구역의 설치 및 전담 지방정부 설립과 아울러, 2009년 12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지침¹¹을 하달했다. 2010년 3월에는 중국관광국(國家旅游局)과 거시적인 국가발전전략을 기획·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에서는 동북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을 발

10 穆显鑫·曹洪珍, 2013, 「長白山區溫泉旅游資源開發研究」, 『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 2013年 第4期; 劉乙諾, 2022, 「長白山冰雪文創產品發展背景下旅游產品設課程教學改革研究」, 『現代商貿工業』 2022年 第19期; 王颖·徐昌贵, 2022, 「基于共享经济理念的长白山区乡村旅游发展对策研究」, 『西部旅游』 2022年 第6期; 王品舒·陈芳妹·杨小聪, 2022, 「新時代長白山旅游品牌建設研究」, 『中國集體經濟』 2022年 第3期; 劉明昊, 2022, 「長白山冰雪旅游發展研究」, 『西部旅游』 2022年 第1期; 朱鶴·劉家明, 2023, 「旅游導向下自然保護區外圍區空間演變-以長白山國家級自然保護區外圍區為例」, 『自然資源學報』 2023年 第4期.

11 「國務院關於加快發展旅游業的意見」(國發[2009]41號)(<http://baike.baidu.com/view/3415481.htm?fr=aladdin>).

전시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지구관광산업발전계획(東北地區旅游業發展規劃)」¹²을 마련했다. 2010년에 접어들어 길림성 공산당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백두산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¹³

길림성 정부에서도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의 요체를 담은 요강(「長白山文化建設規劃綱要」)을 작성한 뒤 동년 9월 예하기관에 관련 문건(「關於印發〈長白山文化建設規劃綱要〉的通知」)을 하달했다.¹⁴ 동년 10월 길림성 정부에서는 「동북구역관광발전계획(東北區域旅游發展規劃)」 등을 기초로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지침으로 「길림성관광발전 12차 5개년 계획(吉林省旅游業發展“十二五”規劃)」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백두산 등지의 생태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¹⁵ 길림성에서는 「장백산문화건설계획강요(長白山文化建設規劃綱要)」를 통해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이 길림성의 문화산업 발전의 기초라는 전제하에,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장백산문화’를 길림성의 대표문화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것의 일환으로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과 연계해 장백산문화 산업지대를 만들고 문예(文藝)상품 전략 등을 수립하기 시작했다.¹⁶

길림성 정부 직속의 백두산 지방정부인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도 상급기관

12 「國家旅游局, 國家發展改革委關於印發實施《東北地區旅游業發展規劃》的通知」(2010.3.17),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網站』(http://www.chinaneast.gov.cn/2010-03/17/c_13214227.htm).

13 荀風栖(中共吉林省委常委, 宣傳部長), 2010.7.19, 「啓動長白山文化建設工程-在長白山文化研討會上的書面講話」, 『東北史地』2010年 第5期; <http://xuewen.cnki.net/CJFD-DBSD201005002.html>.

14 「長白山文化產業發展」(2012.4.16), 『長白山網』(<http://www.jlcbns.cn/wenhua/wenhuashidian/2012-04-16/1012.html>).

15 「吉林省旅游業發展“十二五”規劃」, 7쪽; 위의 문건, 「長白山文化產業發展」(2012.4.16.); 윤휘탁, 2018.6, 앞의 글, 90쪽.

16 「奉和養根先生《長白山文化建設規劃綱要》感懷」(2010.11.3)(<http://hongya.blog.sohu.com/162054134.html>); 윤휘탁, 2018.6, 위의 글, 90~91쪽.

의 지침에 따라 장백산문화산업의 발전과 우수한 장백산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 ‘백두산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길림성장백산문화산업발전규획(規劃)」을 제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장백산 문화론’(백두산=중국의 산)의 논리체계를 확립하고, 백두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산업 명승지로 만들어 길림성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¹⁷ 결국 2012년부터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은 길림성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중공중앙의 지시하에 「동북진흥전략」 및 「중국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과 맞물려 국가문물국·국가관광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및 길림성 정부의 중요한 문화건설 공작으로 격상되어 본격 추진되었다.¹⁸

상술한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의 태동과 더불어,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백두산의 자연생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즉 이 위원회에서는 미국 AECOM 회사 등 정상급 설계 집단을 초청하여 ‘올레길(慢行步道) 분포현황’,¹⁹ ‘보마고성(寶馬古城)’, ‘십팔방산업원(十八坊產業園)’, ‘장백산습지공원’, ‘장백산관광상업거리’ 등 30여 개의 중요한 계획을 완성하여 백두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²⁰

17 「吉林省長白山文化產業發展規劃」專題調研會日前召開, 『新浪』(2011.1.15) (<http://www.jlsinaom/news/changbaishan/2011-1-15/7171.shtml>); 『白山新聞』(2011.1.14) (<http://www.0439comhtml/2011/01/140953264448.htm>); 윤휘탁, 2018.6, 위의 글, 91쪽.

18 앞의 문건, 「長白山文化產業發展」(2012.4.16); 「加大保護發展弘揚力度 推動吉林文化發展繁榮—省政協舉辦長白山文化發展論壇」(2012.6.28),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zwgk/zwdt/zwdt_2012/201206/t20120628_1234395.html).

19 자전거나 저속 차량, 도보자들을 위한 숲속 올레길 성격의 “慢行步道系統”은 총길이 50km로, 2014년 7월 27일 개통되었다[「吉林省首個慢行交通系統在長白山建成開通」(2014.7.2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의 ‘政務動態’ 항목(<http://www.changbaishan.gov.cn>)].

20 「中共長白山保護開發區工委辦公室文件：關於印發謝忠岩同志在2014年全區工作會議上講話的通知」(長白山黨辦發[2014]1號)(2014.1.9); 謝忠岩, 2014,

2014년도에 접어들어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백두산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만들고 백두산 지역을 문화적인 명품 도시로 건설해 주변 지역과 함께 번영을 추구하여 길림성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총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이것의 일환으로 ‘생태’와 ‘문화’라는 2개의 브랜드를 내세워 관광, 문화, 특색 있는 생태자원, 광천수 등 4대 우세(優勢)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쪽으로 발전방향을 정했다.²¹ 다시 말해 이 위원회가 추진한 백두산 문화관광산업의 방향은 ‘생태’와 ‘문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 생태자원, 광천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2014년 장백산관리위원회가 육성목표로 내세운 4대 우세산업은, 첫째, 겨울 관광상품의 개발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의 국제적인 온천도시, 스키리조트와 연계하여 유명한 온천도시를 만들고, 관광상업 거리, 국제주점 거리(酒店街) 등을 기획하여 민간과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문화산업의 육성이다. 길림성의 문화관광융합발전시범지구 건설에 맞추어 「장백산문화산업발전기획」을 가속화하고 백두산의 지명도와 브랜드를 드높여 영화나 TV 촬영, 연예오락, 미술공예, 웹툰 등의 산업을 백두산으로 집중시켜 문화산업을 각 산업과 융합하여 배합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보마고성(寶馬古城)’의 유적지를 개발하여 백두산의 역사문화, 민속문화, 고(古)도시문화, 종교문화의 흡인력과 영향력을 제고시키고 “장백산국제조각전”을 개최하며, 러시아 열빈학원(列賓學院), 청화미원(淸華美院), 동북사범대학, 길림예술학원 등 관광관리, 체육운동, 문화예술, 자원개발, 건강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국내외의

1.9, 「加快建設特色城鎮 發展壯大優勢產業 努力提升長白山科學發展國際化水平—在2014年全區工作會議上的講話」, 『吉林省人民政府網』(<http://cbs.jl.gov.cn/>).

21 위의 문건, 「中共長白山保護開發區工委辦公室文件」(長白山黨辦發[2014]1號)(2014. 1.9); 위의 연설문, 「加快建設特色城鎮 發展壯大優勢產業 努力提升長白山科學發展國際化水平」(2014.1.9); 「長白山入選2013“美麗中國”十佳景區」,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의 ‘政務動態’ 항목(<http://www.changbaishan.gov.cn/>).

학원과 대학들의 분원(교)을 백두산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장백산대학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생태자원 개발로서 생태식품, 관광기념품, 보건·레저(休養)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 광천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장백산이 세계 3대 우량 광천수 생산지로서 수질이 우수하고 수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채수(採水) 조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장백산보호개발구 광천수산업 추진공작소조(小組)’를 조직해서 대대적인 자원탐사와 역량을 집중해 3~5년 내에 연간 생산량 1,000만 톤의 광천수를 생산하고 백두산 광천수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²²

백두산의 문화관광산업 정책이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제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의 수립과 대대적인 추진이었다. 게다가 2015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의 관광합작(跨境旅游) 추진을 지시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산업 합작도 본격화되고 있다.²³ 최근 길림성에서는 ‘일대일로’·‘동북진흥전략’·「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계획(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計劃)」이라는 국가발전전략에 부응해 각종 전략 문건²⁴ 등의 거시적

22 앞의 문건, 「中共長白山保護開發區工委辦公室文件」(長白山黨辦發[2014]1號)(2014. 1.9); 위의 연설문, 「加快建設特色城鎮 發展壯大優勢產業努力提升長白山科學發展國際化水平」(2014.1.9),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http://cbs.jl.gov.cn/>).

23 「關於支持沿邊重點地區開發開放若干政策措施的意見」(國發[2015]72號)(2015.12); 李英花·吳雨晴·崔哲浩, 2022.9, 「中朝邊境地區跨境旅游合作區建設現狀及路徑探析」,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5卷 第5期, 71쪽.

24 「中共吉林省委 吉林省人民政府關於做大做强冰雪產業的實施意見」(吉發[2016] 29號), 「中共吉林省委 吉林省人民政府關於推動避暑休閒產業創新發展的實施意見」(吉發[2018] 21號), 「吉林省冰雪產業高質量發展規劃(2021-2035年)」(吉發[2021] 38號), 「長通白延吉長避暑休閒冰雪旅游大環線發展規劃(2021-2025)」; 「長通白延吉長避暑休閒冰雪旅游大環線發展規劃(2021-2025年)」(<https://www.doc88.com/p-28247071894336.html>).

인 발전전략 문건 등을 바탕으로 백두산 관광정책을 수립해 다차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14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통백연길장피서 휴한빙설여유대환선발전규획(2021~2025)」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경합(京哈)(북경-하얼빈)고속도로를 경계로 장춘시 동부지역, 길림시, 사평시, 요원시(遼源市), 백산시(임강시), 무송현, 정우현, 장백조선족자치현, 연변조선족자치주(연길시, 도문시, 돈화시, 훈춘시, 용정시, 화룡시, 왕청현, 안도현),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梅河口市) 등을 포괄한다. 길림성에서는 ‘일대일로’ 정책에 기초해 몽골-중국-러시아를 잇는 경제통로(走廊)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및 각종 도로망과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압록강·두만강과 북한의 접경지대, 훈춘(琿春)과 러시아 연해주의 접경지대를 연계하여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 기초해 사계절을 연동한 피서·빙설·레저·생태·변경의 테마들을 비롯해서 조선족과 만주족 등의 민속문화, 만주국 시기에 항일투쟁을 했던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의 항일유적지 중심의 홍색(紅色)문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적, 사계절 스포츠·축제 등을 결합시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지역 간 유기적인 협조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관광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²⁵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길림성의 관광산업 정책방향은 백두산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적극 발굴해 문화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동시에, 백두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백두산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관광산업을 위한 공간배치를 살펴보면, 장백산보호개발구 내의 백두산 천지 북부지역(池北區)과 백두산 천지 남부지역(池南區)은 ‘전국적인 관광시범지역’으로 뽑혔다. 특히 지북구는 ‘문화관광 슬로 시티(文旅慢城)’, ‘국가생태문명시범구역’, ‘국제 슬로 시티’의 칭호를 얻었다. 백두산 천지 서부지역(池西區)은 ‘만남의 도시(城市客廳)’, 지남구는 ‘백두산 산수의 고향(長白水鄉)’이라는 지역별

25 앞의 문건, 「長通白延吉長避暑休閒冰雪旅游大環線發展規劃(2021-2025年)」, 2~5쪽.

테마를 갖춘²⁶ 백두산 관광지로 특화되고 있다.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특징적인 관광정책으로 ‘6개월 동안 무료 여행’, ‘표 하나로 5일 여행’과 같은 획기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수를 120만 명, 관광 세수를 10억 위안 늘렸다. 또한 ‘백두산 정성·신뢰 선언(長白山誠信宣言)’을 발표하고 1,000만 위안의 ‘여행 불만 보상 기금(旅游投訴賠付基金)’을 조성해 정성껏 관광객을 모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중국지질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백산빙상실크로드연구원[長白山氷上실크로드(絲綢之路)研究院]을 설립해 관련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정부 단독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의 대학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장백산국제 생태회의’, ‘세계관광명소 연맹회의’, ‘유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 청년포럼’ 등을 개최하고, 국제자연보호구연맹, 세계관광명소연맹 등의 발기자로 참여²⁷함으로써 해외의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도 활발히 만들어가면서 백두산의 국제적 위상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 문화관광산업은 꾸준히 발전했다. 이것은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의 증가에서 잘 드러난다. 즉, 백두산 권역의 관광객 수는 2016년 355만 명에서 2019년 610만 7,000명으로 연평균 19.6% 증가했다. 관광수입은 같은 기간 32억 8,000만 위안에서 56억 1,000만 위안으로 연평균 19.4% 증가했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 권역의 관광객 수는 2,025만 명, 관광수입은 190억 위안에 달했다. 그중 백두산 관광지(景區)로 유입한 관광객 수는 1,014만 명, 관광수입은 28억 9,000만 위안에 달했다.²⁸ 2019년도 백

26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4쪽;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劃(2021-2025年)》政策解读」(2022.4.27)(http://xxgk.changbaishan.gov.cn/szf/zfbgs/xxgkml/202204/t20220429_179393.html).

27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2~3쪽.

28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2쪽; 앞의 문건,

두산 관광객 수는 233만 7,000여 명이었는데 중국인 관광객 수는 89.46%인 209만 700명이었고, 외국 관광객 수는 10.54%인 24만 6,300여 명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은 99.04%인 24만 4,000여 명이었다.²⁹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 관광 산업 육성의 주요한 성과들을 살펴 보면, 2017년 장백산신묘유적지(長白山神廟遺址=‘보마고성(寶馬古城)’³⁰가 ‘중국 국가문물국의 전국 10대 고고 신 발견’에 선정되었고, 노흑하유적지(老黑河遺址)³¹는 2020년 ‘성급(省級)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백두산 권역에서는 ‘백두산 여름피서축제(長白山避暑消夏節)’, ‘백두산 산림음악제(長白山森林音樂節)’, ‘장백산건강생태포럼(長白山健康養生論壇)’, ‘장백산8·17쌀 축제(稻米節)’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세 차례의 ‘백두산 눈꽃 축제(長白山粉雪節)’와 15차례의 ‘백두산 눈문화 관광축제(長白山雪文化旅遊節)’, 임해설원(林海雪原)을 관통하는 생태관광 및 빙설 자동차 경주대회, 백두산 산림설원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해 겨울철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처럼 백두산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장백산보호개발구에 위치한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鎮)과 늑은고성(訥殷古城)³²은 중국 ‘국가 4A급 관광지’로 선정되었다.³³ 이러한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劃(2021-2025年)》政策解读」(2022.4.27).

29 長白山管委會交通運輸局, 「長白山保護開發區綜合交通運輸發展“十四五”規劃」,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 홈페이지(<http://www.changbaishan.gov.cn/shjj/qhgh/zhjtsfz145gh/202206/P020230213279874162822.pdf>), 11쪽.

30 중국에서는 安圖縣 二道白河鎮 서북쪽 4km에 위치한 寶馬古城을 金代의 황제들이 백두산신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제단 유적지로 단정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윤취탁, 2019.4,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中國史研究』 제119집, 232~235쪽 참조.

31 東北抗日聯軍의 혁명 유적지로서, 2019년 장백산보호개발구의 남쪽에 위치한 池南區에서 발견되었다. 이 유적지는 2020년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2021년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 의해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 2022년 12월 중국 국가 4A급 관광지로 선정되었다(<https://baike.baidu.com/item/%E8%80%81%E9%BB%91%E6%B2%B3%E9%81%97%E5%9D%80/23601325>).

32 撫松縣 池南區에 위치해 있고 여진족 발상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백산보호개발구는 중국정부로부터 ‘2022년 빙설(氷雪)관광 10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³⁴

그렇다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부터 시작된 “제14차 5개년 (2021~2025) 계획” 기간 장백산보호개발구의 백두산 문화관광정책은 어떠한 특색을 지녔을까? 백두산 권역의 핵심인 장백산보호개발구를 보호·개발·관리 하는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 관광정책의 핵심으로 ‘문화와 관광을 융합’시키고 이것의 관리기구들을 합병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 발전전략은 ‘일대일로’, 빙설 실크로드, 동북진흥전략³⁵ 등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 길림성의 “일주(一主), 육쌍(六雙)”³⁶ 전략을 바탕으로 백두산 생태문화의 장점과 문화적 특색을 발현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일련의 연설 취지, 특히 길림성을 시찰하면서 행한 연설과정에서의 지시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백두산을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지’로 만 든다는 목표하에 빙설과 온천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 국제생태 테마파크를 조성 한다는 것이다.³⁷

국가급 4A 관광지로 격상되어 백두산 문화관광 테마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윤휘탁, 2019.4, 앞의 글, 226~231쪽 참조.

33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1쪽.

34 「長白山保護開發區榮獲“2022年冰雪旅游十佳城市”」(2022.1.7)(http://www.changbaishan.gov.cn/zwgk/jgsz/jgdw/lywtj/202201/t20220107_212745.html).

35 윤휘탁, 2005.9, 「중국의 東北邊疆政策-‘東北振興戰略’을 중심으로-」, 『중국 근현대사연구』 제27집, 121~152쪽 참조.

36 길림성 수도 장춘을 중심으로 산업 경제권을 기획, 공간 배치를 하고(一主), 육쌍(雙廊, 雙帶, 雙線, 雙通道, 雙基地, 雙協同)을 통해 공업 지대, 교통 체계를 갖추고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길림성의 발전 전략이다(<https://zhidao.baidu.com/question/633562131567478724.html>; https://wenku.baidu.com/view/9a76576b4835eefdc8d376eeaeaad1f3469311a7.html?_wktks_=1688450004025&bdQuery=%E4%B8%80%E4%B8%BB%2C+%E5%85%AD%E9%9B%99).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을 세계적 수준의 생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지도 사상으로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전면적인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속에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 전체 인민이 문화관광산업의 혜택을 누리는 주객(主客)의 공동 향유(共享),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 양측의 신속한 개혁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양산(兩山, 白山市와 長白山)’ 이론을 실천하고 ‘양산’ 지역, 즉 백산시와 장백산 권역을 이념적 시험지구로 삼아 두 지역을 일체화해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백두산의 생태 보호와 생태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백두산의 문화관광산업 성과를 올리는 동시에, 백두산 특색의 국제관광 소비산업지대를 육성해 백두산 문화관광의 국제적 지명도와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³⁸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관광산업 정책으로 ‘문화와 관광을 융합시켜 발전’시키려는 뉴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즉, 관광 개발 단계를 상품과 체험을 유발하는 관광 발전단계로, 전통적인 관광여행을 레저지·리조트 관광형태로, 계절성 관광을 사계절 관광으로, 정태적인 전통문화의 전시·활용방식을 동태적이고 창의적인 활용·계승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얼음과 눈, 온천, 삼림, 민속 등의 우수한 자원을 빙설 스포츠 리조트, 온천 리조트, 삼림레저지, 민속문화 테마파크 등으로 조성하는 문화관광산업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 전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관광 흡인력을 다원화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혁신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소비 체험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백두산 권역이 내포한 생태문화, 역사문화, 만주족(滿族)문화 등의 민족문화, 동북민속문화·길극(吉劇, 길림경극)·조선족 가무 등의 무형문화 예술문화, 노흑하(老黑河)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유적지 등의 사회주의 이념 색갈

37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前言, 3, 5~6쪽.

38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8~9쪽.

을 띤 흥색문화, 영화·TV 드라마 작품, 북·중 국경문화 자원 등을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관광지도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백두산 권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즉, 이 기간 장백산공항의 확장, 돈백(敦化-백두산)·심백(瀋陽-백두산) 고속철도, 용포(龍井-大蒲柴河) 고속도로 등 중요한 교통체계를 신속하게 완공해 백두산 관광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³⁹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백두산 권역 내 모든 기관의 협력하에 ‘환백두산관광공동체(環長白山觀光共同體)’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백두산 관광공간은 ‘일핵삼환삼기지(一核一環三基地)’로 배치되어 있다. 먼저 ‘일핵(一核)’은 장백산자연보호구를 범주로 한다. 즉, 백두산 천지를 핵심으로 백두산 주봉은 북경구(北景區), 서경구, 남경구로 나뉜다. 주요 관광명소로는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취룡천(聚龍泉), 지하 삼림, 녹연담(綠淵潭), 장백산 대협곡, 고산 화원(高山花園), 금강(錦江)폭포, 압록강 대협곡, 악엽상폭(岳樺雙瀑) 등의 수직 경관지대가 포함되어 있다. ‘일환(一環)’은 ‘백두산 둘레길(環長白山慢行綠道)’이다. 총길이가 365km에 달하는 이 숲길은 백두산을 순환하는 자연문화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으로 지북구(池北區)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鎮)에, 남으로 장백현(長白縣)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전거나 도보로 이 숲길을 천천히 다니면서 백두산의 자연문화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세 기지(三基地)는 지북구(池北區), 지서구(池西區), 지남구(池南區)를 지칭한다. 지북구는 국제 빙설관광 명소, 빙설 리조트 중심지, 상업회의·전시·축제 활동의 중심지로, 지서구는 국제 빙설관광명소, 교통 중심지, 상업 레저 리조트 중심지, 스포츠 대회 중심지로, 지남구는 국제 빙설관광명소, 온천 리조트, 설원 스포츠 중심지로 특화되어 있다.⁴⁰ 참고로 2014년 10월에 보행·자전거·저속의 공공버스 등을 위

39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6~7쪽, 14~15쪽.

40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31~32쪽.

한 ‘숲속녹음올레길(慢行綠道)’이 초보적으로 만들어져 백두산을 찾는 보행자, 자전거 애호인, 저속도의 공공 교통수단을 위한 전용도로가 생겼다.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백두산 문화관광산업 정책의 핵심인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라는 슬로건하에 민속문화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민속문화 발전추진 공정(民俗文化提升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산성수(神山聖水)’, ‘고국용맥(故國龍脈)’을 주제로 한 ‘문화 뿌리찾기 공정(文化溯源工程)’의 일환으로, 만주족 문화 테마파크의 조성, 만주족 언어문자·팔기(八旗)제도·신앙·복장 등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육성 차원에서는 여진족의 발원지로 일컬어지는 장백산 늑은고성(訥殷古城), 금대(金代) 황제의 백두산 제사유적지라고 규정된 신묘유적지(寶馬古城) 등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하에 백두산 신묘유적지의 복원, 신묘유적지박물관(神廟遺址博物館)의 건립, ‘늑은고성의 동쪽 부분으로의 확장 공정(訥殷古城東擴工程)’, 장백산신묘유적지고고공원(長白山神廟遺址考古公園) 등을 건설해 중국 북방민족 발상지의 표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 밖에 조선족민속관광리조트, 지서구송산민속문화촌(池西區松山民俗文化村), 지서구반도소진민속풍정가(池西區半島小鎮民俗風情街)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문화발전추진공정(創意文化提升工程)’의 일환으로 장백산보마고성(寶馬古城)국제문화관광지, 습지촬영창작기지, 지북구(池北區)아이디어문화산업단지, 지북구연예센터, 장백산문화아이디어산업단지(長白山文化創意產業園), 지북구문화예술센터, 지북구 아이디어 중심거리(創意活力街) 등의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⁴¹

동북항일연군의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을 핵심 테마로 하는 홍색(紅色)관광 차원에서는 ‘홍색문화발전추진공정(紅色文化提升工程)’의 일환으로 ‘동북항일연군 영웅’, ‘임해설원(林海雪原)’, ‘수변고방(守邊固防, 변강을 지켜내어 국방을 확고히 한다)’ 등의 테마를 발굴해 노획하국가급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항일

41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19, 21쪽.

전쟁문화 연구 훈련기지 등을 건설해 백두산 홍색문화의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북방의 홍색교육기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북항일연군의 숙영지, 비밀 루트(小路), 활동기지, 밀림과 설원 속의 비밀 아지트 등의 복원과 아울러 지남구에 동북항일연군기념관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동북항일연군의 천지(天池) 초소 및 압록강변에 설치되었던 초소들을 연결한 ‘동북항일연군 둘레길’을 조성해 변방초소에서 초병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압록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북한을 조망하는 ‘국방교육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한다.⁴²

백두산의 국제적 지명도와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회의 및 전시회 문화발전 추진 공정(會展文化提升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즉, 보마(寶馬)국제회의장을 건설해 ‘장백산문화국제토론회’, ‘장백산산업아이디어토론회’, ‘장백산국제생태포럼(長白山國際生態論壇)’, ‘장백산건강산업포럼(長白山大健康產業論壇)’ 등의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게다가 ‘스노 카니발(冰雪嘉年華)’, ‘백두산 눈축제(長白山粉雪節)’, ‘백두산 피서 여름나기 축제(長白山避暑消夏節)’, ‘백두산 삼림음악제’, ‘백두산 꽃 축제(長白山花卉節)’ 등의 축제를 매년 개최해 수많은 관광객을 백두산 권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내두산촌(奶頭山村), 금강촌(錦江村), 장송촌(長松村) 등을 민속관광지로 조성해 관동(關東)의 풍속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야간 관광상품 개발도 모색하고 있는데, 야간 스키, 야간 온천, 야간 자전거 타기, 야간 오락, 야간 음악제, 캠프파이어, 야간 음식축제, 야간 맥주축제, 야식시장 열기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신장백산(誠信長白山, 정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백두산)”이라는 슬로건 하에 상점이나 기업에 대해 관광 소비자들이 신용도를 평가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도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상점(誠信行業)’, ‘우수 기업(誠信企業)’을 선정해 표창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⁴³

42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19~21쪽.

백두산의 얼음과 눈을 테마로 한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백두산을 길림성의 핵심적인 빙설(氷雪) 관광지, 동북아시아의 빙설산업 중심지, 국제 빙설 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고 관광과 레저 리조트 상품을 결합해 ‘세계적인 빙설관광 명소’로 건설한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두산 천지, 빙설부락 등을 빙설관광지로 설정해 관광열차, 스노우 카니발, 눈 덮인 계곡 온천, 기이한 봉우리와 협곡, 얼음 폭포 등 임해설원(林海雪原)의 관광체험 상품을 결합시키고 눈 덮인 소나무 숲, 금강(錦江)통나무집 마을 등과 연계해 빙설관광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헬리콥터 빙설관광, 헬리콥터를 이용한 스키 관광상품의 개발, 얼음과 눈을 테마로 한 촌락, 관광오락공원, 스포츠 클럽, 스키장, 눈썰매장, 설원(雪原) 승마장, 설원을 달리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 경기장, 스케이트 보드장 등을 갖춘 빙설오락 스포츠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북국남산빙설운동소진(北國南山氷雪運動小鎮), 빙설부락리조트(氷雪部落度假區), 내두산리조트(奶頭山度假區) 등의 스키 리조트를 비롯해서 홍송왕(紅松王) 초급 스키장, 북경구(北景區) 선수촌 고산 스키장, 각종 스케이트장을 개발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백두산의 빙설문화의 특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청소년 동계 스포츠 대회, 세계 스키 스케이트 대회, 동북아시아 빙설 스포츠 대회 등을 신청 중이다. 또한 ‘장백산 국제 임해설지(林海雪地) 마라톤 축제’, ‘장백산 눈발 오토바이 대회’, ‘장백산 빙설 자동차 경주대회’, ‘장백산배(長白山杯) 눈꽃 축구대회’, ‘장백산 임해설원(林海雪原)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겨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백산 춘계 스키 축제’, ‘장백산 국제 눈 문화관광 축제’, ‘빙설 크리스마스 축제’, ‘장백산 눈꽃 축제’, ‘겨울 스포츠 장비 전시회’ 등 각종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촌락, 레저리조트, 체험문화를 결합해 백두산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생태레저관광 체험장소로 육성하려는 관광정

43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20~21, 29~30쪽.

44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21~22쪽.

책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삼림에서의 보물찾기, 레프트, 삼림요가, 삼림야영 체험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장백산 생태관광 순환선, 장백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⁴⁵

III. 백두산 자연생태 문화관광산업 실태

1. 백두산 관광 리조트 건설

상술한 4대 우세산업의 하나인 자연생태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백산시(白山市)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백두산의 자연생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리조트 조성작업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즉, 백두산, 압록강, 송화강(松花江)이라는 3대 관광 상품을 긴밀히 연계시켜 ‘완다그룹(萬達集團)’, ‘판하이(範海)그룹’ 등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특히 ‘완다그룹은 2009년부터 230억 위안을 투자해 ‘장백산국제관광리조트’를 건설했다. 이 리조트는 남쪽 리조트와 북쪽 리조트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에는 리조트 호텔·삼림 별장·대형 스키장·국제수렵장·소형 구기 종목 운동장·레프팅장 등이 구성되어 있다. 후자에는 문화 관광지로서 문화센터·상점·회의센터·거주민 주택·학교·병원들이 들어서 있다.⁴⁶ 2012년 11월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장백산평화스키장’을 정식 개장했다.⁴⁷ 백두산과 연계된 지역에서는 길림산림온천관광리조트를 비롯해서 장백산선녀교(仙人橋)온천도시, 노수하(露水河)국가삼림공원, 길림만강(漫

45 앞의 문건,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則」, 23~24쪽.

46 苑曉赫, 2016, 「分析長白山國際旅游度假區民俗文化旅游開發現狀與問題」, 「城市旅游規劃」, 2016年 9月號, 94~95쪽.

47 「長白山和平滑雪場正式對外開放」(2012.11.2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zwdt/xmjs/201211/t20121126_4105.html).

江)생태관광리조트, 장백산호수(廣澤)관광리조트, 임강(臨江)계곡관광지, 압록강망천아(望天鵝)관광지, 용산호(龍山湖)국제생태관광리조트 등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했다. 또한 압록강을 끼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이국적인 풍광을 활용하여 장백-임강-집안 및 정우(靖宇)-길림 사이의 수상관광 노선들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⁴⁸ 안도현(安圖縣)에서도 2013년에 저명한 기업들을 유치해 설산비호(雪山飛湖)관광리조트, 대희태하(大戲台河)관광지, 마계(魔界)관광지 등 다수의 관광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⁴⁹ 또한 평화스키장, 동청(冬靑)관광자동차숙영지, 백두산 샤머니즘 만주족 부락문화 관광지 등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⁵⁰

특히 역사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보마고성(寶馬古城) 유적지가 발해의 중경부(中京府) 관할하의 흥주(興州)에 예측되어 있었고, 금나라 세종 때(대정 12) '장백산신(神)'이 '흥국영흥왕(興國靈應王)'으로 책봉되면서 이곳에 흥국영응왕사당(廟)이 세워졌다고 인식한다.⁵¹ 이에 따라 2014년 5월부터 보마고성 유적지에 120억 위안을 투자해서 장백산보마(寶馬)경제합작지구로 선정한 뒤 보마고성 레저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다. 백두산에서는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의 일환으로 해마다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대중에게 개방되고 있다. 가령 2014년 4월 화산(火山) 유적 관광지가 개방되어 수십억 년에

48 白山市經合局, 「風景這邊更好-白山市旅游產業發展側記」(2014.8.27), 『吉林省人民政府網』(http://jl.gov.cn/tzjl/tzdt/201408/t20140827_1731402.html); 劉剛, 2004.9, 「吉林森工溫泉度假山莊-長白山旅游明珠」, 『長春師範學院學報』第23卷 第3期, 64~65쪽; 王天亮·戴士權, 2015, 「滿族薩滿文化與長白山旅游開發」, 『黑龍江民族叢刊』2015年 第3期, 157쪽.

49 앞의 문건, 「長白山和平滑雪場正式對外開放」(2012.11.25).

50 「安圖縣打生態牌謀發展路」(2014.8.6), 『吉林省人民政府網』(http://jl.gov.cn/rdzt/tztl/ybcxzzz60znzt/xwzx/201408/t20140806_1710825.html).

51 「第十屆文博會:長白山寶馬養生度假古城項目簽約」(2014.5.16),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405/t20140516_39101.html).

걸쳐 형성된 백두산 화산지형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⁵² 2014년 9월에는 장백산보호개발구 이도백하진 남단에 ‘장백산동북아식물원’이 개장되었다. 이 식물원에는 장백산동북아생물 다양성보호연구센터, ‘장백산동북아동식물박물관’, 습지공원, 실외(室外) 식물전시구역, 온실 식물전시구역, 냉실(冷室) 식물전시구역, 행정구역, 묘포(苗圃)연구지역 등이 조성되었다. ‘장백산동북아동식물박물관’은 백두산을 둘러싼 생태관광, 녹색경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⁵³

2016년 6월 장백산보호개발구 지북구(池北區)에서는 “관광 도시화, 도시의 관광화, 관광지의 국제화”라는 목표하에 ‘장백산천지전통거리(長白山天池古街)’ 기공식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이 전통거리에는 예술 전시장, 관동(關東)지역의 경관 체험장, 대형 문화공연장, 기념품 판매점, 술집, 식당, 레저리조트, 온천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다.⁵⁴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동년 12월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2017년 장백산 눈 축제 및 장백산 국제 빙설 카니발’ 행사를 열고 ‘백두산의 생태·문화·관광’이라는 기치하에 자연보호와 관광지 건설, 산수(山水) 문화와 도시발전의 양자를 조화롭게 융합시켜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 슬로 타운(慢行小鎮), 특색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플랜도 제시되었다.⁵⁵ 2017년 9월부터 백두산 권역에서는 백두산생태관광레저계곡(長白山生態旅游養生谷),⁵⁶

52 「長白山火山遺址風景區正式對外開放」(2014.4.30),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

53 「長白山管委會關於印發2013年全區生態保護行動方案的通知」(吉長管發[2013]1號)(2013.1.15),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의 政府文件 항목.

54 「長白山天池古街項目正式開工」(2016.6.1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606/t20160617_39204.html).

55 「2017長白山國際冰雪嘉年華活動將舉行」(2016.12.1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sjts/201701/t20170112_24045.html).

56 http://changbaishan.gov.cn/zwtd/zwtd/201709/t20170930_100539.html.

장백산삼림온천레저센터, 장백산온천부락, 장백산눈썰매장, 장백산빙설스포츠 타운(長白山冰雪運動村) 등이 조성되고 있다.⁵⁷

2. 백두산 축제·대회 개최와 홍보

‘장백산문화’ 건설과 관련해 백두산 권역에 속해 있는 통화시, 백산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산보호개발구 등 각 도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⁸ 길림성의 각 도시에서는 백두산에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대회 등도 열고 있다. 가령 장백산관리위원회, 백산시정부,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와 완다그룹(萬達集團) 등은 매년 공동으로 ‘장백산 눈문화 관광축제(長白山雪文化旅遊節)’가 개최되고 있으며, 길림성에서도 매년 ‘장백산국제관광축제(長白山國際旅遊節)’가 열리고 있다.⁵⁹ 2018년 2월 “겨울에는 백두산으로 놀러와 설날을 즐겁게 지내자!”라는 슬로건하에 ‘제12회 장백산 눈문화 관광축제’가 열려 다채로운 동계 스포츠 문화축제 활동이 벌어졌다.⁶⁰

백두산 서파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7~9월 사이에 왕지화원(王池花園), 고산화원(高山花園), 연미화원(鸞尾花園) 등에서는 ‘백두산 고산꽃 감상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감상대회에서는 해발 500~2500m에서 자라는 활엽수

57 「長白山森林溫泉養生中心和長白山溫泉部落項目進度明顯 長白山滑冰館項目尚未開工」(2017.9.2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709/t20170922_100198.html); 「杭州“金城”將投資150億打造長白山冰雪運動小鎮」(2017.9.8)(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709/t20170908_99392.html).

58 吉林省旅游局, 2011. 3, 「吉林省旅遊業發展“十二五”規劃」.

59 「關於推進長白山文化與旅遊產業融合發展的建議(24號)」(2013.10.29),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zwgk/yatabl/dptta2010/2011_38837/201310/t20131029_1554874.html).

60 「第十二屆長白山雪文化旅遊節盛壯啓幕」(2018.2.9),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lygl/lydt/201802/t20180209_107232.html).

림지대, 침엽수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꽃들을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해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⁶¹ 2017년 6월에는 고산(高山) 목단화(牡丹花)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장백산 고산 목단원(牡丹園)’을 개장했다. 이 고산화원에는 8가지 색깔, 196개 품종의 목단화가 있다.⁶² 2018년 12월에는 ‘2019년 장백산 눈꽃 축제’가 열렸다.⁶³

2014년 3월 각종 축제와 더불어 “장백산배” 제1회 전국 설상(雪上) 모터스키 경주대회’가 열렸고,⁶⁴ 해마다 스키 대회도 열리고 있다.⁶⁵ 이들 대회는 백두산의 겨울 스포츠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중국 백두산’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2017년 3월 ‘2017년 중국 장백산 ‘장춘건공배(長春建工杯)’ 설상 모터스키 경주대회’가,⁶⁶ ‘2019년 장백산 빙설 자동차 랠리 챔피언십’이,⁶⁷ 동년 5월에는 ‘2019년 중국 장백산 국제 임해설지(林海雪地) 마라톤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세계 16개국 및 지역의 대표자들이 참가했다.⁶⁸

-
- 61 「長白山高山花園：七月鮮花悄然盛開」(2014.7.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의 ‘政務動態’ 항목(<http://www.changbaishan.gov.cn/>).
- 62 「長白山高山牡丹園即將開園迎客」(2017.6.16),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lygl/lydt/201706/t20170616_83886.html).
- 63 「2019長白山粉雪節隆重開幕」(2018.12.2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812/t20181227_123953.html).
- 64 「2014年“長白山杯”首屆全國雪地摩托越野挑戰賽落幕」(2014.3.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
- 65 「2021長白山滑雪定向挑戰賽舉行」(2021.3.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3/t20210308_165318.html).
- 66 「2017中國長白山“長春建工杯”雪地摩托越野錦標賽鳴槍開賽」(2017.3.1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lygl/lydt/201703/t20170317_62347.html).
- 67 「長白山冰雪汽車拉力賽：競爭激烈 黑馬突出重圍暫列首位」(2019.2.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2/t20190224_125501.html).

2019년 7월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2019년 전국경보(競步)선수권대회’가,⁶⁹ 동년 월에는 ‘2019년 장백산 여름등불축제(夏燈會)’가 열렸다.⁷⁰ 동년 12월에는 장백산관리위원회, 길림성문화관광청, 항주시인민정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 14회 장백산 눈(雪)문화 관광축제’에서 “천지의 물로 끓인 용정차(龍井茶) 맛보기”, “생태천당(生態天堂)”, “인간(人間)천당” 등의 슬로건하에 백두산 빙설 그림 전시회, 눈조각 경연대회, ‘천지배(天池杯)’ 신춘 서화 경연대회, 설상차(雪上車) 경주대회, 설상 축구대회 등이 펼쳐졌다.⁷¹ 2019년 12월에는 “백산흑수(白山黑水)의 겨울연가”라는 슬로건하에 길림성과 흑룡강성 공동의 ‘문화여행 합작교류’ 행사가 하얼빈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고속철도를 이용해 길림으로 가자!”라는 슬로건하에 백두산의 다양한 문화여행상품이 소개되었다.⁷²

2019년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는 백두산을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 목적지로 조성’ 하겠다는 계획하에, “장백산을 돌아보자!”라는 슬로건하에 동년 5월 ‘2019년 환(環)장백산 삼림 자전거타기 행사’가 열렸고,⁷³ 2020년 6월에는 ‘자

68 「2019年中國長白山國際林海雪地馬拉松節隆重啓幕」(2019.3.31),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3/t20190331_126524.html).

69 「2019長白山全國竟走冠軍賽圓滿落幕」(2019.7.21),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7/t20190721_141044.html).

70 「“夢幻長白夜炫彩新時代”2019長白山之夏燈會嘉年華燃情開放」(2019.7.19),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7/t20190719_141037.html).

71 「“生態天堂”冬日邂逅“人間天堂”」(2019.12.2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12/t20191227_145513.html).

72 「長白山管委會赴黑龍江開展“白山黑水的冬日戀歌”文旅交流活動」(2019.12.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12/t20191205_144436.html).

73 「2019環長白山森林自行車騎行活動開幕」(2019.5.1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5/t20190518_136127.html).

전거 야간 산행 축제'가 열렸다.⁷⁴ 2020년 9월에는 '제1회 장백산배드민턴문화 축제'가 열렸다.⁷⁵ 2020년 12월 장춘에서 열린 '제5회 길림국제빙설(氷雪)산업 박람회'에는 "12도의 부드러운 눈꽃 따뜻한 만남(十二度粉雪 溫暖相約)"이라는 슬로건하에 백두산 전시실이 마련되었다. 이 전시실에는 백두산 특유의 구름, 눈과 얼음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자원 체험을 알리는 내용 등이 전시되었다.⁷⁶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는 각각 '장백산 눈 덮인 산림 마라톤 축제'가 열렸고,⁷⁷ 2019년 7월에는 '천지구름길(天池雲路) 등산대회'가 열렸다.⁷⁸

2019년 12월 장백산보호개발구 북경구(北景區)의 국가 고원(高原) 빙설 훈련기지에 '삼림야설공원(森林野雪公園)'이 개장되었는데, 여기에는 총길이 3.5km의 스키장이 조성되었다. 중국에서는 이 공원에 겨울 동안 많은 눈이 내리고 눈의 질이 우량해서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⁹ 2020년 11월부터는 '장백산 평화 사계절 스키공원(長白山和平全季滑

74 「2020年“環長白山”百日騎行系列活動之池北區夜騎巡遊活動舉行」(2020.6.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06/t20200624_152279.html).

75 「2020年首屆長白山羽毛球文化節開幕」(2020.9.2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09/t20200922_160480.html).

76 「長白山以“十二度粉雪 溫暖相約”爲主題亮相第五屆雪博會」(2020.12.2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12/t20201228_162936.html).

77 「長白山特色雪地馬拉松向天跑活動落幕」(2019.4.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4/t20190402_127377.html); 「2021中國山地馬拉松系列賽—吉林長白山站暨第二屆長白山林海雪地馬拉松賽賽事調度會召開」(2021.4.1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4/t20210412_166455.html).

78 「首屆長白山登山大會暨“百城千山”系列活動調度會議召開」(2021.7.23),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7/t20210723_169827.html).

79 「長白山北景區森林野雪公園日前開幕」(2019.12.27), 『長白山保護開發區管

雪公園)’과 ‘장백산 홍송왕(紅松王) 스키장’이 각각 개장되었다.⁸⁰

2021년 1월에는 ‘제15회 장백산 눈문화 관광축제’의 개막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개막식에서는 ‘백두산이 중국 북방민족을 잉태·양육하고 관동(關東)문화를 축적한 인문의 원천이며, 송화강·두만강·압록강의 발원지이자 자연의 원천’이라는 점, ‘백두산이 북방민족 문화의 원천, 생태의 원천, 민족의 원천’이라는 점, ‘눈과 얼음 자원을 개발해서 눈과 얼음을 매개로 한 각종 문화, 스포츠, 경기대회, 경축 활동 등을 육성하는 동시에, 장백산국제생태레저지 추진을 국가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장백산 눈문화 관광축제’ 기간에는 눈 덮인 산림(林海雪地) 마라톤대회, 빙설 자동차경주대회, 설상 축구대회, 레프팅, 눈 쌓인 계곡 뚫고 지나가기, 노천온천 및 빙벽등반 체험, 설상 오토바이 타기 등 각종 눈과 얼음을 매개로 한 행사가 열렸다.⁸¹

2021년 3월 ‘2021년 장백산 농상행배(農商銀行杯) 빙설(冰雪) 자동차 랠리’가 열렸다.⁸² 동년 5월에는 ‘중국 여행의 날’에 맞추어 백두산 지역이 국제적인 슬로 시티로서 자전거 여행의 본산이자 세계적 수준의 생태여행 목적지임을 알리기 위해 ‘제3회 장백산 517 사이클링(騎游) 여행문화주간’ 활동의 일환으로 백두산 내의 다양한 숲속 코스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행사가 열렸다.⁸³ 2021년

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12/t20191227_145519.html).

80 「長白山和平全季滑雪公園開板 配套升級迎接新雪季」(2020.11.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11/t20201124_161998.html); 「長白山紅松王滑雪場2020-2021新雪季正式開板」(2020.11.13),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11/t20201113_161737.html).

81 「第三屆長白山粉雪節暨第十五屆長白山雪文化旅遊節盛大啓幕」(2021.1.10),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1/t20210111_163198.html).

82 「2021環長白山“農商行杯”冰雪汽車拉力賽開幕」(2021.3.10),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3/t20210310_165432.html).

7월에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대희태하(大戲台河) 관광 지구’ 출범식이 열려, 이 지구가 생태문화관광의 핵심으로서 백두산 문화관광산업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⁸⁴ 2021년 9월 노수하(露水河)에서는 ‘제2회 노수하 장백산 수렵 리조트에서 단풍과 미식(美食)을 즐기는 축제’가 열렸으며, 스플릿 워킹(分健步走), 산악자전거, 카약(皮劃艇) 등의 스포츠 대회도 벌어졌다.⁸⁵ 같은 시기 ‘제20회 중국·길림·교하(蛟河) 장백산 단풍관광축제’가 열려⁸⁶ 가을의 백두산을 감상하고 홍보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되었다.

IV. 맺음말

중국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동북지역의 낙후한 공업지구 등을 발전시키려는 전략(‘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중국정부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문화관광산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지침과 더불어 동북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백두산 지역을 관광하는 길림성

83 「騎游長白山慢行山水間」(2021.5.1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5/t20210518_167531.html); 「第三屆長白山“517”騎游文化周系列活動暨啓動儀式舉行」(2021.5.1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5/t20210518_16753.html).

84 「長白山大戲台河景區盛裝啓航」(2021.7.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7/t20210705_169214.html).

85 「第二屆露水河長白山狩獵度假區楓葉美食節暨戶外運動大會開幕」(2021.9.29),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9/t20210929_172677.html).

86 「第二十屆中國·吉林·蛟河長白山紅葉旅遊節開幕」(2021.9.28), 『吉林市人民政府官網』(http://www.jlcity.gov.cn/yw/yw_tp/202109/t20210928_986372.html).

정부에서는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의 문화관광산업 발전계획(「吉林省旅遊業發展“十二五”規劃」)과 더불어 백두산 권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계획요강(「長白山文化建設規劃綱要」)을 제정하고 ‘장백산문화’를 길림성의 대표문화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문화적 귀속권과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강화시키면서 백두산 등지의 생태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백두산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이다. 중국정부에서는 이 공정의 일환으로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계획(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計劃)」(「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과 연계해 장백산문화 산업지대를 만들고 문예상품 전략 등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3년 ‘일대일로’ 정책이 추진되고 2015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跨境) 관광합작사업 추진을 지시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산업 합작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3월 백두산은 ‘창바이산’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

길림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의 방향은 크게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문화적 귀속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론체계의 확립과, 백두산에 대한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백두산의 역사문화, 자연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이다. 전자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중국의 역대왕조가 장백산을 관할해왔으므로 장백산은 중국의 산”이라는 ‘장백산문화론’, “장백산=만주족의 발상지”, “만주 및 그 핵심인 장백산의 주인=숙신계 민족”이라는 논리를 추창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백두산의 겨울철 ‘빙설’과 여름철 ‘피서’, 봄과 가을철 자연생태, 사계절의 레저·스포츠·축제 등의 테마를 바탕으로 문화와 관광을 결합시킨 ‘환장백산(環長白山)’, 즉 백두산을 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려는 데 있다. 또한 ‘대(大)장백산 권역’과 길림시를 ‘빙설 산업지역(大區域)’으로 설정한 뒤 빙설과 온천을 결합한 장백산 국제생태 레저 관광지를 조성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빙설관광지대를 만들려는 목표하에 빙설을 테마로 한 생태 스포츠센터, 레저용 리

조트 등을 건설하고 스키장과 온천 휴양지의 조성, 겨울 낚시 및 빙설체험 관광상품의 개발, 삼림지역을 관통하는 관광열차노선의 부설, 임해설원(林海雪原)을 뚫고 지나가는 관광 올레길 조성, 대규모의 국내외 스포츠 대회 및 ‘빙설 실크로드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빙설과 온천을 테마로 한 백두산-장춘-길림-연변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리조트 지대의 개발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 기간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속에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 전체 인민이 문화관광산업의 혜택을 누리는 주객(主客)의 공동 향유(共享),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 양측의 신속한 개혁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양산(兩山), 즉 백산시(白山市)와 장백산(長白山)’ 이론을 실천하고 ‘양산’ 지역, 즉 백산시와 장백산 권역을 이념적 시험지구로 삼아 두 지역을 일체화해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 기간 ‘일대일로’ 정책에 기초해 몽골-중국-러시아를 잇는 경제통로(走廊)의 일환으로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해 압록강·두만강과 북한의 접경지대, 훈춘(琿春)과 러시아 연해주의 접경지대를 연계해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시적인 정책적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조선족과 만주족 등의 민속문화, 만주국 시기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의 항일유적지 중심의 홍색(紅色)문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적, 사계절 스포츠·축제 등의 테마를 활용해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지역 간의 체계적인 관광시스템 구축도 꾀하고 있다.

백두산 권역을 관장하는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관광산업정책으로 관광개발 단계를 관광상품 체험을 유발하는 관광 발전 단계로, 전통적인 관광여행을 휴양지·리조트 관광형태로, 계절성 관광을 사계절 관광으로, 정태적인 전통문화의 전시·활용방식을 동태적이고 창의적인 활용·계승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얼음과 눈, 온천, 삼림, 민속 등의 우수한 자원을 빙설 스포츠 리조트, 온천 리조트, 삼림휴양지, 민속문화 테마파크 등으로 조성하는 문화관광산업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장백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속문화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민속문화제

승공정(民俗文化提升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성산성수(神山聖水)’, ‘고국용맥(故國龍脈)’을 주제로 한 ‘문화 뿌리 찾기 공정(文化溯源工程)’의 일환으로, 만주족 문화 테마파크의 조성, 만주족 언어문자·팔기(八旗)제도·신앙·복장 등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육성 차원에서는 여진족의 발원지로 일컬어지는 놀은고성(訥殷古城), 금대(金代) 황제의 백두산 제사유적지라고 규정된 신묘(神廟)유적지(寶馬古城) 등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하에 백두산 신묘유적지의 복원, 신묘유적지박물관(神廟遺址博物館)의 건립, ‘놀은고성의 동쪽 부분으로의 확장 공정(訥殷古城東擴工程)’, 장백산신묘유적지고고공원(長白山神廟遺址考古公園) 등을 건설해 중국 북방민족 발상지의 표상을 만들려고 한다.

결국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 관광정책은 ‘동북진흥전략’,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개발계획’, ‘일대일로’ 등의 국가전략이 집약되어 투영된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의 틀 속에서 백두산에 대한 중국의 역사문화적 귀속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백두산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해 문화관광산업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는, 다시 말해 ‘문화’와 ‘관광’을 결합시킨 ‘뉴패러다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백두산 수계인 압록강-두만강 변경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연계한 초국경(跨境) 문화관광산업의 증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중국 관광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해 북한에서도 백두산 천지 인근의 삼지연군(三池淵郡) 내에 ‘관광 신도시’인 삼지연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의 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변경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을 매개로 ‘일대일로’ 정책을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북한까지 확장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북한의 대(對)중국 개방과 경제건설 전략이 맞물리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산업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면 관계상 별도의 지면에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자료

- 「2014年“長白山杯”首屆全國雪地摩托越野挑戰賽落幕」(2014.3.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
- 「2017長白山國際冰雪嘉年華活動將舉行」(2016.12.1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sjts/201701/t20170112_24045.html).
- 「2017中國長白山“長春建工杯”雪地摩托越野錦標賽鳴槍開賽」(2017.3.1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lygl/lydt/201703/t20170317_62347.html).
- 「2019年中國長白山國際林海雪地馬拉松節隆重啓幕」(2019.3.31),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3/t20190331_126524.html).
- 「2019長白山粉雪節隆重開幕」(2018.12.2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812/t20181227_123953.html).
- 「2019長白山全國競走冠軍賽圓滿落幕」(2019.7.21),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7/t20190721_141044.html).
- 「2019環長白山森林自行車騎行活動開幕」(2019.5.18),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5/t20190518_136127.html).
- 「2020年“環長白山”百日騎行系列活動之池北區夜騎巡遊活動舉行」(2020.6.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06/t20200624_152279.html).
- 「2020年首屆長白山羽毛球文化節開幕」(2020.9.2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09/t202009_22_160480.html).

- 「2021長白山滑雪定向挑戰賽舉行」(2021.3.8),『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td/zwtd/202103/t20210308_165318.html).
- 「2021中國山地馬拉松系列賽-吉林長白山站暨第二屆長白山林海雪地馬拉松賽事調度會召开」(2021.4.12),『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td/zwtd/202104/t20210412_166455.html).
- 「2021環長白山“農商行杯”冰雪汽車拉力賽開幕」(2021.3.10),『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td/zwtd/202103/t20210310_165432.html).
- 「加大保護發展弘揚力度 推動吉林文化發展繁榮-省政協舉辦長白山文化發展論壇」(2012.6.28),『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zwgk/zwtd/zwtd_2012/201206/t20120628_1234395.html).
- 「加快建設特色城鎮 發展壯大優勢產業努力提升長白山科學發展國際化水平」(2014.1.9),『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http://cbs.jl.gov.cn/>).
- 「關於支持沿邊重點地區開發開放若干政策措施的意見」(國發[2015]72號)(2015.12).
- 「關於推進長白山文化與旅游產業融合發展的建議(24號)(2013.10.29),『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zwgk/yatabl/dpttta2010/2011_38837/201310/t20131029_1554874.html).
- 「國家旅游局、國家發展改革委關於印發實施《東北地區旅游業發展規劃》的通知」(2010.3.17)『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網站』(http://www.chinaneast.gov.cn/2010-03/17/c_13214227.htm).
- 「國務院關於加快發展旅游業的意見」(國發[2009]41號)(<http://baike.baidu.com/view/3415481.htm?fr=aladdin>).
- 「騎游長白山慢行山水間」(2021.5.18),『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td/zwtd/202105/t20210518_167531.html);「第三屆長白山“517”騎游文化周系列活動暨啓動儀式舉行」(2021.5.18),『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td/zwtd/202105/t20210518_167531.html).
- 「吉林省首個慢行交通系統在長白山建成開通」(2014.7.27),『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政務網』의「政務動態」항목(<http://www.changbaishan.gov.cn/>).

- 「“夢幻長白夜炫彩新時代”2019長白山之夏燈會嘉年華燃情開放」(2019.7.19),『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7/t20190719_141037.html).
- 白山市經合局, 2014.8.27, 「風景這邊更好-白山市旅游產業發展側記」,『吉林省人民政府網』(http://jl.gov.cn/tzjl/tzdt/201408/t20140827_1731402.html).
- 「“寶馬城-長白山金代皇家神廟遺址”考古成果」專家論證會在長白山召開」(2016.10.26),『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j/zsdt/201610/t20161026_39230.html).
- 謝忠岩, 2014.1.9, 「加快建設特色城鎮 發展壯大優勢產業 努力提升長白山科學發展國際化水平-在2014年全區工作會議上的講話」,『吉林省人民政府網』(<http://cbs.jl.gov.cn/>).
- 「“生態天堂”冬日邂逅“人間天堂”」(2019.12.27),『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12/t20191227_145513.html).
- 「首屆長白山登山大會暨“百城千山”系列活動調度會議召開」(2021.7.23),『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7/t20210723_169827.html).
- 荀風栖(中共吉林省委常委, 宣傳部長), 2010, 「啓動長白山文化建設工程-在長白山文化研討會上的書面講話」(2010.7.19),『東北史地』2010年 第5期.
- 「安圖縣打生態牌謀發展路」(2014.8.6),『吉林省人民政府網』(http://jl.gov.cn/rdzt/ztzl/ybcx/zzz60znzt/xwzx/201408/t20140806_1710825.html).
- 「長白山高山牡丹園即將開園迎客」(2017.6.16),『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lygl/lydt/201706/t20170616_83886.html).
- 「長白山高山花園:七月鮮花悄然盛開」(2014.7.8),『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의 ‘政務動態’ 항목(<http://www.changbaishan.gov.cn/>).
- 「長白山管委會關於印發2013年全區生態保護行動方案的通知」(吉長管發[2013]1號)(2013.1.15),『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의 政府文件 항목.
- 長白山管委會交通運輸局, 「長白山保護開發區綜合交通運輸發展“十四五”規劃」, 吉林省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 홈페이지(<http://www.changbaishan.gov.cn/shjj/qhgh/zhjtys/fz145gh/202206/P020230213279874162822.pdf>).

- 「長白山管委會赴黑龍江開展“白山黑水的冬日戀歌”文旅交流活動」(2019.12.5),『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12/t20191205_144436.html).
- 「長白山大轎台河景區盛裝啓航」(2021.7.5),『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7/t20210705_169214.html).
- 「長白山文化產業發展」(2012.4.16),『長白山網』(<http://www.jlcbs.cn/wenhua/wenhuashi dian/2012-04-16/1012.html>).
-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 2021.10,「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劃」(http://www.changbaishan.gov.cn/shjj/qhgh/cbs145whhlyfzgh/202206/P0202206243_89444567830.pdf).
- 「《長白山保護開發區“十四五”文化和旅游發展規劃(2021-2025年)》政策解讀」(2022.4.27)(http://xxgk.changbaishan.gov.cn/szf/zfbgs/xxgkml/202204/t20220429_179393.html).
- 「長白山保護開發區榮獲“2022年冰雪旅游十佳城市”」(2022.1.7)(http://www.changbaishan.gov.cn/zwgk/jgsk/jgdw/lywtj/202201/t20220107_212745.html).
- 「長白山北景區森林野雪公園日前開幕」(2019.12.27),『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12/t20191227_145519.html).
- 「長白山冰雪汽車拉力賽: 競爭激烈 黑馬突出重圍暫列首位」(2019.2.24),『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2/t20190224_125501.html).
- 「長白山森林溫泉養生中心和長白山溫泉部落項目進度明顯 長白山滑冰館項目尚未開工」(2017.9.22),『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709/t20170922_100198.html).
- 「長白山以“十二度粉雪 溫暖相約”爲主題亮相第五屆雪博會」(2020.12.28),『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12/t20201228_162936.html).
- 「長白山入選2013“美麗中國”十佳景區」,『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의 ‘政務動態’ 항목(<http://www.changbaishan.gov.cn/>).

- 「長白山天池古街項目正式開工」(2016.6.17),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606/t20160617_39204.html).
- 「長白山特色雪地馬拉松向天跑活動落幕」(2019.4.2),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1904/t20190402_127377.html).
- 「長白山紅松王滑雪場2020-2021新雪季正式開板」(2020.11.13),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11/t20201113_161737.html).
- 「長白山火山遺址風景區正式對外開放」(2014.4.30),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
- 「長白山和平全季滑雪公園開板 配套升級迎接新雪季」(2020.11.24),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011/t20201124_161998.html).
- 「長白山和平滑雪場正式對外開放」(2012.11.25),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zwdt/xmjs/201211/t20121126_4105.html).
- 「長通白延吉長避暑休閒冰雪旅游大環線發展規劃(2021-2025年)」(<https://www.doc88.com/p-28247071894336.html>).
- 「第三屆長白山粉雪節暨第十五屆長白山雪文化旅游節盛大啓幕」(2021.1.10),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1/t20210111_163198.html).
- 「第十屆文博會：長白山寶馬養生度假古城項目簽約」(2014.5.16),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changbaishan.gov.cn/shjj/zsy/zsdt/201405/t20140516_39101.html).
- 「第十二屆長白山雪文化旅游節盛壯啓幕」(2018.2.9),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lygl/lydt/201802/t20180209_107232.html).
- 「第二屆露水河長白山狩獵度假區楓葉美食節暨戶外運動大會開幕」(2021.9.29), 『長白山保護開發區管理委員會網』(http://www.changbaishan.gov.cn/zwdt/zwdt/202109/t20210929_172677.html).
- 「第二十屆中國·吉林·蛟河長白山紅葉旅游節開幕」(2021.9.28), 『吉林市人民政府

官網』(http://www.jlcity.gov.cn/yw/yw_tp/202109/t20210928_986372.html).

「中共長白山保護開發區工委辦公室文件：關於印發謝忠岩同志在2014年全區工作會議上講話的通知」(長白山黨辦發[2014]1號)(2014.1.9).

「杭州“金城”將投資150億打造長白山冰雪運動小鎮」(2017.9.8)(http://changbai.shan.gov.cn/shjj/zsyj/zsdt/201709/t20170908_99392.html).

논문

- 김신민, 2013, 「신청사와 만주학」, 『만주연구』 제16집.
- 김승채, 1995, 「북경통신:백두산관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北韓』 제285집, 북한 연구소.
- 김재민, 2000, 「백두산지역 리조트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2권 제1호, 한국호텔관광학회.
- 김재민·김경희, 2005, 「백두산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호텔관광학회.
- _____, 2006, 「백두산 관광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호텔관광학회.
- 김춘선, 2002, 「鴨綠·豆滿江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고려사학보』 제12집, 고려사학회.
- 김형중, 2016.9,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의 분석과 전망」, 『東北亞歷史論叢』 제53집, 동북아역사재단.
- 량대언, 2011, 「白頭山(長白山)和中,韓(朝鮮) 國境線 問題」, 『국학연구론총』 제8집, 택민국학연구원.
- 문상명, 2022a,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東北亞歷史論叢』 제76집,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2b,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東北亞歷史論叢』 제78집, 동북아역사재단.
- 박계리, 2011, 「백두산: 만들어진 전통과 표상」, 미술사학연구회, 『美術史學報』 제36집.
- 박찬승, 2013, 「백두산의 '민족 영산'으로의 표상화」,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55집.
-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東洋學』 제43집, 단국대학교 동

양학연구원.

배성준, 2018, 「백두산 연구의 기회와 위기: 1990년대 이래 백두산 연구의 흐름과 과제」, 『한국문화』 제8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승권, 2007,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공항 개선」, 한국기술사회, 『技術士』 제40권 제6호,

_____, 2019, 「백두산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 개선 및 남북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한토목학회지』 제67권 제4호, 대한토목학회.

윤옥,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제47집, 효원사학회.

윤휘탁, 2005.9, 「중국의 東北邊疆政策-‘東北振興戰略’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7집.

_____, 2007, 「中國의 東北文化疆域 認識 考察-“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5집, 한국중국학회.

_____, 2013,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연구와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제51집, 고려사학회.

_____,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東北亞歷史論叢』 제48집,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8, 「滿洲(長白山) 主人論: ‘만주 및 백두산의 역사적 주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론」, 『송실사학』 제41집, 송실사학회.

_____, 2018.6, 「중국의 ‘백두산공정’-‘長白山文化建設工程’에 관한 試論-」, 『中國近現代史研究』 第78輯.

_____, 2019.4, 「중국에서의 ‘滿洲(長白山) 主人論’의 表象化 작업과 의미」, 『中國史研究』 제119집.

이은자, 2008, 「한·중 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

임한수, 1992, 「백두산의 지리적 배경과 관광자원」,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제2집.

정혜중, 2008, 「중국에서의 『청사고』 연구와 평가」, 정혜중·김형중·유장근 공저,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白山學報』 제76집, 백산학회.

_____, 2008,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제79집, 백산학회.

- 조영현, 2012, 「청사공정 10년의 빛과 그림자」, 『민족연구』 52집.
- 진태하, 1990, 「民族의 聖山으로서 白頭山考」, 『인문과학연구논총』 제7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허혜윤, 2009,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국가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다-」,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2집.
- 穆显鑫·曹洪珍, 2013, 「長白山區溫泉旅游資源開發研究」, 『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 2013年 第4期.
- 王颖·徐昌贵, 2022, 「基于共享经济理念的长白山区乡村旅游发展对策研究」, 『西部旅游』 2022年 第6期.
- 王天亮·戴士權, 2015, 「滿族薩滿文化與長白山旅游開發」, 『黑龍江民族叢刊』 2015年 第3期.
- 王品舒·陈芳妹·杨小聰, 2022, 「新時代長白山旅游品牌建設研究」, 『中國集體經濟』 2022年 第3期.
- 苑曉赫, 2016, 「分析長白山國際旅游度假區民俗文化旅游開發現狀與問題」, 「城市旅游規劃」 2016年 9月號.
- 劉剛, 2004.9, 「吉林森工溫泉度假山莊-長白山旅游明珠」, 『長春師範學院學報』 第23卷 第3期.
- 劉明昊, 2022, 「長白山冰雪旅游發展研究」, 『西部旅游』 2022年 第1期.
- 劉小萌, 2010.9.21, 「關於新清史的幾點看法」, 『中國近代史所網』.
- 劉乙諾, 2022, 「長白山冰雪文創產品發展背景下旅游產品設課程教學改革研究」, 『現代商貿工業』 2022年 第19期.
- 李昭勇, 2014, 「強調“滿洲之道”的“新清史”芻議」, 『滿族研究』 2014年 第2期.
- 李英花·吳雨晴·崔哲浩, 2022.9, 「中朝邊境地區跨境旅游合作區建設現狀及路徑探析」,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5卷 第5期.
- 朱鶴·劉家明, 2023, 「旅游導向下自然保護區外圍區空間演變-以長白山國家級自然保護區外圍區為例」, 『自然資源學報』 2023年 第4期.

중국의 백두산 관광정책과 뉴패러다임

윤휘탁

중국정부에서는 2000년대부터 추진한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했다. 특히 길림성 정부에서는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기간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백두산 권역의 생태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백두산의 귀속권과 주도권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장백산이 중국의 산이라고 하는 ‘장백산 문화론’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의 얼음과 눈, 여름철의 피서 여행, 봄과 가을철의 자연생태 관광, 레저·스포츠 대회, 각종 축제, 민속문화 등을 결합시켜 백두산 권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고 있다. 백두산 권역에서는 자연생태 스포츠센터, 관광 리조트, 스키장, 온천 휴양지, 관광열차 노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북한과 협력을 통해 두만강 지역의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지대를 조성하고 있다.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 기간에는 문화와 관광을 융합해 백산시(白山市)와 장백산 권역을 일체화해서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도로망과 철도를 연결해서 국제적인 문화관광 산업지대를 육성하고

있다. 결국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장백산문화건설공정’은 동북진흥전략, 두만강 구역 개발, ‘일대일로’ 등의 국가전략이 집약된 것이다. 이 공정에는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관광산업을 결합시켜 백두산의 역사문화적 귀속권과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백두산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3월 중국은 백두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했다.

주제어: 백두산, 백두산 관광정책, ‘장백산문화건설공정’, 장백산문화론, 자연생태 관광산업, 중국, 동북진흥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초(超)국경 관광지대, 세계지질공원

ABSTRACT

China's Mt. Baekdu Tourism Policy and New Paradi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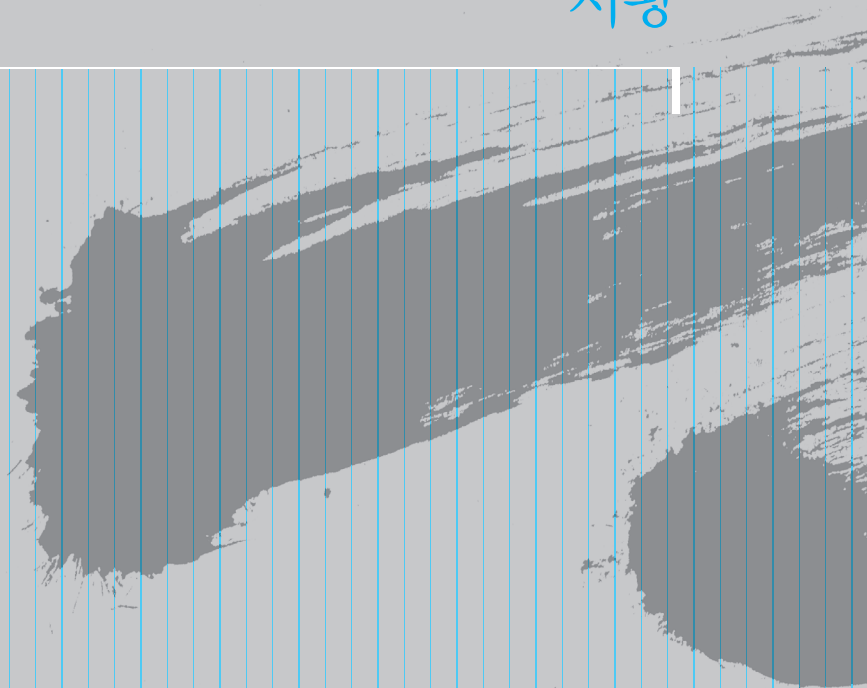
Yoon Hwytak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stered the cultural tourism industry as part of the 'Northeast Promotion Strategy' promoted since the 2000s. In particular, the Jilin Provincial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hangbai Mountain Cultural Construction Project'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2011-2015). This is to foster the eco-cultural tourism industry in the Baekdu Mountain area and strengthen the ownership and leadership of Baekdu Mountain. In China, the 'Changbai Mountain cultural theory' is advocated, which states that Changbai Mountain is a Chinese mountain. In addition, the Baekdu Mountain area is creating a world-class tourist resort by combining ice and snow in the winter, summer vacation trips, natural ecology tourism in the spring and fall, leisure and sports competitions, various festivals, and folk culture. In the Baekdu Mountain area, natural ecological sports centers, tourist resorts, ski resorts, hot spring resorts, and tourist train lines are being built. Furthermore, as

part of the ‘One Zone, One Road(一帶一路)’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is creating a cross-border tourism zone in the Duman River reg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Russia and North Korea. During the 14th five-year plan (2021-2025), the goal is to integrate culture and tourism to integrate Baishan(白山) City and the Changbai Mountain region into a world-class eco-tourism destination. To this end, we are fostering an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industry zone by connecting the road network and railways in the border area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Yalu River and Duman River regions and the Russian Maritime Province. In the end, the Changbai Mountain cultural construction project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s an integration of na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Duman River Area Development, and ‘One Zone, One Road’. In this process, China’s intention is to block the Korean Peninsula’s influence on Mt. Baekdu by combining historical culture and natural eco-tourism industries to secure Mt. Baekdu’s historical and cultural ownership rights and political and economic leadership.

Keywords: Baekdu Mountain, Mt. Baekdu Tourism Policy, ‘Changbai Mountain Cultural Construction Project’, Changbai Mountain culture theory, natural ecology tourism industry, China, northeast promotion strategy,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transnational tourism zone, UNESCO Global Geopark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공 관계하의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를 논하다

— 『인삼과 국경』(김선민, 사계절, 2023)

양정필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들어가면서
- 책의 구성과 내용
-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지대’ 설정
- ‘국경지대’에 대한 단상
- 인삼 서술에 대한 단상
- 마치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들어가면서

서평자는 인삼 논문을 몇 편 쓴 적이 있다. 그때 인삼은 대부분 한국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인삼은 한반도뿐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서도 자생했다. 그 지역 인삼의 역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공부하지는 못했다. 항상 마음 한편에는 만주 인삼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선민 교수가 청대 만주 인삼을 소재로 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접했다. 반갑게 읽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단행본을 출간하였으니 개인적으로 관심과 흥미가 매우 컸다. 그래서 서평 의뢰가 왔을 때 흔쾌히 수락했다. 김선민 교수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논문학위를 받았다. 그때 제출한 학위 논문을 일찍이 미국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인삼과 국경』은 그 번역본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서평자로 책임자인지를 의심하게 되었다. 책의 제목이 『인삼과 국경』인 만큼 인삼의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의 핵심 문제의식이 인삼에 있지 않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조선과 청국 간의 영토 인식과 경계 변화에 있다. 인삼은 범월 채삼으로 인해 경계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영토 인식과 경계 문제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인삼보다는 오히려 청과 조선 사이의 조공 관계였다. 그리고 저자는 청과 조선 사이의 경계가 ‘변경 → 국경지대 → 국경’으로 변천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 ‘국경지대’가 핵심 키워드에 해당한다. 인삼은 ‘국경지대’와 ‘조공 관계’ 보다는 덜 중요한 키워드이다. 인삼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국경 문제라든가 조공 관계 등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한 논평자로서 책임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성과가 미국 학계의 중국사 연구, 특히 ‘신청사 학파’로 일컫는 새로운 연구 경향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서평자로서는 부담을 느낀다. 한국사 전공자로서 청대사 연구 경향은 물론 신청사 학파의 연구 경향도 잘 알

지 못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성과를 서평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저함이다. 이처럼 서평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자의 의도와 논지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그런데 서평을 수락한 지 꽤 지났고, 인삼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고 책을 매우 재미있게 읽었으므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몇 자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평에 임한다.

이 책에는 많은 장점이 녹아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뛰어난 문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책을 술술 읽어 나갈 수 있다. 또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논지 전개도 매우 세련되었다고 느꼈다. 논문이든 단행본이든 독자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미덕이다. 이는 다루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이해가 명확하고 나름의 역사상을 잘 구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사료를 읽었으나 그 사료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논지, 하나의 역사상을 온전히 구성하지 못한 논문은 읽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은 몇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이 책이 지닌 장점을 알게 되고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미국 독자들, 넓게는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서 저술되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저자의 회고에 의하면, 듀크 대학교의 대학원생조차 동아시아 역사를 잘 모르면 전근대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저자는 중국과 한국을 함께 설명해주기로 하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을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최근 한류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대중문화에 국한된 현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 외국인은 드물다. 한국의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아쉬움이 있다. 이런 현상이 외국인들 탓은 아니다. 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접할 기회나 정보가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권 독자들에게 조공 관계를 통해서 조선과 청의 역사를 풀어낸 이 책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청사 학파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라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판 서문을 읽어보면 고전적인 조청 관계 인식이 고정적이어서 변화의 측면을 파악

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최근의 조청 관계 연구는 중국 중심적 입장에 치우친 연구가 부상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족에 초점을 맞추고 시기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추적한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청조를 이해하려는 신청사 학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조·청 관계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 이 책은 연구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이 책을 서평하기 위해서 II장에서 목차를 소개하고 목차의 장별로 주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는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조청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국경지대’ 설정에 대한 서평자의 감상을 적고, V장에서는 인삼 서술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적고자 한다.

II. 책의 구성과 내용

『인삼과 국경』이 대상으로 삼는 시기는 조선 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이다. 조선 전기 및 명대의 경우 1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2장부터 5장까지의 4개의 장은 조선 후기 및 청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은 조선 후기·청대에 초점을 맞춘 한 연구 성과임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주된 문제의식은 조선과 청국 사이에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고 면으로 넓게 퍼져 있는 ‘국경지대’가 존재하였고, 이 ‘국경지대’는 조선 말기가 되면 ‘국경선’으로 정착되어갔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조선과 청 사이의 영토 인식과 경계 형성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있다.

‘국경지대’를 설정하는 데는 청의 봉금 정책도 영향을 끼쳤지만, 국경을 넘어서 인삼을 불법 채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도 그 목적이었다고 한다. 인삼은 국경지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편, 국경지대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조·청 두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조공 관계의 특수성이었다. 청조의 지방 관리들은 17세기에 전반기에 국경 지역

의 공한지를 축소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조공 관계의 수사 등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했다. 이처럼 ‘인삼’, ‘국경지대’, ‘조공 관계’ 등은 이 책을 관통하는 3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키워드를 통해서 저자가 논지를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책의 목차이다.

들어가며

1장 변경에서 국경지대로

2장 국경지대의 형성

3장 국경지대의 관리

4장 사람과 재화의 이동

5장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

마치며

목차에서 보듯이, 모든 장 제목에 ‘국경지대’가 들어가 있다. 4장에는 명시적으로 국경지대라는 용어가 없지만,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경지대로 설정되어 있다. 목차만 보더라도 이 책에서 핵심 키워드가 ‘국경지대’임을 알 수 있다. 목차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마련되었고 동시에 국경지대의 형성, 관리, 활용 및 변경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1장은 조선 전기 및 명대에 해당한다. 2장은 흥타이지 및 강희제 시기, 3장은 강희제 후반 및 옹정제와 건륭제 시기를 주로 다루고, 4장도 대체로 18세기를 대상으로 한다. 5장은 19세기 후반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각 장의 소제목 및 주요 내용이다.

1. 1장 변경에서 국경지대로

요동 변경과 인삼 / 명대 동북방과 여진 / 조선 북방의 여진인 / 누르하치의 등장 / 여진의 경계 세우기 / 조선, 그리고 범월 / 청나라 만주 인삼

이 장에서는 요동의 위치와 역사, 인삼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주

로 15~16세기 명과 여진, 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개괄하고 있다. 당시 여진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아직 통합된 정치체를 구축하지 못했다. 명은 이러한 여진족을 대상으로 분할 통치함으로써 그들의 통합을 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변시 등을 통해 교역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책에서는 이 시기의 만주를 ‘변경’이라고 칭한다. ‘변경’은 ‘국경지대’로 바뀌어가는데 그 중심에는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있었다.

16세기 후반부터 누르하치는 변시 등의 교역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일으켜 여진 여러 부족을 통합해갔다. 홍타이지 시기가 되면 후금을 건국하고 특히 조선에 대해서 두 차례 침략 전쟁을 통해 조공 관계를 수립했다. 이때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자연 자원들을 둘러싼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전쟁 이후에도 범월 채삼하는 조선인들이 있었다. 청대 전반에 걸쳐 만주인 통치자들은 조선과의 조공 관계를 재설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국경지대를 유지해야 했다고 한다. 범월 채삼을 국경지대 형성에 매우 중요한 동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2. 2장 국경지대의 형성

청의 제국 건설 / 청의 동북방과 인삼 / 장백산과 백두산 / 장백산 탐사 / 묵당의 파견 / 공유된 상징, 분리된 경계

이 장에서는 1712년 백두산(청대사 연구서인 만큼 책에서는 주로 ‘장백산’으로 표기함) 지리 측량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삼번의 난 및 대만을 점령한 정씨 일가의 난을 진압한 강희제가 만주에서 러시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사 방비를 단단히 하고 아울러 제국의 지리적 형세를 파악하고 그 강역을 지도에 담는 사업에 착수했는데, 백두산 탐사는 그 대계의 일부라고 한다. 백두산 측량은 청 제국 내 만주인의 지위를 향상시킨 측면도 있었다. 만주인의 고토로서 장백산은 특별한 정치적 관심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더해서 황실의 재원인

인삼을 비롯한 이 일대 자연 자원을 보호할 필요도 있었다. 또 측량 경과와 결과를 통해 영토 및 주권을 둘러싼 양국 조정의 인식, 불균등한 조공 관계가 경계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백두산 탐사에서 청조는 조선에 대한 청의 우위를 드러내고, 조선과의 영토 경계를 명확히 하는 목표를 추구했다. 전자는 조공 관계, 후자는 영토성과 주권과 관련이 있다. 청은 탐사를 통해 장백산에 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조선과의 경계는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만강 수원의 위치와 청 강역의 경계는 모호한 상태로 남았다. 그 결과 두 나라 사이에 ‘국경지대’가 형성되고, 이 국경지대는 조공 틀 안에서 허용되고 규정되었다고 한다. 이 장을 통해서 저자가 설정한 조·청 간 ‘국경지대’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 공간적으로 그곳은 백두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두만강 상류의 수원지였다. 이 지역이 ‘국경지대’로 설정된 이유는 1712년의 조사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경지대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3장 국경 지대의 관리

유조변 / 신성한 고토의 인삼 / 제국 내 복수의 경계 / 지속된 범월 / 망우초 초소 / 변경에서 제국의 권위

이 장에서는 우선 만주 봉금 정책을 살펴본다. 봉금 정책은 한인으로부터 만주인 본연의 문화와 법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청조는 북경 천도 이후 유조변을 개척하고 인파를 감시하는 변문을 세워 만주의 봉금을 유지했다. 이어서 만주의 봉금 정책과 인삼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1745년에 관삼국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인삼 할당량을 확보하고 만주 내 불법 채삼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주 봉금 정책이 청과 조선의 국경지대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가운데 조공 관계의 수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선의 이익을 증진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청의 지방 관리들은 압록강 지류 중 한 곳인 망우초에 초소를 설

치해서 불법 채삼을 단속하고자 했다. 조선은 압록강 가까이에 청의 초소가 설치되면 민인이 모여들고 나아가서는 범월 문제를 일으켜서 국경지대가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청 조정에 초소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냈다. 결국 강희제와 건륭제는 결국 조공 관계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즉 대국의 성군이 소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초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도 ‘국경지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청과 조선의 영토관은 불균등한 조공 관계에 기초해 있었기에 두 나라의 경계 인식은 근대 국가들의 국경관과 결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압록강 이북 지역에는 넓은 공한지가 존속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두 나라의 경계는 “수평으로 넓게 퍼진 두꺼운 선”, 달리 말하면 ‘국경지대’에 가까웠다고 보고 있다.

4. 4장 사람과 재화의 이동

조선 사행단 / 교역의 기회 / 운송 사업 / “청에 빚을 져 나라를 욕되게 하다” / 은화 도둑 사건 / 사건 처리의 확대 /

이 장에서는 청과 조선이 맺은 조공 관계의 경제적 측면과 경제적 교역 기회를 통해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접촉에 주목했다. 18세기 봉황성과 성경 일대는 조선 사행으로 교역이 활발해졌다. 청의 변경민들과 조선 상인들은 국경지대에서 다양한 교역 기회를 마련했다. 주로 18세기를 중심으로 단련사 무역, 여마 무역 그리고 청의 난두에 의한 무역 등을 다루고 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조·청의 교역 주체 및 그들 간에 이루어진 교섭 장면 등의 생생한 삽화도 소개하고 있다. 양측의 빈번한 접촉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개 금전 문제였는데, 조선 사행 일원이 은화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조선인들이 은화를 잃어버렸다고 무고하기도 했다. 또 청인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일도 종종 있었다. 조선 상인과 청국 상인 간의 갈등은 종종 양국 사이의 외교 분쟁으로 비화했다. 이처럼 조공 관계는 국경지대로 사람과 재화를 이끌어냈으

며, 그로 인한 접촉과 분쟁 규모가 커지자 중앙의 규제가 가해지기도 했다. 국경 지대와 청의 동북 변경은 조공 관계로 상업화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통제되었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또한 청조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며 정리되었다. 즉, 저자는 조공 관계에 수반된 상업적 교류는 양국의 견고한 정치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시작되고 유지되었다고 본다.

5. 5장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

사라진 인삼, 늘어난 사람 / 공한지 개척 / 강 너머 조선인 / 국경 교섭

이 장에서는 인삼이 사라진 국경지대의 불법 개간 문제와 19세기 말 조선인의 두만강 이북으로의 이주가 양국의 국경 교섭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18세기 말 이래 야생삼이 희귀해지고 인삼업의 이윤이 줄어들자 청조는 더 이상 인삼 독점을 유지할 수 없었다. 반면 경작민의 붕금 지역으로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만주 진출이 본격화되자 청조는 만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 일대를 백성으로 채우는 정책을 실시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조선인들도 두만강을 넘어서 국경지대의 공한지로 이주해 갔다. 이에 청 당국은 조선인 이민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때는 청-조선 관계가 재해석되고 재조정되는 시기였기에 논쟁은 복잡한 성격을 띠었다. 청조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했다. 반면 조선은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쇄신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두만강 이북에 정착한 조선인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 했다. 저자는 이처럼 청-조선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자 양국이 공유해온 국경지대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었으며, 이제 국경지대는 국경으로 대체되어간 것으로 보았다.

III.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지대’ 설정

『인삼과 국경』에서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조·청 사이에 선이 아닌 넓은 면으로 형성된 ‘국경 지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조의 만주 봉금 정책과 유조변 등에 대한 연구, 범월 채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이 책은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명·청대에 걸쳐서 중국과 조선의 접경 지역은 ‘변경 → 국경지대 → 국경’으로 변화해왔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국경지대’가 이 책의 핵심에 해당한다. 5장 체제의 목차에서 1장이 변경에 대한 것이고 5장이 국경에 대한 것이라면, 2~4장이 국경지대에 대한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설정한 ‘국경지대’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조·청 양국에 적용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후자, 즉 필자가 조·청 사이에서 ‘국경지대’를 어느 지역에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장을 달리해서는 ‘국경지대’의 개념과 조·청 사이에 국경지대 설정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조·청 간의 국경지대를 설명하면서 두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다. 하나는 1712년의 백두산 지리 측량이고 다른 하나는 1745년의 망우초 초소 설치 논쟁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국경지대가 어디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1712년의 백두산 지리 측량 문제를 보면, 강희제는 만주 황실의 발상지를 지도에 담기 위해 조선에 백두산 일대 합동 조사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조선인의 범월 채삼 및 청인 살해 사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책에 의하면 강희제의 목적은 조선과의 영토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다. 동북방에서 그의 주요 관심사는 동북 변경의 부족들을 청의 질서 아래 두어 러시아의 확장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탐사를 통해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은 경계선이 아니라 조선의 충성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조선의 목표는 강대국으로부터 자국 강역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만강 수원 문제를 일부러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 조정은 청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청의 관료들은 장백산의 지세를 측량하기 위해 노고를 다했으나 두만강의 수원을 올바로 확정하는 데 실패해 두만강 상류의 경계는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장백산 탐사는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묵당(묵극등)이 비석을 세운 곳은 수원지가 아니었고, 수원지보다 10리는 북쪽에 자리했다. 청 입장에서는 영토 손실이고, 조선 입장에서는 영토 측면에서 유리했다. 묵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저자는 황제의 덕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국경선을 긋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국이 이웃한 소국과 고작 수십 리에 불과한 땅을 두고 다툴 필요는 없었다. 두만강 상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황제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이 맞물림에 따라 묵당의 장백산 탐사는 양국 사이에 국경지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청과 조선 사이의 조공 관계는 양국이 두만강 상류의 모호한 영토 경계를 용인하게 만들었다. 이 모호함이 청-조선 국경지대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망우초 초소 설치 사건 역시 저자의 국경지대라는 문제의식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서문의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즉, 저자는 “1745년에 성경 장군은 압록강 하류의 망우초에 초소를 신설하자는 계획을 건륭제에게 상주했다. 그렇지만 건륭제는 이 상주 대신 압록강변 국경지대의 봉금을 유지해달라는 영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청 황제는 왜 자국 관료가 아니라 조선 국왕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이 책은 조선과 청 양국 영토 경계와 정치 관계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이 양국 영토 경계와 정치 관계의 특수성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백두산 탐사에도 불구하고 동쪽에 위치한 두만강 상류의 경계는 불분명하게 남았다면 서쪽의 압록강 일대는 공한지로 남았다. 18세기 초 조선과의 국경지대 관리를 담당한 성경의 청 관료들은 범월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압록강 인근에 초소를 세우려고 했다. 조선은 사력을 다해 이를 막았다. 많은 논의 끝에 옹정제와 건륭제는 조선 국왕의 청원을 수용해 압록강 북안에 병사를 주둔

시키지 않기로 했다. 천명을 내세운 청의 황제들은 유교적 이상군주를 자처했고, 이는 곧 내지와 외변의 백성을 모두 자애로이 보듬는 성군을 의미했다. 18세기 청의 통치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인접국의 경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오랜 조공국의 경외를 사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청-조선 국경지대의 두 번째 특징인 압록강 북쪽의 무인·완충 지대가 조성되고 유지된 배경에도 청과 조선 사이의 조공 관계가 존재했다.

이 두 사건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712년 장백산 탐사에서 알 수 있듯 양국은 지리 측량을 실시했으며, 망우초 초소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접경에 순찰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 국가와 유사하게 경계의 지리를 측량하고 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국경선을 명확하게 긋지 않았다. 두만강 수원의 정확한 위치는 조선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확정되지 못했고, 압록강 유역의 방대한 땅은 양국의 합의를 거쳐 공한지로 남았다. 그렇기에 청과 조선의 경계는 모호한 면과 명확한 선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경계의 일부에는 명확히 선이 그어진 반면, 두만강 상류를 포함한 다른 일부는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계의 성격은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계획을 물론 그에 대한 양국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국경지대는 변경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국경지대는 두 국가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양측이 상호 인정하는 면으로서의 경계를 뜻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자는 압록강 북쪽 강안부터 책문까지의 공한지 그리고 두만강의 수원지이지만 탐사에서 경계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한 백두산 정상 부근 지역을 ‘국경지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지대는 어떠한 개념이고 이 두 지역을 그러한 ‘국경지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얼마나 강한 설득력이 있을까.

IV. ‘국경지대’에 대한 단상

압록강 북안의 공한지를 다룬 기존 연구 성과들이 있다. 책에 소개된 성과 중에서는 이나바 이와키치의 이해가 주목된다. 그는 공한지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발생했으며, 당시 경계는 명확한 선이 아니라 면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해서 그는 홍타이지가 국경지대의 개간과 거주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조선인의 범월로부터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건륭제가 망우초 초소 계획을 철회한 것은 “북경에 있는 황제의 호의”와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려는 “조선의 역량”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나바의 설명은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삼과 국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인 이해 방식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저자는 국경지대를 공한지로 구성하고 유지한 것은 청과 조선이 현대 국가와는 다른 형태로 영토 경계를 인식하고 다루었다는 방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사용하는 ‘국경지대’는 어떤 개념일까. 저자는 국경지대의 개념을 시암과 일본사 연구자로부터 시사를 받았다. 즉, 통차이 위니차클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시암이 생각하는 주권의 영역은 경계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전근대 국가의 경계는 종종 “넓은 수평적 배경을 가진 두꺼운 선”으로서 “모호하고 겹쳐 있었다.” 그러므로 “주권과 국경은 일치하지 않았다. ... 국가의 세력권은 영토 보전 개념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었다.” 저자는 일본사 연구자들의 성과도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성과를 통해서 저자는 경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인접국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재러미 애덜먼과 스티븐 애런은 “변경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적 혼용의 공간”으로 정치적 함의가 축소된다면서 ‘국경지대’와 ‘접경지대’라는 개념을 더해 이를 보완한다. 그들이 정의하는 “국경지대는 제국들의 교류와 경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식민지 영토 사이의 분쟁적인 경계”로, 근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유동적이고 포괄적인 국경지대는 더 고정적이고

고착화된 접경 지대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외국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청과 조선 사이에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서평자가 이 분야 공부가 부족한 탓일 수 있지만, 시암과 영국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과 아이누 등 주변 복속국 사이에서 도출된 ‘국경지대’ 개념을 조선과 청의 영토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압록강 북안의 공한지와 백두산 정상 부근의 두만강 수원지 일대를 ‘국경지대’로 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재러미 애덜먼과 스티븐 애런에 의하면 ‘국경지대’는 ‘제국들의 교류와 경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식민지 영토 사이의 분쟁적인 경계’라는 것이다. 이 서술을 보면 ‘국경지대’는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둘 혹은 그 이상의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혹은 제국주의 국가와 피식민지의 위기에 처한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로 설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경우 경계는 선이 아니라 면이면 당장의 무력 충돌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서로에게 이로울 수 있다. 만약 이런 이해가 가능하면 ‘국경지대’를 설정하는 주체는 제국주의 국가들 혹은 식민지의 위기에 처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경지대는 어느 제국주의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완충 지역으로 남아 있되, 향후 세력 관계에 의해 어느 한 국가로 편입될 운명인 것 같다.

‘국경지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국경지대’를 압록강 북안의 공한지에 적용하는 것에 회의적인데 그 이유는 압록강 북안은 명백히 청국 영토였기 때문이다. 그 지역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국 사이에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분쟁 지역도 아니었다. 다만 민인의 거주와 개간을 금지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청조의 필요성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였다. 조선은 공한지의 존재로 해서 범일 문제를 방지하고 양국 간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조가 그곳을 초소 등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공한지로 둘 것을 청원했고 관철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조공 관계의 수식, 즉 자애로운 천자가

소국을 아껴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국경지대’가 대체로 대립하는 제국 간의 갈등이라면, 조선과 청은 대등한 관계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도 아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영토도 명확히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압록강 북안부터 책문까지의 공한지의 청국 영토를 ‘국경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쉽게 수긍되지 않는 것이다.

두만강 수원을 탐사하여 경계를 확정하려는 백두산 탐사의 경우, 영토가 경계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압록강 북안의 공한지보다는 ‘국경지대’의 성격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그 지역은 해발 2,000미터 이상의 고지대로 민인의 출입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곳이다. 때문에 경계 설정이 모호한 채로 남았지만, 150년 넘게 국경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경계가 당장 두 나라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150년 넘게 사람들로부터 방치되었고, 분쟁 지역도 아니었다. 국경지대는 교류와 경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였는데, 그 지역은 그런 공간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두만강 수원지인 백두산 정상 부근 역시 ‘국경지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조금은 회의를 지니게 된다.

4장에서는 조·청 간에 사람과 재화가 활발하게 이동했던 ‘국경지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설정한 국경지대는 저자가 국경지대로 설정한 압록강 북안의 공한지도 두만강 상류의 수원지도 아니다. 4장에서 사람과 재화가 활발하게 오고간 공간은 대체로 책문을 넘어서 처음 나오는 도시인 봉황성에서 성경 일대로 설정되어 있다. 저자가 설정한 ‘국경지대’가 아닌 지역이 ‘국경지대’로 설정되어서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사행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봉황성에서부터 성경 일대로 ‘국경지대’로 볼 수 있는가? 이 지역은 청조의 신민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고 청의 관리가 통치하는 명백한 청조의 영토였다. 이런 곳을 ‘국경지대’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국경지대’로 설정된 압록강 북안부터 책문에 이르는 너른 공한지에서는 범월 등을 행하는 범법자가 간혹 있었지만,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정상적인

교류와 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사행 일행도 그 지역을 지날 때는 이틀 정도 노숙했다. 이 공한 지에는 청인도 조선인도 없고 당연히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공간에서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했다. 이는 저자가 ‘국경지대’로 설정한 지역에서는 시암 등의 사례와는 달리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자가 책에서 소개한 ‘국경지대’ 개념만으로 볼 때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지대로 언급된 지역들이 시암과 영국 사이에서, 일본과 주변 피식민지 지역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국경지대와 과연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V. 인삼 서술에 대한 단상

여기에서는 서평자가 알고 있는 인삼 지식과 다른 부분을 적는다. 우선 42쪽 각 주 4번의 인용문을 조선인의 불법 채삼이 여진인의 인삼 무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자료를 보면, 여진이 조선에 인삼을 판매하면서 1근의 가격으로 16냥을 요구했고, 조선은 9냥에 사겠다고 해서 가격 절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조선 측에서는 조선인은 인삼을 소비하지 않으므로 인삼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 그 가격도 낮아야 한다면서 1근에 9냥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진은 조선인이 범월하여 채삼하는 일을 거론하면서 조선인이 인삼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조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렇게 보면 조선인의 범월 채삼이 직접적으로 여진의 인삼 무역에 피해를 입혔다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45~46쪽에서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를 후대인들은 인삼으로 보고, 인삼을 찾기 위해서 일본과 제주도로 보냈다는 전설의 경우, 비록 전설이라고 하지만 인삼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영성한 이야기이다. 제주도와 일본은 인삼 자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제주도로 보냈다면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는 인삼이 아니거나, 인삼이 맞다면 진나라는 인삼에 대한 지식이 백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진나라가 제대로 된 인삼 지식을 갖고 있고, 불로초로서 인삼을 확보하려 했다면 그 3,000명은 제주도나 일본이 아니라 만주 일대나 한반도로 보내야 한다.

46쪽에서 인삼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시진의 『본초강목』에 실린 인삼 그림을 제시했다. 그런데 『본초강목』의 인삼 그림을 보면 그것이 진짜 인삼, 즉 *panax ginseng*으로서 인삼의 모습이 아니다. 인삼은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올 때 한 지점에서 몇 갈래로 나온다. 그림처럼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 않다. 이시진은 인삼의 약효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었지만 줄기가 달린 인삼 형태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줄기까지 달린 인삼을 본 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인삼과 국경』에 의하면 이시진이 살던 시기 중국 지역에서는 인삼이 거의 멸종되어 땅에서 바로 캔 인삼을 보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시진 이전 시기의 중국에서 인삼이 자생하던 시기에 인삼을 그린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이시진이 그것을 보고 그렸다면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시진은 상상으로 그린 인삼을 수록한 것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내려오던 인삼 그림을 이어받은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이시진 이전 시기에도 인삼 형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서평자는 이시진 시대까지 중국인은 실제 인삼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관내에서는 *panax ginseng*으로서 인삼은 자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7쪽에서 요동지역에서는 요와 금 왕조가 흥기한 뒤로 요동에서도 인삼이 생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만주 일대는 고구려와 발해의 고토이며, 이미 고구려와 발해가 인삼을 채취하여 교역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인삼 채취 및 활용은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마치 요와 금 왕조에서 처음 만주 인삼을 발견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인삼을 청과 조선의 강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다. 즉, “인

삼은 가치 있는 상품이자 여진의 영토 경계를 나타내는 자연적 표지였다.”(78쪽), “청조는 인삼을 만주의 산물이자 만주인의 상징으로 여기며, 그것을 청과 조선의 강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80쪽). “인삼은 여진의 강역을 명·조선과 구분하는 경계 푼말 역할을 했다.”(241쪽)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다소 위험한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여진이 흥기하고 고토로 여기는 만주에서만 인삼이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도 인삼이 자생하였기 때문이다. 인삼은 한반도에서도 자생하므로 인삼이 여진과 조선의 강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여진인이 인삼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정체성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조선과 경계 푼말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VI. 마치며

『인삼과 국경』은 청과 조선의 국경 문제를 흥미로우면서도 쉽게 서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당시 양국의 영토 인식과 경계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영어권 독자들도 조선 후기 역사와 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서평자로서는 제국주의 침략 시기의 영토 문제, 국경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조공 관계하의 조선과 청 사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서평자가 국경지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인한 오해일 수도 있다. 다만 책에서 제시된 간략한 ‘국경지대’에 대한 소개에 의지할 때, 대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침략해가는 과정에서 설정된 ‘국경지대’를 전근대적인 조공 관계하의 조·청 사이의 영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국경지대’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조공 관계’라는 독특한 관계를 맺었던 조선과 청은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영토 인식과 변경 문제에서도 서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청조

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경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두 나라는 인적이 드문 곳인 경우 명확한 국경선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대적인 관점과도, 또 시암이나 일본의 사례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조선과 청은 일반적인 영토 인식 및 경계 획정과 다른 방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조·청 간의 영토 문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특한 사례가 되고, 조선과 청이 맺었던 외교 관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책에서 파악하고 제시한 특징들을 종합해서 ‘국경지대’라는 개념의 차용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 혹은 이론을 고민해서 제시한다면 저자의 연구 성과는 화룡정점을 찍을 것이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언,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장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4호(2024. 6)

초판 1쇄 발행 2024년 6월 30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